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때 : 2023년 5월 12일(금), 오전 10시~ 오후 5시 40분

○곳 : 한글학회 강당

주최: **한글 학회**

후원: 한글재단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 차 례 •

[기조 발표] (사회: 이정택)

곽충구 : 국어사 자료의 해독과 지역 방언: 『조선관역어』의 난해어를 중심으로 7

[제1부/ 주제 발표] (사회: 이관규)

소신애 : 함경도 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29

유필재 : 경기(서울) 방언 연구의 성과와 과제 51

김무식 : 경상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77

[제2부/ 주제 발표] (사회: 이문규)

최영미 : 강원 방언의 성조 변화와 방언 구획 103

김정태 : 충청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131

강희숙 : 서남방언 연구 동향 및 과제—전남 방언을 중심으로— 163

신우봉 : 제주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2010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187

[제3부/ 주제 발표] (사회: 김용경)

정인호 : 평안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219

장승익 : 황해도 방언의 지리적 분화 양상 235

주현희 : 박중화의 『日本人朝鮮語獨學』(1923) 연구
—1910~20년대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와의 비교 고찰 255

명정희 : 의존명사 ‘범’ 구문의 의미와 구조—‘-은 범이-’ 구문을 중심으로— 271

[정태진 선생 탄생 120돌 기념 특별 강연]

권재일 : 정태진 선생의 우리말 사랑 295

기조 발표

국어사 자료의 해독과 지역 방언:

『조선관역어』의 난해어를 중심으로 / 곽충구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기조 발표

국어사 자료의 해독과 지역 방언 : 『조선관역어』의 난해어를 중심으로

곽충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kchg@sogang.ac.kr

1. 머리말

이 발표에서는 잔재지역의 방언 자료를 이용하여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의 국어 사음(寫音) 자료 가운데 난해어로 남아 있는 항목의 해독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어휘, 음운, 의미의 면으로 나누어 몇 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15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관역어』(이하 ‘『역어』’)의 국어 어휘는 문헌어 및 성운학의 지원을 받아 그 해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헌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음의 불투명성으로 아직 미해독 또는 추정으로 남아 있는 예들이 있다. 이처럼 옛 문헌에 수록된 어휘 가운데 해독이 어려운 예들은 방언을 통해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언어사의 기술에 방언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이른바 역사적 잔재(residue)를 지닌 방언을 통해 또는 방언 간의 비교를 통해 언어사를 재구하거나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관점에서 첫째, 『역어』의 미해독 어휘는 방언이 해독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둘째, 현대의 다양한 방언형들을 통해 음운사를 추적하고 그를 통해 『역어』의 사음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재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셋째, 『역어』의 조선어가 지닌 의미가 현대의 그것과 다를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음운이나 형태 외에도 의미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방언을 이용하여 『역어』의 사음 자료를 해독한 몇 연구가 몇 있다. 小倉進平(1936/1944: 178-190) 그리고 이기문(1991: 25)에서는 『역어』의 “燒酒 阿浪氣”의 ‘阿浪氣’는 현대의 방언(또는 심마니말) ‘아랑주, 아랭이, 아래기’ 등의 선대형으로 이는 아라비아어 araq에 기원을 둔 말로 중앙아시아, 튀르키예, 몽골을 거쳐 국어에 차용된 것이라 하였다. 문화지리학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또 김철현(1963: 165)은 “盆 迫尺”에 대하여, “함남방언의 재생처럼 느껴진다. 그리 窻墓를 떨 필요 없이 뜻과 어형이 일치하여 이렇게 解한다.”고 하면서 해독의 직접적인 증거로 함경도 방언의 ‘버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기문(1998)에서는 『역어』의 “糊椒 果綽”(고초)가 ‘후추’임을 입증하기 위해 평북방언의 ‘고추’를 방증으로 삼았다.

역사적 잔재는 함북 북부의 육진 지역이나 제주도처럼 대체로 개신파가 멀리 미치지 어려운 지역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잔재지역의 방언이라고 해서 모두 음운, 어휘, 형태, 의미의 면에서 고어의 잔재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잔재 유형(遺形)은 글자 그대로 잔재(relic form, residue)인 경우도 있지만 음상(phonetic shape)은 그대로이나 의미가 변화한 경우 즉, 형태(form)와 의미의 대응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방언 자료를 이용하여 어휘를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조선관역어』의 난해 어휘와 방언

2.1. 잔재 지역의 방언과 『역어』의 어휘

2.1.1. 草房 敢自直(/kan³-ci⁴#cRji²/)¹⁾ =*가죽집

대부분의 연구는 “草房(=초가집) 敢自直”을 벗과에 속하는 새[草] 무리의 하나인 ‘굴’(갈대)에 초점을 두어 ‘굴새-집’(문선규, 1972: 202), ‘굴짚(?)-집’(권인

1) // 안의 사음자 음운 전사는 권인한(1998)에서 옮겨온 것이다. 이하 동일함.

한, 1998: 134)으로 추정하였으나 “해독인 잘 안 되는 항목”이라 하였다. ‘굴새-집’은 옛말 ‘새집’(=茅屋, 草堂)에 의지한 해독으로 보이는데 ‘自’의 성모로 보나 운모로 보나 ‘새’를 사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어』에서 ‘自’는 국어의 ‘스, 즈, 스, 즈’를 사음하였다.²⁾ 또 ‘굴새’라는 합성어가 과연 존재하였는지 의문이다. ‘띠집’처럼 ‘새’가 붙지 않은 채로 쓰였지, ‘굴새-집’처럼 ‘새’가 덧붙여 쓰였을 가능성은 없다. 한편, 강신항(1995)에서는 벗짚으로 인 집 곧, ‘경짚 집’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위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동북, 육진방언에는 ‘가재기(<가자기<가작+-이)’ 또는 ‘가작’이라는 말이 있다. 광충구(2019)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옥수수 따위의 곡물을 말리기 위해 임시로 지어 놓은, 초막 같이 생긴 집. 기둥을 세우고 가로 막대를 댄 다음 이엉을 엮는다. 집 주위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짓는다.

김태균(1986)의 『함북방언사전』에는 ‘헛간’을 뜻하는 ‘가작’이라는 말이 함북 학성에 분포한다. 또 리운규 외(1992)의 『조선어방언사전』에는 ‘곳간’의 뜻을 가진 ‘가작’이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발표자는 이 ‘가작’이 ‘敢自直(가작+집)’과 관련된다고 믿는다.³⁾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동북, 육진방언의 ‘가작’은 집의 안채보다는 ‘곳간’, ‘헛간’ 또는 ‘초막’ 등을 지칭하지만 이것이 본디 ‘초가(草家)’를 뜻하는 명칭이었을 것이다. ‘곳간’, ‘헛간’, ‘초막’ 등은 ‘草幕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채와는 다른 별채의 공간이다.⁴⁾ 때문에 초가집과는 의미차가 있다. 『역어』의 ‘敢自直’이 현대의 ‘가작’과 다소 의미차를 보이는 이유는, 고유어 ‘가작’, ‘가작집’이 한자어 ‘초가(草家)’로 대체되면서 ‘가작(집)’은 위와 같이 집채(또는 안채)와 구분되는 초막/초당(草幕/草堂)이나 헛간과 같은 별채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2.1.2. 牆 ㅈ/tjəw¹/(권인한), tiw(강신항), diū(현대 한음 병음 표기), =독(H)

小倉進平(1941)은 ‘담’, 강신항(1995: 38)은 “해독이 잘 안 되는 항”의 하나라

2) 초성: 擺齊 格自吉迫列(마즈기버려), 天邊 哈嫩格自(헛늘즈), 江邊 把刺格自(바를즈), 路濼 吉自大(길줄다). 중성: 冬 解自(겨슬), 秋 格自(마슬), 冬至 解自馱那大(겨슬 오나다), 弟 阿自(아스) ….

3) ‘敢’은 세 차례 나오는데 ‘갈’, ‘가’, ‘간’의 음절을 사음한 것으로 보인다. 예: 把敢大(발갈다). 我稜那憂敢大(어름 녹아가다), 敢別色二(*간별슬?).

4) 그런데 함경도에서는 흔히 ‘곳간’은 ‘사랑, 사랑’이라 하고 ‘헛간’은 ‘허덕간’이라 하므로 ‘가작’은 본디 ‘草幕집’일 가능성이 높다.

하고 ‘독’으로 보고 싶다고 했다. 한편, 김철현(1963: 409)은 ‘툑’이라 하였는데 권인한(1998: 93)은 그 해독을 따랐다. 小倉進平의 해독은 중성의 대응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신항의 해독도 중성의 대응을 설명하기 어렵고 ‘塙’(담)과 ‘독’의 의미차도 크다. 권인한(1998: 93)은 ‘툑’의 초성과 ‘툑’의 초성의 불일치 즉 /t, c/와 /tʰ, t/의 불일치를, “당시 漢音에 /thjəw/, /thju/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난 차선의 결과로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툑’은 ‘독’이 아닌 ‘툑’을 사음한 것으로 보고 이를 표기의 문제로 돌린 것이다.

현대의 육진방언에서는 ‘돌로 층층이 쌓은 담’을 ‘뚝[tyúgi]’이라 하는바, 『역어』의 ‘툑’은 그 ‘뚝’을 충실히 전사한 것이다. 그런데 18세기 중기 함북 경흥 지역어가 수록되어 있는 홍양호(洪良浩)의 『북새기략(北塞記略)』에는 “塙壁曰築”이라는 기사가 있다. ‘築’의 고음(古音)은 ‘툑’이므로 위 기사의 ‘築’은 ‘툑’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북새기략』의 기사를 그대로 믿는다면 18세기 중기 이후 ‘툑>독’과 같은 무기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야 하는데 그럴 개연성은 없다. 고유어에서 무기음이 유기음으로 변화한 예(공>코, 갓>갈 등)는 몇이 있지만 근대국어 이후에 어두 위치의 유기음이 무기음으로 변화하는 일은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방언에는 ‘축’, ‘축부름’(벽 또는 돌과 흙 따위로 둘러막은 집의 둘레)이라는 방언이 있다.⁵⁾

또 문헌에는 아래 (1)의 ‘툑판’이 보인다.

- (1) 흐르 세 번식 저희를 밥 주어 비브르 머기고 툑판으로 담애 마가(一日三頓家饋他飽飯喫着 塙板當着塙頭, 『번역박통사』(상: 10)).

요컨대, 현대의 동북, 육진방언에서는 ‘뚝, 죽, 뚝담~죽담, 돌뚝~돌죽’에서⁶⁾ 보듯 ‘뚝, 죽’으로 나타난다. 또 현대의 국어사전에 ‘죽담(<뚝담)’이 실려 있다.⁷⁾ 반면, 문헌에는 (1)의 ‘툑(판)’이 보이고 제주도방언에 ‘축, 축부름’이 쓰인다. 또 현대의 사전에는 ‘축담’이 실려 있다. 요컨대 ‘뚝, 죽, 뚝담~죽담’과 이에 대응하는 ‘축, 축담’이 공존하는 것이다.

위 대응은 몇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첫째, ‘뚝’, ‘툑’은 본디 고유어인가 아니면 한자 ‘築’에서 나온 말인가. 둘째, 『역어』의 ‘塙 툑’은 ‘뚝’을 사음한 것인가

5)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에서 인용.

6) ‘뚝’, ‘뚝담’이 있고 이의 구개음화형 ‘죽’, ‘돌죽’이 있다. ‘뚝’, ‘뚝담’은 육진방언형이고 구개음화한 ‘죽’, ‘돌죽’은 동북방언형이다. ‘뚝’은 ‘돌로 층층이 쌓은 담’이다. 이 밖에 ‘성냥’이란 말도 쓰이며 흙담은 ‘토성’이라 한다(곽충구: 2019).

7) 문순태, <타오르는 강>에 “우물 옆 죽담 옆에 빨갭게 익어 터진 석류를…”이라는 시구가 있다.

아니면 ‘툭’을 사음한 것인가. 셋째, ‘築’에서 기원한 말이라면 어찌하여 ‘득’으로 무기화가 이루어졌는가?

첫째 의문은 한자 ‘築’에는 ‘(돌)담’이란 뜻은 없지만 ‘쌓다’라는 뜻이 있고 또 ‘죽담’, ‘축담’이 존재하므로 ‘득’, ‘툭’은 ‘築’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와 셋째 의문은 논의가 필요하다. ‘築’의 성모는 知組(舌上音)인바, 이에 속하는 한자로는 ‘築’, ‘逐’(澄母) 외에 ‘竹(득)’이 있는데 전자는 유기음으로, 후자는 무기음으로 반영되었다. 端組(舌頭音)에 속하는 ‘竺(툭)’도 유기음으로 반영되었다. 이렇게 知組와 端組에 속하는 한자가 유기음으로 반영된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⁸⁾ 이른바 ‘탁음청화(濁音淸化)’의 대상도 아니고 성부(聲部)에 의한 유추도 아니다. 따라서 한자 고음을 많이 지닌 육진방언(곽충구: 2018)에서 ‘득’이라 하고 또 현대에 ‘죽담’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築’은 본디 ‘득’으로 즉, 무기음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⁹⁾ 이 ‘득’과 유기음화한 ‘툭’이 한 동안 공존하다가 ‘툭>축’은 전승한자음으로 자리를 잡고 ‘득’은 방언에 잔존한 것이다.¹⁰⁾

요컨대 『역어』 “墻 ㅈ”의 ‘ㅈ’의 어두 자음이 /t, ㄷ/라는 점, 육진방언은 ‘득’이라 점, ‘죽담(<득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墻 ㅈ”의 ‘ㅈ’은 ‘득’으로 해독하는 것이 옳다. 고음 ‘득’과 유기음화한 개신음 ‘툭’이 방언과 표준 한자음으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2.1.3. “醬 自蓋(/ci⁴-kaj⁴/)” =*즐게

小倉進平(1941)은 čian, čian-i를 사음한 것으로 보았다. 강신항(1995: 128)에서는 ‘찌게(?)’라 하여 의문으로 남겨 두었다. 권인한(1998: 180)에서도 ‘찌개’라 하고 “自蓋와 찌개의 대응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 하였다. ‘찌개~찌개’는 현대어 ‘찌개’를 염두에 두고 해독자가 해독을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단어일 뿐 문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한어 ‘醬’을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醬類)로만 보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위 두 해독자도 장류가 아닌 ‘찌개’로 보았다. 『康熙字典』은 육장(肉醬), 고기젓, 젓갈, 야채, 된장 따위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고 『漢語大詞典』은 ‘소금 식초 등의 양념에 재운 육장, 장류, 생선 고기 야채 과일

8) 위국봉(2017: 91)에서는 권설음을 조음할 때의 조음 특징 때문이거나 또는 본디 무기음으로 차용된 것이 고대 한국어 내부에서 어두 유기음화가 일부 전승 한자음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河野六郎(1968: 374), 이토지유끼/이진호 역(2011: 133-134)에서는 ‘원인 불명’이라 하였다. 이준환(2008)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9) 방죽(防築)의 ‘죽’도 고음을 반영하고 있는 예가 아닌가 한다.
10) 같은 知組에 속한 ‘忠’이 ‘똥’으로 나타나는 예가 있다. ‘충청도(忠淸道)’, ‘충주(忠州)’를 ‘똥청도, 똥주’(『순천김씨언간』). 이준환(2008, 27-28)에서 재인용.

을 으깨어 만든 식품’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中韓大辭典』은 ‘된장’, ‘된장간장에 절인 식품’ 등으로 풀이하였다. 따라서 『역어』의 ‘醬’은 ‘장류’가 아닌 음식 또는 ‘장에 절인 식품’ 정도를 뜻하는 말로 보인다. 그러니 반찬에 가깝다.

반찬을 뜻하는 말로 위 ‘自蓋(/ci⁴-kaj⁴/)’와 근사한 음상을 가진 방언으로는 ‘즐개’, ‘즐게’, ‘찐개’, ‘찐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즐개’, ‘즐게’는 서북방언과 육진방언권에서 쓰인다.¹¹⁾ ‘自’는 국어의 ‘즈, 즈, 즐, 슻’ 등을 사음하였으므로 ‘自蓋’는 바로 위 ‘즐개~즐게’를 사음한 것이 분명하다.

김철현(1963: 169)에서는, “기이한 말이다. 방언의 “지령”이 “질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질=즐” 즉 “질다=즐다”로 물기 많은 것을 형용하는 말로 “즐개=질개”로 어느 시기에 쓰였다 자취 감춘 방언의 재생이 아닐까? 자못 흥미를 돋구는 말이다.”라 하여 “ci-kai 즐개?”로 추정하고 이를 간장의 방언 ‘지령’과 관련지어 ‘물기가 많은 것을 형용하는 말’로 추측하였다.

2.1.4. “麥 冊閱(/cRhə^x#mjən³/) 墨” =*츨밀(<참밀, 채밀)

小倉進平(1936: 410)에서는 ‘불명(不明)’이라 하였고, 강신항(1995: 64), 권인한(1998: 117)에서는 ‘冊閱’을 ‘츨밀’로 해독하였다. 권인한(1998)은 ‘冊閱’의 한음(漢音)을 /cRhə^x#mjən³/으로 추정하였는데 /ə/는 흔히 15세기 국어의 ‘ㆍ’와 대응된다(권인한, 1998: 309). ‘冊’은 『역어』에 두 차례 더 나오는데, ‘到 迷冊大’(미츠다), ‘扇 卜冊’(부체)에서 ‘冊’은 ‘츠’, ‘처’를 사음하였다.

위 ‘츨밀’의 ‘츨’은 ‘찰기장, 찰벼, 찰옥수수, 찰수수/차수수 …’처럼 차진 곡류(穀類)에 붙는 접두사일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츨밀’로 해독하면 그와 반대되는 ‘메밀(<뫼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메밀’이 존재하지 않는 여건에서 ‘츨밀’은 그 존재 의미가 없다. 때문에 ‘츨밀’로 해독하는 것은 일단 설득력이 없다.

한편, 동북, 육진방언과 중앙아시아 고려말에서는 ‘밀’을 ‘채밀’이라 한다. 이는 ‘츨[眞]+밀>참밀>차밀>채밀’의 변화이다. ‘참밀>차밀’은 동음탈락(haplology), ‘차밀>채밀’은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에 ‘진맥(眞麥)’이라는 한자어가 있다. 또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 ‘참밀’이 사전에 올라 있다. 따라서 이전에 쓰이던 ‘츨밀(츨밀> … >채밀)’이 어떤 연유로 지금은 동북 지방에 잔존하게 된 것이다. ‘채밀’은 중부와 남부방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동북, 육진방언에서 ‘배[梨]’를 산에 자생하는 ‘돌배’에 상대하여 ‘참배’라 하고, ‘밤[栗]’을 참나뭇과에 속하는 나무의 열매(도토리, 상수리, 굴밤 등을 통칭

11) ‘즐개, 찐개’(반찬)(평북 의주, 『한글』 7-7, 1939, 조선어학회). ‘즐게’(찌개, 반찬)(광충구: 2019).

‘밤’ 또는 ‘가둑밤’이라 함)에 상대하여 ‘참밤’이라 하고, ‘감[柿]’을 ‘일년감’(토마토)에 상대하여 ‘참감’이라 하고, ‘바[繩]’를 ‘새끼’에 상대하여 ‘참바’라 하는 것을 보면 동류(同類)의 것들에서 품질이 우수하다거나 식용이 가능한 것에 ‘참-’을 붙인 것이다.

위 ‘채밀(<츄밀, 眞麥)’도 ‘귀밀~구밀(동북방언의 ‘귀리’, 燕麥, 耳麥, 雀麥), ‘호밀(洋麥, 黑麥)’, ‘기장’, ‘유밀(쌀보리, 裸麥)’에 비해 질이 좋은 품종이라는 면에서 또 그들과의 분별을 위해 접두사 ‘츄-’을 붙인 것이다.

2.1.5. 花朵 果迫(/kwo³#pə^x/) =*꽃븐(/븐)

지금까지의 해독을 보면 아래와 같다.

小倉進平1941a: 412): ‘곶-부리’. 곶부리는 ‘꽃뿌리’ 즉, 꽃잎을 말한다.

김철현(1963: 161): 迫을 送의 오자로 보아 ‘곶(곶)-송’으로 해독.

문선규(1972: 158): ‘곶-퍼기’.

강신항(1995: 64): 花朵의 의미를 ‘萼(=꽃받침)’으로 보고 ‘곶-바침’을 사 음한 것으로 봄.

권인한(1998: 117): /kwo³#pə^x/. 미해독. 迫이 오자가 아닌 한, 花朵를 ‘꽃송이, 꽃봉오리’로 보고 문선규의 해석이 개연성이 있다 함.

위와 같이 ‘花朵 果迫’는 그 해독이 다양하다. ‘花朵’는 ‘꽃송이’, ‘꽃망울’, ‘꽃봉오리’를 뜻하는 말이다. ‘果迫’과 음상이 비슷한, ‘꽃봉오리’의 방언으로는 동북, 육진방언의 “꽃보대, 꽃부데, 꽃부데기, 꽃부들기, ‘꽃보동이 …”를 들 수 있다.¹²⁾ 이 밖에 ‘부들기다(=꽃봉오리가 맺히다, 꽃망울이 피려고 불룩하게 도드라지다)’라는 동사가 있고 또 ‘꽃이 진 후 생긴 씨를 감싸고 있는 부분’을 뜻하는 ‘부등매’가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어기를 지닌 파생어들이다. 즉, ‘꽃보대’는 ‘븐+-양이>보댕이>보대’, ‘부데’는 ‘븐+-영이>부댕이>부데’, ‘부데기’는 ‘부데기<부더기<븐+-어기’, ‘부동이’는 ‘븐+옹이’로 분석된다. 어기 ‘븐/븐’에 접사가 결합한 것이다. ‘부들기’는 ‘븐-을기’의 결합으로 분석되지만 ‘-을기’라는 접사는 미상이다. 이 ‘븐/븐’의 어원은 알 수 없으나 ‘봉긋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내민 것’ 정도의 뜻을 지닌 명사일 것이다. 근대국어에 보이는 ‘胸岔上帶皮肉젓부들기’(『漢淸文鑑』 12:30)는 ‘(짐승의) 젓몸이나 젓통을 통속적으로 이

12) 육진방언 자료에는 “꽃부들기, 꽃부들기, 꽃보대, 꽃부데, 꽃부디, 부들기” 등이 있다. 이밖에 꼰보동이(함북) 꼰보디(함북), *꽃부댕이 참고.

르는 말’(『조선말대사전』)인데 이때의 ‘부들기’는 꽃봉오리와 형상이 비슷하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 파생어들의 어기는 ‘븐/븐’일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花朵 果迫’의 ‘果’는 “花園 果把(꽃밭), 花 果思(꽃), 花開 果耶大(꽃열다), 紅花 本根果(밭근꽃)”에서 보듯 ‘꽃’을 표기한 사음자(寫音字)이다. 그리고 ‘果迫’의 ‘迫’은 皆來韻/幫母에 속하는데 ‘迫’pai를 권인한(1998: 117)에서는 /pə^x/로 추정하였다. 迫은 아래와 같이 ㄹ, ㄱ, ㄷ, ㅈ, ㅊ, ㅌ를 표기하였다.

- ㄹ : 水急 悶迫勒大(물 썩르다), 賣 迫刺(파라)
- ㄱ : 山前 磨阿迫(미알피), 午門前 臥悶阿迫(알피), 春前 播妹阿迫, 民 迫升(빅성)
- ㅈ : 山後 磨堆迫(미두헤), 春後 波妹推迫(보매두헤)
- ㅊ : 盆 迫尺(버치), 擺齊 格自吉迫列(ㄱ즈기벌여), 鞠躬 黑立谷迫(허리구버), 金盆 根迫尺(금버치)

핵모음을 대상으로 하면 ‘迫’은 ‘븐’과 ‘버’를 표기한 것이다. 한어의 /ə/는 주로 ‘ㄹ’에 대응하므로 ‘迫’은 ‘*븐’을 사음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참고하면 ‘果迫’은 ‘*꽃븐(이)’로 재구할 수 있다. 이 재구형이 ‘ㄹ>ㄱ’ 원순모음화를 겪은 것이 ‘보대’이고, ‘ㄹ>ㄷ’을 겪은 ‘븐’에 접사가 결합한 것이 ‘부데, 부데기, 부동이’ 등이다.

2.2. 音韻史와 해독

“裙 扯罵”. /cRhjə³-ma⁴/ cf. “妻 結直 扯”.

小倉進平(1941: 64), 강신항(1995: 120)에서 ‘치마’로 해독. 권인한(1998: 171)에서는 “L치L마(?)”로 해독하였으나 “1음절의 사음에 대해서는 적절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사음자 ‘扯’는 “妻 結直 扯”에서 보듯 ‘妻’의 한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쓰이기도 하였는데 ‘妻’의 중세 한국 한자음은 ‘쳐’이므로 ‘扯罵’의 ‘扯’는 [쳐] 또는 그와 가까운 이중모음을 지닌 음절을 사음한 것이 분명하다. 요컨대, ‘扯罵’는 ‘치마’가 아닌 ‘*쳐마’ 또는 ‘*츠마’를 사음한 것이다. 앞 2.1.3의 ‘冊’(/cRhə^x/)도 ‘츠’ 또는 ‘쳐’를 사음한 것이다.

이제 ‘치마’의 방언 분화형과 문헌어를 망라하여 ‘치마’의 선대형을 재구하고 그 바탕 하에서 ‘扯罵’를 해독하기로 한다.

권인한(1998: 309)의 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음(漢音) /ə/는 15세기 국어의 ‘ㆍ’ 또는 ‘ㄱ’에 대응된다.¹³⁾ 따라서 ‘拙/cRhjə³-/’의 음절 모음 /jə/는 국어의 ‘ㆍ’ 또는 ‘ㄱ’를 사음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역어』가 15세기 초 조선의 어느 지역 또는 사회 계층의 방언을 조사 수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拙/cRhjə³-/’의 이중모음은 『訓民正音』(解例 合字解)의 “ㆍ一起 | 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기긔之類 …”라 한 그 ‘!’(..)’이거나 아니면 ‘ㄱ’일 것이다. 즉, ‘拙’/cRhjə³-/는 ‘초’([tsʰjΛ-]) 또는 ‘쳐’를 사음한 것이다. 이에 의거 ‘치마’는 *초마(*tsʰjΛ-ma)로 재구가 가능하다. 이제 ‘치마’의 방언 분화형과 문헌어를 살펴 위 재구형이 타당한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한다.

광충구(2019)에는 ‘치마’의 함북 방언형으로 ‘치매’, ‘차매’, ‘쳐매¹⁾, ‘쇼매’가 수록되어 있다.¹⁵⁾ 한 방언권에 위와 같은 네 변이형이 분포하는 것은 음운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꽤 이례적이다.¹⁶⁾ 한 음소가 이처럼 달리 변화한 데에는 체계 내적 요인은 물론이요 결합적 변화에서 꽤 복잡한 여러 기제가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문헌에는 아래 (1~3)에서 보듯 ‘치마’, ‘쇼마’, ‘츄마’가 보인다.

- (1) 훈 아기란 업고 새 나흔니란 치마에 다마 이베 물오 … 치마엿 아기를 싸디오(월인석보 10: 24)
 裳 치마 상, 裙 치마 군(『新增類合』(상: 31ㄱ)).
 裙兒 치마, 長裙 긴 치마(『譯語類解』(상: 45ㄴ)).
- (2) 屣 힝즈쇼마 호(『訓蒙字會』(초간 중: 7ㄴ)).
 婦人是 긴 쇼마를 버혀 히여곰 짜히 쓰이다 아니케 흐라(『家禮諺解』(9: 19ㄴ)).
- (3) 裙 츄마 군, 裳 츄마 상(『訓蒙字會』(초간 중: 11ㄴ)).
 종은이 7마니 쇼마 긴흐로 스스로 목 즐라 ㄷ리 아래 ㄴ려더 죽다(『東國新續三綱行實圖』(烈女 7: 13ㄴ)).

‘치마’는 15세기로부터 줄곧 문헌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중앙어는 ‘치마’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 (3)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쇼마’와 ‘츄마’도

13) 위국봉(2017: 297)에서도 고대국어의 /ə/를 [a]로 추정할 바 있다.
 14) 앞으로 이중모음 ‘!=..’는 편의상 [yΛ]로, ‘그’는 ‘yi’로, ‘ㄱ’는 ‘yə’로 표기하기도 한다.
 15) 김태균(1986)에는 ‘차매’, ‘차매’, ‘차마’, ‘차매’가 채록되어 있다. 오선화(2015: 97)는 함북 부령 지역에서 쓰는 ‘치마’, ‘쇼매’에 주목하고 이들이 ‘초마’로 소급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16) 이는 세종 대의 사민정책에 의해 함남 및 하삼도의 주민이 이주한 사실과 관련될 듯하다. 즉, 체계가 다른 이주민이 한 지역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변이형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보인다. (2)의 ‘쇼마’는 『家禮諺解』가 “강원도 원주 지역어가 반영되어 있다” (홍윤표, 1993: 13)는 점을 고려하면 방언일 가능성이 있다. ‘쇼마’와 동일한 역행적 원순모음화를 겪은 ‘스매>소매’도 『家禮諺解』에 보인다. 또 (3)의 ‘츄마’는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보이는데 이 책 역시 편집자가 다수인 데다가 지방에서 인간(印刊)된 것이어서 방언의 혼입으로 보인다(이승녕, 1972: 410, 신성철: 2010). 그러나 최세진의 『訓蒙字會』에 등장하는 ‘쇼마’와 ‘츄마’는 최세진의 출생과 성장지를 알 수 없어 무어라 말하기 어려우나 오직 『訓蒙字會』에 만 보이므로 중앙어에서는 널리 쓰이지는 않았거나 특정 계층에서 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위 문헌어와 앞서 제시한 방언형을 아우르면 ‘치마’의 변이형은 ‘차마, 차매 (<차마+-이), 쇼마(쇼매<쇼마+-이), 쳐매(쳐마+-이), 츄마’의 다섯이 된다. 이 가운데 ‘츄마’는 육진방언에 분포하지 않는다.¹⁷⁾ 이처럼 ‘치마’의 방언 분화형의 첫 음절 모음은 ‘|:ㅍ:ㅛ:ㅑ:ㅓ’의 대응을 보이는바, 이러한 다양한 대응은 문헌과 방언을 통틀어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긴 역사 속에서 시기와 지역 또는 체계를 달리하여 변화를 겪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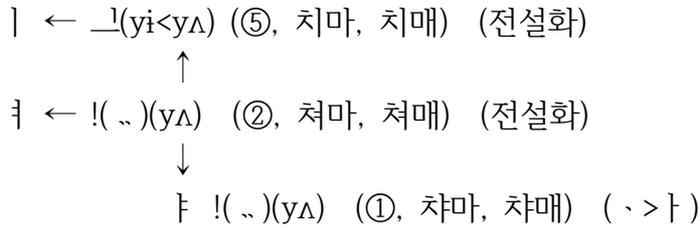
앞서 『역어』의 “拙罵”를 *츠마(*tshjama)로 재구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이 재구가 타당하다면 이 재구형을 통해서 “裙 拙罵”는 물론 위 함북 방언형과 문헌어 ‘츄매’의 어두 음절 모음의 변화가 모두 설명되어야 한다. 일단 변화의 시기와 지역 그리고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각 변이형의 음운변화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츠마tshjama > 차마(·>ㅏ)
- ② *츠마tshjama > 쳐마(·>ㅑ)
- ③ *츠마tshjama > 쇼마(·>ㅛ). 역행적 원순모음화. cf. 스미>소매, 두토다>도투다,
- ④ *츠마tshjama~츠마tshjima > tshjima > tshjuma(츄마)(->ㅓ). 역행적 원순모음화.
- ⑤ *츠마tshjama~치마tshjima > tshjima > tshjima(치마)

위 변화를 체계 내적 요인에 의한 변화와 결합적 변화로 나누어 보이면 아래와 같다.

(가) 체계 내적 변화

17) 동북, 육진방언에서 ‘차마’가 쓰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방언형은 아닌 듯하다. 빈도가 낮다.



(나) 결합적 변화(순자음 앞 ‘-’, ‘·’의 원순모음화)

$$\begin{array}{l}
 _l(yi < y\Lambda) \rightarrow \pi\text{(④, 추마)} \text{ -으+순자음-} \\
 !(..)(y\Lambda) \rightarrow \pi\text{(③, 초마~초매)} \text{ -으+순자음-}
 \end{array}$$

이제 육진방언과 중앙어를 대상으로 위 변화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육진방언에서는 ‘치매’, ‘차매’, ‘처매’, ‘초매’가 쓰이는데 이 가운데 ‘초매’의 빈도가 가장 높다. 참고로 위 방언형이 모두 ‘-마>-매’가 된 것은, 이 방언의 개음절 명사에는 ‘-이’가 결합되어 전설모음으로 끝나는 제약이 있는데 그에 의한 것이다.

한편, 아래 (6~8)의 예들은 중앙어 또는 중부방언에서는 일사분란하게 ‘..>ㅅ’를 겪었지만 육진방언에서는 세 갈래의 다른 변화를 겪었다.¹⁸⁾

(6) 냐구리(옆구리), 여스-/엮-(여우), 염세~염쇄(염소), 여름

(7) *깁(ky\Lambda d) < 곁, 겨대~자대~저대 ... (겨드랑이)

(8) *으 뉘 > 야뉘(여덟), *을 > 알(열), *으라 > 야라(여러)

(6)은 중앙어처럼 ‘..>ㅅ’의 변화를 겪은 예들이다. (8)의 예들은 중앙어처럼 ‘..>ㅅ’를 겪지 않고 ‘..>ㅆ’를 겪은 예들이다. 이중모음은 선행 자음이 없는 어두 위치에서 변화가 늦다. 따라서 이 (8)의 예들이 가장 늦은 시기에 이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점진적인 변화 과정에서 ‘..>ㅅ’의 물결에서 벗어나 있다가 ‘..>ㅆ’를 겪은 것이다. ‘· > ㅆ’의 변화에 합류한 것이다. (7)은 ‘..>ㅆ’와 ‘..>ㅅ’의 변화를 겪은 예들이 공존하는 예다. (6~8)의 예는 어휘에 따라 ‘..’의 변화가 달리 또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이 예들을 ‘치마’의

18) 예들은 백두현(1994), 정승철(1995)에서 본디 ‘..’를 지닌 어휘라 한 것들 중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예 중에는 중앙어에서 차용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가려내기 어렵다.

문헌어를 통한 ‘..’의 재구는 흔히 모음조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김완진(1971: 101), 이기문(1972)). 이후에도 ‘..’를 지녔던 어휘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김현(2015)을 참고할 것. 방언을 통한 재구 노력은 이기문(1977), 백두현(1994) 등을 참고할 것. 한편 김주원(1990/1993)에서는 ‘..’가 “기원적인 모음(예를 들면 a와 ə 등)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약화되어 형성된 2차적인 모음”일 것으로 추정하 바 있다.

방언형들의 변화와 관련지어 논의하기로 한다.

①의 ‘차매’는 (8)과 같이 ‘..>ㅈ’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북부방언과 남부방언에서는 ‘..>ㅈ’가 우세하다(백두현: 1994).

②의 ‘쳐매’는 (6)과 같이 ‘..>ㄷ’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중앙어에서 정음 창제 이전에 겪은 변화와 같다. 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변화는 전설화(vowel fronting)이다. 이는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점에 ‘ㄷ’와 ‘ㄷ’가 전설과 중설의 대립쌍이었음을 시사한다.

③의 ‘쇼매’는 ts^hjama>ts^hjoma(++이)) 즉, 순자음 앞에서 ‘..>ㄴ’를 겪은 역행적 원순모음화의 예이다.¹⁹⁾ ①처럼 ‘..>ㄷ’의 변화에 휩싸이지 않고 남아 있다가 ①의 ‘..>ㅈ’가 적용되기 전에 역행적 원순모음화를 겪은 것이다.

동북, 육진방언의 ‘..>ㄴ’ 원순모음화는 두 유형이 있다(곽충구 :1991/1994). 하나는 순자음 아래에서 이루어진 순행적 원순모음화, 다른 하나는 순자음 앞에서 이루어진 역행적 원순모음화이다. 전자는 육진의 북부 지역에서 현저하다. 예: 뽕->뽕-[踏], 말>말[馬] … 후자는 ‘곰초-[藏]>곰치우-’, ‘호분사[獨]>호분자~하분자’, ‘호불아비[鰥]>호불애비~하불애비’ 등과 같은 예가 있는데 변화가 주의적이다.²⁰⁾ 문헌에도 이러한 변화형이 보인다. 예: 말숨[言]>말숨,²¹⁾ 소매[袖]>소매. ‘쇼매’는 ‘..>ㅈ’ 이전에 ‘..>ㄴ’의 역행적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요컨대, ②의 ‘쳐매’ 이후에 ③의 ‘쇼매’가 출현하고 이어 ①의 ‘차매’가 출현한 것이다. ②의 변화 시기의 모음체계는 ③, ① 변화 시기의 모음체계와 다르다. 지역 또는 사회 계층과 같은 언어 외적 요인에 따라 그 변화의 시기가 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④의 ‘츄매’는 동북, 육진방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한다.

⑤의 ‘치매’는 동북, 육진방언권에서 쓰이기는 하지만 중앙어를 차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이들 육진방언권에서 쓰이지 않는 ④ ‘츄마’, 그리고 ⑤ ‘치마’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④의 ‘츄마’는 앞 (2)에서 본 바와 같이 문헌에서만 보인다.²²⁾ 이는 *ts^h

19) 이 밖에도 원순모음 ‘ㄴ’, ‘ㄴ’에 의해 선행하는 ‘ㄷ’가 ‘ㄴ’로 변화한 예들이 있다. 예: 뽕수리>독수리, ㄷ토-[筍]>도투- 등.

20) ‘소매[袖]>소매’, ‘늪[他]>늪’도 그런 변화에 든다. 오선화(2015: 97)에서는 ‘꼬좁-’(꼬집다)와 ‘곰만’(곰방)도 각각 ‘꼬좁-’, ‘곰만’으로 재구할 수 있을 듯하다고 하였다.

21) ‘말숨’은 최세진이 언해한 『번역박통사』(상: 14, 38)에 보인다. ‘쇼매’도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보인다. 따라서 최세진의 언어에는 역행적인 ‘..>ㄴ’ 원순모음화 규칙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jɭma>*tsʰjima>tsʰjuma(역행적 원순모음화)이다. ③의 ‘· > ㄴ’ 원순모음화와 평행한 역행적 변화이다. 이때 어두 위치의 ㄴ > ㄹ(ji)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⑤의 ‘치마’는 (1)에서 본 바와 같이 15세기부터 출현한다. 이 ‘치마’도 선대형을 *tsʰjɭma가 아닌 *tsʰjima로 재구해야만 그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tsʰjima>tsʰjima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는 전설성 활음 ‘j’의 견인에 의하여 ‘-’가 전설화한 것이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중앙어가 겪은 ‘· > ㅈ’와 평행한 변화이다. 즉, 후설 위치의 ‘·’가 ‘j’의 견인에 의해 ‘ㅈ’로 변화한 것과 같은 전설화이다(이기문: 1972).²³⁾

지금까지 기술한 재구와 방언 분화가 타당한 것임을 보이기 위해 ‘치마’와 동일한 변화를 겪은 ‘저녁’의 예를 보이기로 한다.²⁴⁾ 동북, 육진방언 및 제주도 방언에 아래 (9~10)과 같은 ‘저녁’의 방언형이 분포한다.

(9) ㄱ. 저녁, 저낙, 저낙, 저약 ...

ㄴ. 지낙, 지낙, 지낙, 지약 ...

(10) 제주도방언: 즈낙~저낙~저낙(저녁), 즈낙때~저낙때(저녁때), 즈낙?심(저녁거리)²⁵⁾

(9ㄱ, ㄴ)의 예는 어두 위치에서 ‘ㅈ: ㅌ’의 대응을 보인다. 이는 ‘치마~쳐마’의 대응과 같다. 한편, (10)에서 보듯 제주도방언의 어두 음절 모음은 ‘·’이다. 따라서 ‘저낙, 저낙, 즈낙’ 등의 방언형은 *cjɭɳjak에서 분화한 것이다. 한편 (9ㄴ)의 ‘지낙, 지낙, 지약 ...’ 등의 방언형은 앞 단계 선대형을 *cjɳjak으로 재구해야만 기술이 가능하다. 위 *tsʰjɭma, *tsʰjima와 동일한 재구 및 변화인 셈이다.

그런데 ‘치마’의 방언형에는 ‘쇼마’, ‘츄마’가 있지만 ‘저녁’의 방언형에는 그에 상응하는 ‘쇼낙’, ‘쥬낙’(혹은 ‘쥬낙’)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헌에서도 볼 수

22) 지금까지 조사된 방언 자료에 ‘추매’는 보이지 않는다(〈우리말샘〉). ‘치마’의 방언형과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예: 초매(강원, 경기, 황해), 초매(강원, 경기, 경남, 평안), 채매(경상), 처마, 처매(경상, 평안).

23) 이를 체계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 것은 백두현(1994)이다. 백 교수는 설축에 의한 대립이 아닌 전후의 관계에 의한 변화로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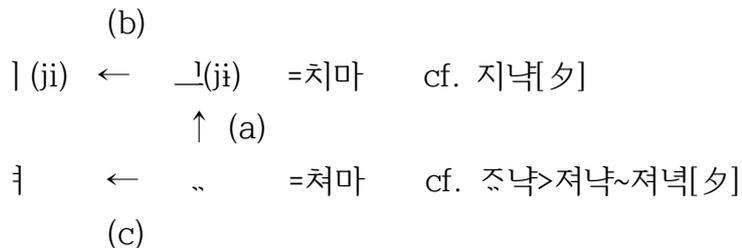
24) ‘저녁’의 방언형은 크게 ‘저낙’ 계와 ‘나조’ 계로 나뉜다. ‘나조’는 중세국어에 쓰였으나 현재는 평북, 함남 지역에 분포한다. 중세국어 이전에는 북부 지역의 ‘나조’와 남부방언의 ‘저녁’이 경합을 벌이다가 17세기 이후에 ‘저녁’이 세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함북 지역에는 ‘저낙’ 계가 쓰인다. 이는 세종 대의 사민정책과 관련되는 듯하다. 곽충구(2019)에는 ‘나조, 저낙, 저낙, 저약, 제낙, 지낙, 지낙, 지약, 징약과 같은 방언형들을 볼 수 있다. ‘저낙’ 방언형의 전국적인 분포는 백두현(1991)을 참고.

25)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에서 인용.

없다, 그 까닭은 ‘치마’와 달리 ‘저녁’에는 둘째 음절 초성에 원순자음(ㅁ, ㅂ, ㅍ, ㅃ)이 없기 때문이다. 즉, 위 ③, ④와 같은 역행적 원순모음화가 적용될 환경이 *cjʌnjak에는 없는 것이다. 이는 ‘초마’, ‘츄마’가 *tsʰjʌma와 *tsʰjima에서 분화한 것임을 지지해 주는 방증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실을 통해 ‘치마’와 ‘저녁’의 각 재구형의 첫 음절 모음은 *jʌ임이 드러났다. 『역어』의 ‘裾 扯罵’는 *츄마(cʰjʌma)로 재구되고 어두 음절의 ‘..(jʌ)’는 위와 같이 ㅓ, ㅕ, ㅛ, ㅜ(ji)>ㅣ로 변화하여 위의 여러 방언형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는 ‘..’가 통시적으로 체계 내에서 ‘ㅓ’, ‘ㅕ’, ‘ㅛ’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뜻한다. ‘..>ㅕ’는 전설화(vowel fronting)에 의한 것이므로 ‘ㅕ’의 체계 내 위치는 ‘..’의 전설 쪽에 비정할 수 있다. 한편 ‘..>ㅜ’(jʌ>ji)는 고모음화(vowel raising)에 의한 것이니 ‘..’와 ‘ㅛ’는 고저 대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치마’는 ‘ㅜ(ji<jʌ)>ㅣ’에 의한 것이므로 정음 창제 전에, 더욱이 ‘..>ㅕ’가 이루어지기 전에 ‘..>ㅜ’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야 한다.

이를 체계와 관련지어 보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체계 내의 변화를 가정할 때 ‘..’와 ‘ㅛ’가 고저 대립을 이룬 상태에서 고모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정음 창제 전에 어두 음절에서 이러한 고모음화가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tsʰjʌma>tsʰjima’는 이미 정음 창제 이전 시기에 이루어졌고 이 tsʰjima가 다시 전설화에 의거 tsʰjima가 된 것이다. 이 ‘ㅜ(ji)>ㅣ’는 ‘..>ㅕ’와 동일한 전설화다. 전자는 고모음에서, 후자는 중위 모음(mid-vowel)에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고모음화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tsʰjima가 모음조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tsʰjʌma>*tsʰjima가 분명해 보이지만 ‘..>ㅜ’의 동인(動因)이나 근거는 찾을 수 없다.²⁶⁾

26) 이런 경우 편법으로 ‘츄마’, ‘치마’를 일단 쌍형어(doublet)로 남겨두는 방법도 있다. 추측을 허용한다면, 전설에 위치했던 ‘ㅕ’가 점차 후설화하면서 중설, 중위 위치에 있던 ‘..’가 후설화의 압력으로 고모음화한 것이 아닌가 한다.

후기중세국어는 ‘ㅣ, ㅏ, ㅑ, ㅓ, ㅕ, ㅗ, ㅛ’의 7모음체계이므로 당시 상승이 중모음의 체계는 ‘ㅣ(ji), ㅓ, ㅕ, ㅗ, ㅛ, ㅜ, 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하필 ‘ㅓ’, ‘ㅕ’만이 각각 ‘ㅓ’와 ‘ㅣ’로 전설화한 것은 ‘ㅓ, ㅕ, ㅗ, ㅛ’는 이동할 전설의 대립 짝 ‘ㅑ, ㅓ, ㅕ, ㅗ’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역어』의 “扯罵”를 해독하기 위해 사음자의 한어음을 참고하고 또 ‘치마’의 방언 분화형과 문헌어를 검토하여 ‘*tsʰjΔma’를 재구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扯罵”는 ‘츄마’일 것임을 말하였다. ‘츄마’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지만 중앙어에는 ‘츄마’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츄마’일 가능성이 더 높다.

2.3. 『조선관역어』 국어 어휘의 의미

2.3.1. 粳米 傘朶色二, cf. 糯米 敢別色二

여기서는 『조선관역어』의 어휘 의미와 그에 대응하는 현대어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粳米 傘朶色二”는 ‘粳米(멥쌀)’를 ‘傘朶色二’(산도밭, =밭벼쌀, 山稻米)’라 한 것이니 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없다. 이 ‘粳米’는 응당 ‘磨一色二’(뫼밭)로 적힐 것이 기대되지만 기실 ‘傘朶色二’로 적힌 것이다.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산도(山稻)’는 ‘밭벼’를 말하니 위 ‘산도밭’은 ‘멥쌀’이 아닌 ‘山稻米(밭벼의 쌀)’이 된다.

‘벼’를 재배 장소와 차진 정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재배 장소: 산도(山稻-밭벼), 수도(水稻-논벼, 물벼)

차진 정도: 메벼(<뫼벼, 粳稻), 찰벼(츄벼, 糯米)

따라서 재배 장소와 차진 정도를 교차 배합하면 ‘멥쌀(<뫼밭, 粳米)’은 ‘①산도쌀(<산도밭-밭벼쌀)’과 ‘②수도쌀(논벼쌀-니밭?)’이 있게 된다. ①, ②를 통칭 ‘뫼밭(멥쌀)’ 또는 ‘니밭(입쌀)’이라 하는데 이 중에서 『역어』의 기사자는 ‘뫼밭’ 또는 ‘니밭’을 버리고 ①의 ‘산도밭’을 선택한 것이다. ‘뫼밭’을 ‘磨一色二’(뫼^ㅁ ㄴ)로 사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집합인 ‘傘朶色二(산도밭)’을 선택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 더욱 ‘傘朶色二(산도밭)’은 달리 찰쌀이 있으므로 ‘粳米’(멥쌀)를 ‘傘朶色二’(산도밭)이라 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요컨대, ‘산도쌀’은 ‘밭벼-멥쌀’, ‘밭벼-찰쌀’일 수도 있고 또 ‘멥쌀’은 ‘수도-멥쌀’이 있으므로 ‘粳米(멥쌀)’를 ‘산도쌀’이라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된 이

면은 알 수 없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이거나 또는 그 당시에 ‘뫼벼(>메벼)’를 축자적으로 한자로 옮겨 ‘山稻(←뫼벼)’라 한 것을 적은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후자의 경우가 옳다면, 본디 한어를 차용한 ‘산도(山稻, 발벼)’와²⁷⁾ ‘산도(←뫼벼)’가 의미의 충돌을 일으켜 후에 그 중 ‘산도(←뫼벼)’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산도(←뫼벼)’를 짚은 쌀이 곧 ‘粳米(멥쌀)’가 된다.

한편, 현대 방언에서도 적게나마 ‘山稻’의 변이형들이 쓰인다. 특이하게도 함경도 지방에서는 ‘산디쌀(<산뒤쌀<산도+-이#쌀)’은 ‘찹쌀’을 가리킨다(김태균: 1986, 곽충구: 2019). ‘산디떡’이란 말도 쓰이는데 이는 인절미와 비슷한 ‘찰떡’을 말한다. 그러나 남부 지방(경상, 전라)에서는 ‘산두’, ‘산두나락’이라 하는데 ‘발벼’를 뜻한다. 제주도방언에도 ‘산뒤체(발벼-겨), 산뒤왓, 산디왓, 산뒤밭(발벼-밭), 산뒤쌀(발벼의 쌀)’이 있는데 이때의 ‘산뒤, 산디’는 ‘발벼’를 뜻한다.²⁸⁾ 요컨대 현대의 ‘산도’는 지역에 따라 ‘찰벼’를 뜻하기도 하고 ‘발벼’를 뜻하기도 한다.

지금은 ‘산도’를 거의 심지 않아 사라져 가는 말이 되었다. 또 심는다 해도 소출이 적기 때문에 주로 ‘찰산도’를 심은 탓에 ‘산도쌀’이 함경도 지방에서는 ‘찹쌀’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떻든 문헌의 기록과 현대의 방언은 그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잔재지역일지라도 옛 모습을 온전히 보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휘는 그 어휘가 사용되는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변화는 불가피하다.

2.3.2. 唵囉 主屢(*쥬류), 唵叭 主刺(*쥬라), 鎖納 必刺(*피라)

“唵囉 主屢”의 ‘唵囉’는 『四聲通解』(상: 57ㄱ)에 의하면 ‘쇠뿔쥬라’(쇠뿔로 만든 호각(號角))을 말한다. 따라서 ‘主屢(*쥬류)’는 오기로 보인다. 한편 그 뒤에 이어지는 “唵叭 主刺”에서는 ‘나팔’을 ‘쥬라’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역어』가 편찬될 무렵에는 ‘쇠뿔로 만든 주라’와 ‘나팔’을 모두 ‘주라’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방언에서 ‘주라’의 지시 의미는 지역에 따라 아래 (12)와 같이 다르다.

(12) ㄱ. 피라: 주레, 주네, 주내(제주)

27) 그런데 『世宗實錄』 150권(地理志)의 ‘山稻’를 필두로 『王朝實錄』에는 ‘山稻田’, ‘山稻米’ 그리고 품종의 하나로 ‘두어라산도(斗於羅山稻)’가 나타난다. ‘水稻’는 『世宗實錄』 82권(세종 20년 7월 5일)에 보인다. 세종 대에 ‘水稻’와 ‘山稻’가 쓰였던 것이다. 이 때의 ‘山稻’는 ‘발벼’를 뜻한다. 『譯語類解』(下: 9a)에 “旱稻米: 산도미”가 보이는데 ‘旱稻米’는 ‘발벼의 쌀’을 뜻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정보 제주어사전』에서 인용.

기조 발표/ 곽충구: 국어사 자료의 해독과 지역 방언: 『조선관역어』의 난해어를 중심으로

- ㄴ. 후두(목청): 주래/주래(육진방언/동북방언). cf. 주랑마디, 주랑통.
- ㄷ. 버들피리: 주래(강원도(嶺東), 함남 남부)
- ㄹ. 주라: 주래(평북)

위 (12)에서 본 바와 같이 ‘주라’의 방언형들은 ‘피리’, ‘목청(후두)’, ‘버들피리’, ‘주라’를 뜻한다. 이는 ‘鬻策’(피리)가 차용되기 전에는 버들 꺾질, 소라 등으로 만든 발성체를 ‘주라’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²⁹⁾

한편, 문헌에서는 아래와 같은 발성체를 ‘주라’라 했다.

(13) ㄱ. 쇠뿔주라: 쇠뿔로 만든 주라(『四聲通解』 상: 57)

- ㄴ. “哮囉-主屨”. 브라=주라. 브라 부는 호령을 불키미라(哮囉吟號)
(『兵學指南』 1: 6)

ㄷ. 吹號頭 號令호는 주라 부다, 吹哮囉 주라 부다(『譯語類解』 상: 20)

(13ㄱ)처럼 15세기에는 ‘쇠뿔’로 만든 것을 ‘주라’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지금 ‘뿔나팔(羊角나팔)’, ‘小角’(뿔처럼 만든 작은 나팔)이라 하는 것도 ‘주라’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3ㄴ)은 한어 ‘哮囉’를 차용한 ‘브라’도 쓰였는데 이는 소라 꺾질로 만든 號角이다.³⁰⁾ 지금은 이를 ‘螺角’이라 한다. (13ㄷ)은 근대국어 시기에 역시 ‘號角’을 주라라 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역어』의 “喇叭 主刺”에서 보듯 ‘나팔’(또는 ‘나발’)도 ‘주라’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주라’는 ‘뿔, 소라, 쇠붙이’ 따위로 만들어 단음(單音)을 내는 악기/기구[=角]를 통칭한 것이다. 여기에 위 (12)에서 본 현대 방언의 ‘주라’의 뜻을 참고하면 이전에 ‘주라’는 (13)의 문헌어에서 볼 수 있는 의미(=주라) 외에 ‘풀피리, 버들피리, 목청’과 같은 ‘발성체’를 아우른 것을 통칭한 것이다. 요컨대, ‘주라’는 본디 ‘발성체의 기물이나 기관’이라는 넓은 뜻을 지녔던 말이었다.

한편, “鎖納 必刺”의 ‘鎖納’는 ‘피리’를 뜻하는 말인데 ‘必刺(피라)’로 사음하였다. 이를 권인한(1998: 142)에서는 ‘주라’에 유추된 것으로 보았다. 발표자는 이 ‘必刺(피라)’는 현재와는 달리 ‘발성체의 기물이나 기관’이라는 넓은 뜻을 지녔던 ‘주라’의 영향으로 형태가 변화한 것으로 본다. 그 무렵 ‘주라’는 쇠뿔이나 소라로 만든 악기, 풀잎이나 버들로 만든 피리, 소리를 산출하는 후두(목청) 등 ‘발성체의 기물이나 기관’을 뜻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피리’를 ‘피라’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갓 차용된 ‘피리’가 전통적인 고유어 ‘주

29) ‘피리’는 ‘鬻策[bili]’의 근대 한음을 차용한 말이다.

30) 【哮囉】 옛날 근대에서 쓰던 호각(號角)의 하나. 소라꺾테기로 만들었다(『漢語大詞典』).

라'에 형태론적으로 감염(contamination)이 되어 '피라'라 한 것이다. '피리'가 국어에 차용되면서 '쥬라'의 지시 영역 일부가 '피리'에 잠식되어 '버들피리', '풀피리'가 출현한 것이다. '피리', '나팔' 등이 차용되면서 본디 '쥬라'의 지시 영역은 '주라'(哮喘, 소라, 쇠뿔 호각)로 축소되었지만 방언에는 예 (12)처럼 본디 의미의 일부가 파편처럼 남아 있다.

3. 요약

이 발표에서는 『조선관역어』와 같은 옛 문헌에 수록된 난해 어휘는 지역 방언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해독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관역어』에서 미해독 또는 난해어로 남아 있는 어휘를 방언에 남아 있는 고어의 잔재 또는 재구 방법을 통해 해독을 꾀하였다. '草房 敢自直'(가족+집), '牆 丟'(독), '醬 自蓋'(즐개), '麥 冊閱'(춤)은 북부 방언을 통해 해독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 밖에 '花朵 果迫'은 '*꽃븐'으로 재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방언을 통해 논의하였다. 한편, '裙 扯罵'는 '초마'(치마)로 재구할 수 있고 '치마'의 방언형(치매, 차매, 처매, 초매, चु매)은 그 '초마'로부터 방언 분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저녁'의 방언형이다. '치마'와 '저녁'은 각각 *tsʰjama~*tsʰjima, *cjanjak~*cjinjak로 재구된다. 이를 위해 'ㅣ, ㄱ'를 음운사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鎖納 必刺', '哮喘-主屨', '喇叭-主刺'의 예를 통해서 어휘 의미의 변화를 고려하여 해독할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문헌어와 현대의 방언을 통해서 볼 때 '쥬라'는 지금과 달리 이전에는 보다 상위의 개념인 '발성체의 기구나 기관'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참고문헌>

- 강신항(1995), 『조선관역어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국어학총서 20), 태학사.
 곽충구(2018), 「한자어(방언) 속의 특이 한자음」, 『국어학』, 국어학회, 3~32.
 곽충구(2019),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 태학사.
 권인한(1998),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국어학 총서 29), 태학사.
 김소영(2019), 「국어 쌍형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완진(1971),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논문집』 10, 대한민국학술원, 91~115.

- 김주원(1990), 「국어사 연구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민족문화 논총』 1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모음조화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275-297에 재수록].
- 김철현(1963), 「조선관역어 연구」,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151~176.
- 김태균(1986), 『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 출판국.
- 김 현(2015), “중세 국어 ‘ㄱ’의 음운론”, 『어문연구』 4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9~123.
- 리운규·심희섭·안운(1992), 『조선어방언사전』, 연변인민출판사.
- 백두현(1994), 「이중모음 ‘ㄹ’의 통시적 변화와 한국어의 방언 분화」, 『어문론총』 28, 경북어문학회. 59~94.
- 신성철(2010), 「『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 방언」, 『새국어교육』 85, 한국국어교육학회, 495~517.
- 오선화(2015), 『연변방언연구』, 박문사.
- 위국봉(2017),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국어학총서 74), 태학사.
- 이기문(1977), 「제주도 방언의 ‘ㅇ’에 관련된 몇 문제」, 『이승녕선생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 이기문(1998), 「고추와 후추」, 『새국어생활』 8-4(겨울), 국립국어원, 193-201.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신구문화사.
- 이기문(2008), 「한국어 어원연구의 회고와 전망」,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 편) 47, 49~97.
- 이승녕(1972),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대한 어휘론적 고찰」, 『국어국문학』 55·56·57, 국어국문학회, 403~415.
- 이승녕(1978), 동국신속삼강행실의 음운사적 고찰,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7, 37-76[이승녕국어학선집, 민음사, 1988, 365~412에 재수록].
- 이준환(2008), 한자음 유기음화의 탁음청화(濁音淸化)와의 관련성 재고와 유형별 분류, 『국어학』 53, 국어학회, 3~33.
- 이진호(2017), 「훈민정음의 모음」, 『관악어문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5~238.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 I』(자료편), 정연사[수정 재판, 태학사, 1985].
- 홍운표(1993),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근대편 I), 태학사.
- 홍운표(1992), 방언사 관계 문헌자료에 대하여, 김영배 편: 남북한의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 小倉進平(1936), 「「燒酒」を表はす朝鮮方言の分布: アラキ考」, 『民族學研究』 2-3[小倉進平(1944), pp.178-190(十二 燒酒-アラキ)에 1943년 보충 재수록].
- 小倉進平(1941), <『朝鮮館譯語』語釋(上, 下)>, 『東洋學報』 28-3, 4[小倉進平著作集 2, 京都大學國文學會, 1993, 태학사 영인].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上·資料篇, 下·研究篇)』, 東京: 岩波書店[亞細亞文化社 影印, 1973].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 汲古書院.[이진호 역(2011), 『한국 한자음 연구』, 역락.]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河野六郎著作集 2』, 1979, 平凡社, 295-512].

제1부/ 주제 발표

함경도 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소신애

경기(서울) 방언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유필재

경상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 김무식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함경도 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소신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hetaira@hanmail.net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함경도 방언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간 이루어진 함경도 방언 연구의 성과 및 최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¹⁾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은 이미 곽충구(1992), 이기동(1997), 남명옥(2019)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²⁾ 이들 논의에서는 함경도 방언에 대한 주요 논저를 대상으로 그 연구 성과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한편, 북한 방언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과정에서 함경도 방언에 대한 주요 연구가 부분적으로 언급

1) Ogura(1940: 119) 이래 ‘함경도 방언’은 일반적으로 ‘함남 정평 이북의 함경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을 가리켜 왔다. 이는 성조의 유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문 외(1991: 58~75)에서도 정평 이북 지역은 성조 지역으로, 그 남쪽의 영흥, 고원, 문천, 안변은 비성조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평 남쪽에서 사용되는 방언과 정평 이북에서 사용되는 방언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함경도 방언에 포함시키기는 경우도 있다(정용호 1988: 41~42). 본고는 잠정적으로 ‘함경도 방언’을 ‘함경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2) 함북 육진 방언의 연구사 및 연구 과제에 대한 논의는 곽충구(2000)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되기도 하였다.³⁾ 단, 이 같은 경우에는 함경도 방언에 대한 선행 연구 전체가 망라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 또한 소략한 경우가 많다.

이에 본고는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10년대부터 2022년까지 이루어진 모든 함경도 방언 연구 논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를 조망함으로써 함경도 방언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를 연구 대상 자료, 연구 대상 지역, 연구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의 전체 분포 양상 및 시기별 분포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함경도 방언 연구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함경도 방언 연구의 현황

함경도 방언에 관한 기존 연구는 함경도 방언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 외에, 북한 방언이나 한국어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하면서 부분적으로 함경도 방언을 언급한 것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연변 지역 조선어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을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 함경도 방언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도 많다. 본고는 그간 이루어진 함경도 방언 연구의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저들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함경도 방언 자료를 수록한 논문, 방언사전, 방언 자료집 등도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연구 성과 전체를 각각 연구 대상 자료, 연구 대상 지역, 연구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⁴⁾

2.1. 연구 대상 자료별 현황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대상 자료별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것은 그간 이루어진 연구의 성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를 함경도 현지 조사 자료, 남한 조사 자료, 중국 조사 자료,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조사 자료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남한 조사 자료는 다시 실향민 대상 조사 자료와 북한이

3) 곽충구(1990), 박영준(1991), 김동언(1992), 최명옥(1992), 황대화(2010), 김봉국(2015), 정인호(2019) 등이 그 예이다.

4) 함경도 방언에 관한 논저 중 직접 확인 불가능한 것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든 논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저는 함경도 방언에 관한 기존 논의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검색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 지면상 이를 모두 제시하지는 못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일부만 언급한다.

탈주민 대상 조사 자료로 세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사실상 분석 대상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informant)의 유형에 따른 분류로서, 해당 제보자가 구사하는 언어적 변종(variety)의 성격에 따른 분류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함경도 방언 연구의 대상 자료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연구 대상 자료의 전체 분포와 시기별 분포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함경도 방언 연구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로 한다.⁵⁾

시기(연도)	자료	함경도 현지	남한		중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실향민	북한이탈주민		
I	1913~1922	3				
	1923~1932	4				2
	1933~1942	29				1
	1943~1952	4				1
II	1953~1962	20	1			1
	1963~1972	7				
III	1973~1982	4	6		1	2
	1983~1992	8	12		10	14
IV	1993~2002	3	5	5	21	14
	2003~2012	9	7	1	57	19
V	2013~2022	5	3	6	48	13
합계		106	34	12	137	67

<표 1> 함경도 방언 연구의 대상 자료별 분포(1913년~2022년)

우선, 연구 대상 자료의 전체 분포를 보면,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이주 한 민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이는 19세기 중엽 이후 함경도로부터 중국의 간도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연변 지역에서 사용되는 조선어는 대부분 함북 방언을 기층으로 하여

5) 두 종류 이상의 자료가 포함된 논저는 각 자료를 모두 분포에 반영하였다. 동일한 내용의 논저가 중복 간행된 경우에는 최초로 간행된 것만 분포에 포함시키되, 기존에 간행된 논저가 개정·증보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논저로 간주하였다. 기존 논저에 제시된 자료를 2차적으로 이용한 연구도 많았는데, 이러한 2차 자료 또한 원 자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사 논문은 자료별 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

형성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는 간접적으로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의 성격을 띤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료는 함경도 현지에서 조사한 자료이다. 남북 분단 전에 조사한 자료는 물론, 분단 이후 북한 학자 및 중국 학자들에 의해 함경도 현지에서 조사된 자료가 모두 여기 해당한다.

그 다음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이는 19세기 중엽 함경도로부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주 초기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사용되던 고려말은 함경북도 육진 방언을 기층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1937년 스탈린 정권에 의해 이 지역 한인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 이주가 단행된 이래, 고려말은 현재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강제 이주 후 고려말은 일종의 코이네화(koineization)를 경험하였으나, 이 같은 중앙아시아 고려말 또한 근본적으로 함경도 방언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는 함경도 방언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곽충구 2004: 145~148).

그 밖에 남한 조사 자료로서, 함경도 출신의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 실향민의 함경도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Ramsey(1975), 이기동(1987), 곽충구(1993) 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함경도 방언을 분석한 연구로는 강순경(1997), 정은혜(2011), 소신애(2020) 등이 있다.

한편, 연구 대상 자료의 시기별 분포를 보면, 첫째, 남북 분단 전인 1910년대부터 1940년대 말까지는 함경도 현지 방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것으로, 小倉進平(1917)가 함경도 방언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다. 그 밖에 田島泰秀(1918), 小倉進平(1927), 小倉進平(1930), 小倉進平(1944^ㄱ, 1944^ㄴ), 河野六郎(1945) 등이 있다. Ramstedt(1928), Ramstedt(1939), Ramstedt(1949) 등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한인들의 함경도 방언 자료가 언급되기도 하였다.⁶⁾ 한국인에 의한 함경도 방언 자료 수집은 19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까지는 『한글』에 각 지역의 ‘시골말’이 수록되었는데, 이 중에는 함경도 방언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경성사범학교 조선어연구부 편(1937), 정태진·김병제(1948) 등에도

6) 푸칠로(Putschillo)의 『로한즈던』(1874) 및 러시아정교선교협회에서 편찬한 『시편 노한소사전』(1904)의 함경도 방언이 그것이다(곽충구 1986^ㄱ: 45~57, 곽충구 1987: 56~60, 곽충구 1988: 125).

타 지역 방언 자료와 더불어 당시의 함경도 방언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둘째, 남북이 분단된 1950년대부터 그 후 1970년대 초까지는 주로 북한 학자들에 의하여 함경도 방언이 조사·연구되었다. 김병제(1959), 김학수(1961), 한두복(1962), 리극로(1966), 한영순(1967) 등이 그 예이다.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들은 주로 함경도 현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⁷⁾ 뿐만 아니라, 1958년부터 1962년까지는 북한의 『말과 글』에 각 지역의 ‘사투리’가 수록되었는데, 이 중에도 함경도 방언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셋째, 1970년대 중엽 이후부터는 남한에서도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가 점차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부터 1990년대 초까지 남한 학자들은 주로 함경도 출신의 실향민을 대상으로 함경도 방언을 조사·연구하였다. 김영만(1974), 김영배(1980), 김태균(1986), 이기동(1987), 이기문 외(1991) 등이 그러한 예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그러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중국에 거주하는 함경도 출신 화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한 것으로는 전학석(1987), 宣德五·趙翥·金淳培(1990) 등이 있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함경도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곽충구(1991), King(1991)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연구는 주로 20세기 초 러시아 카잔(Kazan)에서 간행된 문헌 자료, 이른바 ‘카잔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서, 해당 자료에는 당시 연해주 한인들이 구사하던 함북 육진 방언이 매우 정밀하게 전사되어 있다.⁸⁾ 한편, 이 시기 북한의 함경도 현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로는 황대화(1986), 정용호(1988) 등이 있다.

넷째,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부터 2010년대 초까지는 중국 이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함경도 방언 조사·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곽충구(1997), 소강춘(1999), 소신애(2002) 등이 그러한 연구이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연구도 활발해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중국의 조선족 유학생이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유학생에 의한 연구가 급증하였다.⁹⁾ 중국의 조선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채옥자(2002), 김선희

7) 북한에서 조사한 자료들은 해당 자료의 수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단, 김병제(1959)에 수록된 자료는 해방 전에 저자가 수집한 것을 기초로 하였고,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자료 중 한반도 북부 지역의 것은 1949~1950년에 일부 지방을 현지 조사함으로써 그 정확성을 확인하였으며, 1950년과 1958년에 각 지방에 질문표를 보내어 해당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김병제 1959: 1, 소신애 2014: 45).

8) King(1991)은 카잔 자료 외에도 19세기 말~20세기 초 러시아에서 간행된 다양한 한국어 방언 자료를 소개하고, 해당 자료에 반영된 한국어 방언의 음운, 형태·통사, 어휘상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2007), 김춘자(2007), 정향란(2008), 오선화(2010), 남명옥(2012) 등이 있고, 카자흐스탄의 고려말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나라리사(2002), 이나탈리아(2009) 등이 있다.

다섯째, 2010년대 중엽 이후로는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가 각 자료별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2.2. 연구 대상 지역별 현황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대상 지역별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것은 그간 연구가 집중된 지역을 확인하고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지역을 함경도의 하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지역을 크게 함북과 함남으로 나누고, 함북을 다시 육진 지역, 비육진 지역으로 세분한다.¹⁰⁾

그런데 함경도 방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중에는 사실상 함경도 방언 혹은 함북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 지역별 현황은 이러한 경우까지 포괄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기존에 이루어진 함경도 방언 연구 중에는 중국의 조선어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을 대상으로 한 것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원적지 방언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 지역을 명시하기로 한다.¹¹⁾ 그러나 이주 전 원적지가 함경도 내의 어떠한 하위 지역인지 명시하지 않고 함경도나 함북 지역으로만 언급한 경우는 함경도 전체 내지 함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¹²⁾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함경도 방언 연구의 대상 지역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연구 대상 지역의 전체 분포와 시기별 분포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함경도 방언 연구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9) 중국의 조선족 유학생에 의한 연변 지역어 연구사는 임홍연(2018)을 참고할 수 있다.

10) 육진 방언을 함경도 방언의 하위 방언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영순(1967: 267~280), 김영황(1982: 154~161)과 같이 이를 하나의 독자적인 방언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김병제(1980: 7), 정용호(1988: 36~43) 등은 육진 방언을 함경도 방언의 하위 방언으로 간주하되, 다른 방언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일종의 ‘방언집’으로 보기도 하였다.

11) 논저의 제목이 ‘함경 방언’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 자료는 ‘육진’, ‘비육진 함북’, ‘함북’, ‘함남’ 중 어느 한 곳의 방언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주 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12) 단, 중국의 조선어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원적지 방언인 함경도 방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시기(연도)	지역	함경도 전체	함북			함남
			전체	육진	비육진	
I	1913~1922				1	2
	1923~1932	3		1		1
	1933~1942	2	1	3	15	12
	1943~1952	4		1		
	1953~1962	3	1	6	2	16
	1963~1972	4				4
	1973~1982	8		3	1	3
II	1983~1992	23	4	7	3	2
	1993~2002	24	5	14	3	4
III	2003~2012	37	5	33	6	6
IV	2013~2022	35	12	17	1	8
합계		143	28	85	32	58

<표 2> 함경도 방언 연구의 대상 지역별 분포(1913년~2022년)

우선, 연구 대상 지역의 전체 분포를 보면,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함경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단, 이 같은 논의는 함경도의 전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연구한 결과라기보다는 함경도 방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함북과 함남 중에서는 함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중에서도 함북 육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육진 함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함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순이다. 함남 지역에 대한 연구는 함북 지역에 대한 연구에 비해 현저히 적으나, 비육진 함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많다.

한편, 연구 대상 지역의 시기별 분포를 보면, 첫째, 191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특정 하위 지역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1933~1942년에 비육진 함북 지역 및 함남 지역에 연구가 집중된 것처럼 보이나, 이들은 대부분 『한글』에 수록된 단편적인 ‘시골말’ 자료들이다. 1953~1962년에 함남 지역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북한의 『말과 글』에 수록된 단편적인 ‘사투리’ 자료가 많은 데 기인한다.

둘째, 1980년대 중엽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함경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함북 육진 지역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시

기는 중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활발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의 한국어 방언은 기본적으로 함경도 방언을 기층으로 하고 있으나, 그 원적지 방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연변 지역 조선어나 고려말에 대한 연구 중 그 원적지 방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는 연구 대상 지역을 포괄적으로 함경도 전체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1980년대 중엽 이후에는 20세기 초 러시아 카잔에서 간행된 일련의 문헌 자료가 소개되면서, 함북 육진 방언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곽충구(1986L), 곽충구(1987), King(1987), 곽충구(1991), King(1991) 등에 의하여 카잔 자료 및 육진 방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연변 지역에서 사용되는 조선어를 현지 조사함으로써 육진 방언을 연구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함북 육진 지역에서 중국의 동북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의 말을 조사함으로써 원적지 방언인 육진 방언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중국의 연변 지역에서 사용되는 육진 방언은 엄밀한 의미에서 함경도 현지의 육진 방언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육진 방언을 현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나마 육진 방언을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중국의 조선어를 대상으로 한 육진 방언 연구로서, 중국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는 趙翥·宣德五(1986), 전학석(1987), 전학석(1996) 등이 있다. 그런데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후로는 남한의 학자들도 중국 연변 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육진 방언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중국 길림성의 훈춘, 도문, 용정 등지에 거주하는 조선족 화자들을 대상으로 육진 방언을 조사·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¹³⁾ 곽충구(1998), 소신애(2002), 최명옥 외(2002) 등이 그러한 연구에 해당한다.¹⁴⁾

셋째, 2000년대 중엽부터 2010년대 초까지는 함경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함북 육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육진 지역에 연구가 집중된 양상이 뚜렷하다. 이처럼 육진 지역에 연구가 집중된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 육진 지역은 한반도의 최북단에 위치하는 까닭에 이 지역 방언은 한국어 제 방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육진 방언의 보수성은 국어사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이 무렵 국외 이주 한민족의 언어 자료에 기반

13) 중국에서 함경도 방언은 주로 길림성 일대에 분포하며, 특히, 두만강 중·하류에 인접한 지역에는 함북 북부의 육진 방언이 분포한다. 훈춘시 밀강촌(함북 경원·온성), 훈춘시 회룡봉촌(함북 경흥), 용정시 삼합진(함북 회령), 도문시 월청진(함북 중성)이 대표적인 곳이다.

14) 그 밖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육진 방언에 대한 연구로는 Park(1995)이 있다.

한 함경도 방언 연구가 급증하였는데, 조사 대상으로 삼은 국외 이주민의 대부분이 국경 부근의 함북 육진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육진 방언 연구로는 박진혁(2004), 곽충구(2005), 김봉국(2005), 소신애(2006), 곽충구(2012)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국 길림성에서 사용되는 육진 방언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넷째, 2010년대 중엽 이후로는 함경도 전체나 함북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연구는 많은 반면, 육진 및 비육진 함북 지역에 대한 연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함남 지역에 대한 연구는 소폭 증가하였다. 함경도 전체나 함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이전보다 커진 이유는 중국 연변 지역에서 사용되는 조선어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고려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는 대부분 이주 2·3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원적지 방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또 이 시기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함경도 방언에 대한 것이면서도 분석 대상 자료상 이주 후에 형성된 새로운 언어적 변종으로서의 조선어나 고려말의 특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한 예로서 조선어에 대한 연구로는 양홍(2014), 오선화·최성학(2014), 장승환(2014), 김홍매(2015), 최송호(2017) 등이 있고, 고려말에 대한 연구로는 김나탈리아(2014), 조올가(2015) 등이 있다.

2.3. 연구 주제별 현황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것은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분야를 확인하고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분야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선행 연구의 주제를 음성·음운, 어휘, 문법, 의미·화용, 자료, 연구사,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¹⁵⁾ 함경도 방언의 전반적인 특성을 다룬 논의는 그 자체를 별도의 주제로 분류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함경도 방언 연구의 주제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연구 주제의 전체 분포와 시기별 분포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함경도 방언 연구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15) 여기서 ‘문법’ 분야는 ‘형태·통사’ 분야를 포괄한다. ‘자료’ 분야에는 자료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논문, 방언사전 및 방언 자료집 등이 포함된다. ‘기타’ 분야에는 방언 분화, 언어 정책, 언어 사용, 언어 태도 등이 포함된다. 문헌 해제, 서평 등도 ‘기타’로 분류한다. 둘 이상의 주제를 다룬 논저는 각각을 모두 분포에 반영하였다.

시기(연도)	지역	전체	음성 · 음운	어휘	문법	의미 · 화용	자료	연구사	기타
I	1913~1922	3							
	1923~1932	3		1	1				
II	1933~1942	1		1			28		
	1943~1952	2					2		
	1953~1962	3	2				15		
III	1963~1972	2	3		2			1	
	1973~1982	5	4	1	1		3	2	3
IV	1983~1992	13	14	2	1	1	13	9	6
	1993~2002	7	26	4	7		1	10	4
	2003~2012	13	34	7	23	4	7	5	10
V	2013~2022	6	26	10	21	8	4	10	8
합계		51	109	26	56	13	73	37	31

<표 3> 함경도 방언 연구의 주제별 분포(1913년~2022년)

우선, 연구 주제의 전체 분포를 보면,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 중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분야는 음성·음운 분야이다. 그 다음은 자료 분야와 문법 분야이다. 그 밖에 함경도 방언의 전체적인 특징을 다룬 연구, 연구사, 기타 연구의 순이다. 어휘 분야 및 의미·화용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연구 주제의 시기별 분포를 보면, 첫째,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초까지는 함경도 방언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다룬 논의가 많다. 小倉進平(1917), 田島泰秀(1918), 小倉進平(1927), 小倉進平(1930) 등이 그러한 예이다.

둘째, 1930년대 중엽부터 1960년대 초까지도 함경도 방언의 전체적인 특성을 다룬 논의가 주를 이루었는데,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까지는 『한글』에 함경도 방언 자료가 다수 수록됨으로써 자료 분야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커지기도 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북한의 『말과 글』에 함경도 방언 자료가 수록됨에 따라 역시 자료 분야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셋째, 1960년대 중엽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는 동안 함경도 방언의 연구

주제가 비로소 다양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의미·화용 분야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넷째, 1980년대 중엽부터 2010년대 초까지는 함경도 방언 연구가 급증한 시기로,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다. 함경도 방언의 전체적인 특성을 다룬 연구는 물론, 음성·음운 분야의 연구가 특히 두드러졌으며, 문법 및 어휘 분야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의미·화용 분야의 주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한 점이 눈에 띈다.

다섯째, 2010년대 중엽부터 최근까지는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함경도 방언의 전체적인 특성을 다룬 연구나 음성·음운 분야, 문법 분야, 자료 및 기타 분야의 연구가 모두 감소하였다. 반면, 기존에 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휘 분야 및 의미·화용 분야의 연구가 그러하다. 아울러, 연구사 분야의 논의도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이 같은 다양한 연구 주제 중에서도 어떠한 하위 주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을까? 우선 음성·음운 분야의 하위 연구 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도	지역	성조· 억양	음운 체계	음운 현상	개별 음운	전체	기타
1953~1962		1					1
1963~1972		2		1			
1973~1982		3	1				
1983~1992		6			3	5	
1993~2002		8	5	7	1	4	1
2003~2012		5	3	11	2	6	8
2013~2022		10	2	2	5	4	4
합계		35	11	21	11	19	14

<표 4> 함경도 방언 음성·음운 연구의 하위 주제별 분포(1953년~2022년)

음성·음운 분야에서는 함경도 방언의 성조와 억양을 다룬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음운 현상을 다룬 연구, 전체적인 음성·음운 특징을 다룬 연구의 순이다.¹⁶⁾ 그 밖에 음운 체계에 대한 연구, 개별 음운을 대상으로 한 연

16) 음운 현상으로는 구개음화, 구개모음화, 비모음화, 중자음화, 활음화, 활음 탈락, 유음 탈락, 윙라우트, 모음조화 등이 논의되었다.

구, 기타 음성·음운론적 주제에 대한 연구가 유사한 비중으로 다루어져 왔다.¹⁷⁾ 성조·억양에 대한 연구는 리극로(1966), Ramsey(1975), 전학석(1993) 등을 비롯하여 박진혁(2014), 백금란(2019), 강용택·최혜화(2019)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대폭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문법 분야의 하위 연구 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도 \ 지역	종결어미	조사	경어법	접사	전체	기타
1923~1932	1					
1963~1972		2				
1973~1982						1
1983~1992			1			
1993~2002			2	1	3	1
2003~2012	7	5	1	3	1	6
2013~2022	7	4	6	4	1	2
합계	15	11	10	8	5	10

<표 5> 함경도 방언 문법 연구의 하위 주제별 분포(1923년~2022년)

문법 분야에서는 함경도 방언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조사에 대한 연구, 경어법에 대한 연구의 순이다. 조사는 주로 격조사에 대한 연구이고, 경어법은 대부분 상대경어법에 대한 연구이다. 그 밖에 접사에 대한 연구, 문법 전반에 대한 연구, 기타 형태·통사적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⁸⁾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어법에 대한 연구가 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3. 함경도 방언 연구의 과제

3.1. 연구 대상 자료 관련 과제

그간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이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이 같은

17) 음운 체계 및 개별 음운과 관련해서는 /스, 스, ㅅ/의 음가, 자음 체계의 변화, 개별 모음의 음가, 후설 모음 간의 합류, 모음 체계의 변화 등이 논의되었다. 기타 주제로는 어간 기저형의 변화, 과도 교정, 한자음 등이 논의된 바 있다.

18) 기타 주제로는 곡용과 활용, 부정문, 형용사 등이 있다.

자료는 함경도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함경도 방언을 조사·연구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선어를 대상으로 함경도 방언을 연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경도 방언은 어디까지나 함경도 방언의 한 변종(variety)일 뿐 이를 북한 현지의 함경도 방언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기존에는 중국의 조선어 화자들이 이주 전의 원적지 방언인 함경도 방언을 그대로 계승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조사·연구를 수행해 왔다.¹⁹⁾ 그러나 실제로 해당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 중국의 조선어는 이질적인 언어·문화 환경에서 사용되는, 함경도 방언의 한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외지 출입이 적고 교육의 영향을 적게 받은 노년층 화자들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함경도 방언의 특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변종에 국외 이주 후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주지에서의 방언 접촉 및 방언 혼합의 가능성, 중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모어의 변화 가능성 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이주 전의 함경도 방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적지 방언으로부터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정도로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술할 수 없다는 점도 근본적인 한계이다.

둘째, 중국 이주 3세대 이상으로 갈수록 원적지 방언인 함경도 방언의 고유한 특성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대신, 이주 후 형성된 새로운 언어적 변종으로서의 조선어의 특성이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거주·이전이 자유로워지면서 중국 내의 전통적인 조선족 사회는 급격히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선족 집거촌을 중심으로 유지해 왔던 함경도 방언의 보수적인 특성 또한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소수 민족 정책의 변화,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국의 조선어에 미치는 중국어 및 한국어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²⁰⁾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선어는 원적지 방언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독자적인 언어적 변종을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선어에 대한 명칭으로 ‘연변 지역어’, ‘연변 방언’ 혹은 ‘연변 말’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이들 언어가 원적지 방언과 별

19) 개혁·개방 전에는 호구 제도(戶口 制度)의 실시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기에 조선족들이 본래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조선족 집거촌을 중심으로 원적지 방언의 고유한 특성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다.

20) 중국은 그동안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화의 보존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소수 민족의 하나인 조선족 또한 그들의 언어인 조선어를 공식적으로 보존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 민족 보호 정책은 최근 들어 변화되고 있다.

개로 연변 지역에서 형성된 새로운 언어적 변종이라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의 연변 지역에서 일부 노년층 화자를 제외한 중년층·청년층 화자들은 전통적인 함경도 방언보다는 이주 후에 형성된 ‘연변 지역어’를 구사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조선어 화자를 대상으로 전형적인 함경도 방언의 특성을 조사·연구하는 일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는 중국의 조선어뿐 아니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고려말을 구사하는 화자를 대상으로 원적지 방언인 함경도 방언을 조사·연구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고려말 또한 이전의 보수적인 특성을 상실하고 러시아어 및 중앙아시아 여러 언어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제 이주 후에 출생한 세대는 이주 코이네(immigrant koiné) 형태의 고려말을 구사하며, 최근에는 이마저도 급격히 감소하여, 고려말은 사실상 사멸 단계에 놓여 있다(곽충구 2004: 164). 따라서 앞으로는 이 지역의 고려말 화자들을 대상으로 함경도 방언을 조사·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 같은 함경도 방언의 국외 변종이 보여 주는 공시적 변이 및 통시적 변화 자체가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외 이주지에 서의 언어 접촉 및 방언 접촉 양상, 계승어(heritage language)로서의 조선어 및 고려말의 사용 양상과 그 변화, 세대에 따른 조선어 및 고려말의 실현 양상과 그 변화 등이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국외 한국어 변종으로서의 조선어와 고려말에 대한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또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연구는 비록 그 초점이 기존의 전통적인 함경도 방언의 특성에 맞추어진 것은 아니나 여전히 함경도 방언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언어적 변종의 기층은 어디까지나 함경도 방언이므로 그러한 변종이 보여 주는 변이와 변화를 정확히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함경도 방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함경도 방언을 조사·연구하는 사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인 차원의 접근이 여전히 쉽지 않은 까닭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직 활성화된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함경도 방언 조사·연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자료 조사 및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²¹⁾ 아울러, 기존에 조사된 함경도 방언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에

2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언어 조사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은 곽충구(2019: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3.2. 연구 대상 지역 관련 과제

연구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함경도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중국의 조선어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그 원적지 방언을 함경도의 하위 지역어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함경도 현지 조사 자료의 부재로 인해 국외 한국어 변종의 언어적 사실을 함경도 전체의 언어적 사실로 간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국어사전이나 방언사전, 방언 자료집 등에 함경도 방언형으로 국외 한국어 변종의 어형을 수록할 때 해당 방언형의 분포 지역을 함경도 전역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정확한 분포 표시가 아니다. 사전이나 자료집의 체재상 각 방언형의 사용 지역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방언형의 정확한 지리적 분포를 확인할 수 없는 까닭에 그 사용 지역을 부득불 함경도 전역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원적지 방언을 함경도 내의 하위 지역어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분포 지역 표시에 난점이 따르기는 마찬가지이다. 해당 방언형을 중국이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표시해야 할지, 국외 분포 지역과 더불어 원적지인 함경도의 특정 지역에도 해당 방언형이 동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 같은 문제는 함경도 방언을 대상으로 연구하되, 함경도 현지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방언형이 실제 분포하는 지역은 국외라 하더라도, 해당 방언형을 함경도 방언형으로 간주하는 이상 함경도 내의 분포 지역을 명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 방언형이 이주 전 원적지 방언으로부터 어떠한 변화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오는 것으로 전제해야 하며, 역으로 함경도의 원적지에서도 해당 방언형이 이전부터 변함없이 사용되어 오는 것으로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함경도 현지에서 사용되는 해당 방언형의 변이형, 의미, 용법, 용례 등은 국외 이주지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경도 방언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해당 방언 화자와의 면

331), 소신애(2021: 61)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담 또한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반영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국외 한국어 변종의 어형을 함경도 방언형으로 대신 수록하는 경우, 해당 방언형의 분포 표시는 물론, 해당 방언형의 변이형, 의미, 용법, 용례 등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서 추후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중국 연변 지역에서 사용되는 조선어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고려말은 점차 함경도 방언 고유의 언어적 특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대신, 이들 지역의 언어는 이주 후에 형성된 새로운 언어적 변종으로서의 고유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이처럼 원적지 방언인 함경도 방언과 이주 후 형성된 언어적 변종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국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함경도 방언 연구의 타당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주 3세대 이상의 화자가 사용하는 조선어나 고려말을 함경도 전역의 방언으로 간주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비육진 함북 지역 및 함남 지역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점도 적극적으로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그간 함경도 방언 중에서도 유독 함북 북부의 육진 지역에 연구가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지역적 편중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육진 방언의 보수성, 자료 수집의 상대적 용이성에 기인한 바 클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함경도 방언, 나아가 한국어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함경도 내의 전 지역이 균일하게 조사·연구될 필요성이 있다.²²⁾ 만약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자료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의 자료와 연구는 모두 공백으로 남아 있다면 함경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연구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비육진 함북 지역 및 함남 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들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면,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3.3. 연구 주제 관련 과제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 중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분야는 음성·음운 분야이다. 문법 분야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어휘 및 의미·화용 분야의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 같은 연구

22) 특히, 방언 구획, 방언사전 편찬, 언어 정책 수립 등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대한 균일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야의 편중은 함경도 방언뿐 아니라 다른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평행하게 관찰되는 바이다(소신애 2021: 49~51). 그러나 함경도 방언의 전반적인 언어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음성·음운 분야 외에도 문법, 어휘, 의미·화용 분야의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어휘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로 다루어져 온 친족 명칭, 차용어 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어휘의 의미와 용법이 세대별·지역별로 정밀하게 조사·기술됨으로써 사전 편찬 및 언어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함경도 방언의 음성·음운 연구 내에서도 하위 연구 주제의 편향이 나타난다. 특히, 함경도 방언의 성조와 억양에 대부분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함경도 방언의 성조와 억양이 그만큼 해당 방언의 고유한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그간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함경도 방언의 성조와 억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함경도 방언 성조의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성조를 기술하는 방법의 문제, 중세 국어 성조와 함경도 방언 성조의 관계를 규명하는 문제, 함경도 내 하위 지역어 간의 성조 체계를 대비하는 문제, 경상도 방언 및 강원도 영동 방언과 함경도 방언 성조 간의 대비, 함경도 방언의 억양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문제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²³⁾

그리고 성조·억양 외에도 함경도 방언의 음성·음운론적 특성을 보여 주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함경도 내 하위 지역어의 개별 자음의 음가, 자음 체계 변화의 방향 및 변화의 원인, 함경도 내 하위 지역어의 개별 모음의 음가, 모음 체계 변화의 방향 및 변화의 원인, 함경도 내 하위 지역어 간의 음성·음운 체계 대비 등이 앞으로 더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함경도 방언의 구술 발화 자료를 정밀히 분석한다면, 기존의 항목 조사 자료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음성·음운 현상을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한국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어학 제 분야의 연구에서 남한 방언 위주로 기술해 오던 종래의 방식을 벗어나 북한 및 국외 이주 한민족의 언어로까지 시야를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 한국어의 본질적인 특성은 한반도 중부 이남 방언만이 아닌, 국내외의 모든 한국어 방언을 대상으로 할 때 보다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함경도 방언의 연구 성과가

23) 함경도 방언의 음고(pitch)를 성조로 볼 것인지 악센트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박진혁(2018: 29~33)을 참고할 수 있다. 함경도 방언의 성조 체계 및 성조형을 타 방언과 대비하여 논의한 것으로는 이문규(2017: 202~246)가 있다.

개별 방언 간의 대비, 한국어의 음운·어휘·문법·의미 특성의 기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함경도 방언을 포함한 한반도 북부 방언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곽충구 1996: 52~54, 곽충구 2019: 331, 소신애 2021: 56).

4. 결론

이 글에서는 함경도 방언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연구 대상 자료, 연구 대상 지역, 연구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의 전체 분포 양상 및 시기별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함경도 방언 연구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 중에서는 국외 이주 한민족의 언어 자료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국외에서 사용되는 함경도 방언은 엄밀한 의미에서 함경도 방언의 한 변종이라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또한 원적지 방언의 특성은 점차 약화되고 이주 후 형성된 새로운 언어적 변종으로서의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외 한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함경도 방언의 특성을 조사·연구하는 일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 같은 함경도 방언의 국외 변종에 대한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함경도 방언 조사·연구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는 함북 북부의 육진 방언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반면, 비육진 함북 지역 및 함남 지역 방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앞으로 함경도 방언 전체, 나아가 한국어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육진 함북 지역 및 함남 지역 방언에 대한 자료 및 연구상의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

셋째,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 주제는 음성·음운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반면, 문법, 어휘, 의미·화용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함경도 방언의 음성·음운론적 특성뿐 아니라 해당 방언의 전반적인 특성을 정밀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문법, 어휘, 의미·화용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함경도 방언 자료에 근거한 국어사적 연구 또한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 문헌>

- 강순경. 1997.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 어학연구 33-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17~135쪽.
- 강용택·최혜화. 2019. 「함경북도방언의 종결억양」, 중국조선어문 220.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6~12쪽.
- 경성사범학교 조선어연구부 편(1937), 『방언집』[1995, 모산학술연구소].
- 곽충구. 1986ㄱ. 「람스테트의 한국어연구에 있어서의 한국어 방언」, 『동천 조건상선생 고희기념논총』, 형설출판사. 35~71쪽.
- 곽충구. 1986ㄴ. 「노한회화와 함북 경흥방언」, 진단학보 62. 진단학회. 79~125쪽.
- 곽충구. 1987. 「「노한소사전」의 국어학적 가치」, 관악어문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7~63쪽.
- 곽충구. 1988. 「<로한조언>의 한국어와 그 전사에 대하여」,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25~155쪽.
- 곽충구. 1990. 「북한의 방언연구」, 『북한의 국어국문학연구』, 지식산업사. 265~319쪽.
- 곽충구. 1991. 「함경북도 육진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충구. 1992. 「함경도 방언 연구의 전개 과정과 그 전망」, 김영배 편. 『남북한의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365~404쪽.
- 곽충구. 1993. 「함경도방언의 친족명칭과 그 지리적 분화」, 진단학보 76. 진단학회. 209~239쪽.
- 곽충구. 1996. 「국어사 연구와 국어 방언」,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45~71쪽.
- 곽충구. 1997. 「연변 지역의 함북 길주·명천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 애산학보 20. 애산학회. 179~274쪽.
- 곽충구. 1998. 「육진방언의 어휘」,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617~670쪽.
- 곽충구. 2000. 「육진방언의 현상과 연구 과제」, 한국학논집 34.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27~362쪽.
- 곽충구. 2004. 「중아시아 고려말의 역사와 그 언어적 성격」, 관악어문연구 2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7~168쪽.
- 곽충구. 2005. 「육진방언의 음운변화」, 진단학보 100. 진단학회. 183~220쪽.
- 곽충구. 2012. 「육진방언의 음성과 음운사」, 방언학 16. 한국방언학회. 121~154쪽.
- 곽충구. 2019. 「북부 방언의 어제와 오늘」, 방언학 30. 한국방언학회. 295~340쪽.
- 김나탈리아. 2014. 「러시아권 고려말의 격조사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연. 1992. 「북한의 국어사, 방언론」, 『국어학연구백년사 III』, 일조각. 835~846쪽.
- 김병제. 1959. 『조선어 방언학 개요(상)』, 평양: 과학원 출판사.
- 김병제. 1980. 『방언사전』,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1995, 한국문화사 영인].
- 김봉국. 2005. 「체언 어간말 중자음의 변화 양상」, 국어학 45. 국어학회. 17~42쪽.

- 김봉국. 2015. 「북한 지역어 연구의 현황과 향후 과제」, 어문학 130. 한국어문학회. 1~25쪽.
- 김선희. 2007. 「연변 지역어의 친척어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단. 1974. 「국어 운율의 본질과 변천」, 국어국문학 65·66. 국어국문학회. 29~51쪽.
- 김영배. 1980. 「어휘통계학으로 본 평안방언과 함경방언」, 『연암현평효박사 회갑기념 논총』. 형설출판사. 211~228쪽[김영배. 1997. 『증보 평안방언연구』. 태학사에 재수록].
- 김영향. 1982. 『조선어방언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춘자. 2007. 「함경남도 삼수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균. 1986. 『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 출판국.
- 김학수. 1961. 「함경도 방언의 몇가지 특징」, 말과 글 1961년 11호, 평양: 과학원 출판사. 26~27쪽.
- 김홍매. 2015. 「연변 지역 종결어미 사용 양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명옥. 2012. 「함경북도 육진방언의 종결어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명옥. 2019. 「함경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방언학 30. 한국방언학회. 59~92쪽.
- 나라리사. 2002. 「카자흐스탄 고려말의 문법과 어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리극로. 1966. 『조선어 조 연구』. 평양: 사회 과학원 출판사.
- 박영준. 1991. 「북한의 방언연구사」, 김민수 편.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1(학술분야)』. 녹진. 225~256쪽.
- 박진혁. 2004. 「중국 훈춘 지역 조선어의 복합어 성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혁. 2014. 「함북 경흥지역어의 성조론」,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혁. 2018. 「함경 방언의 성조」, 방언학 28. 한국방언학회. 5~38쪽.
- 백금란. 2019. 「함경남도 신흥 지역어의 성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강춘. 1999. 「연변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언어학 7-2. 대한언어학회. 241~268쪽.
- 소신애. 2002. 「연변 훈춘지역 조선어의 진행중인 음변화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신애. 2006. 「공시적 음운 변이와 통시적 음운 변화의 상관성」,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소신애. 2014. 「대방언권 자료집의 체재와 성과」,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37~72쪽.
- 소신애. 2020. 「함남 함흥 지역어의 자음 체계 및 관련 음운 현상」, 방언학 31. 한국방언학회. 7~42쪽.
- 소신애. 2021. 「한국어 지역 방언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국어국문학 194. 국어국문학회. 39~71쪽.
- 양홍. 2014. 「중국 연변지역어에서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 사용 양상」,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343~379쪽.
- 오선화. 2010. 「함북 부령지역어의 통시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선화·최성학. 2014. 「연변지역어 간접 인용 ‘-는/(으)ㄴ 매’에 대하여」,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287~304쪽.
- 이기동. 1987. 「함경남도 북청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동. 1997. 「북한의 함경방언 연구에 대한 고찰」, 인문대논문집 16. 고려대학교. 21~43쪽.
- 이기문 외 5인. 1991. 「한국어 방언의 기초적 연구」,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 편) 30. 대한민국 학술원. 45~143쪽.
- 이나탈리아. 2009. 「카자흐스탄 고려말과 러시아어와의 상호간섭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문규. 2017. 『형태소 성조형 중심의 국어 성조론』, 한국문화사.
- 임홍연. 2018. 「연변지역어의 연구사」, 방언학 28. 한국방언학회. 227~256쪽.
- 장승환. 2014. 「연변지역 격조사 사용실태 조사 연구」,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173~193쪽.
- 전학석. 1987. 「훈춘지방말의 어음론적 특성」, 『조선어문석사론문집』.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 전학석. 1988. 「중세 조선어의 방점과 연결, 개원 지방말의 고저장단 비교」. 연변사회과학원언어연구소 편. 『조선어연구 2』,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31쪽.
- 전학석. 1993. 『함경도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태학사.
- 전학석. 1996. 「육진방언의 음운론적 특성」, 말소리 31. 대한음성학회. 97~122쪽.
- 정용호. 1988. 『함경도방언연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정은혜. 2011. 「현대 육진 방언 자모음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호. 2019. 「북한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방언학 30. 한국방언학회. 5~31쪽.
- 정태진·김병제. 1948. 『조선고어방언사전』. 일성당서점.
- 정향란. 2008. 「중국 연변 용정 지역 한국어의 곡용과 활용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올가. 2015. 「키르기즈스탄 고려말 어휘의 어원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옥자. 2002. 중국 연변지역 한국어의 음운체계와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명옥. 1992. 「북한의 방언론」, 어학연구 28-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641~655쪽.
-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 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태학사.
- 최송호. 2017. 「연변지역 조선족 화자의 화제전환 담화표지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212.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3~30쪽.
- 한두복. 1962. 「륙진방언 연구(개요)」, 조선 어학 2. 평양. 62~65쪽.
- 한영순. 1967. 『조선어방언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황대화. 1986. 『동해안방언연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황대화. 2010. 「광복 후 북한의 방언 조사와 연구 실적에 대하여」, 방언학 12. 한국방언학회. 203~226쪽.
- 趙翊·宣德五. 1986. 「朝鮮語六鎮話의方言特點」, 民族語文 5. 1~10쪽.

- 宣德五·趙習·金淳培. 1990. 『朝鮮語方言調査報告』. 延邊人民出版社[1991. 태학사 영인].
- 小倉進平. 1917. 「京元·咸鏡鐵道沿線方言」, 朝鮮教育研究會雜誌 20. 朝鮮教育研究會. 28~33쪽.
- 小倉進平. 1927. 「咸鏡南北道方言」, 朝鮮語 2. 朝鮮教育研究會. 1~34쪽.
- 小倉進平. 1930. 「咸鏡南道及び黃海道方言の研究」,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研究調査冊子 第二輯. 297~380쪽.
- 小倉進平. 1944ㄱ. 『朝鮮語方言の研究(上)』. 岩波書店.
- 小倉進平. 1944ㄴ. 『朝鮮語方言の研究(下)』. 岩波書店.
- 田島泰秀. 1918. 「咸鏡北道の訛言」, 朝鮮教育研究會雜誌 29(2月號). 朝鮮教育研究會. 60~69쪽.
- 河野六郎. 1945. 『朝鮮方言學試攷』. 東都書籍[1979. 『河野六郎著作集』. 平凡社. 10 1~373쪽에 재수록].
- King, J. R. P.. 1987. An Introduction to Soviet Korean, *Language Research* 23-2. Seoul National University. pp.233~274.
- King, J. R. P. 1991.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Ogura, S.. 1940.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12. The Toyo Bunko. pp.1~143.
- Park, N. S. 1995. Divergent Processes in Language Development, *비교한국학* 1. 국제비교한국학회. 1~10쪽.
- Ramsey. S. R. 1975.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Ramstedt, G. J. 1928.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58. pp.441~453.
- Ramstedt, G. J. 1939. A Korean Grammar,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82. pp.1~199.
- Ramstedt, G. J. 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경기(서울) 방언 연구의 성과와 과제

유필재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pjyoo@mail.ulsan.ac.kr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경기(서울)방언의 조사,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문 끝에 논저목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사,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본문에서는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된 성과를 주로 다룬다.

경기방언의 특징 전반은 이병근(1983=2020)에서 간결하게 정리했고 배주채, 김봉국(2004)에서는 이를 더 자세하게 다루었다. 서울방언 역시 李秉根(1991)에서 그 전체적인 특징을 알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宋喆儀, 兪弼在(2000)를 참고할 수 있다. 경기(서울)방언의 전체적인 특징은 이러한 선행 연구로 미룬다.

본고에서 대상을 ‘경기(서울)방언’으로 한 이유는 서울방언을 경기방언의 하위방언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¹⁾ 李秉

根, 박경래(1992: 33) 이래로 경기방언은 북부와 남부로 구획하였는데 대체로 경기도 북부는 서울방언과, 남부는 충청도 방언과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이 외 島嶼地域은 내륙지역과는 다른 방언 특징을 가진다.²⁾ 배주채, 김봉국(2004: 709)에서도 서울방언은 경기도 방언의 하위방언이며 북부지역 방언과 더 가깝다고 설명하였다.³⁾ 경기방언은 지역에 따라 모음조화 양상이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서울방언의 모음조화 양상은 경기 중부지역(고양, 시흥, 양평, 용진)과 일치하는 사실도(유필재 2006: 22-27) 서울방언을 경기방언의 하위 방언으로 다루는 근거의 하나가 된다.

논의에 앞서 관련된 용어에 대해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 ‘서울방언, 서울지역어, 서울말’이 그것이다. 방언 구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방언’ 대신 ‘지역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서울방언, 경기방언’ 대신 ‘서울지역어, 경기지역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대개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다.

한편 ‘서울말’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때의 ‘서울말’은 대체로 ‘공통어(중양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⁴⁾ 예를 들어 “서울말 /ㄴ/와 /ㄷ/의 지각 특성” 혹은 “부산방언 화자와 서울말 화자의 영어 억양 연구”에서의 ‘서울말’은 방언으로서의 특징이 희석되어 현재 서울에서 사용되는 전국 공통어를 가리킨다.⁵⁾

이해의 편의를 위해 방언으로서의 서울방언(서울지역어)과 공통어로 현재 사용되는 서울말의 차이를 예를 들어 비교해 보기로 한다.⁶⁾

- 조사 -꺼정 : -까지

(1) 그저 입때꺼정, 재가 날마다 둔 들구 나와선 똑 남 준 일만 해 왔는데 <천변풍경 24>⁷⁾

내가 이때까지 번 거 다 줄게, 니 청춘 나한테 조금만 팔래? <결혼 못하는 남자 4회, 2006>

-
- 1) 다만 도시인 서울과 농촌인 경기도의 방언 변화 양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의 ‘2. 音韻’에서 다시 언급한다.
 - 2) 강화도, 백령도의 용진군(이병근 1983=2020: 243) 그리고 서해5도 지역(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의 노년층 언어는(한성우 2011b) 황해도 방언으로 분류된다.
 - 3) 배주채, 김봉국(2004: 713)에서는 구체적으로 경기도 방언을 구획하였다.
경기 지역 - 북부(연천, 포천, 가평, 양주, 파주, 고양)
남부(시흥, 화성, 평택, 용인, 안성, 광주, 이천, 남양주, 양평, 여주)
또한 내륙과 해안(강화, 김포, 용진)은 구별된다.
 - 4)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글에서는 ‘서울방언, 서울지역어’의 의미로 ‘서울말’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李秉根(1991), “한 상숙 노인의 서울말”이 그 예이다.
 - 5) ‘공통어’의 개념과 표준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기문(1997) 참조.
 - 6) 李基文(2000: 1-2)에서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 오새내(2004: 161, 2008: 46)도 둘을 구분하며 ‘서울지역어(서울방언)’은 현재 쓰이는 서울말의 한 변이로 본다.
 - 7) 1938년, 博文書館 간행.

- 어미 -우 : -어요

(2) 그, 쥘 영감이, 워, 지난번에 강원도 춘천엔가 댕겨오지 않았우? <천변풍경 11> (서로 구면인 중년 여성 사이. 점룡이 모 → 칠성어멈)
 언니, 이 동네 친구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강남엄마 따라잡기 5회, 2007> (서로 구면인 중년 여성 사이)

- 어휘 싫여 : 싫어

(3) 싫여요 <삼대 上:70>⁸⁾
 그런데 우리가 예서 만나 보는 걸 호옥 그애 시집이서래두 알면 싫여
허지나 않을까? <천변풍경 426>
 근데 도경이가 싫어하지 않을까? <공주가 돌아왔다 12회, 2009>

공통어를 가리키는 ‘서울말’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 성과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또한 ‘서울말’과 관련하여 ‘표준어’라는 용어도 있다. ‘표준어’는 ‘언어 사실’ 이라기보다 ‘표준어 규범’으로 이해하는 편이 오해를 줄여 준다.

이하에서 경기(서울)방언과 관련된 조사, 연구 성과와 과제를 음운, 문법, 어휘 셋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제시한다. 설명의 과정에서 경기(서울)방언의 언어 사실을 표준어와 비교하거나 국어사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표준어 규범의 근간이 되는 언어 사실이 서울말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15, 16세기 문헌 자료에 나타난 언어가 서울말이라는(안병희 2002)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본문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예문을 제시하여 해당 주제에 익숙지 않은 독자도 그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음운(音韻)

2.1. 음운 체계

2.1.1. 자음 체계

경기(서울)방언은 대부분의 국어 방언과 마찬가지로 ‘ㄴ, ㅃ, ㅍ, ㄷ, ㅌ, ㅊ, ㅅ, ㅆ, ㅈ,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19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다.

8) 1947년, 乙酉文化社 간행.

2.1.2. 모음 체계

기존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경기(서울)방언의 單母音 체계는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다.⁹⁾

A	B	C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ㅣ</td><td>ㄱ</td><td>ㅡ</td><td>ㅍ</td></tr> <tr><td>ㅅ</td><td>ㅈ</td><td>ㅊ</td><td>ㅊ</td></tr> <tr><td>ㅅ</td><td></td><td>ㅈ</td><td></td></tr> </table>	ㅣ	ㄱ	ㅡ	ㅍ	ㅅ	ㅈ	ㅊ	ㅊ	ㅅ		ㅈ		>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ㅣ</td><td></td><td>ㅡ</td><td>ㅍ</td></tr> <tr><td>ㅅ</td><td></td><td>ㅈ</td><td>ㅊ</td></tr> <tr><td>ㅅ</td><td></td><td>ㅈ</td><td></td></tr> </table>	ㅣ		ㅡ	ㅍ	ㅅ		ㅈ	ㅊ	ㅅ		ㅈ		>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ㅣ</td><td></td><td>ㅡ</td><td>ㅍ</td></tr> <tr><td>ㅅ</td><td></td><td>ㅈ</td><td>ㅊ</td></tr> <tr><td>ㅅ</td><td></td><td>ㅈ</td><td></td></tr> </table>	ㅣ		ㅡ	ㅍ	ㅅ		ㅈ	ㅊ	ㅅ		ㅈ	
ㅣ	ㄱ	ㅡ	ㅍ																																					
ㅅ	ㅈ	ㅊ	ㅊ																																					
ㅅ		ㅈ																																						
ㅣ		ㅡ	ㅍ																																					
ㅅ		ㅈ	ㅊ																																					
ㅅ		ㅈ																																						
ㅣ		ㅡ	ㅍ																																					
ㅅ		ㅈ	ㅊ																																					
ㅅ		ㅈ																																						

<그림 1> 경기(서울)방언의 單母音 체계 변화

경기(서울)방언 노년층의 가장 전통적인 단모음 체계는 <그림 1> A의 10모음 체계이다. 그런데 李秉根, 박경래(1992: 18)에서 당시 청소년층에서는 ‘외, 위’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서울방언 역시 이미 1930년대 이전 출생 제보자에게서도 ‘외, 위’는 變異音으로 單母音과 이중모음이 존재한다(유필재 2006: 39).

李秉根, 박경래(1992: 18)에서는 ‘외, 위’와는 달리 청소년층에서도 ‘에, 애’의 대립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비어두에서는 노년층에서도 두 모음은 합류된 것으로 보았다. 비슷한 내용의 보고가 최창원(2015)에서도 보인다. 최창원(2015: 18)에서는 경기방언에서 모음 ‘에, 애’가 50대 이하에서는 합류된 것으로 보았다. 대략 1960년대생부터 두 모음의 구별이 없어진 셈이다. 그런데 서울방언의 경우는 이보다 합류의 시기가 더 빨라서 어두 위치에서는 1930년대 제보자부터 합류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 1997). 이러한 차이는 두 지역이 도시와 농촌 지역이라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어두위치에서는 경기(서울)방언 모두 20세기초에 이미 합류된 것으로 추정한 보고가 있다(유필재 2014b).

경기(서울)방언의 음장에 대해서는 변화를 보고한 조사나 연구가 거의 없다. 다만 최창원(2015: 19)에서는 경기방언에서 8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도 장음이 동요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어 장음 실현 양상과 관련된 사실이지 음장의 변화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서울방언 역시 국어의 다른 음장 방언과 마찬가지로 단어의 장음은 기식군(breath group)의 첫 부분이 아니면 실현되지 않는다.

9) 곽충구(1997: 3-4)에 의하면 이러한 모음체계의 변화는 경기(서울)방언을 포함한 중부방언(충청남북도, 강원도)에 모두 해당된다.

- (4) 내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사:람은 달려두 눈물은 다 똑같
구나 그러구 곁이 울었어, 그래.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1) 1997:
165>

2.2. 음운 현상

경기(서울) 방언과 관련된 음운 현상 중 ‘자음군 단순화, ‘이’ 모음역행동화, 구개음화’만을 다룬다. 어간 말음이 자음군인 경우 일어나는 자음군 단순화는 용언 ‘래, 리’ 어간인 경우가 가장 복잡하다. 방언과 세대에 따른 차이가 크다. 경기(서울)방언에서는 대체로 ‘리’ 어간은 ‘ㄱ’ 앞에서는 ‘ㄱ’가 탈락하고 그 외의 자음 앞에서는 ‘ㄹ’가 탈락한다(李秉根·박경래 1992: 23, 유필재 2006: 226). 표준어 규범과 같다.

- (5) 익찌, 익떠니, 잉는다
일꼬, 일꺼등

‘래’ 어간은 ‘떨:찌(뺨지), 열:께(옆게)’처럼 ‘ㄴ’가 탈락하지만 ‘뺨:-’는 다르다. 李秉根·박경래(1992: 23), 유필재(2006: 225)에서는 ‘뺨:-’의 자음군 단순화도 조건과 양상이 용언 ‘리’ 어간과 같다고 보았다.

- (6) 밥:찌 마라, 밤:는다
밭:꾸, 발:께

한편 이병근, 정승철(1989), 배주채, 김봉국(2004), 최창원(2015)에서는 경기도의 여러 지역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용언 ‘래, 리’ 어간의 자음군 단순화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배주채, 김봉국(2004: 740)에서는 ‘뺨:-’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고 최창원(2015: 102)에서는 ‘래, 리’ 어간 모두 규칙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보고하고 있다. 논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보고는 실제 언어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李秉根·박경래(1992: 23)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자음군 단순화 양상이 나타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후행하는 ‘이, j’에 의해 선행하는 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뀐 ‘이’모음역행동화(움라우트)는 경기(서울)방언에서도 폭넓게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아 > 애, 어 > 에’의 예가 많고 그 외 모음의 예는 소수이다. 또한 두 모음 사이에 개재

된 자음이 있어야 하고 해당 자음은 양순음, 연구개음, 그리고 ‘ㄹ’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형태소 내부에서만 확인된다. ‘이’모음역행동화는 흔히 남부지역 방언의 특징으로 여겨지지만 경기(서울)방언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경기방언의 예는 배주채, 김봉국(2004: 732-733)에서 서울방언의 예는 강희숙(2002: 181-182), 유필재(2003: 77-86)에서 가져 왔다.

• ㅌ > ㅍ

(7) 토백이, 잼히다 <경기>

형냄편, 안짬재기, 생키다(飮), 대리다(다리미로 ~) <서울>

• ㅊ > ㅋ

(8) 구데기, 뱃기다 <경기>

예편네, 섹유, 냉기다, 뎀비다 <서울>

• ㅍ > ㅂ

(9) 귀경(구경), 칩이다 <경기>

주똥이 <서울>

• ㅊ > ㅊ

(10) 씩편, 칩이다 <경기>

짱일 <서울>, 뉘여넨 <천변풍경 59>

• ㅡ > ㅣ

(11) 덜기싫다, 덜이키다(물을 ~) <서울>, 디리질 말아야지 <천변풍경 447>

경구개음이 아닌 ‘ㄷ, ㄱ, ㅎ’가 ‘이, j’ 앞에서 ‘ㅈ, ㅉ’로 바뀐 음운현상을 일반적으로 ‘구개음화’라고 부른다. 경기(서울)방언에서 ㄷ구개음화는 인정되고 있지만 ㅎ구개음화, ㄱ구개음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李秉根·박경래(1992: 22)에서는 ㅎ구개음화에 대해 ‘힘~심’처럼 단어에 따라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보고하고 이를 남부방언의 영향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배주채, 김봉국(2004)에서는 경기도의 여러 지역에서 조사한 ㅎ구개음화의 예들을 제시하였다. 곽충구(1997: 16)에서도 중부방언 전체에서 ㅎ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서울방언에 대해서는 유필재(2003: 87-90)

에서 ㅎ구개음화 예를 제시했다. ㅎ구개음화의 예가 경기(서울)방언에서 폭넓게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ㅎ구개음화는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입심’처럼 ㅎ구개음화된 형태가 표준어 규범이 된 예도 있다.

서울방언의 ㅎ구개음화 예는 (12)와 같다(유필재 2003: 89).

- (12) 석대(혁대), 남편에 섰인데(兄), 아들 성제
세빠닥(혀), 세가 꼬부라진다, 세빠늘이 돌아요
상근:허다(향긋하다)
송(흥), 송허다, 송업다, 송보다, 송물스럽다, 송내(흥내)
심(힘) 들지, 심들 꺼 걸애, 팔쌈

경기방언(포천, 김포, 이천)의 ㅎ구개음화 예는 (13)과 같다(배주채, 김봉국 2004: 749).

- (13) 성제(형제), 성님(형님)
췌바닥(헛바닥)
상나무(향나무)
송개(흥가), 송년(흥년), 송악(흥악), 송거리(흥거리), 송하다(흥하다), 송(흥)
심(힘), 심들다(힘들다)

ㄱ구개음화에 대해서는 이병근(1983=2020: 239), 곽충구(1997: 16)에서 경기(서울)방언에서 이 음운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李秉根·박경래(1992: 22)에서는 ㄱ구개음화가 경기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 일부 어휘에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ㄱ구개음화는 경기도 남부 중 특히 이천 지역에서 많은 예가 확인된다. 이는 李秉根·박경래(1992: 22)의 해석처럼 경기(서울)방언의 ㄱ구개음화 예가 ㄱ구개음화 방언인 충청도방언과의 접촉의 영향임을 알려준다.

서울방언의 ㄱ구개음화 예는 (14)와 같다(유필재 2003: 87).

- (14) 정치다(경치다), 정치계, 정치구 ~ 경치지
줄(굴), 줄을 잡숫구 싶으시다면 <삼대 하:113>
조군(轎軍)
질갱이(桔梗)

경기방언(포천, 김포, 이천)의 ㄱ구개음화 예는 (15)와 같다(배주채, 김봉국

2004: 749).

- (15) 제우(겨우), 저울(겨울), 줘다(겪다), 전디다(견디다), 절눈(결눈), 정기도(경기도), 절단(決斷), 정운기(경운기)
 조장(教長)
 짚이(깊이), 질다(길다), 질(길), 지술(技術), 지후(氣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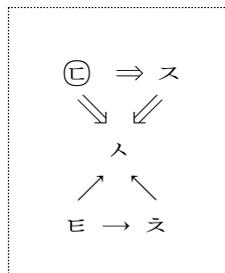
3. 문법(文法)

3.1. 체언, 조사

3.1.1. 체언

경기(서울)방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체언 어간 말음의 변화가 자주 지적되었다(李秉根·박경래 1992: 23, 배주채, 김봉국 2004: 750-751, 유필재 2006: 80-90). 이기문(2000: 5)에서 “簡素化”라고 적절하게 표현된 것처럼 ‘닭 > 닥’처럼 어간말의 자음군이 단자음으로, ‘무릎 > 무릅’처럼 격음 어간이 평음으로 바뀐 것이 그 예이다.

이 중 치조음, 경구개음의 변화는 그 역사가 오래된 단일한 변화이다. 국어사의 관점에서 이미 郭忠求(1984)에서 설명된 바 있어 이를 이하에서 간단히 정리한다. 아래 예들은 모두 유필재(2006: 85-90)에서 가져 왔다.



<그림 2> 서울방언의 체언 치조음, 경구개음 어간 말음의 변화(유필재 2006: 90)

18세기가 되면 이전 시기에 어간 말음으로 ‘ㄷ, ㅌ’를 가졌던 명사들이 ‘ㅅ’로 변화한 예가 나타난다.

- 못 H¹⁰ > 못 (釘)

(16) 錦布발을다가 窓 안히 치고 못으로 박고 <朴通事新釋諺解 2:41b>(1765)

- 젓 H > 젓 (乳)

(17) 祖母 唐氏 젓으로써 그 식어미를 먹이더니 <女四書諺解 4:15a>(1736)

명사 ‘ㄷ’어간 중 일부는 ‘ㅈ’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러한 어간들은 19세기가 되어야 어간 말음이 ‘ㅈ’로 변화하게 된다.

- 뜯 H > 뜯(쫓) > 뜯(쫓)

(18) a. 흐려 흐시논 뜯은 ㅈ장 도스오니 <改修捷解新語 10:中7b>(1748)
 b. 춘츰 일근 장부의 뜯으로 <明聖經諺解 15b>(1883)

평음인 ‘ㄷ, ㅈ’ 명사 어간들은 모두 ‘ㅈ’ 어간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ㄷ’로 표시한 것처럼 현재는 명사 ‘ㄷ’ 어간은 없어졌다. 이 변화의 영역이 평음을 넘어 격음으로 확대된 것이 현재의 경기(서울)방언의 양상이다. ‘ㅈ’ 어간 중 일부가 ‘ㅈ’ 어간으로의 변화를 거치고 있는 점도 ‘ㄷ’의 경우와 같다.

- 끝 ~ > 끝 (末)

(19) a. 마루 끝에서, 마루 끝이
 b. 끝이, 끝은 있어두, 요 끝에는 다:

- 꽃 ~ > 꽃

(20) a. 꽃이, 꽃으루, 꽃을, 꽃에
 b. 꽃이 · 꽃이라구, 꽃은 · 꽃으루, 꽃에 · 꽃에서

- 밭 ~ > 밭 ~ > 밭 (田)

(21) a. 밭에다 · 밭에서, 밭이
 b. 밭을 · 밭은, 밭이
 c. 밭이라그래 · 밭이었어, 밭은

10) 성조가 거성인 사실을 ‘H’로 표시해 두었다.

이병근(1983=2020: 237), 李秉根·박경래(1992: 28)에서는 중세국어 대명사 ‘즈가’의 反射形이 경기방언에 ‘자개’로 남아 있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서울방언에도 남아 있다(유필재 2019: 162).

(22) 일꾼 돈을 써 가며 자개가 그렇게 나를 끌구 올라 와서 … <천변풍경 198>

그야 자개가 돈 내서 사 든 집을, 어떻게 뜯어 고치든, 누가 뭐랄 수는 없는 게지만 … <천변풍경 221>

경기방언에서 대명사 ‘느이, 즈이’가 보고된 바 있다(배주채, 김봉국 2004: 758-759). 둘 다 ‘複數’를 의미하면서도 ‘-들이’ 다시 결합된 형태로도 쓰인다. 서울방언 역시 마찬가지이다(유필재 2019).

표준어 규범으로는 대명사 ‘저’는 1인칭인 경우와 3인칭인 경우가 있다. 서울방언에서는 둘 다 ‘저’ 혹은 ‘지’이지만 경향상으로는 1인칭은 ‘저’, 3인칭은 ‘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유필재 2019: 168-169). 이러한 경향이 공통어(서울말)에도 이어지고 있다.

(23) a. 아, 영감께서 불러 주시기 전에야, 제가 갈 데가 어딴데요? <천변풍경 344>

b. 지:가 되:레 교장 선생님을 …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 1997: 154>(1907년생 제보자)

3.1.2. 조사

경기방언의 조사에 대해서는 박경래(1998: 822-832), 임용기(1988, 1989)(광주), 한성우(2009)(인천)가, 서울방언의 조사에 대해서는 宋玄鎬(1996), 유필재(2006: 303-306)가 있다. (24)에서 조사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24) -이/-가, -께서, -에서/-이서, -을/-를 ~르, -에/-으 ~-이(관형격), -에/-이(+다, 다가), -에서 ~-서/-이서, -으루(+다, 다가), -으루서, -한테 ~-헌테, -더러, -보덤 ~-보담 ~-보다, -처럼, -허구, -버텀 ~-부텀(-서+), -꺼정 ~-꺼장, -알라(← -할라), -께, -이서/-서
-이나/-나, -허구
-은/-는 ~느, -두, -마당 ~-마담 ~-마닥, -만, -만큼, -뻘에, -이나/

-나, -커녕(+은), -서건

경기(서울)방언에서 관형격 조사는 ‘-에’로, 처격 조사 ‘-에’와 형태가 같다. 그런데 선행 명사가 ‘남(他人)’일 때 관형격 조사 ‘-으~-우~-이’가 나타난다. 경기방언(박경래 1998: 826), 서울방언(유필재 2006: 102) 모두 마찬가지이다.

(25) 고쟁이라는 건 여자에 옷이야

(26) 남으 말~남으 예편네, 남이 나라 싸람이 와서 주권을 잡아가주구
(유필재 2006: 102)

처격 조사 ‘-에, -에서’는 ‘집’ 뒤에서는 ‘-이, -이서’로 나타난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중세국어 당시에 ‘집’ 등의 일부 명사에는 처격 조사로 ‘-에’ 대신 ‘-의’가 사용되었는데 이 ‘-의’의 후대형이 ‘-이’이다(李秉根 1991: 17). 처격 조사 ‘-에’와 ‘-서(< 이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사 ‘-에서’도 ‘집’ 뒤에서는 ‘-이서(< -의서)’로 나타난다.

(27) 잔치집이 가면 (임용기 1988: 19)

시집이서 출입을 아주 막아버리구 (유필재 2006: 100)

서울방언의 조사 중 특이한 형태로 ‘-할라, -할레’가 있다. ‘-할레’는 “다시 그 위에 첨가하여”라는 뜻으로, 충청, 전라방언의 ‘-할라, -할차’와 관계가 있는 듯하다(이병근 1991: 17). 모음 뒤에서는 ‘ㅎ’가 탈락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28) 약국 심부름하는 애들과 사귀어 본 것도 돌석이알라 셋이나 되지만
<천변풍경 40>

우리 집에 와 본 남자 손님이라고는 당신 알라 세 사람밖에 없어요.
<삼대, 을유문화사, 上:299>

그런데 ‘-할라’는 경기(서울)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어 잘못 해석된 경우가 있다. ‘어르다(어우르다)’의 활용형으로 오해한 예가 그것이다.

(29) “우리집에 와본 남자 손님으로 당신 얼러 세 사람밖에 없어요. ...”
<삼대, 문학과지성사, 2004, 268>

비슷한 의미의 조사로 ‘-서꺼’도 있다.

- (30) 이뿐이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와서, 신부가 오늘 아주 시집으로 가버리는데 점롱이서꺼, 용돌이서꺼, 세간짐 좀 날러다 줄 수 없겠느냐고 말이 있었을 때, <천변풍경 67>
합격이 되니까 세무서를 내비리데 그래, 모두 매부서꺼. 세무서에 잘 들어갔는데 왜. <송현호 1996: 103>
술서꺼 고기서꺼 <한성우 2009: 166>

3.2. 활용(活用)

3.2.1. 용언 어간

경기(서울)방언의 용언 어간은 표준어 규범의 그것과 다른 경우가 꽤 있다. 이전 시기의 ㄷ불규칙 용언 어간은 ‘걸:-(-步), 듣:-(-聞, 效), 묻:-(-問)’ 등 몇몇 이외에는 모두 다른 형태의 어간으로 바뀌었다. ‘다듣-!11) > 다다르-’처럼 모음 어간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전-! > 절:-(-漬)’처럼 ‘ㄹ’ 어간으로 변화한 경우도 있다.12) ‘싣:-!(載)’는 경기(서울)방언을 포함한 여러 방언에서 형태 변화가 확인된다. ‘싫-’도 있고 ‘실-!’인 경우도 있는데 ‘실-!’는 ‘ㄹ’ 어간처럼 보이지만 후행하는 어미를 경음화시킨다는 점에서 불규칙 용언이라고 할 수 있다.

- (31) 싣는다, 싣지, 싣고 <경기> (이병근 1983=2020: 238)
싣:꾸, 싣으니, 싣어 <이천> (배주채, 김봉국 2004: 755)

이전 시기의 ㅂ불규칙 용언 어간이 ㅅ불규칙 어간으로 변화한 예가 여럿 확인된다. ㅂ불규칙용언인 ‘굽-’는 경기(서울)방언에서는 ㅅ불규칙용언인 ‘긋-’로 활용한다.

- (32) 긋:는다, 구어, 귀: (배주채, 김봉국 2004: 753, 이병근 1983=2020: 238)

흔히 ‘잡수시다’의 준말로 설명되고 있는 ‘잡숫-’은 이전 시기 ‘잡습-!’의 변화형이므로 같은 변화 유형에 속한다(유필재 2000).

11) 설명의 편의를 위해 불규칙용언에는 ‘!’ 표시를 해 두었다.

12) 『큰사전』(1947)에는 ㄷ불규칙용언인 ‘절:다’가 “표준어 아닌 어휘”로 등재되어 있다.

표준어 규범에서 어간 말음절이 ‘르’인 용언은 ‘따르다, 치르다, 들르다, 다다르다, 우러르다’를 제외하면 거의 다 ‘르’ 불규칙용언이다. 그러나 경기(서울)방언에서 이들은 대체로 규칙 용언으로 바뀌었다. 표준어의 ‘가르-!, 다르-!’는 이 방언에서는 ‘갈르-, 달르-’가 되었다.

(33) 갈르고, 갈르면, 갈라 <경기> (이병근 1983=2020: 238), 갈른다 (배주채, 김봉국 2004: 754)

달르구, 달라~달러, 달르니 <서울> (유필재 2006: 195)

개별 단어의 변화이기는 하나 서울방언에서는 ‘닿:-(觸)’가 스불규칙용언인 ‘닿:-’로 변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재의 공통어(서울말)에서도 그러하다. 『큰사전』(1947)에도 ‘닿다’가 “표준어 아닌 어휘”로 등재되어 있고 ‘닿다’를 참조하게 되어 있다.

(34) 다:찐 안는다, 단:다, 다아서, 다:믄 <서울>

3.2.2. 어미

경기방언의 어미에 대해서는 李秉根·박경래(1992), 박경래(1998), 임용기(1990)(광주), 한성우(2009)(인천)가, 서울방언의 어미에 대해서는 유필재(2006)이 있다. 경기방언과 서울방언의 연결어미 중 일부를 제시한다.

(35) -으믄~-으믄, -어두, -구, -두룩, -을수록, -을라구, -거든~-거던~-거덩 <경기> 박경래(1998: 862)

(36) -으믄~-으먼~-으면, -구, -두룩, -드키, -을려구~-을랴구, -거든~-거등(~-거덩), -어야/-아야~-어애, -으라 <서울> 유필재(2006: 307-311)

경기방언의 연결어미 중 ‘-을라구, -거던’의 예만을 들어 둔다.

(37) 혼차 먹을라구 씹키 냐지
 습달은 꽤 츄거던 <경기>

서울방언에서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으라’이다. 이전 시기와 형태가 같다.

(38) 비지 먹으라 가, 춤 추라 댕기구 <서울>

귀돌 어머니, 한약국집으로 안잠을 살라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오 년 전,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망내딸 기순이가 세상에 나오던 바로 그 해 가을이다. <천변풍경 41>

경기방언과 서울방언의 종결어미를 제시하면 (39, 40)과 같다.

(39) -ㅂ니다, -우, -네, -ㄴ다, -어요~-어유

-어요?~-어유?, -우?, -나?, -니?

-어요!~-어유, -우!, -게, -아라

<경기> 李秉根·박경래(1992: 26-27)

(40) -습니다/-ㅂ니다, -습니까/-ㅂ니까, -으십시오, -읍시다

-으세요, -는군(뇨)/-군(뇨)/-로군(뇨), -조, -아요/-어요~-에요

-다우/-는다우/-ㄴ다우/-라우, -읍디다, -읍디까?, -우~-으우/-유, -을라우?~-을라우?~-을래우?

-게, -나?/-은가?, -게나, -네, -세, -을쎄, -을쏘나

-네, -데, -대/-래, -드래, -게?, -으래, -을래?, -거든~-거덩, -

지, -는데/-은데, -든데, -어/-아/-야, -어야지~-어애지~-어

이지, -으께~-을께

-드라, -자, -는구나/-구나/-로구나, -는다/-ㄴ다/-다, -어라/-아

라/-나라, -으니?, -으렌, -으마 <서울> 유필재(2006: 312-318)

경기방언에 비해 서울방언의 종결어미가 훨씬 많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조사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유필재(2006)에는 하십시오체 어미가 여럿 있지만 이는 실제 대화를 조사한 것이 아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하십시오체가 나타난 경우가 없고 ‘-습니다/-ㅂ니다’같은 어미들은 시부모에게 쓴다는 제보자의 보고를 듣고 상황을 가정해 유도한 어미들이다.

경기(서울)방언의 종결어미 중 ‘-우’는 예사높임의 등급을 가지며 이병근(1983=2020: 234-235)에서 지적한 것처럼 친근한 사이에 쓰이는 비격식체 어미이다. 『천변풍경』에서 나타난 예를 제시한다.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친근한

사이에 쓰이며 화자는 여성이 많다.

- (41) 어머니, 어디 갔었우? <천변풍경 213> (이쁜이 → 이쁜이모)
 아이 참 당신두 ……, 달 차구두 돌아댁기는 사람은, 그럼 으떡 헌
우? <천변풍경 340> (한약국며느리 → 남편)
 아유, 어머이유? <천변풍경 288> (한약국며느리 → 만돌어멈(식모))
 저어 내가 -, 내가, 그 애, 보구 싶어 허드라구, 그런 말은 애에 만
우. <천변풍경 424> (하나꼬 어머니 → 기미꼬(하나꼬의 선배))
 원, 아주머니두 거짓말 좀 작작 허우. 그래 언제 점룡이가 사환씩이
 나 있었우? <천변풍경 24> (동네 젊은남성 → 점룡이 어머니)

표준어 규범에는 하오체 어미로 ‘-소’도 있다. 李丞幸(1985: 15)에서는 경기 방언에서 어미 ‘-소’를 부정하고 이를 방언 차용으로 추정하곤 바 있다. 필자도 대면조사에서는 어미 ‘-소’를 확인해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예가 적기는 하지만 서울방언 자료에서 ‘-소’가 전혀 없지는 않다. 모음 뒤에서는 ‘-오’로 쓰인다. 『천변풍경』의 예를 보인다. 초면인 사이거나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주로 쓰이고 남성 화자가 많다. 또한 ‘-소/-오’는 평서형, 의문형으로만 쓰이고 명령형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 (42) 응 고맙소 <천변풍경 451> (금순이 아버지 → 재봉) 초면. 길을 물어 봄. 나이 차이 남.
 아이 참 좋소 <천변풍경 422> (하나꼬 어머니 → 금순이) 금순이는 하나꼬 집의 식모. 나이 차이 남.

- (43) 이걸, 웨, 어림두 없이 이러는 거요? <천변풍경 14> (김침지(빨래터 주인) → 만돌어멈(젊은 여성). 초면)
 당신이 기미꼬란 이요? <천변풍경 274> (금점꾼 → 기미꼬. 초면)
 울루싸이? …… 잘못 됐오. <천변풍경 465> (강서방 → 점룡이. 초면)

그런데 ‘-소/-오’가 쓰인 예문들은 상대경어법 등급이 ‘-우’가 쓰인 예문보다 약간 낮게 느껴진다.¹³⁾ 초면인 사이이므로 문체 역시 격식체에 가깝다.

서울방언의 어미 ‘-우’는 공통어가 되지 못했지만 ‘-소/-오’는 특이한 형태로

13) 『천변풍경』에서 ‘-우’와 ‘-소/-오’의 상대경어법상 등급이 같지 않은 사실은 朴正任(2008: 26-31)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남아 있다. 외화의 자막, 번역서 등에서 보인다. 미국 영화 ‘쓰리 데이즈’(The Next Three Days)(2010)의 자막 예(유필재 2014a: 64) 미국 소설 ‘City of Glass’의 번역 예를 보인다. ‘-소/-오’를 쓰는 화자는 모두 남성이다.

(44) 존 : 라라 브레넌 어딴죠? 내 아내요.

(여자) 간호사 : 죄송하지만 면회는 안돼요.

존 : 아내를 봐야 된다고.

(여자) 간호사 : 들어가시면 안돼요.

(남자) 의사 : 무슨 소란이오.

존 : 내 아내가 목숨을 끊으려다 실려 왔소.

(45) 스틸먼이 그 모습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쿤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음모라도 꾸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소.」

「그거야 두고 볼 일이죠.」 쿤이 한참 뒤에 대꾸했다. (스틸먼은 노인, 쿤은 35세. 모두 남성) <폴 오스터 저, 황보석 역, 뉴욕 3부작 (우리의 도시), 열린책들, 2003, p.120>

경기(서울)방언의 어미 ‘-우’는 ‘-오’가 모음 상승을 겪은 것이다. 조사 ‘-도’, 어미 ‘-고나’도 같은 변화를 입어 ‘-두, -구나’가 되었다.

서울방언에서 확인되는 하오체의 경어법 등급은 그 폭이 넓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사높임으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그보다 약간 낮은 등급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방언 예사높임의 하오체가 공통어(서울말)이 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새롭게 세력을 확대해 가던 해요체와 등급상 겹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오체의 형태는 번역가들에 의해 아랫사람을 적당히 높여주는 격식체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 영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빙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문자언어(자막)로만 남았다. 현재도 계속 소멸 중이다.

경기(서울)방언의 해라체 의문형 어미에는 ‘-니?~-으니?’와 ‘-느냐?/-으냐?~-냐?’가 있다. 경기방언에서는 두 어미의 출현 환경이 다르다. ‘동사, -었-, -겠-’ 뒤에서는 ‘-니?’가, ‘형용사, -이-’ 뒤에서는 ‘-냐?’가 결합된다. 그리고 ‘-더냐?’는 존재하지만 ‘-더니?’는 존재하지 않는다(李丞幸 1985: 11-12). ‘-더냐?’는 ‘-더-’에 ‘-으냐?’가 결합된 형태인데 ‘-니?’는 ‘-느냐?’를 대체해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같은 사실을 서울방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천변풍경』, 『삼대』에 나타

난 서울방언을 조사해 보면 같은 결과를 얻는다. <표 1>은 대화문에서 물음표와 함께 나타난 용례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니?’는 동사, ‘있-, 없-’ 그리고 어미 ‘-었-, -겠-’ 뒤에서, ‘-냐’는 형용사와 ‘-이-, 아니-’ 뒤에서 분포한다.

<표 1> 『삼대』, 『천변풍경』에 나타난 의문형 어미 ‘-니?, -냐?’의 분포

	-니		-냐	
	삼대	천변풍경	삼대	천변풍경
동사	25	22		
있-, 없-	6	5		
-었-	22	16		
-겠-	14	4		
형용사			15	1
-이-, 아니-		1 ¹⁴⁾	90	24

李丞幸(1985: 12)에서 지적한 것처럼 청년층에서는 ‘-니?’의 분포가 형용사, ‘-이-’ 뒤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분포와 변화는 의문형 어미 ‘-느냐(-느냐)’가 ‘-니(-닉)’로 대체되어 간 역사적인 변화 때문이다(유�필재 2018).

현재 공통어에서는 ‘-니?’가 ‘-냐?’보다 “좀 더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의문형 ‘-니?’가 ‘-이-, 아니-’와 형용사 어간 뒤에 분포하고 ‘-냐?’와 대립하면서부터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부터 매우 가까운 시기에 두 어미의 의미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¹⁴⁾에는 하계체 청유형 어미가 ‘-으세’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방언에서 이 어미는 자음어미인 ‘-세’로 확인된다.

(46) 그럼 어서 내게루 가세그러. 현대 셋달 대목에 서울엔 무슨 일루 올려 왔나? <천변풍경 453> (중년의 남성 친구 사이. 금순이 시아버지 → 근화식당 주인)

그러나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개업 피로연 겸 한잔 먹세. <삼대 하:226> (20대 남성 친구 사이. 김병화 → 조덕기)
 쓸 데 없는 소리 말고, 좀 자세한 이야기나 든세그러. <삼대 하:139> (20대 남성 친구 사이. 조덕기 → 김병화)

14) 이눔아, 마당은 쓸지 았구, 또 무슨 생각이니? <천변풍경 155>
 이 늬 마당은 쓸지 았구 또 무슨 생각이니? <朝光 1937년 1월호, p.148>

‘표준국어대사전’ 이외의 사전(큰사전, 국어대사전(이희승 편), 연세한국어사전, 조선말대사전 등)에서는 모두 자음어미 ‘-세’로 등재되어 있다. 표준어의 근간인 “현대 서울말”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범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4. 어휘(語彙)

경기방언의 어휘 수집은 김계곤(1972-1992)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다. 면, 읍 등 소규모 지역에 대한 방언 조사 결과를 어휘, 문법형태소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경기(서울)방언의 어휘 자료로는 경기(서울)방언 화자의 구술자료가 있다. 1990년대 ‘뿌리깊은나무’에서 간행된 여러 방언 화자의 구술자료 중 한상숙 구술(1991), 배희한 구술(1992), 이규숙 구술(1992)이 그것이다. 최명옥(2007, 2008, 2011) 역시 경기도 화성, 포천, 파주 지역 제보자의 구술 자료 성격을 가지는데 책 마지막에 색인을 두어 문법형태소와 어휘를 찾아 볼 수 있게 했다.

한편 서울 출신의 작가들이 쓴 문학작품에서 서울방언 어휘를 검토한 연구들도 있다. 유필재(2012)에서는 박태원의 『천변풍경』, 염상섭의 『삼대』를, 조해옥(2018, 2019)에서는 이상, 임화의 시를 대상으로 작품 속에 반영된 서울방언 어휘를 검토하였다.

『삼대』에 나타난 고유어 중 몇 예를 든다.

(47) 시스러운 사람 앞이니 잠자코 있어 주었으면 좋을 것을

<삼대 상:73>

남이 어찌든지 이걸 제 계집이나 가지고 옥살리 듯 하네!

<삼대 상:212>

관(푸주)에 들어가는 소같이 바커스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삼대 하:198>

이 단어들은 실제 방언 조사와 사전에서도 확인된다.

(48) 스:스럽-! (유필재 2006: 137)

옥살리- (宋喆儀, 兪弼在 2000: 46)¹⁵⁾

관 = 푸주 (큰사전 비표준어)

15) ‘알보고 야단치다’라고 뜻풀이 되어 있다. 한편 『큰사전』에는 ‘남을 마구 놀려 주거나 집적거리다.’로 설명되어 있어 의미가 약간 다르다.

문학 작품을 통해 ‘팔방미인(八方美人)’같은 한자어도 의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9)의 ‘팔방미인’은 “누구에게나 곱게 보이는 방법으로 처세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였다.

(49) 「나두 이편 저편 다 들지요.」하고 필순은 생긱 웃는다. 「팔방미인 이란 말이죠? 기회주의자이시군!」하고 덕기도 웃다가, <삼대 하:269>

서울방언에서 확인된 단어는 신소설 등에 나타난 20세기초 국어와 연결되어 있다. 유편재(2016: 86)에서 ‘금검스럽-, 거염’의 예를 가져와 제시한다.

(50) 그 사진을 보니 금검스러웁디다.
거염스런 사람이 욕심쟁이구, 거염이 나서.

(51) 집안식구를 모다 불너 안방 위간에다 보호로 근검헝게 늘어세우고
<치악산 하:6>
령감 니외분이 금슬이 조흐신 것을 보고 부럽기도 헝고 거염 나서
<재봉춘 30>

본문에서도 산발적으로 언급된 것처럼 『큰사전』에 실린 단어 중 서울방언을 반영한 단어가 꽤 있다. 특히 생활과 관련된 단어가 그러하다. 『큰사전』의 뜻풀이로 당시 서울방언에서 ‘불고기, 추어탕’이 가리키는 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52) 불고기 - “숯불 옆에서 직접 구워 가면서 먹는 짐승의 고기.”
<큰사전 1449>

(53) 추어탕 - “미꾸라지를 넣고 끓인 국.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리어서 해감을 토하게 한 뒤에 쇠고기, 두부, 버섯, 무우 등을 한데 섞고 새양과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 밀가루를 걸쭉하게 타서 끓이기도 하고, …”
<큰사전 3042>

방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울방언 고유어 예를 宋喆儀, 兪弼在(2000: 45-47)에서 몇 가지 더 제시한다.

(54) 그러께 - 재작년
여자가 가축두 허구 그래야. 가축하다 - 물품이나 몸 따위를 알뜰히

매만져서 잘 간직하거나 거두다

강강허지가 앓구 끄느른:: 헨 거를 무답다구 허구 - 강강(剛剛)하다.
날씨가 쌀쌀하다.

방스바닥이 지금지금해 - 지금지금하다.¹⁶⁾

타내질 앓아 - 타내다. 남의 잘못이나 결함을 드러내어 탓하다.

양감질 - 한쪽 발로만 뛰는 것.

남을 할경을 해:서 반:말지거린 입때 안 써 봤어 - 할경하다. 남에게 말로써 업신여기는 뜻을 나타내다.

달구비가 온다 그러지. 달구비 - 마구 쏟아지는 비. 사전 미등재.

이러한 서울방언 고유어들은 현재는 거의 다 死語가 되었다.

5. 맺음말

이제까지 경기(서울)방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조사, 연구를 검토하였다. 음운 분야의 조사, 연구가 많고 문법, 어휘와 관련된 것은 적다. 문법, 어휘와 관련된 조사,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은 것은 기존 방언조사 방법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李翊燮(2020: 173-174)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까지의 방언 조사는 “고작 1천여 개의 조사항목으로 만든 質問紙를 들고 가서 기본적인 어휘나 몇몇 규칙을 조사해 오는 일이 그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다. 곽충구(2019), 이익섭(2002)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충분한 길이의 예문이 제시된 방언 사전으로 만들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세계가 그야말로 ‘眼前에 展開’된다.”(李翊燮 2020: 174). 이러한 일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연구자가 있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郭忠求(1984) “體言語幹末 舌端子音의 摩擦音化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91, pp.1-22.
 -----(2019),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 태학사.
 이기문(1997), 국어의 현실과 이상, 문학과지성사.
 李秉根(1998), “표준어”, 새국어생활 8-2(국립국어원). [이병근(2020)에 재수록]
 -----(2020), 방언 연구를 향하여, 태학사.
 李翊燮(2020), “ ‘면내다’, ‘깃웃’ 그리고 ‘죽살다’ ”, 韓國語研究 14(韓國語研究會),

16) 『큰사전』에는 “음식에 섞인 잔모래나 흙 따위가 가볍게 자꾸 씹히다.”로 뜻풀이 되어 있다.

pp.173-201.

----- (2022), *강릉방언자료사전*, 신구문화사.

유필재(2000), “‘잡숫다’류 동사의 사전 기술”, *서울말연구* 1(서울말연구회), pp.231-241.

----- (2018), “현대국어 해라체 의문형 어미 ‘-느냐/으냐, -니’의 변화”, *어학연구* 54-1(서울대), pp.79-96.

〈부록〉 경기(서울)방언 논저 목록

지명자료는 제외하였다. 조사, 연구 논저를 간행연도순으로 제시하였다. 본문에서 언급된 논저에는 별표(*)를 해 두었다.

○ 조사

김선희(1969), “강화도 지역별 방언”, *연세국문학* 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0-1984), *한국구비문학대계* 1-1~1-8.

김기한(1983), “여주군 가남면 방언”, *국어국문학 학술답사보고서(건국대)*.

*김계곤(1972-1992), “경기도 방언채집”, *畿甸文化研究* 1집-21집(인천교대). [김계곤(2001)에 재수록]

1972 부천군 덕적면 소야리, 1집

1973 부천군 대부도, 2집

1973 가평군 북면, 3집

1974 양평군 청운면, 4집

1974 포천군 군내면, 5집

1975 안성군 이죽면, 6집

1976 용인군 모현면, 7집

1977 여주군 북내면, 8집

1977 파주군 탄현면, *새국어교육* 25-26집

1978 이천군 설성면, 9집

1979 연천군 미산면, 10집

1980 강화군 화도면, 11집

1983 평택군 현덕면, 특집호

1984 남양주군 진접면, 12-13집

1985 광주군 도척면, 14집

1986 김포군 대곶면, 15집

1987 파주시 문산읍, 16집

1988 고양군 월당읍, 17집

1989 양주군 광적면, 18집

1990 시흥시 목감동, 19집

1991 인천시 중구(옹진군 영종면 외), 20집

1992 인천시 소래, 21집

한양대방언조사단(1983), "반월지구 학술조사보고", 한국학론집 3집(한양대).

方言學研究論文集 : 音韻論.形態論.統辭論.方言調査. 1-2, 京畿道編(1986), 흥문각.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88), 방언반 학술답사 보고서, 冠嶽語文研究 13. [용인군, 안성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90), 방언반 학술답사 보고서, 冠嶽語文研究 15. [여주, 원주]

*한상숙 구술(1991), 밥해 먹으면 바느질허라 바느질 아니믄 빨래허라, 뿌리깊은나무.

*배희한 구술(1992),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뿌리깊은나무.

*이규숙 구술(1992), 이 "계동 마님"이 먹은 여든살, 뿌리깊은나무.

韓國方言資料集(Ⅰ) 京畿道篇(199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송현호(1997), 서울 地域語 구술 자료(Ⅰ), 成均語文研究 32(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339-444.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Ⅰ)(1997), 국립국어연구원.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Ⅱ)(1998), 국립국어연구원.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Ⅲ)(2000), 국립국어연구원.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Ⅳ)(2001), 국립국어연구원.

유필재(2003), "서울토박이말 정밀전사 자료(Ⅱ)", 서울말연구 2, 박이정, pp.265-280.

경기 지역어 전사 보고서(2008, 2011, 2012, 2013), 국립국어원.

*최명옥(2007), 경기 화성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최명옥(2008), 경기 포천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최명옥(2011), 경기 파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연구

李崇寧(1950), "德積群島의 方言研究", 新天地 5·6. [李崇寧(1968), 大學街의 把守兵, 民衆書館 에 재수록]

李崇寧(1959), "現代 서울말의 accent의 考察 : 特히 condition phonétique와 accent의 關係를 主로 하여", 서울대학교 論文集 9, pp.107-152.

靑山秀夫(아오야마 히데오)(1959-60), "現代朝鮮語의 敬語意識 - 京畿道 驪州郡에 있어서의 實態調査(一,二,三), 朝鮮學報 51, 53, 57.

崔鶴根(1963), "서울方言圈의 形成과 서울方言에 對해서", 鄉土서울 第19號, pp.39-75.

Martin, S. E., Yang Ha Lee, Sung-Un Chang(1967), New Korean-English Dictionary, 민중서림.

박종무(1969), "강화도 방언의 종지법에서 사용되는 동사류의 접미사", 연세어문학

- 2, pp.101-105.
- 천만성(1969), “강화도말에 나타난 언어현상”, 연세국문학 2집.
- 李秉根(1967), “중부방언의 어간형태소 소고: 국어사의 규칙성을 위하여”, 문리대학보 13(서울대학교), pp.31-38. [이병근(2020)에 재수록]
- 李秉根(1969), “京畿地域語의 形態音韻에 대하여 : 특히 龍仁 부근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46, pp.83-85.
- 박종무(1969), “강화도 방언의 종지법에서 사용되는 동사류의 접미사”, 연세국문학 2집.
- 李秉根(1970), “京畿地域語의 母音體系와 非圓唇母音化”, 東亞文化 9(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pp.151-167. [이병근(2020)에 재수록]
- Lee, Pyonggeun(1970), “Phonological & Morphophonological Studies in a Kyonggi Subdialect”, 國語研究 20(서울대).
- 李炫馥(1971a), “현대 서울말의 모음 음가”, 語學研究 7-1(서울대).
- 李炫馥(1971b), “서울말의 모음체계”, 語學研究 7-2(서울대).
- 李基文(1972), 國語史概說(改訂版), 塔出版社. - 제9장 현대국어. 현대국어의 특징과 경향.
- 金亨奎(1973), “京畿·江華島 方言研究”, 학술원논문집 XII.
- 崔世和(1977), “강화도의 언어 - 방언을 중심으로”, 강화도 학술조사보고서 제1책 (동국대).
- 方濟世(1981), “京畿地域語의 流動에 대한 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梁基錫(1982), “漣川地方의 方言研究 - 音韻規則과 音韻體系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임용기(1983), “팔탄지역어의 음운변동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 특별호(경인교대), pp.141-167.
- 이명규(1983a) “경기도방언의 일고찰 - 주로 언어외적면에 입각하여”, 한국학논집 4(한양대).
- 이명규(1983b), “경기도(京畿道) 반월지역어(半月地域語)의 일고찰(一考察)”, 국어국문학 89, pp.27-32.
- *이병근(1983) “경기도의 말 : 천년 역사를 지닌 표준 방언”, 한국의 발견(경기도), 뿌리깊은나무, pp.87-93. [이병근(2020)에 재수록]
- 임용기(1984a), “양주 지방말의 말소리 연구(1)”, 기전문화연구 13(경인교대), pp.133-170.
- 임용기(1984b), “양주 지방말의 말수”, 논문집 18(인천교대).
- 정영주(1985), “경기도 용진군 영종군 방언의 음운현상 - 영종도의 낱말을 중심으로”, 건국어문학 제9,10 합집.
- *李丞宰(1985), “京畿地域의 聽者敬語法 語尾에 대하여 : 疑問法을 중심으로”, 方言 8(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1-22.
- 이명규(1987a), “잊혀지는 토착어에 관한 고찰 - 始興郡 儀旺邑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12(한양대) .

- 이명규(1987b), “中部方言의 言語外的研究 - 특히 始興郡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13(한양대).
- 千素英(1987), “畿甸地域語의 國語史的 위치에 대하여”, 畿甸文化研究 제1권.
- *임용기(1988), “광죽말의 자리토씨: 중부 방언학을 위한 기초 연구”, 기전문화연구 17(경인교대), pp.223-259.
- *李秉根·박경래(1988), “경기도방언의 연구와 특징”, 국어생활 12, pp.61-72.
- *임용기(1989), “광죽말의 도움, 이음, 특수 토씨”, 기전문화연구 18(경인교대), pp.213-235.
- *이병근, 정승철(1989), “경기·충청지역의 방언분화”, 국어국문학 102, pp.45-77.
- *임용기(1990), “광죽말의 마침법 씨끝”, 기전문화연구 19(경인교대), pp.239-281.
- 白斗鉉(1991), “20세기초의 서울방언에 대한 일고찰”, 龍淵語文論集 4(慶星大).
- 梅田博之(1991), “서울말의 모음 변화에 대하여”, 들메 서재극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계명대학교 출판부.
- *李秉根(1991), “한 상속 노인의 서울말”, 밥해 먹으면 바느질허랴, 바느질 아니믄 빨래허랴(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18), 뿌리깊은나무.
- *李秉根·박경래(1992), “京畿方言에 대하여”, 南北韓의 方言 研究, 慶雲出版社, pp.15-40.
- 이복영(1994), “大阜島 地域語의 通時音韻論”,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宋玄鎬(1996), “서울 地域語의 助詞”,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충구(1997), “중부방언의 특징과 그 성격”, 한국어문 4(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1-39.
- 김정수(1998), “서울토박이말의 홀소리조직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학연구 10(서울시립대), pp.271-288.
- *박경래(1998), “중부방언”,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pp.819-876.
- 유필재(2000), “서울방언 용언 자음어간의 형태음운론”, 國語學 35, pp.35-65.
- *宋喆儀, 兪弼在(2000), “서울 방언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학 연구 15(서울시립대), pp.5-53.
- *李基文(2000), “現代 韓國語의 變化에 대한 斷想”, 서울말연구 1(서울말연구회), 박이정, pp.1-14.
- 이상억(2000), “서울 옛말씨 분석 : ‘생인손’ 등의 하층계급어법”, 서울말연구 1(서울말연구회), 박이정, pp.123-150.
- *김계곤(2001), 경기도 사투리 연구, 박이정.
- 박기영(2001), “경기도 방언”, 방언학 사전, 태학사, pp.41-47.
-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유필재(2006)로 재간행]
- *강희숙(2002), “『천변풍경』의 음운론”, 국어학 40, pp.171-195.
- *안병희(2002), “문헌으로 본 서울말의 형성과 발달”, 인문과학 9(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91-98.
-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pp.59-91.

- *유필재(2003), “서울지역어의 음운변화 몇가지”, 서울말연구 2(서울말연구회), 박이정, pp.69-98.
- *배주채, 김봉국(2004), “제6장 방언”, 경기민속지 VIII(구비전승편), 경기도 박물관, pp.705-777.
- *오새내(2004), “20세기 서울지역어 형성의 사회언어학적 변인 : 인구이동과 언어접촉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1(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155-174.
- 김선철, 권미영, 황연신(2004), “서울말 장단의 연령별 변이”, 말소리 50, pp.1-22.
- 박선영(2005), “서울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 모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국(2006), “경기도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 어문연구 51, pp.253-278.
- *유필재(2006), 서울방언의 음운론, 월인.
- 최창원(2006), “용인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상역(2006), 서울말 진경 구어 연구 : 구어/문어 목록들 간의 비교, 음변화 규칙 및 ‘가지구, 말이야’ 등의 분석, 박이정.
- 김수현(2007), “경기 화성 지역어의 ‘ㄱ’, ‘ㄴ’ 변이와 변화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朴正壬(2008), “『천변풍경』에 나타난 서울방언의 상대경어법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새내(2008), “일제 강점기 서울 지역어의 성격과 표준어와의 관계”, 한국어학 40, pp.35-55.
- 유필재(2009), “서울방언과 국어사 연구”, 방언학 10, pp.173-93.
- *한성우(2009), 인천 토박이말 연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이지애(2011), “교동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 한성우(2011a),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강화”, 국립국어원.
- 한성우(2011b), “강화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원.
- 한성우(2011c), “서울, 경기방언과 현대문학”, 영주어문 21, pp.55-79.
- 오새내(2012), “1920년대 일본인 대상 조선어 회화서의 서울지역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서울학연구 49(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pp.67-98.
- 박보연(2012), “서울지역어 ‘(X)i-’ 어간 모음어미 활용형의 공존 양상”, 방언학 16, pp.155-185.
- 최창원(2012), “경기 포천 지역어 서술어 어간의 복합 형태소에 대하여”, 한국어정보학 14-1, pp.87-97.
- *유필재(2012), “『川邊風景』과 『三代』 속의 서울방언에 대하여”, 한국문학과 예술 제10집(송실대 한국문예연구소), pp.99-119.
- 조은아(2013), “『三代』의 사회관계에 나타난 상대경어법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현(2014), “『三代』의 친족관계에 나타난 상대경어법의 등급과 실현 양상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필재(2014a), “현대국어 하오체의 변화에 대하여”, 국어학 70, pp.59-83.

- *유필재(2014b),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민요 녹음 자료와 19세기말 국어의 모음 및 모음조화”, 震檀學報 122, pp.175-196.
- *최창원(2015), “경기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옥희(2015), “서울지역어와 경상도 방언의 공시적 변이 관계 -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문헌을 중심으로”, 방언학 22, pp.457-487.
- 최창원(2016), “서울지역어와 경기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방언학 24, pp.177-208.
- *유필재(2016), “서울말의 변화”, 서울 2천년사(1.총설), 경인문화사.
- 최창원, 오새내(2017), “서울지역어와 경기지역어의 어휘 대비 연구 - 어휘 사용의 경향성과 어휘 사용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6(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pp.119-143.
- 최창원(2018), “경기도 양평지역어의 서법 연구 : 기본 서법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0(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pp.41-73.
- *유필재(2019), “서울방언의 代名詞 -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대상으로”, 국어학 90, pp.139-172.
- 백낙천(2018), “방언의 한 특징 : 경기도 성남 방언”, 人文論叢 35(培材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pp.42-49.
- *조해옥(2018), “이상 국문시의 문체 연구 - 서울 방언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0, pp.185-213.
- *조해옥(2019), “이상 시와 임화 시에 나타난 서울방언 비교 연구”, 어문론총 80(한국문학언어학회), pp.313-333.
- *이병근(2020), 방언 연구를 향하여, 태학사.
- 한성우(2021a),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 연구”, 한국학연구 62(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219-243.
- *한성우(2021b), “서해5도 지역어와 방언구획”, 방언학 33, pp.99-128.
- 김수영(2021), “한국어 자음 말음 어간의 형태음운론적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경상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김무식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kms62@ks.ac.kr

1. 들머리

말은 토박이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언어 사회의 역사와 문화, 여러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 단위가 작을 뿐 방언도 그 방언이 사용되는 언어사회의 주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본고에서는 학회에서 주어진 주제에 따른 명칭으로 ‘경상방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명칭과 관련한 논의는 기존의 이 방언과 관련된 여러 논의에서 다른 바가 있다. 이 명칭과 관련된 명칭으로는 ‘경상방언, 경상도방언, 동남방언’ 등이며 앞의 두 명칭이 행정구역과 일치되는 성격이라면 후자는 다소 행정구역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는 이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다른 논의처럼 현재의 경상남북도의 행정구역과 대강 일치하는 의미로서 사용했음을 밝힌다¹⁾.

본 연구는 경상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그 연구의 성과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방언에 관한 연구가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를 보이며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강점과 함께 반성할 점 그리고 앞으로의 이 방언의 연구를 위한 전망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각 시기별로 연구물을 계량화하여 연구의 관심사나 그 양상의 특징을 보일 것이며 이런 요소가 이 방언 및 지역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 이런 연구 경향이 국어학사나 이 방언의 방언학사, 지역문화사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주제 별로 이 방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언과 관련한 연구사나 특징은 최명옥(1986)과 이상규(1998)에서 비교적 잘 논의되어 있다. 또 하위방언인 경북방언에 관한 대표적 연구사는 이상규(1992)에서 경남방언에 관해서는 김영태(1992), 김지홍외(2001)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다수의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결과는 가능하면 이들 논의에 미루고 가능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논의를 중심으로 그 경향성과 이를 통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2. 경상방언과 그 연구의 흐름

2.1. 경상방언의 특징

이 방언은 현대한국어의 모태가 된 기층방언이며 이후에는 중앙어와의 영향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방언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어형을 가진 특징을 가지는 반면 새로운 변화를 드러내는 개신형을 가진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이 방언이 가진 특징을 한국방언자료집(7, 8), 지역어조사자료집을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를 참조해서 개략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²⁾.

2.1.1. 음운

이 방언의 모음체계는 한국어 모음체계에서 가장 적은 수의 모음체계를 가진

-
- 1) 이와 관련된 대표적 논의는 최명옥(1986)과 이상규(1998)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본고의 방언구획과 관련된 주제에서 부분적으로 다룰 것이다. 대개 이런 명칭의 사용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강원도 일부지역과 전남 일부지역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본고에서도 행정구역의 일치되는 영역 정도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 2)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최명옥(1986), 이상규(1998) 및 기타 국어방어학 개설 서적에 많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 주제의 발표에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간단히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런 류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지역이며 대체로 6모음조직체계이지만 지역에 따라 7 ~ 8모음체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경북방언에서는 전설의 ‘꺀’와 ‘꺁’모음은 거의 대립을 보이지 않지만 경남방언에서는 서북지역에 해당하는 ‘함양, 산청, 하동, 진주, 사천’지역에서는 대립이 되며, ‘거창, 합천, 고성’의 일부지역에서도 대립이 된다³⁾. 후설의 ‘ㅡ’와 ‘ㅣ’모음은 경남방언에서는 거의 대립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경북방언의 경우 ‘울진, 봉화, 영풍, 의성, 상주, 금릉’지역에서는 대립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며, ‘ㄴ’과 ‘ㄷ’모음은 모두 이중모음으로 실현되거나 다른 단모음으로 중화되어 단모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중모음은 선행자음이 있을 때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행자음이 없을 때 분명하게 실현되는 특징을 보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yE, yɛ, yu, yo, ya, wi, wE, wɛ, wa’로 소급할 수 있다.

자음체계에서는 ‘ㅅ’과 ‘ㅆ’음의 대립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쪽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고 서쪽에서는 구별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자음 대립의 경우, 젊은 층에서는 교육에 따라 대립의 양상이 노년 층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방언은 성조가 초분절소로서 실현된다는 특징을 보이며 경남북 방언 사이에도 차이를 보인다. 경북방언에서는 ‘고조, 저조, 저고조(상승조)’의 세 성조소로, 경남방언에서는 ‘고조, 저조’의 두 성조소로 대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다만 이 성조의 실현형은 하위 지역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의 예는 경상방언의 음운현상과 관련된 예이다.

- (1) ㄱ. 지름(기름), 질(길), 심(힘)
 ㄴ. 게기(고기), 메기다(먹이다), 예렵다(어렵다)
 ㄷ. 구실(구슬), 버짐/버즘, 실개/썰개(쓸개), 실다/썰다(쓸다), 시리다/씨리다(쓰리다)
 ㄹ. 벗이머(벗으면), 빠시이(빛으니), *비신(빛은), *비칠(빛을)⁵⁾
- (2) ㄱ. 고바(고워), 누버(누워), 미버도(입어도)/ 저서라(젓어라), 쫓사(쫓아서), 이사라(이어라)
 ㄴ. 기(계), 비(배), 시금(세금), 미느리(며느리), 빙(병), 티비(퇴비), 시(쇠), 미다(메다), 피다(퍼다)

3) 이는 최명옥(1998:424), 한국어 방언 연구의 실제, 태학사를 참고하기 바람.

4) 이에 대한 논의는 최명옥(1998:127 ~ 154)을 참조하기 바람, 다만 성조소의 논의에서 여전히 합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경북방언의 경우 상승조 대신에 음장이 결부된 ‘저장조’로 보려는 시각과 경남방언에서 중조를 설정하려는 견해이다.

5) 일부 지역어에서 ‘뜨실(뜻을)’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곡용환경에서는 대부분 생산적이지 않다.

- (3) ㄱ. 돌(뚝), 가비(값이), 너기(넋이), 달을/다글/닥클(닭을), 흘을/흐글/흑클(흙을)
 ㄴ. 비틀(빛을), 꼬틀(꽃을)
 ㄷ. 올기(오리), 문골기(문고리), 알가도(알아도), 달가도(달아도)
 ㄹ. 뚝다(뚝다), 험다(싸다), 열다(널다), 짐우다(기르다), 야프다(얇다)

위의 예(1ㄱ, ㄴ)은 각각 역사적으로 남부방언에 공통적으로 그 세력이 강했던 경구개음화현상, 음라우트 현상의 예이며, (1ㄷ, ㄹ)의 예는 모두 전설고모음화 현상과 관련된 예이다. 이 방언에서 전설고모음화 현상이 매우 그 세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1ㄹ)에서처럼 활용과 곡용에 따라서 달리 적용⁶⁾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예 (2ㄱ)은 ‘병, △’의 변화로 인해 이 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ㅂ, ㅅ 불규칙 동사’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의 예이며, 예 (2ㄴ)은 다른 방언보다 이 방언에서 강하게 적용된 ‘에’모음의 ‘ㅣ’모음으로의 상승규칙에 실현된 경우이다. 이 모음상승 규칙은 경북방언이 경남방언에 비해 더 생산적이어서 경북방언에서는 원래 ‘ㅞ’모음뿐만 아니라 ‘ㅟ > ㅞ, ㅟ > ㅞ’과정을 거친 경우에도 모음상승 현상이 일어나지만 경남방언에서는 이 경우에는 모음상승 현상이 실현되지 않는 차이점을 보인다. 위의 예 (3ㄱ)은 어말자음군의 단순화와 관련된 예이다. 일반적으로 자음군 ‘ㄹ’은 ‘ㄹ’로, ‘ㅃ’은 ‘ㅂ’으로 ‘ㄱ’은 ‘ㄱ’음으로 실현되지만, 이 경우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나타난다. 예(3)은 모두 이 방언의 어간말자음의 표준어와 달리 실현되는 예이다. (3ㄴ)은 표준어 어간말자음 ‘ㅈ, ㅊ’음은 대부분 ‘ㄷ, ㅌ’으로 바뀌어서 실현되는데 위의 예이다. (3ㄷ)의 예는 어말자음 ‘ㅎ’음이 ‘ㄱ’으로 실현된 예이며 (3ㄹ)은 어간의 재구조화에 따른 방언차이를 드러내는 예이다.

다음은 공시적 음운현상 중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경북방언의 예이다⁷⁾.

- (4) ㄱ. 자바도(잡- + 아도), 더퍼도(덜- + -아도)/ 어드바도(어듭- + -아도), 부끄러바도(부끄럽- + -아도)
 ㄴ. 마가도(막- + -아도), 더파도(덜- + -아도), 이바도(입- + -아도)
 ㄷ. 마거도, 더퍼도, 이버도
 ㄹ. 기다레도(기다리- + -아도), 때레도(때리- + -아도), 이페도(입히- + -아도)
 ㅁ. 기다리도, 때리도, 이피도

6) 이에 대해서는 이상규(1994)를 참고하기 바람.

7) 이 예는 최명옥(1986)에서 인용한 것임.

위의 예는 동사어간과 부사형어미 ‘-ㅏ’가 결합과 관련된 모음조화현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4ㄱ)은 단음절 어간 뒤에서는 모음조화가 잘 실현되지만 2음절 이상의 경우에는 ‘-ㅏ’로만 실현되는 경우이다. (4ㄴ)의 예는 단음절을 제외하면 모음조화현상과 관련없이 늘 ‘ㅏ’로만 실현된 태백산맥 동쪽의 해안지역 어에 해당되며, (4ㄷ)은 경북의 동해안에 인접해 있는 ‘안동, 청송, 영천, 경산군’ 지역이며 ‘ㅏ’로 실현되는 예이다. 예 (4ㄹ)은 ‘ㅣ’로 끝나는 이음절 이상의 어간은 부사형 어미와 결합하면 ‘ㅣ’로 실현되는 예이며 (4ㅁ)은 그 밖의 지역의 예이다.

2.1.2. 문법

이 방언의 격조사는 목적격조사, 공동격조사, 호격조사, 관형격조사 등이 특징적이며 일부지역에서는 주격조사도 특별한 양상을 나타낸다. 목적격조사는 ‘날로 가라 하노, 소로 보고’처럼 대격조사 ‘-로’는 모음이나 ㄹ음으로 끝나는 명사에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공동격조사는 ‘니캉 내캉, 니하고 내하고’처럼 ‘-캉, -하고’형이 특징적이며, 존칭호격조사는 ‘선생님예, 아버지요’처럼 경북방언에서는 주로 ‘-예’형으로 경남방언에서는 ‘-요’형으로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관형격조사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개 선행 음절이 자음인 경우엔 주로 ‘-으’로, 모음인 경우엔 ‘-이’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함께, 경북북부지역에서는 주격조사형으로 ‘가심이가, 용이가 머리를 들고’처럼 ‘-이가’형⁸⁾이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활용어미도 이 방언만의 특징을 보이는 예가 많지만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방언에서 종결어미의 특징은 높임과 관련된 설명종결어미와 높임의 의문종결어미다. 설명형어미는 ‘오니더, 옴니더, 옴니다/ 떡이시더, 떡임니더, 떡입니다’와 같이 실현되며, ‘-ㄴ니더(다), -심더’형은 이 방언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다. 하소체 어미 중, ‘-ㄴ니더(다), -심더’는 경북남동내륙 및 경남지역에서, ‘-여’형은 경북서부지역에서, ‘-는구마(오는구마), -느마(오느마)’형은 대구 지역에서 실현된다.

의문형어미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에 따라 각각 ‘-아(어)’형과 ‘-오(우)’형으로 실현되는 특징을 보이며 높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해라체에서는 ‘오나, 오노/ 철수가, 누고’에서처럼 ‘-나(라)/노(로), -가/고’형이 젊은 화자에서는 ‘-을래’형이 나타난다. 하계체에서는 ‘오는가(강), 오는고(공)/ 좋은가(강),

8) 이에 대해서는 이상규(1984)를 참고할 수 있다.

좋은고(공), 떡인가(강), 떡인고(공)에서처럼 ‘-는가(능강), 는고(공)/ 은가(은강), 은고(공)’형으로 실현된다. 하소체, 하이소체형은 각각 ‘오는교, 오니껴, 떡인교, 떡이껴/ 옴니껴, 옴니껴, 옴니까, 떡임니껴, 떡임니껴, 떡임니까’에서처럼 ‘-(은)교, -니(이)껴’형과 ‘옴니껴, 심니껴’형으로 실현되며 이 방언의 특징 중의 하나다. 하이소체는 경북동북지역과 경남지역에서는 하소체로 그대로 쓰인다.

이 방언의 연결형어미는 지역어에 따라 다양한 음성분화형으로 실현되지만 기능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중에서 ‘오면, 만, 며, 마’에서처럼 경북 방언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는 특징을 보이며, 경남방언의 경우 경북지역과 인접한 지역인 밀양, 창녕과 하동, 김해, 양산, 하동, 함안, 함양 등의 일부지역에서는 ‘오면, 오만’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오모’형으로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방언의 선어말어미도 특징적인데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상의 선어말어미는 ‘어지 어데 갔더노, 어지 어데 갔노, 어지 밥 묵었(문는)는 사람은/ 가가 밥 묵을따, 가는 게 조(好)을따(조켰다, 조켰다)’에서처럼 ‘-앗더-’형은 ‘-앗-’형과 같이 단순 과거를 나타내며 관형절에서 ‘-앗는-’형이 실현된다. ‘-을-’형은 미래추측의 선어말어미 ‘-겠-’에 대응되는 형이며, 이들 어형은 경북방언에서는 보수형인 ‘조을따, 조켰다’형이, 경남방언에서는 ‘조켰다, 조켰다’형으로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높임법과 관련된 선어말어미는 ‘믿으이소, 믿으시소, 믿으시이소, 믿으입시다/ 갔니이더, 갔니이데이’에서처럼 ‘-으시, 으이’형과 ‘-이’형은 매우 특징적인 예이다.

이 밖에도 특징적인 요소로 부정법과 피사동표현도 있다. 부정법의 경우 이 방언은 다른 방언에 비해 단형 부정이 매우 우세하다. 즉, ‘안 갈란다, 안 이뿌다, 안 칼켰다’에서처럼 동사나 형용사와 관계없이 모두 단형 부정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방언형의 부정법과 대비해서 매우 특징적인 예이다. 피사동표현도 접사에 의한 단형이 우세하며, 접사도 ‘알(知)구다, 남구다/ 녹쿠다, 삭쿠다/ 줄구다, 줄우다, 재우다’에서처럼 중과된 어형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형태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2.1.3. 어휘

한 언어나 방언의 어휘체계를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방언의 어휘적 특징은 역사적 원인에 따른 보수형이나 다른 방언과 다른 조어법적 특징, 기타 설명하기 힘든 특이한 어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⁹⁾.

9) 이 방언의 어휘적 특징에 관해서는 최명옥(1986)에서는 음운사적 어휘와 특이한 어휘로 나누어서 설

- (5) ㄱ. 가부리(가오리), 가분데(가운데), 누부(누나, 누이), 호박(확), 새비(새우), 자부름(졸음), 호부래비(홀애비), 추비/추부/치비(추위), 더비/더부(더위), 이부제/이부지(이웃), 따뱅이/따바리(또아리), 어불다(어울리다), 찌부러지다(기울어지다), 예비다/예비다(야위다)
- ㄴ. 가시개/가새(가위), 가실(가을), 끄실다(그을다), 끄시름(그으름), 마실(마을), 부석(부엌, 아궁이), 야시/여수(여우), 저실(<겨슬, 겨울)
- ㄷ. 뺨죽(<뺨죽 : 주걱), 우티(<우티 : 혼수감), 나생이/나생기(나시 +-앙이 : 냉이), 수경(슌 + -영 : 숯), 그렁지(<그르메 : 그림자), 지렁(음식디미방, 간장), 쨍바기(<뎡바기, 정수리), 어은지/어(연은제(不冬(안들), 不喩(안디), 아니), 널찌다(떨어지다), 널쭈다(느리- + 디- + -우-, 떨어뜨리다)¹⁰⁾

위의 예(5)는 모두 역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예이다. 예(5ㄱ)과 (5ㄴ)은 모두 음운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예로 각각 중세국어에서 빙음이나 △음에 소급되는 것으로 ‘ㅂ’음과 ‘ㅅ’음이 유지되는 방언형의 예이다. (5ㄷ)의 예도 역사적으로 문헌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한 예로서 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보수적인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6)은 조어법적으로 특색을 드러내는 예이다.

- (6) ㄱ. 드가라(들어가라), 일나다/인나다(일어나다), 주여라(주어넣어라), 해 굴다(하- + 굴- : 못마땅한 행동을 하다)
- ㄴ. 생가리, 날가리(날가루), 생짐치, 생김치, 날짐치(날김치), 생 거, 날 거(날 것)
- ㄷ. 강생이/강새이, 까래이(반딧불, 경남), 깐챙이/깐채이(까치), 꼬래이(꼬리), 나생이, 모개이/모갱이(모기), 미꾸랭이/미꾸래이(미꾸라지), 방매이(방망이) 벌개이(벌레), 뻘개이(병아리), 암새이/염새이(염소), 토개이(토끼), 파래이/포래이(파리), 호매이(호미)

예(6ㄱ)은 15세중엽의 중세국어에서 생산적이었던 합성법으로 ‘동사어간+동사어간’의 결합형이며 이러한 조어법적 특성이 남아있는 형으로 동사어간의 자립성과 관련된 예이다. 예(6ㄴ)은 고유어 접두사 ‘날-’에 대해 한자어 접두사

명했으며 이상규(1998)에서는 ‘조어법상 특징, 어휘 체계상 특징, 어휘 형성상 특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여 한 걸음 진일보된 측면을 알 수 있다.

10) (1ㄷ)의 예는 이상규(1998)에서 인용하였음.

‘생(生)-’ 매우 생산적인 조어법임을 나타내며 (6ㄷ)의 예는 접사 ‘-앙이/앵이/앵이’형과 ‘-랭이, -악지, -애기’형이 생산적임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7)은 다른 방언과 비교해서 매우 특이한 경우의 예만 제시한 것이다.

- (7) ㄱ. 가분다리/가분던지(진드기), 너무(임신, 경남), 다황(성냥), 째지(김치), 능까/능가(벼랑, 비탈), 멀꺼덩이/멀꺼덩이/멀꺼디~(머리카락) 심장구/명장구/싱거무(명), 비리, 빠리(진딧물), 새뚝(세로 주름, 경남), 입수구리/입수부리/입소리(입술), 어간(어안), 영구배/영꾸배(영구 + 배 : 똥배), 쭈글사리(큰주름)
- ㄴ. 공개다/공개다(바치다), 너무하다(임신하다, 경남), 동개다(포개다), 후비다, 새비다, 도덕키다(흙치다), 까리비다(꼬집다, 훑퀴다), 깎치다(재촉하다), 매착없다/메착없다(주책없다, 실없다, 경남), 미검(먼지, 경남, 남부경북), 상그랍다(날카롭다, 위험하다), 새첩다(예쁘다), 새앓다/쌌다(많다), 언치다(체하다), 에나다(진짜다), 존주라다(몸조리하다, 절약하다, 경남), 째기다/쩨기다(지리다), 칼끓다(깨끗하다)
- ㄷ. 내나(이미, 이미 아는 것처럼), 다부(도로), 맥지/백지(공연히), 맹/맨(역시), 벌로(건성으로, 대강), 수시꺼(한참), 에나(진짜), 지쭈지쭈/시시마꿈(제각각), 하마(벌써), 하모(그래)
- ㄹ. 손바꿈(품앗이), 막찌(비지), 뽕시미(비지떡), 머거리(부리망), 주룽실(실타래, 실꾸리), 수까다(애달프게하다), 알테기(쇠뿔이 나이 표시), 단갈딩기(보릿겨, 부드러운 겨), 공계다(포개다, 받치다)

위의 예 (7)은 모두 경상방언과 관련된 예이다. 예 (7ㄱ, ㄴ, ㄷ)은 모두 경상방언에 전반적으로 실현되는 어형이며 특정지역을 표기한 예는 그 지역에만 보고된 어형이며, 예 (7ㄹ)은 모두 경북지역의 어형이다.

2.2. 경상방언 연구의 흐름

이 절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주로 다루었던 경상방언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부분적으로 경남북방언의 연구에서 각기 다른 특징이 있을 경우 두 지역어에 대한 연구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 절에서는 경상방언의 연구를 각 시기별로 나누어 주제별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상방언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통계에 따른 경상방언의 연구 경향

경상방언에 관한 연구는 본격적인 국어학의 연구가 시작된 이래 다른 방언에 비해 그 관심이 많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방언에 나타나는 성조의 실현과 함께 보수적인 방언형이 상대적으로 더 학계의 관심을 더 끌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방언의 연구성과에 관한 종합적 논의는 최명옥(1986)이 대표적이며 경북방언의 연구 성과에 관한 논의는 이상규(1992), 경남방언의 연구성과에 관한 논의는 김영태(1992)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경상방언의 하위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는 졸고(20)를 비롯해 여러 논의가 있다.

최명옥(1986)에서는 경상방언에 관한 연구를 연구사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는 경북방언을 대상으로 한 이상규(1992)와 경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김영태(1992)의 논의도 이 시대구분에 바탕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최명옥(1986)의 시대구분과 그에 따른 특징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의 (8)과 같다.

(8) 최명옥(1986)의 시대구분

- ㄱ. 제1기(1915 ~ 1954년¹¹⁾) : 일제하 역사비교언어학적 방법론
 - 음운론 중심의 개체사적 연구
- ㄴ. 제2기(1955 ~ 1974년) : 구조기술언어학적 방법론
 - 공시적 연구로의 전환
 - 음운론 : 음운체계의 설정에 관심
 - 모음체계 설정
 - 성주소 설정 및 기술
 - 형태 및 어휘 연구가 활발함.
 - 통사적 특징에 관해 처음으로 연구 시작
- ㄷ. 제3기(1975 ~ 1984) : 변형생성언어학적 방법론
 - 음운론
 - 음운현상의 이해와 실현 과정에 관심
 - 음소에 관한 연구
 - 성조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
 - 문헌자료를 통한 방언 연구

11) 최명옥(1986)에서는 각 시기별로 구체적 연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임을 밝힌다. 더욱이 이 시대구분은 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땅히 시대구분을 다시할 필요성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특히 '한국방언자료집'의 간행이 이루어진 90년대 이후에는 이전시기와 달리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방언학사의 시대구분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후고를 기다리기로 한다.

- 통사론

- 통사론적 제약, 기능, 의미 특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짐.
- 세부 주제의 다양성과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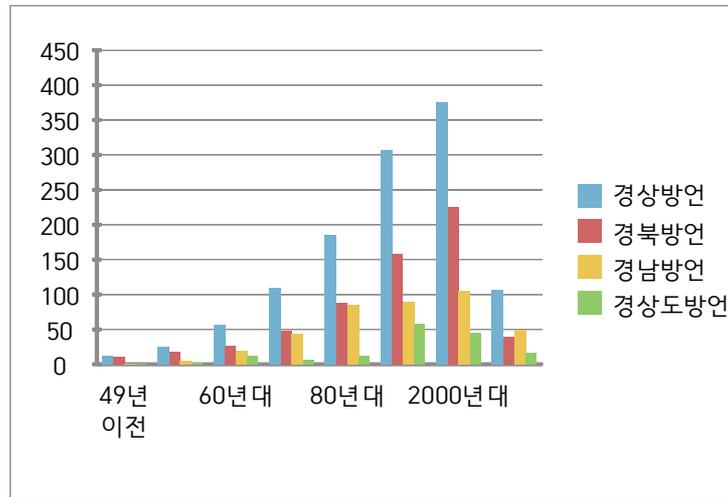
최명옥(1986)의 논의에서는 방언연구의 배경 언어이론을 중심으로 시대구분을 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 그 시대까지 시기 구분을 명료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는 기술이다. 또한 방언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초창기에 상대적으로 연구자 및 이 연구 영역의 관심 부족으로 연구가 성글게 된 것은 당연한 일로 판단된다. 최명옥(1986)의 연구사 검토 이후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주제별로 이 방언 관련 연구물을 계량화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¹²⁾과 같고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연대	하위 방언	음운론		문법론	어휘론	방언 조사	구획	문헌 방언	일반론	사회 방언	계	합계
		음운	성조									
1910~49년	경북	1				1			8		10	12
	경남								1		1	
	경상도								1		1	
50년대~	경북	2	7						9		18	25
	경남			2			2		1		5	
	경상도		2								2	
60년대~	경북	3	7	6	1	5	2	1	1		26	57
	경남	9	3	2	2				3		19	
	경상도	4	2	3					3		12	
70년대~	경북	12	10	12	3	2	3		6		48	109
	경남	11	7	8	8		1		9		44	
	경상도	3	9	2	1				2		17	
80년대~	경북	32	13	23	3	3	2	6	6		88	185
	경남	25	9	21	15	1	3		11		85	
	경상도	2	6	1	2				1		12	
90년대~	경북	40	34	31	13	9	8	11	13		159	307
	경남	35	14	8	11	1	1	1	19		90	
	경상도	12	16	12			4		14		58	
2000년대 ~	경북	37	35	24	48	40	5	8(c1)	29(o)		226	376
	경남	14	16	12	26	6	3	8(c4)	16(o)	4(p)	105	
	경상도	17	16	4	3				5		45	

12) 본고의 <표 1>은 191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4년 이후부터는 국립국어원에서 <국어학연감>을 발간하지 않아서 통계를 처리하기 어려워서 제외했음을 밝힌다. 국어학연감이 발간된 이후는 국어학연감을 바탕으로 했으며, 그 이전은 주로 학술원에서 간행한 <학술총람:1967, 1974>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논저해제:1972> 기타 방언학 관련 저술의 참고문헌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2011 ~ 2013	경북	12	9	7	2	4		1(c)	2(o)	3 (p2,s)	40	107
	경남	5	10	9	9	6	1	5(c2)	3(o)	2	50	
	경상도	5	2	7	1				1	1	17	
총계	전체	281	227	194	148	78	35	41	164	10	1,178	
		508										

<표 1> 경상방언의 연도별, 주제별 연구 통계

<그림 1> 연대별 경상방언의 연구량 변화¹³⁾

위의 <표 1>을 통해 볼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량의 절대수치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연구의 주제도 시간이 흐르에 따라 심화·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표에 따르면, 경상방언을 대상으로 전체 연구물의 양적 변화는 일제 강점기였던 시절에는 그 연구량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며 이는 국어방언학의 첫걸음을 떼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거의 매 기간마다 연구량이 그 이전에 비해 한 배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증가비율이 이전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2010년대는 다른 기간에 비해 통계 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그림 1>에 의해 시각적으로 그 분명한 추이를 알 수 있다. 다만, 눈여겨 볼 내용은 경북방언의 연구량은 2000년대의 경우 90년대까지의 증가폭보다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경남방언의 연구량은 2000년대가 정점을 찍기는 했지만 90년대의 연구량에 비해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또, 경상방언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량은 90년대에 대폭 증

13) 여기서 경상도방언은 그 주제가 경상도방언 전체를 한 것이며, 경상방언은 경북, 경남, 경상도 방언의 연구를 모두 합한 것을 나타낸다.

가했으며 이후 시기는 다소 증감이 있으나 이전과 같은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¹⁴⁾. 이런 연구량의 경향성은 방언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연구진의 수혈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70년대부터 방언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방언 연구 인력의 확충으로 연구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80년대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방언자료집7(경북, 1989), 8(1993)’이 편찬된 것도 연구의 양적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연구량의 수적 확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의 경우 방언조사 부분을 빼면 순수 연구량은 90년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4부터 이루어진 지역어조사 사업에 따른 방언자료가 구축되었고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연구량의 절대치의 증감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경북방언을 중심으로 각 시대별 연구 인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40년대 이전에는 모두 4명에 의해 1인당 평균 2.5편, 50년대는 7명에 의해 평균 1.3편, 60년대는 13명에 의해 평균 2.0편, 70년대는 34명에 의해 평균 1.4편, 80년대에는 48명에 의해 평균 1.8편, 90년대에는 61명에 의해 평균 2.5편, 2000년대에는 75명에 의해 평균 2.6편이다. 자료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표는 대체로 연구자 수의 적층에 의해 연구가 확산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최명옥(1986:103 ~ 104)에서 언급된 것처럼,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신진학자가 계속 진입되었고 이를 통한 연구자 수의 적층에 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추세는 90년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다음의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기	박사학위 논문 수	석사학위 논문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수	합계
1993 ~ 2000	12	20	12	44
2001 ~ 2010	7	24	12	41
2011 ~ 2013	3	8	4	15

<표 2> 경상도방언 대상의 시대별 학위논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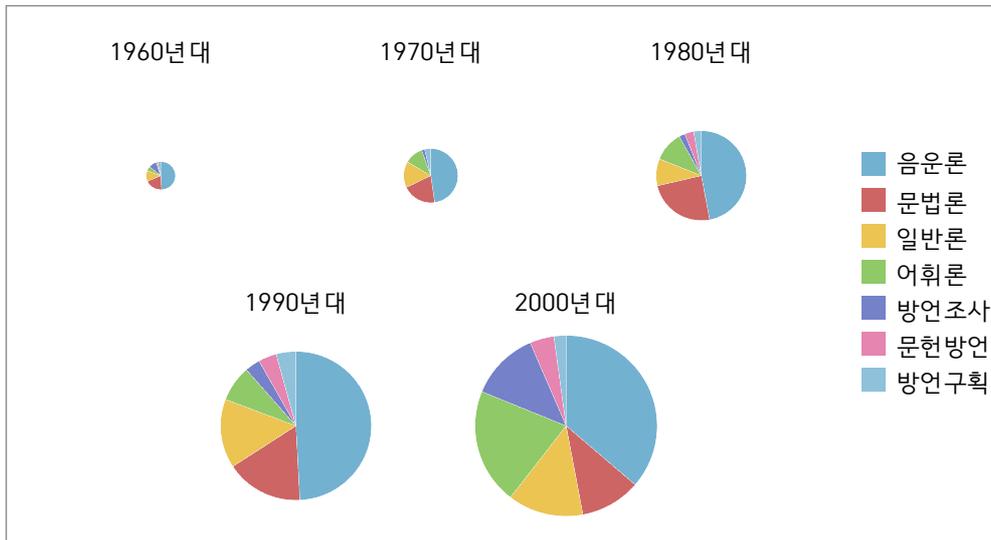
위의 <표 2>를 통해 볼 때 이 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신진연구자의 증감은

14) 2010년대 이후의 통계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14년도까지이며, 2010년대의 변동 양상은 <그림 1>의 추이를 통해 볼 때 앞선 시기처럼 대폭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5) 당연히 경상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통계자료의 문제로 인해 본고에서는 줄고(2011)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음을 밝힌다.

각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그 증감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런 경향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로는 그 증감의 편차가 나타나며 점차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기존 연구자의 고령화와 신진 연구자의 정체, 대학 교원 및 연구진의 미충원은 방언연구에 관한 미래가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된다¹⁶⁾.

다음은 각 시대별로 이 방언의 주제별 비중을 표현한 그래프이다.



<그림 2> 각 주제별 경상방언의 비중

앞의 <표 1>을 통해 볼 때, 대주제별로 구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비중의 편차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1178편 중에서 음운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43.1%, 문법론 16.5%, 여러 주제가 함께 논의된 일반론이 13.9%, 어휘론 분야가 12.6%, 방언조사 내용이 6.6%, 문헌 방언에 관한 주제가 3.5%, 방언구획 주제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음운론의 연구 중에서도 이 방언의 초분절소인 성조와 관련된 연구는 전체 연구량의 19.3%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연구를 했으며 주제별 연구의 편중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자료와 <그림 2>를 통해 볼 때, 주제별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단연코 음운론 분야이다. 방언연구에서 음운론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이 방언의 연구는 43.1%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음운론 연구의 44.7%를 차지한 성조를 다룬 연구가 문법이나, 어휘 등 다른 주제에 비해 많이 연구된

16) 방언학 관련 연구는 학위논문으로 방언학 전공을 한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학 관련 연구의 흐름을 예측하는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는 있다고 판단되어 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것은 음운론 연구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한국어 방언과 달리 이 방언에서 실현되는 성조현상에 관해 일찍부터 주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치열한 논점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 일반 음소체계나 음운현상에 관한 기술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언의 음운체계나 음운현상 중에서 상대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방언의 음운론 분야는 성조현상이나 음운, 음운현상을 고려할 때 그 연구 비중이 상당부분 높게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법론 관련 연구는 각 시기별로 공히 비중있게 연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80년대까지와 달리 90년대 이후에는 문법 관련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절대적 수치가 줄었다기보다 다른 주제 영역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인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국어학의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인 어휘의미론 분야는 초창기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0년대에는 이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방언조사나 조사된 자료의 활용이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방언학 관련 연구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 분야에서 연구의 편중성이 심화된다는 학계의 반성도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2.2. 1990년대 이후의 연구 경향

1990년대 음운론 부분의 연구는 이전 시기에 많이 연구되었던 개별 음소체계나 개별 지역어에 대한 음운현상의 연구는 계속 이어졌으며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초분절소소인 성조 및 음운사와 관련된 연구였으며, 이론적 배경은 이전시대와 비슷하지만 복선음운론적 연구 경향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즉 이 시기에도 이전처럼 개별지역어에 대한 음운체계와 그에 따른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즉, 어중유성자음 문제, 유기음화, 경음화, 모음조화, 이중모음 등과 같은 개별 음운현상에 관한 연구가 주된 관심사였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성조이며 지역에 따른 성조의 음성적 실현양상으로부터 성조 기술방법론과 성조소, 다른 지역과 성조실현형의 비교, 중세국어 성조와의 비교, 복선음운론적 관점에서의 기술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시기였다. 이런 성조분야의 연구는 2000년 이후에도 이 경향은 이어졌으며, 특히 성조사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큰 시기였으며 다른 지역과의 비교, 억양과의 상관성, 문장에 따른 성조의 실현 양상에 이르기까지 주제가 넓어진 시기였다. 특히 이 시기의 연구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각 지역별(경상방언, 경북방언, 경남방언) 성조소의 설정 문제, 표면성조형의 도출 문제, 중세국어 성조와 관련된 성조사 문제이다. 성조소의 설정 문제는 경북방언의 경우 대체로 ‘저조, 고조’의 두 성조소체계¹⁷⁾와 ‘저조, 고조, 상승조’의 세 성조소¹⁸⁾로 구분되지만 최근에는 후자로 기술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경남방언의 경우 ‘저조, 중조, 고조’의 세 성조소체계¹⁹⁾와 ‘저조, 고조’의 두 성조소체계²⁰⁾의 대립 경향이 있지만 최근 들어 두 성조소체계로 기술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또, 성조소나 표면성조형을 기술하는 연구방법론도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르며²¹⁾ 이런 방법론상의 차이가 결국은 성조소나 표면성조형의 차이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 어느 때보다 성조소와 성조의 기술방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 견해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연구자 간에 그 간격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음운론 영역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90년대의 특징 중 하나는 방언음운사이며 이 분야에 관한 관심사는 80년대를 이어 더 심화·확대되었으며 이런 경향은 2000년대 이후에도 이어진 현상이다. 또 80년대 이후 도입된 실험음성학적 방법에 의한 방언음운론의 연구 성과는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더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음운의 세밀한 음성 정보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업으로 판단되며 이는 분절음과 함께 초분절소까지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세대차, 계층, 민반촌 지역어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음운론적 차이를 설명하려 한 연구에 관심이 많아졌으며 이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였다.

문법체계는 음운론 영역에 비해 그 연구의 절대 수치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문법체계가 음운론 영역에 비해 보수적이고 잘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함께 전통적인 역사언어학이나 구조주의언어학적 방법론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법체계와 관련된 연구는 60년대의 최학근과 나진석의 연구에 의해 시작된 이래로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를 거치면서

17) 이는 천시권(1958)에 의해 제기된 이래로 장태진(1960), 문효근(1969) 등에 의해 제기된 견해로 고저체계에 음장이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8) 이에 대한 견해는 최명옥(1990)이 대표적이며 이후의 이혁화(1994), 임석규(1999)외, 김세환(2005)외, 이문규(2017)외로 대표되는 일련의 연구이다.

19) 이는 익히 알려진 대로 허웅(1954)에서 시작하여 김영송(1963), 김영만(1966), 문효근(1969), 김차균(2015)외 일련의 연구, 정인교(1987), 정영호(1993), 김영태/김정대(1999)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박정수(1978)외에서는 4단계체계로 기술하고 있다.

20) 이는 정연찬(1963)외, 문곤섭(1986), 최명옥(1990), 안상철(1991), 김고은(2016)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21) 이에 대해서는 임석규(2020)에 비교적 자세하게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크게 김차균(1997)의 15단계에 따른 방법, 이문규(2017)의 방법론, 어미에 기저성조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인 문효근(1962), 정연찬(1977), 최명옥(1990)의 연구 방법론, 문효근(1962)의 방식에 어미에 기저성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석규(1999), 김세환(2005)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주로 하위 지역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주된 연구 관심사는 격어미, 활용어미의 체계와 기능, 높임법, 시상, 피사동법, 부정법 등이며 주로 형태론적 연구가 많았으며 부분적으로 통사화용론적 논의까지 확대된 시기였다. 문법 분야의 이러한 연구 경향은 90년대 이후에도 그대로 확대·심화되었고 여전히 연구 주제의 편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문법부분에 대한 연구에서는 하위지역어의 문법현상에 관한 일반적인 체계에 관심을 갖는 거시적 관점과 하위지역어에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문법규칙을 체계화하려는 미시적 관점²²⁾으로 나눌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태론적 구성에 관한 부분이나 방언문법의 통사론적 부분에 관한 영역은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어휘론에 관한 연구는 앞의 <표 1>이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했지만 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국어든 그 하위 방언이든 말에서 갖는 어휘의 중요성은 크지만 그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낮은 편이며 시기적으로도 오래 되지 않은 편이다. 어휘론과 관련된 연구는 어휘자료의 보고 및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경상방언의 어휘체계와 특징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어휘 자료의 보고와 기술은 대체로 초기에는 어휘 자체에 관한 연구보다는 음운이나 문법, 국어사 등의 보조적 관점에서 기술된 자료가 더 많았으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시기인 70년대 이후에는 어휘 자체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소개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자료는 여러 개인의 보고서와 함께 한국방언자료집, 지역어조사 보고서, 민족생활어조사보고서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어휘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지만 이 방언이나 하위 방언에 관한 전면적 논의의 성격을 띄는 연구와 하위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조어법이나 어원적 연구,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 어휘와 민속, 언어문화적 측면에서의 연구, 언어접촉에 관한 연구, 땅이름과 관련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런 연구 경향은 90년대 이후 더 연구 영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90년대 이후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이 분야의 연구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다만, 어휘를 장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²³⁾와 지역어와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속, 종교 등을

22) 이에 대해서는 김영태(1992:260)에서 경남방언의 문법적 특성에서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북방언도 비슷한 경향을 드러낸다.

23) 이는 천시권(1980), 최명옥(1982), 이상규(1984), 김정대(1989), 김영태(1992), 안귀남(2005, 2007, 2008외 7편), 김재호(2008), 김지숙(2012, 14), 홍기옥(2012외 2편) 등과 이밖에도 친족호칭어 관련 연구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연구한 논의가 있다.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²⁴⁾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로 판단된다.

방언구획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며 이는 개별 하위방언에 관한 여러 방언적 연구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 방언을 대상으로 방언구획을 시도한 것은 박지홍(1983)과 최명옥(1994)이며 다시 경북방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천시권(1965), 이기백(1969)이. 경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것은 김영송(1963)과 김영태(1975)이다. 초창기에 이루어진 방언구획은 대개 음운이나 문법형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최명옥(1994)에서는 방언구획에 필요한 잣대를 수립하고 관련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 방언을 대상으로 방언구획을 한 것이다. 이와 함께 90년대에는 학술원에서 한국방언자료집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어어지도집(1993)이 간행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전국방언지도를 제작했으며 경북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김덕호(2001)도 중요한 연구성과로 판단된다. 특히 전국방언지도 사업은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지만 일반 토박이 화자에게도 제공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방언구획과 관련된 논의는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몇몇 특징적인 연구 경향은 문헌자료에 반영된 방언의 연구, 문학 작품 속의 방언 연구, 방언 속에 반영된 삶과 문화에 관한 연구, 방언사전의 편찬, 방언조사 사업이다. 이 중에서 방언사전의 편찬은 개별 하위지역어를 중심으로 방언연구자에 의한 전문적 사전과 함께 일반인이 편찬한 사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 저작물은 경북방언사전(2000), 경남방언사전(2017), 울산방언사전(2014), 경북북부사전(2019)이 후자로는 경북동남부 방언사전(2007), 창녕방언사전(2019), 진주사투리사전(2022)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사전류의 편찬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토박이 화자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연구이다. 90년대 이후의 연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양상을 보였는데 이것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수행한 방언조사와 그 자료집인 한국방언자료집의 영향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립국어원에서 2000년대에 수행한 지역어조사 사업과 민족생활어조사 사업, 2010년대에 이루어진 전국언어지도사업의 자료는 이 방언의 연구에도 새로운 영향을 끼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문헌자료와 문학작품 속에 반영된 방언의 연구와 어휘나 이들 방언을 통한 삶의 양식과 민속, 사회, 문화와 관련한 논의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

24) 이에 대한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논의한 졸고(2011, 14)와 왕한석(2012) 등이 있다.

기는 하지만 방언학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급격하게 변화된 우리 현대사회와 지역사회를 고려할 때 이런 논의는 방언학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사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상방언 연구의 전망과 과제

경상방언의 연구는 이 방언의 독자적 연구라기보다 국어학의 흐름이나 언어학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온 연구였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이 방언에 관한 연구도 지금까지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어방언학, 국어학의 연구 방향이나 방법론에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만 이 장에서는 이런 큰 연구의 흐름은 제외하고 이 방언의 연구에서 필요한 논의를 주요 과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음운론

다른 방언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겠지만 경상방언 연구에서 음운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성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논의에서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학적 정밀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음운론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대음운론은 음성학의 기초 위에서 추상화를 통한 연구이므로 분절음운론과 초분절음운론을 막론하고 음성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하위 지역어나 경상방언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음성학적 연구에서 출발하며 이를 통한 추상화의 방법은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음향음성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미세한 음향지표상의 차이를 통한 연구가 분절음운론과 성조의 연구에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파악되며 이런 부분을 포함하여 음성학적 사실에 바탕을 하는 연구가 더 정밀화 되었으면 한다. 특히, 음향음성학적 방법론은 분절음소나 성조소, 음장, 억양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조와 관련된 문제이며 이는 성조소 자체의 문제와 분절음운론과의 관련성 문제이다. 성조와 관련된 논의는 90년대 이후에도 성조소체계의 설정과 그 방법, 표면성조형의 도출방법 등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진일보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성조소의 설정 문제는 임석규(2004

외)의 일련의 논의에서 언급한 대로 분절음소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음성학적 층위(또는 음조형)와 음운론적 층위(성조소)를 엄격히 분리할 필요가 있고 엄밀한 최소대립쌍 검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다만, 성조체계의 설정에서 뒤따르는 추상화와 토박이화자의 인식 문제를 조화롭게 기술하는 부분은 연구자의 그 다음 몫이다.

그 동안의 경상방언의 음운현상의 연구에서 몇몇 논의²⁵⁾를 제외하면 대개는 성조현상과 분리하여 논의를 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이 방언의 연구에서 성조가 가진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김성규(1009)와 이문규(2017)의 논의에서 성조의 실현단위가 형태소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경상방언도 성조언어임을 분명히 한 셈이며, 이런 점에서 분절음운론의 논의에서도 성조 현상을 고려할 때 더 정확한 기술이 될 것이다. 특히, 성조 실현의 음성학적 특징을 고려할 때 모음체계의 설정이나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은 이 방언의 성조현상을 고려할 때 더 정확한 현상과 규칙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모음체계를 설정할 때 성조를 고려한 최소대립쌍 검증을 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방언의 모음체계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성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운체계(분절음체계, 초분절소체계)를 설정할 때 추상화와 토박이화자의 언어인식과의 상관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의 경우 두 모음의 중화현상에서 100% 중화된 지역, 50%만 중화된 지역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행히 이런 차이가 세대차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문제와 함께, 방언의 표면음성형을 고려하지 않은 추상화도 문제가 될 부분이며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도 방언형의 정확한 음성학적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연구자의 연구에서 경상방언, 경북/경남방언, 하위지역어와 같은 명료한 구분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한 하위지역어의 음운체계나 음운현상을 상위방언형으로 일반화하여 기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으며, 이는 경상방언 음운론 연구에서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하위지역어의 논의로 상위방언의 일반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언정보보다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연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음운론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가 있겠지만 방언음운사와 관련된 주

25) 분절음운론의 기술에서 성조현상과 관련지워 논의한 대표적인 논의는 최명옥(1982), 백두현(1982), 임석규(1999), 신승원(2000)이다.

요 논점 즉, 모음체계의 변화 문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음라우트현상과의 상관성 등과 같은 문제, 경구개음화 현상 문제 등은 여전히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문법론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문법론의 연구는 문법 요소의 보수성이라는 편견과 함께 음음론에 비해 그 시차성이 적다는 생각으로 그 연구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방언에 비해 시차성이 큰 것을 중심으로 초창기에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70년대 후반 이후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형태소의 분석과 그 기능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꾸준히 연구성과가 늘어나고 통사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런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상방언은 표면음성형의 관점에서 볼 때, 문법형태소가 서로 융합되어 실현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형태적으로 융합된 형을 어떤 잣대로 재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²⁶⁾. 융합된 어형을 중심으로 통사의미론적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정확한 형태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융합된 표면음성형으로 실현된 형태의 구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경상방언 문법사는 물론 공통어로서의 문법사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어가 형태론적으로 교착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형태소의 정확한 분석없이 통사의미론적 기능을 논의한다는 것은 경상방언의 정확한 문법기능을 드러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문제는 활용체계나 곡용체계 모두에 관계되는 문제지만 경상방언의 경우 활용체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상방언과 경북/경남방언, 각 하위지역어의 형태소를 확인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다. 방언문법 연구에 관한 연구 총량은 시간이 흐르면서 늘어났지만 상대적인 비중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주제 중심으로 보면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하위지역어의 특정 문법현상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런 논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방언의 문법현상을 밝히는데 일조를 하고 국어문법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방언문법 연구 상황과 관련지워 생각한다면 각 하위지역어별로 실현되는 다양한 표면음성형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문법형태소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

26) 이에 대해서는 이상규(1992)와 서정목(2001)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더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경상방언을 비롯한 여러 방언이 많이 바뀌고 있고 없어져 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방언연구의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로 방언조사의 정밀한 조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다.

셋째, 표면음성형으로 실현된 문법형태소 융합형의 재분석과 관련된 잣대 문제이다. 당연히 이는 경상방언의 문법체계를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경상방언 토박이 화자의 언어능력이 반영된 언어직관에 따라 먼저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그 다음으로 다른 방언과의 비교분석방법을 통한 객관적 검증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형태소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기저형태소에서 표면음성형으로 실현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논의도 제한된 방언자료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온전한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기에 관련 방언형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목록을 얻는 것이 우선된다.

넷째, 문법현상과 성조와의 관련성 문제이다. 일반언어학적으로 조어법 층위에 초분절 요소가 작용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에 이 영역뿐만 아니라 문법형태소의 융합형과 같은 부분에 성조가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조 연구에서, 어미의 기저성조형을 인정하려는 시도는 일반화된 부분이며 이를 고려한다면 융합형의 형태소 분석과 기능 사이에 성조가 관여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어휘론

일반 말이나 방언에서 어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동안의 방언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어휘 자체의 연구보다는 음운이나 국어사 및 방언사, 문법현상의 보조적 수단으로 조사를 하거나 연구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나마 90년대 이후에는 방언어휘 자체의 성격과 체계를 기술하고자 한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어휘론의 경우도 하위지역어 어휘자료의 정밀한 수집과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어휘는 일차적으로는 어휘의미론 영역, 방언학과 관련되는 영역이지만 이차적으로 그 언어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어휘 조사나 연구는 순수방언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임에도 이런 목적조차 완전히 부합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방언사전을 위한 목적, 어휘체계나 어휘사적 목적과 같은 방언학적 관점에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하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차적으로 각 방언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관점에

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학제적 차원에서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90년대 이후 이 방언에 관한 어휘연구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방언어휘를 그 어휘가 반영하고 있는 방언사회의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시도이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방식대로 기술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국어학적 관점에서도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며 민속, 사회문화적 정보도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휘체계는 음운이나 문법체계와 달리, 그 폭이 매우 넓은 까닭으로 기초어휘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방언이나 하위방언에서 그 방언만의 독특한 개별어휘체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도 여러 연구가 모인다면 결국 방언어휘 연구를 풍부하게 하기는 하지만, 어휘체계의 기술을 위한 기초어휘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방언의 독특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기술한다면 상위 방언사나 국어방언사, 국어어휘사 구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배대운(1975)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초어휘체계의 설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휘의미론에서 많이 논의된 어휘장 이론의 시각²⁷⁾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구조주의 어휘의미론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하나의 어휘나 어휘소는 그 어휘가 속한 방언어휘체계 속의 다른 어휘와의 관계 속에서 기술될 때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런 요소까지 고려할 때만이 정확한 어휘의 기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방언 어휘의 연구에서 기존의 논의처럼 어휘의 외연이나 내포 관계 속에서 의미영역을 정밀하게 기술하는 것은 물론, 의미의 분화나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정밀하고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언어휘를 대상으로 한 어휘의미의 분화에 관해 그 연구방법에 대한 제언을 한 구분관(2007)의 방법론²⁸⁾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방언 어휘조사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이런 점에서 방언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수 있다.

3.4. 그 밖의 문제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요소 중에 주요한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7) 이는 이미 이상규(1992), 안귀남(2008)에서 이미 제시한 바가 있다.

28) 구분관(2007:82 ~ 96)에서는 방언어휘의 의미분화 연구방법론으로 크게 두 가지(맥락을 중시하는 관점, 인지주의적 관점)로 나누고 맥락을 중시하는 관점에서의 의미분화는 다시 '언어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사회적 상황맥락'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한 지역어조사 사업으로 이루어진 구술발화의 이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구술발화를 통한 방언연구 방법에 관한 논의는 이미 최명옥(2007), 이기갑(2008)에 제시되어 있듯이 기존의 질문지에 의한 조사자료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자료이다. 즉, 조사자의 진행에 의한 조사와 달리 이 조사는 자연스러움이 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언어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방언의 연구에서 여러 영역에 걸쳐 보완적인 논의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구술발화 조사를 병행한 연구나 기존의 자료를 통해 보완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다음으로 방언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방언의 연구에서 방언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문제다. 방언조사의 경우, 조사자의 목적에 따라 조사의 양상이 다르며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방언조사를 하고 정리하는 작업에서 조사자의 조사목적이나 편의성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조사와 조사의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더욱이 지난 반 세기 동안 우리 언어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사라져 가는 방언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방언연구자의 분발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방언자료에 관심을 갖고 이를 조사하고 처리하려는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방언구획의 문제는 개별 하위방언이나 하위지역어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위 방언이나 지역어의 체계적 기술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최명옥(1994, 2001)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논자에 따라 방언차이(difference of dialect)와 말투차이(difference of accent), 등어선의 종류에 따른 등급화의 문제 등은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립되기 전까지는 논자의 합리적 논증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논의 과정이 축적될 때 그 방법론이 정립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4. 마무리

말의 기본 속성은 시간과 공간, 사회적 요인에 따라 바뀌고 그에 따라 예상되거나 예상되지 못한 변이형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다. 더욱이 방언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며 이를 쫓아 가며 자료를 정리하고 규칙을 찾아 기술하고 설명하는 일은 오롯이 언어학자, 방언학자의 몫임은 자명한 일이다. 20세기초

반 이래로 경상방언에 관한 연구는 다른 방언과 달리 더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많은 연구업적이 쌓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는 일찍부터 이 방언의 중요성에 혜안을 가진 선학들의 힘든 방언조사와 이를 통한 연구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선학에 의해 이루어졌던 경상방언의 연구 성과를 조망하고 반성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도움을 얻고자 했다. 주제발표라는 논제의 제약과 함께 필자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개별연구 성과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 논의를 가능하게 한 선학들의 집념어린 연구와 연구 현장에서 방언조사를 하고 정리하며 연구를 하는 동학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사라져 가는 방언 자료를 방언학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정부나 유관 학술단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참고 문헌〉

- 경남방언연구보존회(2017), 경남방언사전, 경상남도, 불휘미디어
국립국어원(2004 ~ 2013), 지역어조사사업 보고서(경북, 경남편)
국어국문학회(1990),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지식산업사
김무식(2011), 대구경북지역어 연구 양상과 대구 문화, 어문론총55호
김영태(1992), 경남방언 연구의 흐름과 방향, 남북한의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김지홍외(2001), 경남방언연구, 한국문화사
이상규(1992), 경북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남북한의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이상규(1998), 동남방언, 새국어생활8-4, 국립국어원
이상규(2000),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임석규(2004), 동남방언 음운론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 국어학43, 국어학회
최명옥(1979), 동남방언의 연구와 검토, 방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최명옥(1989), 동남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 국어생활7, 국립국어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한국방언자료집7(경북)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방언자료집8(경남)
(다른 자료는 생략함.)

제2부/ 주제 발표

강원 방언의 성조 변화와 방언 구획 / 최영미

충청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 김정태

서남방언 연구 동향 및 과제—전남 방언을 중심으로— / 강희숙

제주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2010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 신우봉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강원 방언의 성조 변화와 방언 구획

최영미

경동대학교 교양교육학부 교수
heyum95@naver.com

1.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정선방언, 평창방언, 강릉방언, 삼척방언, 영월방언의 성조 체계와 성조 실현을 비교하여 강원방언의 성조 변화를 설명하고, 성조를 기준으로 한 방언을 구획하고자 한다.

강원방언에서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의 운율 유형은 준성조방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연구자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방언연구회(2001:29-30)은 운율을 기준으로 방언구획을 할 때, 강릉, 삼척, 영월을 성조방언으로 구획하고, 정선, 평창, 양양, 고성을 준성조방언으로 구획하며, 횡성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을 음장방언으로 구획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봉국(2002)는 정선방언이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이 혼효된 상태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상녀(2005:35-36)는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이 삼척방언, 강릉방언, 영월방언에서 실현되는 성조형과 비슷하고, 일상적인 발화에서 상승조가 장음으로 인식되므로 음장과 성조가 운소로 기능하는 준성조지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최영미(2009, 2015)는 정선방언과 평창방

언어 삼척방언보다 비성조방언으로 진행이 된 성조언어로 기술했으며, 이토 다카요시(2015)은 정선방언과 영월방언을 성조방언으로 기술하고 있다. 임석규(2022:78)는 강릉방언을 준성조방언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이처럼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의 운율 유형에 대한 견해가 연구자마다 다름이 있고(이문규, 2017), 성조방언으로 분류되던 강릉방언까지 준성조방언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기술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성훈(2018:168)은 강원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핵심방언은 평창방언으로 기술하고, 4개의 핵심방언권으로 기술한 바가 있다. 4개의 핵심방언권은 첫째, 동남방언권과 전이지역인 삼척방언권이고, 둘째, 강원도의 핵심방언권인 평창방언, 정선방언, 영월방언, 강릉방언이며, 셋째, 강원도 북부 해안 방언권인 인제방언, 고성방언, 양양방언이며, 넷째, 영서방언권인 원주(원성)방언, 횡성방언, 철원방언, 홍천방언, 화천방언, 양구방언, 춘천(춘성)방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군집분석을 통한 강원방언의 하위방언권의 구획 결과에서 평창방언, 영월방언, 정선방언, 강릉(명주)방언이 하나의 하위방언권으로 묶인다는 사실은 성조를 연구하는 필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이 강릉방언, 삼척방언, 영월 방언의 성조체계와 성조 실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의 운율 유형을 기술하고, 성조를 기준으로 한 강원방언의 방언구획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강원방언 성조 연구

강원방언 성조에 대한 연구는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 77편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논문을 연별 순으로 대상지역에 따라 정리한 표를 보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강원방언 성조에 대한 논문 목록

논문	삼척	영월	강릉	정선	평창 (진부)	동해	양양
문효근(1969)	○		○				
이익섭(1969, 1972)	○		○				
문효근(1974)	○		○				
이익섭(1981)	○		○				

윤종남(1987)			○				
이기문 외(1991)	○	○	○				
이상녀(1991)	○						
최명옥(1998)	○	○	○				
김봉국(1998)	○						
이문규(1998)	○		○				
최명옥(1999)	○	○	○				
김차균(1999)	○		○				
최영미(2001)	○						
방언연구회(2001)*	○	○	○				
김봉국(2002)	○			○			
이병근 외(2002)				○			
김주원(2003)	○		○			○	○
강흥구(2003)	○						
이상녀(2005)	○		○	○	○		
손용일(2006)				○			
김차균(2006)	○		○				
최영미(2009)				○			
최영미(2010 ㄱ)				○			
최영미(2010 ㄴ)				○			
최영미(2012 ㄱ)				○			
박속희(2012 ㄴ)	○		○	○			
최영미(2013)				○			
최영미(2014)					○		
최영미(2015 ㄱ)					○		
최영미(2015 ㄴ)					○		
최영미(2015 ㄷ)					○		
이토 다카요시 (2015)	○	○	○	○			
이문규(2017)	○	○	○	○		○	○
최영미(2017)				○	○		
김봉국(2018)*	○	○	○	○	○		
최영미(2019)		○					
최영미(2020)		○					
최영미(2021)		○					
임석규(2022)	○		○				
합계 (77)	23	10	20	14	7	2	2
백분율(100%)	29.4%	12.8%	25.6%	17.9%	9%	2.6%	2.6%

<표-1>을 보면, 지역별 강원방언 성조에 대한 선행연구는 삼척방언(29.4%) > 강릉방언(25.6%) > 정선방언(17.9%) > 영월방언(10%) > 평창방언(9%) > 동해방언·양양방언(2.6%)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 강원방언 성조에 대한 연구는 문효근(1967)을 시작으로 강릉방언, 삼척방언, 영월방언의 성조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강원방언에서 성조방언으로 기술되고 있는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후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의

성조에 대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동해안 방언 성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동해방언과 양양방언의 성조가 연구되었다. 따라서 강원방언 성조에 대한 연구는 음의 높낮이가 음운론적 층위에서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는 성조언어를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2000년대 이후부터 준성조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 성조 연구자들이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에 왜 집중을 했을까?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이 혼효된 상태는 어떤 운율적 특징을 가지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고,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이 혼효된 상태가 곧 준성조방언과 등가의 운율적 특징을 가진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원방언 성조가 갖는 운율 유형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성조를 기준으로 한 방언구획을 설명할 것이다.

2.2. 강원방언 방언 구획

강원방언은 대방언권에서 경기방언과 충청방언과 함께 중부방언으로 포함되어 기술되었다. 小倉進平(1924, 1940, 1944)은 6개의 대방언권으로 분류했는데, 강원방언을 경기방언의 일부로 설정했고, 河野六郎(1945)은 5개의 대방언권으로 구획하여 강원방언을 경기방언, 충청방언과 함께 중선방언(=중부방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후 이극로(1931), 이승녕(1967), 김영황(1982) 등의 대방언권 분류도 강원방언을 중부방언으로 기술하였다.

강원방언 하위방언 구획에 대한 연구는 이익섭(1981), 방언연구회(2001), 정성훈(2018), 김옥영(2019) 등을 들 수 있다. 이익섭(1981)은 강원방언 하위방언을 영서방언과 영동방언으로 구분하고, 영동방언은 북단영동방언(고성·양양), 강릉방언, 삼척방언, 서남영동방언(정선·평창·영월)으로 구분하였다. 강릉·평창·영월과 홍천·횡성·원주 사이의 등어선속에 속한 지역들은 영동형과 영서형이 맞부딪치는 전이지대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방언학회(2001)은 이익섭(1981)의 방언구획 내용을 수용하면서 성조와 음장이 변별적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으로 구분했다. 강릉, 삼척, 영월 지역은 성조방언으로 기술하고, 그 외 강원도 대부분 지역을 음장방언으로 기술했으며, 음장방언의 지역 중 성조의 영향을 받은 전이지대인 정선·평창·고성·양양을 준성조방언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성훈(2018)은 이익섭 외(2008) <한국방언자료집>의 어휘자료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강원도 하위방언을 구획했다. 강원도 하위방언을 두 개의 방언권(동남부 방언권과 기타 지역 방언권)으로 구획했다. 두 개의 방언권

은 다시 네 개의 핵심방언권으로 구획하였다. 삼척방언권은 강원방언과 동남방언의 전이지대로 강원방언과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핵심방언이고, 평창방언과 강릉(명주)방언, 정선방언, 영월방언 등을 묶어서 강원도 핵심방언권으로 구획했다. 또한 원주(원성)방언, 횡성방언, 화천방언, 철원방언, 홍천(홍성)방언, 화천방언, 양구방언, 춘천(춘성)방언 등을 묶어서 경기방언의 영향을 받은 영서방언권으로 설정하고, 인제방언, 고성방언, 양양방언 등을 묶어서 강원도 북부 해안 방언권으로 구획했다. 이익섭(1981)의 방언구획과 비교할 때, 강원방언을 영서방언과 영동방언으로 구획한 것과 달리 동남부 방언권과 기타 지역 방언권으로 구획한 점과, 강릉방언을 평창방언, 정선방언, 영월방언 등과 묶어서 구획한 점, 인제방언을 강원 북부 해안 방언권에 포함시킨 점은 다르다. 성조를 기준으로 강원방언을 구획하는 입장인 필자에게 강릉방언을 평창방언, 정선방언, 영월방언과 하나의 핵심방언권으로 묶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옥영(2019)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수집된 방언자료를 활용해서, 남북형 3개의 등어선속과 동서형 5개 등어선속을 기술하고, 강원방언의 핵방언권을 8개로 구획했다. 즉, 원산방언권, 이천방언권, 통천방언권, 춘천방언권, 고성방언권, 강릉방언권, 정선방언권, 삼척방언권 등이 그것이다.

한편, 강원방언 하위방언을 구획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견이 없이 강릉방언, 삼척방언, 영월방언이 성조방언권으로 기술하고,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은 연구자에 따라 준성조방언권과 성조방언권으로 기술하고 있다(이문규 2017, 김봉국 2018). 따라서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이 강릉방언, 삼척방언, 영월 방언의 성조체계와 성조 실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정성훈(2018)의 방언구획에서 강릉방언을 평창방언, 정선방언, 영월방언 등과 묶어서 구획한 점에 집중하여 이 핵심방언 중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이 성조언어인지 준성조방언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2.3. 성조 기술 방법

이 연구는 새로운 방점법을 토대로 성조를 기술할 것이다. 새로운 방점법은 성조체계 안에서 대립과 분포를 기반을 두고 기저층위와 표면층위로 구분하여 성조를 기술하는 방법이다.

중세 국어의 많은 문헌들에서 우리말의 성조는 방점으로 표시되어 왔다. ‘평성(□), 상성(:□), 거성(·□)’ 등과 같은 방점 표시는 그 자체로 말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의 높낮이를 도출하는 궁극적인 요인으로 대립과 중화에 바탕을 두고 추상화된 것이다. 따라서 방점 표시에 의해 표시되

는 성조 또는 성조형의 조치(調值)는 다시 분석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방점 표시와 대립 및 중화의 관계를 보이면 다음 (1)과 같다.

(1) 대립과 중화에 따른 방점의 분류와 그 표기법 (김차균 : 2006L:50)

- ㄱ. 성조가 둘인 방언에서는 중화력이 없는 성조를 평성, 있는 성조를 측성이라 부른다. 평성은 □으로, 측성은 ·□으로 표시한다.
- ㄴ. 성조가 셋인 방언에서는 중화력이 약한 성조를 평성, 중화력이 강한 성조를 측성이라 부르되, 조치가 단순 수평인 것을 거성, 조치가 복잡한 것(곧 길거나, 뒤끝이 올라가거나, 길고 뒤끝이 올라가는 것)은 상성이라 부른다. 평성은 □으로, 거성은 ·□으로, 상성은 :□으로 표시한다.
- ㄷ. 성조가 넷인 방언에서는 중화력이 약한 성조를 평성, 중화력이 강한 성조를 측성이라 부르되, 조치가 단순 수평인 것을 거성, 조치가 복잡한 것(곧 길거나, 뒤끝이 올라가거나, 길고 뒤끝이 올라가는 것)은 상성이라 부른다. 또 상성이 둘일 때는 그 빈도나 분포로 보아 일반적인 것은 상성(또는 양상성), 빈도가 낮고 분포가 제한된 것은 음상성이라 부른다. 거성이 둘일 때는 그 빈도나 분포로 보아 일반적인 것은 거성(또는 양거성), 빈도가 낮고 분포가 제한된 것은 음거성이라 부른다. 평성은 □으로, 상성은 :□으로, 거성은 ·□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음상성과 음거성은 각각 :回과 ·回으로 표시한다.

성조를 기술할 때 변별적 기능을 하는 성조의 단위인 성조소의 기술은 중요하다. 강원방언 성조의 성조체계를 기술할 때, 성조소 수와 성조소 표기에 사용하는 기호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성조소 기술을 정리하면, 대개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강원방언 운율을 기술할 때 음장과 성조가 모두 변별적인 기능을 한다고 파악하여 저단 : 저장, 고단 : 고장으로 운율을 기술한 경우로 이익섭(1972), 윤종남(187), 손용일(2006)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단일 성조소를 3개로 인정하여 저조(L), 중조(M), 고조(H)로 기술하고, 복합 성조로 상승조(M·H)와 하강조(H·M)를 기술하는 경우로 문효근(1969, 1972)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는 단일 성조소로 저조(L)과 고조(H)를 인정하고 상승조를 복합성조소(R=L·H)로 기술하는 경우로 최명옥(1998, 1999), 방언학 사전(2001), 이상녀(2006), 김주원(2006), 김봉국(2002) 등이 이에 속한다. 김봉국(2007)에서는 복합성조소로서 하강조(H·M)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는 단일 성조소로 저조(M), 고조(H), 상승조(H(삼척)/R(강릉)/M 또는 ĩ(정선)) 3개를 인정하는 경우로, 김차균(1999), 김차균(2006), 강흥구(2003), 박숙희(2012), 이문규(2017), 최영미(2009, 2010ㄱ, ㄴ, 2012ㄱ, ㄴ, 2013, 2014, 2015ㄱ, ㄴ, ㄷ, 2017, 2019, 2020, 2021)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상승조는 단일성조소로 파악하

면서 연구 대상지역마다 상승조의 실현음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삼척의 경우 고장조로 실현되고, 강릉은 저조에서 고조로 상승하는 특성을 지니며, 정선은 저조에서 상승하는 음조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강원방언의 성조소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강원방언의 성조소

구분	성조소				
	단일성조				복합성조
ㄱ. 이익섭(1972), 윤종남(187), 손웅일(2006)	L(저단)		H(고단)	L:(저장), H:(고장)	.
ㄴ. 문효근(1969, 1972)	L	M	H		M·H, H·M
ㄷ. 최명옥(1998, 1999), 방언학 사전(2001), 이상년(2006), 김주원(2006), 김봉국(2002)	L		H	.	R=L·H
ㄹ. 김봉국(2007)	L		H	.	R=L·H, F=H·L
ㅁ. 이문규(2017)	L		H	R	.
ㅂ. 김차균(1999), 김차균(2006), 강흥규(2003), 박숙희(2012), 최영미(2009, 2010ㄱ, ㄴ, 2012ㄱ, ㄴ, 2013, 2014, 2015ㄱ, ㄴ, ㄷ, 2017, 2019, 2020, 2021)	M		H	·H(삼척) R(강릉) M(정선/평창) ·L(정선)	.

성조방언에서 성조소가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하지만, 중화의 원리에 의해 최종 방점형 층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점의 연결 방법은 극히 제한된다. 김차균(2006ㄴ:34)은 국어 모든 성조 방언에서 적용되는 중화규칙과 예시를 설명했다.

(2) 중화규칙

- ㄱ.《□_》의 환경에서 □(평성) 이외의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 ㄴ.《{·□, :□, ·回, :回}_》의 환경에서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중화규칙은 한 어절에서 평성(□)은 뒤따르는 성조를 측성으로 중화시키지 못하지만, 거성(·□), 상성(:□), 음거성(·回), 음상성(:回)은 뒤따르는 성조를 측성으로 중화시킨다. (2)의 중화규칙을 적용한 예는 아래와 같다.

(3) 중화규칙 예시

- ㄱ. /가실#구·름/ → /가실·구·름/ → /H²M²/[MH²M]
- ㄴ. /가을#채·소/ → /가을·채·소/ → /H²M²/[MH²M]
- ㄷ. /나무#송·군·다/ → /나무·송·군·다/ → /H⁴M/[MH³M]

(3ㄱ-ㄴ)은 중화규칙이 적용되어 평성형 ‘가실, 가을’ 뒤에서 거성형 ‘·구름’과 상성형 ‘:채·소’가 모두 ·□(측성)으로 변동하고, (3)ㄷ은 평성형 뒤에서 평측형이 성조의 변동 없이 실현된 예이다. (3)처럼 거성과 상성의 강한 중화 기능으로 말미암아 최종 방점형 층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점형은 극히 제한된다.

단어와 어미가 가지는 고유의 성조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점법을 사용한다. 방점법은 둘 이상의 방언에 대한 성조체계나 성조현상을 비교하고 중세 국어 성조와 현대 성조방언의 성조현상을 비교할 때 같은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김차균(1993)에서 개발된 새로운 방점법이다. 5음절의 방점 표상은 아래 (4)과 같다. 다만, (4)에서 강원방언 거성형은 성조 변화를 겪어서 1음절 어절에만 존재하므로 거성형은 1음절 방점형으로 표기하였다.

(4) 강원방언 5음절 어절의 방점 표상

방점형		보통 표시법	간략 표시법	
ㄱ. 평측형	(평1형)	□·□·□·□·□	□·□ ⁴	
	평복형	(평2형)	□ □·□·□·□	□ ² ·□ ³
		(평3형)	□ □ □·□·□	□ ³ ·□ ²
		(평4형)	□ □ □ □·□	□ ⁴ ·□
		(평성형)	□ □ □ □ □	□ ⁵
ㄴ. 거성형		·□	·□	
ㄷ. 상성형		:□·□·□·□·□	:□ ⁵	

성조 현상도 음운 과정을 겪는다. 즉 한 형태소나 단어의 기저방점 표상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표면 음조형으로 실현되는 음운 과정을 겪는다. 성조 음운 과정은 방점형 → /성조형/ → [음조형]의 3단계를 거친다.

(5) 성조의 음운 과정

층위	어휘		잡이(家)	·몸이(身)	:일이(事)
	단계				
기저층위	방	기저 방점 표상	□+□	·□+□	:□+□
	점	↓ ←성조 규칙	당연 규칙 ¹⁾	거성의 평2형화규칙	중화 규칙
	형	최종 방점 표상	□□	□□	:□□~:□□
표면층위		성조형	/HM/	/H ² /	/M ² /
		↓ ←음조실현규칙 음조형	당연 규칙 [HM]	평복형 음조실현규칙 [MH]	상성형 음조실현규칙 [MH]

1) 당연 규칙(default rule)은 기저 방점 표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최종 방점 표상으로 도출될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5)의 성조 음운 과정에서 기저 방점 표상은 형태소, 단어가 가지는 고유 성조소의 연결형이고, 최종 방점 표상은 기저 방점 표상에 성조 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되는 성조소의 연속체이다. 성조 음운 과정의 첫째 단계인 방점형은 기저 방점 표상에 성조 규칙의 적용으로 도출된 최종 방점 표상을 지칭한다. 둘째 단계인 /성조형/은 최종 방점 표상을 성조소로 바꾼 성조소의 연속체이고, 셋째 단계인 [음조형]은 /성조형/에 음조 실현 규칙이 적용된 음조 연속체이다. 또한 성조의 음운 과정에서 성조 규칙과 음조 실현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에서 거성형 ‘뭉이’와 상성형 ‘:일이’를 보면 기저 방점 표상에 거성의 평2형화 규칙과 중화 규칙을 적용해 최종 방점 표상이 ‘□□’와 ‘:□·□~:□□’으로 도출되고, 최종 방점 표상을 성조소로 바꿔서 성조형 ‘/H²/’과 ‘/M²/’를 도출했고, 음조형은 성조형에 음조 실현 규칙이 적용되어 ‘[MH]와 [MH]’로 도출되고 있다.

성조의 음운 과정에서 적용되는 성조규칙과 음조실현규칙은 아래와 같다. 성조의 음운과정에 적용되는 규칙의 내용과 수는 방언에 따라 다르다. 이에 따라 강원방언 성조의 성조형과 음조형의 실현이 달라지고 강원방언 성조의 방언차를 갖게 된다. 아래의 (6)은 영월방언의 성조규칙과 음조규칙을 제시한 것이다.

(6) 영월방언 성조규칙과 음조실현규칙

가. 성조 규칙

- ㄱ. 중화 규칙(김차균 2006L:34)
- ㄴ. 거성의 평2형화 규칙(김차균 2006L:40)
- ㄷ.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
- ㄹ. 조사 {에} 앞에서 거성의 평성화(허웅 1963:305)

나. 음조실현규칙

① 단음절

- ㄱ. 평성 /H/ → [H¹] /#_#
- ㄴ. 거성 /M/ → [M] /#_#
- ㄷ. 상성 /M/ → [M] /#_#

② 다음절

- ㄱ. 평일형 /HM₁/ → [HM₁]/#_#
- ㄴ. 평복형 /H₂Mⁿ/ → [MHMⁿ]/#_#
- ㄷ. 상성형 /M₂/ → [MHMⁿ]/#_#

- ㄹ. 음거형 /M₂/ → [HHM₀]/#_#

(단, M² → [HH])

3. 강원방언 성조의 방언차

이 장에서는 강원방언 하위방언인 삼척방언, 강릉방언, 영월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의 성조체계, 성조형과 음조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강원방

언의 성조실현의 차이를 설명하고,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이 성조방언인지 아니면 준성조방언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성조를 기준으로 방언구획을 할 때, 정성훈(2018)에서 제시한 핵심방언권으로 강릉방언, 평창방언, 정선방언, 영월방언 등을 하나의 핵심방언권으로 묶고 삼척방언을 다른 핵심방언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3.1. 성조소와 성조체계

강원방언 성조체계는 3개의 성조소로 구성되어 있는 2단 3성조 체계이다. 삼척방언, 강릉방언, 영월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 등의 강원방언은 성조가 음운론적으로 변별적 기능을 하는 방언이고, 성조소를 방점형/성조형/[음조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성조소는 평성과 측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평성은 고조로 실현되며, 방점형/성조형/[음조형]으로 표시하면, □/H/[H]로 기술할 수 있다. 측성은 다시 거성과 상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성은 저조로 실현되며 방점형/성조형/[음조형]으로 표시하면 □/M/[M]로 기술할 수 있다. 상성은 상승하는 음조로 실현되며 방점형으로 표시하면, :□/Ĥ, R, M/[Ĥ, R, M]로 기술할 수 있다.

강원방언의 평성과 거성의 음조 실현은 동일하게 실현된다. 다만, 거성이 저조로 실현함에도 [M]으로 적는 이유는 한국어 성조를 하나의 음조로 일관되게 표시하기 위함이다. 김차균(2006:1141)을 보면, (7)과 같이 우리말의 음조가 실현되는 음역을 기술하고 있다.

(7) 우리말의 음조(2006:1141)

[H(고조)의 음역 ([12] ~ [15])
[M(중조)의 음역 ([4] ~ [11])
[L(저조)의 음역 ([1] ~ [3])

(7)을 보면 우리말 성조가 갖는 음조로 [L]이 기술되고 있으며, 이 [L]의 음역은 경남 방언 중 창원방언에서 상성의 음조가 실현되는 음역으로 중조보다 훨씬 낮은 음역에서 상승하는 음조로 실현된다. 따라서 강원방언의 저조를 [L]로 적지 않고 [M]으로 적는 것은 (7)과 같이 우리말의 음역을 하나로 적어 방언 간 음조 실현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강원방언의 상성의 음조 실현은 방언마다 다르게 실현된다. 삼척방언의 상성은 고조의 음역에서 길게 실현되는 음조이며, [H]로 표시한다. 강릉방언의 상성은 저조에서 고조로 상승하는 음조로 실현되는 음조이며 [R]로 표시한다. 영월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은 저조의 음역에서 상승하는 음조로 실현되며 [M]로 표시할 수 있다. 이처럼 방언마다 상성형의 음조실현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방언의 성조체계는 2개의 음역을 사용하며, 3개의 성조소가 음운론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성과 거성은 각 방언에서 음조 실현이 같으나, 상성은 사용하는 음역이 달라서 음조가 다르게 실현된다. 강원 방언의 성조소와 성조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8) 강원방언의 성조소

구분	삼척방언 김차균(2006)	강릉방언 김차균(2006)	영월방언 최영미(2020)	정선방언 최영미(2009)	평창방언 최영미(2015)
평성	□/□/□	□/□/□	□/□/□	□/□/□	□/□/□
측성	거성	□/□/□	□/□/□	□/□/□	□/□/□
	상성	:□/□/□	:□/□/□	:□/□/□ [M]	:□/□/□ [M]

3.2. 성조형과 음조형의 변화

3.2.1. 거성형의 평2형의 합류

강원방언에서 다음절 거성형은 평2형과 합류한다. 이러한 성조의 음운과정은 동남방언의 성조의 음운과정과 큰 차이점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강원방언의 거성형은 1음절에서만 존재하고, 2음절 이상 다음절에서는 거성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성형은 기저 방점 표상에서 최종 방점 표상으로 도출될 때, 거성형의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되는 음운 과정을 거친다. 이로 말미암아 강원방언 다음절에서 거성형은 평2형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형 명사 ‘칼(刀)’의 성조 실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8)

- | | | | |
|---------------|-----------------------|-------------|-----------------------|
| 가. 삼척방언 | | 나. 강릉방언 | |
| ㄱ. 칼(刀)/M/[M] | | ·칼(刀)/M/[M] | |
| ㄴ. (·칼·이→)칼이 | /H ² /[MH] | (·칼·이→)칼이 | /H ² /[MH] |
| (·칼·을→)칼을 | /H ² /[MH] | (·칼·을→)칼을 | /H ² /[MH] |

(·칼·도→)칼도	/H ² /[MH]	(·칼·도→)칼도	/H ² /[MH]
ㄷ. (·칼·부·터→)칼버터	/H ³ /[MHH]	(·칼·부·터→)칼버·텀	/H ² M/[MHM]
(·칼·까·지→)칼까지	/H ³ /[MHH]	(·칼·까·지→)칼꺼·지	/H ² M/[MHM]

다. 영월방언		라. 정선방언	
ㄱ. ·칼(刀)/M/[M]		·칼(刀)/M/[M]	
ㄴ. (·칼·이→)칼이	/H ² /[MH]	(·칼·이→)칼이	/H ² /[MH]
(·칼·을→)칼을	/H ² /[MH]	(·칼·을→)칼을	/H ² /[MH]
(·칼·도→)칼도	/H ² /[MH]	(·칼·도→)칼도	/H ² /[MH]
ㄷ. (·칼·부·터→)칼버터	/H ³ /[MHH]	(·칼·부·터→)칼버·텀	/H ² M/[MHM]
(·칼·까·지→)칼까지	/H ³ /[MHH]	(·칼·까·지→)칼꺼·지	/H ² M/[MHM]

마. 평창방언	
ㄱ. ·칼(刀)/M/[M]	
ㄴ. (·칼·이→)칼이	/H ² /[MH]
(·칼·을→)칼을	/H ² /[MH]
(·칼·도→)칼도	/H ² /[MH]
ㄷ. (·칼·부·터→)칼버터	/H ³ /[MHH]
(·칼·까·지→)칼까지	/H ³ /[MHH]

(8가, 나, 다, 라, 마)에서 삼척방언, 강릉방언, 영월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 순으로 다음절 거성형의 성조 실현을 보인 예이다. (8ㄱ)은 단음절 어절로, 명사 ‘·칼’의 성조형과 음조형이 /M/[M]으로 실현된다. (8ㄴ)과 (8ㄷ)은 다음절 어절로, (8ㄴ)은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되어 평2형으로 실현되고, (8ㄷ)은 거성의 평2형화 규칙과 평복형의 자유 변동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평창방언에서는 평복형(평3형)으로 실현되었지만, 정선방언에서는 평복형(평2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은 강릉방언, 영월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 등에서 성조의 음운 과정에서 적용된다.

한편, 김주원(2003 : 269)은 강원도 강릉 및 동해안 방언에서 거성형이 ‘LHLL(=MHM²) ~HHLL(HHM²)’으로 실현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거성형이 ‘HHLL(HHM²)’과 같이 경상도와 일치하는 음조형도 있지만, ‘LHLL(=MHM²)’처럼 둘째 음절이 높음 실현되는 개신형이 생겨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영미(2020:22-27)에서도 영월방언에서 거성형이 ‘MHM~HHM’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가 있다.

3.2.2. 평복형의 자유 변동

평복형은 □□·□, □□·□·□, □□□·□, □□□·□·□ 등과 같이 하나의 어

절에서 축성 앞에 평성이 둘 이상이 있는 방점형을 지칭한다.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은 기저방점표상에서 최종방점표상으로 도출될 때 적용되는 성조 규칙으로, 3음절 이상의 평복형들 사이에서 의미의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방점형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규칙이다. 김차균(2006:93)은 강릉방언의 예시를 통해서 평복형의 자유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9)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2006:93)

평복형(□₂·□ⁿ)의 성조론적인 낱말은 그 표시 방점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위 방점형들(평2형, 평3형, 평4형, ..., 평n형) 가운데 어느 것의 음조형으로도 자유로이 실현될 수 있다. 다만, (C₀VC₀)₁(CV_F·∅V_FC₀Y(여기에서 (C₀VC₀)은 1개 이상의 평성 음절, CV_F는 음절이고, V_F는 자질 묶음 F를 가진 홀소리, ∅는 ㅇ(이응)이며, ·∅V_FC₀는 거성 음절, Y는 0개 이상의 음절)일 때는 방점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9)에 제시한 성조의 음운과정에서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 적용되면, 평복형들은 하위 방점형들(평2형, 평3형, 평4형, ..., 평n형)을 변별적 기능을 잃게 되고, 평복형의 하위의 방점형은 구별되지 않게 된다. 성조의 음운과정에서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되는 방언은 평측형에는 평1형과 평복형, 두 개의 성조형만 존재하게 된다.

<표-3> 평측형의 하위 방점형

방점형		보통 표시법	간략 표시법	
평측형	(평1형)	□·□·□·□·□	□·□ ⁴	
	평복형	(평2형)	□ □·□·□·□	□ ² ·□ ³
		(평3형)	□ □ □·□·□	□ ³ ·□ ²
		(평4형)	□ □ □ □·□	□ ⁴ □
		(평성형)	□ □ □ □ □	□ ⁵

강원방언의 평측형의 실현과 예를 제시하면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되는 예시는 아래 (10)과 같다.

(10)

가. 삼척방언 뜨굽·다 H ² ·M ²)	나. 강릉방언 뚜굽·다 H ² ·M
---	--

2) 김차균(2006: 267)에서 가져온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예이다. 활용에 따른 어절의 예를 제시되지

뜨굽·지	/H ² M/[MHM]	뚜굽·지	/H ² M/[M _{HH} H]
뜨굽·고	/H ² M/[MHM]	뚜굽·고	/H ² M/[M _{HH} H]
뜨굽·나	/H ² M/[MHM]	뚜굽·나	/H ² M/[M _{HH} H]
뜨구·면	/H ² M ² /[MHM ²]	뚜구우·면	/H ² M/[M _{HH} H]
뜨구·우·면	/H ² M ² /[MHM ²]	뚜구우·면	/H ⁴ /[M _{HH} ² H]
뜨구·워·서	/H ² M ² /[MHM ²]	뚜구워·서	/H ⁴ /[M _{HH} ² H]
뜨구·와·서	/H ² M ² /[MHM ²]	뚜구와·서	/H ⁴ /[M _{HH} ² H]
뜨굽·거·든	/H ³ M/[M _{HH} HM]	뚜굽·거·든	/H ⁴ /[M _{HH} ² H]
뜨굽·더·라	/H ³ M/[M _{HH} HM]	뚜굽·더·라	/H ³ M/[M _{HH} HM]
뜨굽·도·록	/H ³ M/[M _{HH} HM]	뚜굽·도·록	/H ⁴ /[M _{HH} ² H]

다. 영월방언

뜨굽·다	H ² ·M
뜨굽·지	/H ² M/[M _{HH} H]
뜨굽·고	/H ² M/[M _{HH} H]
뜨굽·나	/H ² M/[M _{HH} H]
뜨구·면	/H ² M/[M _{HH} H]
뜨구·우·면	/H ⁴ /[M _{HH} ² H]
뜨구·워·서	/H ⁴ /[M _{HH} ² H]
뜨구·와·서	/H ⁴ /[M _{HH} ² H]
뜨굽·거·든	/H ⁴ /[M _{HH} ² H]
뜨굽·더·라	/H ³ M/[M _{HH} HM]
뜨굽·도·록	/H ⁴ /[M _{HH} ² H]

라. 정선방언

뚜굽·다	H ² ·M
뚜굽·지	/H ² M/[MHM]
뚜굽·고	/H ² M/[MHM]
뚜굽·나	/H ² M/[MHM]
뚜구·우·면	/H ² M ² /[MHM ²]
뚜구·우·면	/H ² M ² /[MHM ²]
뚜구·워·서	/H ² M ² /[MHM ²]
뚜구·와·서	/H ² M ² /[MHM ²]
뚜굽·거·든	/H ³ M/[M _{HH} HM]
뚜굽·더·라	/H ³ M/[M _{HH} HM]
뚜굽·도·록	/H ³ M/[M _{HH} HM]

라. 평창방언

뜨굽·다	H ² ·M
뜨굽·지	/H ² M/[M _{HH} H]
뜨굽·고	/H ² M/[M _{HH} H]
뜨굽·나	/H ² M/[M _{HH} H]
뜨구·우·면	/H ³ M/[M _{HH} HM]
뜨구·우·면	/H ³ M/[M _{HH} HM]
뜨구·워·서	/H ³ M/[M _{HH} HM]
뜨구·와·서	/H ³ M/[M _{HH} HM]
뜨굽·거·든	/H ³ M/[M _{HH} HM]
뜨굽·더·라	/H ³ M/[M _{HH} HM]
뜨굽·도·록	/H ³ M/[M _{HH} HM]

(10가, 나, 다, 라, 마)를 보면, 삼척방언에서는 평복형의 자유변동이 적용되지 않아서 방점형이 성조형과 음조형으로 고정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

않은 ‘뚜굽·지, 뚜굽·나, 뚜굽·거·든, 뚜굽·더·라, 뚜굽·도·록’의 성조형과 음조형은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다. 그러나 강릉방언, 정선방언, 영월방언, 평창방언에서는 평창방언에서 평북형의 자유 변동 규칙이 적용되어서 평북형의 하위 성조형이 평2형, 평3형, 평4형이 실현되어 있으나 평2형이 평3형의 변이 성조형과 변이 음조형으로 실현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각 방언지역에서 빈도수가 우월한 성조형과 음조형으로 표기하였다.

3.2.3. 축약에 따른 음상성의 실현

강원방언에서는 성조 축약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절의 성조형이 양상성형, 음상성형, 음거성형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김차균(2006:134~138)은 삼척방언과 강릉방언에서 평성형이 축약되어 성조가 상성형으로 실현될 때 상성형과 음상성형이 변동하는 것을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아래 (11)은 축약으로 인하여 어절의 성조가 상성형 또는 음상성형으로 변하는 예다.³⁾

(11)

가. 삼척방언

(·꼬·다→꼬다)/H²/[MH]
 :ㅁ /M/[M]
 :ㅁ·도 /M²/[MH]
 :ㅁ·라 /M²/[MH]
 :ㅁ·서 /M²/[MH]
 :ㅁ·다 /M²/[MH]

나. 강릉방언

(·꼬·다→꼬다)/H²/[MH]
 :ㅍ /R/[M]
 :ㅍ·도 /R²/[RM]
 :ㅍ·라 /R²/[RM]
 :ㅍ·서 /R²/[RM]
 :ㅍ·다 /R³/[RM]

다. 정선방언

마음 → :ㅁ(心)M
 :ㅁ·이 /M²/[MH]
 :ㅁ·을 /M²/[MH]
 :ㅁ·도 /M²/[MH]
 :ㅁ·에 /M²/[MH]
 :ㅁ·부·터 /M³/[MHH]
 :ㅁ·버·터 /M³/[MHH]
 :ㅁ·까·지 /M³/[MHH]

라. 평창방언

마음 → :ㅁㅁ(心)M
 :ㅁㅁ·이 /M²/[MH]
 :ㅁㅁ·을 /M²/[MH]
 :ㅁㅁ·도 /M²/[MH]
 :ㅁㅁ·에 /M²/[MH]
 :ㅁㅁ·부·터 /M³/[MHH]
 :ㅁㅁ·버·터 /M³/[MHH]
 :ㅁㅁ·까·지 /M³/[MHH]

(11가, 다)는 삼척방언과 평창방언의 예로, □□(평성형) ‘마음’이 축약되어 어절의 성조형이 음상성형이 되는 예이고, (11나, 라)는 강릉방언과 정선방언에

3) 김차균(2006:328)에서 삼척방언과 강릉방언의 대응 관계를 제시하는 예에서 가져온 예이다. 활용에 따른 자료는 필자가 제시했다. 또한 정선방언의 자료는 최영미(2009:128~131)에서 가져온 예다.

서 □□(평평형) 또는 □·□(평측형)이 축약되어 :□(상성형)으로 변하는 예이다. 이때, 상성의 음조 [M]는 중조의 음역에서 상승을 하는 음조이고, [R]은 중조에서 고조의 음역까지 상승하는 음조이다. 그러나, 음상성 음조 [M̄]은 중조의 음역에서 1.3모라 정도 길이로 실현되는 평탄조이고 [M̄]은 중조의 음역에서 1.3모라 정도의 길이로 실현되는 상승조이다. 따라서 양상성형과 음상성형의 음조 실현이 다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3.2.4. 축약에 따른 음거성의 실현

강원방언에서는 성조 축약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절의 성조형이 음거성으로 변동하는 경우가 있다. (12)는 성조의 축약으로 인해 어절의 성조형이 음거성형으로 실현되는 예이다. 즉, 변동평성형 1음절 어간 ‘가·다’에 어미 /-르, -르라, -르라면, -르라도/가 결합한 경우인데 방언에 따라 다른 성조형과 음조형이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12)

가. 삼척방언

가·다/HM/[HM]
:갈 /H/[H̄]
:갈·라 /H²/[HM²]
:갈·라·면 /H²/[HM²]
:갈·라·문 /H²/[HM²]
:갈·라·고 /H²/[HM²]

나. 강릉방언

가·다/HM/[HM]
·꺾 /L/[M̄]
·꺾·라 /L²/[LM]
·꺾·라·면 /L³/[LM²]
·꺾·라·문 /L³/[LM²]
·꺾·라·고 /L³/[LM²]

다. 평창방언

가·다/HM/[HM]
:갈 /M/[M̄]
:갈·라(~한다)/M²/[MH]
:갈·라·고 /M³/[MHM]
:갈·라·나 /M³/[MHM]
:갈·라·면 /M³/[MHM]

라. 정선방언

가·다/HM/[HM]
:갈 /M/[M̄]
:갈·라(~한다) /M²/[MH]
:갈·라·고 /M³/[MHM]
:갈·라·나 /M³/[MHM]
:갈·라·면 /M³/[MHM]

마. 영월방언

가·다 /HM/[HM]
:갈 /M/[M̄]
:갈·라(~한다)/M²/[MM]
:갈·라·고 /M³/[MM²]
:갈·라·면 /M³/[MM²]
:갈·라·나 /M³/[MM²]

(12가, 다, 라, 마)를 보면, 삼척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 영월방언에서는 상성형으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2나)을 보면, 강릉방언에서 음거성형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3)의 예를 보면 평창방언에서는 음거성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가. 평창방언		나. 정선방언	
(·추·우→)추우→㉠(凍)H		(·추·우→)추우→:추(凍)M	
·㉠·가	/HH/[HH]	:추·가	/M ² /[MH]
·㉠·를	/HH/[HH]	:추·를	/M ² /[MH]
·㉠·도	/HH/[HH]	:추·도	/M ² /[MH]
·㉠·에	/HH/[HH]	:추·에	/M ² /[MH]
·㉠·버·터	/HHH/[HHH]	:추·버·터	/M ³ /[MHH]
·㉠·까·지	/HHH/[HHH]	:추·까·지	/M ³ /[MHH]

(13가)에서 거성형 ‘·추·우’가 평2형화 변동하고, 축약되어 음거성형 ‘·㉠’로 변동하고 있다. 음거성형의 음조 [H]은 고조의 높이에서 수평조로 이루어지되, 1모라의 길이를 가진다. 반면에 (13나)은 정선방언의 예로, 거성형 ‘·추·우’가 거성평의 평2형화 규칙이 되어 ‘추우’가 축약되어 상성형으로 변동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강릉방언과 평창방언에서 축약에 의한 음거성이 실현되고 삼척방언, 정선방언, 영월방언에서는 축약에 의한 음거성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5. 평1형의 평복형화

평성형 명사 ‘산’이 조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어절의 성조형은 평1형으로 실현된다.

(14)

가. 삼척방언		나. 강릉방언	
산·이	/HM/[HM]	산·이	/HM/[HM]
산·을	/HM/[HM]	산·을	/HM/[HM]
산·도	/HM/[HM]	산·도	/HM/[HM]
산·에	/HM/[HM]	산·에	/HM/[HM]
산부터	/H ³ /[MHH]	산버·터	/H ² M/[MHH]
다. 영월방언		라. 정선방언	
산·이	/HM/[HM]	산·이	/HM/[HM]

산·을	/HM/[HM]	산·을	/HM/[HM]
산·도	/HM/[HM]	산·도	/HM/[HM]
산·에	/HM/[HM]	산·에	/HM/[HM]
산부터	/H ³ /[M _{HH}]	산버·터	/H ² M/[MHM]
산까지	/H ³ /[M _{HH}]	산까·지	/H ² M/[MHM]

마. 평창방언①

산·이	/HM/[HM]
산·을	/HM/[HM]
산·도	/HM/[HM]
산·에	/HM/[HM]
산부터	/H ³ /[M _{HH}]
산까지	/H ³ /[M _{HH}]

바. 평창방언②

산·이	/H ² /[MH]
산·을	/H ² /[MH]
산·도	/H ² /[MH]
산·에	/HM/[HM]
산부터	/H ³ /[M _{HH}]
산까지	/H ³ /[M _{HH}]

(14가, 나, 다, 라, 마)에 제시한 평성형 ‘산’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보면, 삼척방언, 강릉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①, 영월방언에서 어절의 성조가 평1형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4바) 평창방언②를 보면, 평성형 ‘산’이 조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평2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평창방언에서 평1형이 평복형으로 변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평1형의 평복형화는 아직 수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즉, 평창방언의 평1형이 성조 체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반대로 평복형은 성조 체계 안에서 기능적 측면에서 확대하는 변이 과정을 겪는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곡용 시 평성형의 평1형으로 실현된 조사 항목은 총 142개이다. 이 중에 평1형으로만 실현되는 단어가 38개이고, 평1형과 평복형으로 둘 다 실현되는 단어는 56개이며, 평복형으로 실현되는 단어는 48개이다. 이러한 사실은 평창방언에서 성조체계 내에서 평1형의 지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 수의적 변이는 성조체계 내에서 우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강원방언의 성조는 동남방언의 성조와 방언차를 갖게 될 것이다.

3.2.6. 변동 평성형 동사의 성조변동에서 평1형이 음평성형으로 변화

강원방언에서 동사어간 ‘사-, 자-’는 변동 평성형으로 결합하는 어미에 따라 어절의 성조가 평1형(□·□·□), 평복형(□□·□), 상성형(:□·□·□)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평창방언에서는 기저성조가 변동하지 않고, 평1형과 음평성형으로 실현된다. 강원방언에서 동사어간 ‘사-, 자-’의 성조 실현은 아래 (15)와 같다.

(15)

가. 삼척방언

자·다/H·M/

ㄱ.자·고(~#있·다)	/HM/[HM]
자·나(~#:마·나)	/HM/[HM]
자·라	/HM/[HM]
자·게	/HM/[HH]
자·자	/HM/[HM]
ㄴ. (·자·더·라→)자더·라	/H ² M/[MHM]
(·자·거·든→)자거·든	/H ² M/[MHM]
(·자·더·나→)자더·나	/H ² M/[MHM]
(·잡·디·다→)잡디·다	/H ² M/[MHM]
ㄷ. :잘·라(~한·다)	/M ³ [MHM]
:잘·라·고	/M ³ [MHM]
:잘·라·나	/M ³ [MHM]
:잘·라·면	/M ³ [MHM]
ㄹ.·자	/M/[M]
ㅁ.(·자·도→)자도	/H ² [MH]
(·자·라→)자라	/H ² [MH]
(·자·서→)자서	/H ² [MH]
(·자·야→)자야	/H ² [MH]
(·짚·다→)짚다	/H ² [MH]

다. 평창방언

사·다/H·M/

ㄱ.사·고(~#있·다)	/HM/[HM]
사·나(~#:마·나)	/HM/[HM]
사·라	/HM/[HM]
사·게	/HM/[HH]
사·자	/HM/[HM]
ㄴ. (·사·더·라→)사더·라	/H ² M/[MHM]
(·사·거·든→)사거·든	/H ² M/[MHM]
(·사·더·나→)사더·나	/H ² M/[MHM]
(·삽·디·다→)삽디·다	/H ² M/[MHM]
ㄷ. :살·라(~한·다)	/M ² [MH]
:살·라·고	/M ³ [MHM]
:살·라·나	/M ³ [MHM]
:살·라·면	/M ³ [MHM]
ㄹ.·사	/M/[M]
ㅁ.(·사·도→)사도	/H ² [MH]
(·사·라→)사라	/H ² [MH]
(·사·서→)사서	/H ² [MH]
(·사·야→)사야	/H ² [MH]

나. 강릉방언

자·다/H·M/

자·고(~#있·다)	/HM/[HM]
자·나(~#:마·나)	/HM/[HM]
자·라	/HM/[HM]
자·게	/HM/[HM]
자·자	/HM/[HM]
(·자·더·라→)자더·라	/H ² M/[MHM]
(·자·거·든→)자거·든	/H ² M/[MHM]
(·자·더·나→)자더·나	/H ² M/[MHM]
(·잡·디·다→)잡디·다	/H ² M/[MHM]
:잘·라(~한·다)	/M ² [MH]
:잘·라·고	/M ³ [MHM]
:잘·라·나	/M ³ [MHM]
:잘·라·면	/M ³ [MHM]
·자	/M/[M]
(·자·도→)자도	/H ² [MH]
(·자·라→)자라	/H ² [MH]
(·자·서→)자서	/H ² [MH]
(·자·야→)자야	/H ² [MH]
(·짚·다→)짚다	/H ² [MH]

라. 정선방언

사·다/H·M/

사·고(~#있·다)	/HM/[HM]
사·나(~#:마·나)	/HM/[HM]
사·라	/HM/[HM]
사·게	/HM/[HM]
사·자	/HM/[HM]
(·사·더·라→)사더·라	/H ² M/[MHM]
(·사·거·든→)사거·든	/H ² M/[MHM]
(·사·더·나→)사더·나	/H ² M/[MHM]
(·삽·디·다→)삽디·다	/H ² M/[MHM]
:살·라(~한·다)	/M ² [MH]
:살·라·고	/M ³ [MHM]
:살·라·나	/M ³ [MHM]
:살·라·면	/M ³ [MHM]
·사	/M/[M]
(·사·도→)사도	/H ² [MH]
(·사·라→)사라	/H ² [MH]
(·사·서→)사서	/H ² [MH]
(·사·야→)사야	/H ² [MH]

(·샷·다→)꺠·다	/꺠 ² /[HH]	(·샷·다→)샷다	/H ² /[MH]
<p>마. 영월방언</p> <p>사·다/H·M/</p> <p>ㄱ.사·고(~#있·다) /HM/[HM]</p> <p>사·나(~#:마·나) /HM/[HM]</p> <p>사·라 /HM/[HM]</p> <p>사·게 /HM/[HH]</p> <p>사·자 /HM/[HM]</p> <p>ㄴ. (·자·더·라→)자더·라 /H²M/[MHM]</p> <p>(·자·거·든→)자거·든 /H²M/[MHM]</p> <p>(·자·더·나→)자더·나 /H²M/[MHM]</p> <p>(·잡·디·다→)잡디·다 /H²M/[MHM]</p> <p>ㄷ.:살·라(~한·다) /M³/[MHM]</p> <p>:살·라·고 /M³/[MHM]</p> <p>:살·라·나 /M³/[MHM]</p> <p>:살·라·면 /M³/[MHM]</p> <p>ㄹ.·사 /M/[M]</p> <p>ㄹ.(·사·도→)사도 /H²/[MH]</p> <p>(·사·라→)사라 /H²/[MH]</p> <p>(·사·서→)사서 /H²/[MH]</p> <p>(·사·야→)사야 /H²/[MH]</p> <p>(·샷·다→)샷다 /H²/[MH]</p>			

(15가ㄴ, 나ㄴ, 라ㄴ, 마ㄴ)을 보면, 삼척방언, 강릉방언, 정선방언, 영월방언의 변동 평성형 동사어간 ‘사-, 자-’의 성조 변동을 제시한 것이다. (15가ㄱ, 나ㄱ, 라ㄱ, 마ㄱ)에서 동사어간 ‘사-, 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약어미 {-고, --게, --게, --자}과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평1형(□·□/HM/[HM])으로 실현되고, (15가ㄴ, 나ㄴ, 라ㄴ, 마ㄴ)에서 동사어간 ‘사-, 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강어미 {-거·든, -더·라, -더·나, -ㅂ·디·다}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평복형(꺠꺠꺠/꺠³/[HHH])으로 실현된다. 또한 (15가ㄷ, 나ㄷ, 라ㄷ, 마ㄷ)에서 동사어간 ‘사-, 자-’는 ‘-·으X’ 일부+축약(‘-·으X’ 일부) {-·을·라, --·을·라고, --·을·라·나, --·을·라·면}과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형이 상성형(:□·□·□/ M³/[MHM])으로 실현되고, (15가ㄹ, 나ㄹ, 라ㄹ, 마ㄹ)에서 동사어간 ‘사-, 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강어미 {-·아/·어}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축약 후 1음절로 실현되어 거성형(·□/ M/[M])으로 실현되며, (15가ㅁ, 나ㅁ, 라ㅁ, 마ㅁ)에서 동사어간 ‘사-, 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강어미 {-·아/·어라, --·아/·어서, --·아/·어야, --·았·다}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평복형(□□/ H²/[MH])으로 실현된다.

반면에 (15다)는 평창방언 변동평성어간 동사어간 ‘사-’의 성조변동을 제시한

것이다. (15다ㄱ) 동사어간 ‘사-, 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약어미 {-고, --게, --게, --자}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평1형(□□/HM/[HM])으로 실현되고, (15다ㄴ)에서 동사어간 ‘사-, 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강어미 {-거·든, -더·라, -더·나, -비·다·다}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음평성형(□□□/ㅉ³/[HHH])으로 실현된다. 또한 (15가ㄷ, 나ㄷ, 라ㄷ, 마ㄷ)에서 동사어간 ‘사-, 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강어미 {-을·라, --을·라고, --을·라·나, --을·라·면}과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형이 음평성형(□□□/ㅉ³/[HHH])으로 실현되고, (15가ㄹ, 나ㄹ, 라ㄹ, 마ㄹ)에서 동사어간 ‘사-, 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강어미 {-아/어}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축약 후 1음절로 실현되어 거성형(□/ M/[M])으로 실현되며, (15가ㅁ, 나ㅁ, 라ㅁ, 마ㅁ)에서 동사어간 ‘사-, 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강어미 {-아/어, --아/어라, --아/어서, --아/어야, --았·다}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음평성형(□□□/ㅉ³/[HHH])으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불규칙한 성조변동을 갖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평창방언 변동평성 동사어간이 어미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음평성형(□□□/ㅉ³/[HHH])으로 실현되는 것은 다른 강원방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3.2.7. 강원방언 성조형과 음조형의 실현에서의 방언차

이상에서 강원방언 성조형과 음조형 실현을 통해 성조 변화를 살펴보았다. 앞 절에서 기술한 방언별 성조형과 음조형 실현에 따른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강원방언별 성조형과 음조형 실현의 방언차⁴⁾

구분	삼척방언	강릉방언	영월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
ㄱ. 거성형의 평2형화 규칙	○	○	○	○	○
ㄴ.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	×	○	○	○	○
ㄷ. 음거성형의 실현	○	○	×	×	○
ㄹ. 음상성형의 실현	○	×	×	○	○
ㅁ. 평1형의 평복형화	×	×	×	×	○
ㅂ.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음평성형화	×	×	×	×	○

4) 이 표에서 ‘○’은 해당 성조형과 음조형 실현이 있음을 표시하고, 반면에 ‘×’는 해당 성조형과 음조형 실현이 없음을 표시한다. 그리고 ‘*’는 변이 성조형과 음조형이 실현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표-3>을 보면, 삼척방언에는 거성형의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되고, 음거성형 실현과 음상성형 실현이 되어서 1개의 성조규칙과 2개의 변이 성조형과 음조형이 실현된다. 강릉방언, 영월방언, 정선방언은 거성형의 평2형화규칙과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 등 2개의 성조규칙이 적용되며, 영월방언은 변이 성조형과 음조형의 실현이 없으며, 강릉방언과 정선방언은 음거성형과 음상성형이 각각 1개씩 변이 성조형과 음조형이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평창방언은 거성형의 평2형화규칙과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 등 2개의 성조규칙이 적용되며, 음거성형의 실현, 음상성형의 실현, 평1형의 평복형화,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음평성형화 등의 4개의 변이성조형과 음조형이 실현된다.

3.3. 강원방언 운율 유형과 방언 구획

강원방언 성조는 성조방언에서 비성조방언으로 변화하고 있다. 강릉방언, 삼척방언, 영월방언이 성조방언으로 기술하고,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은 연구자에 따라 준성조방언과 성조방언으로 기술하고 있다(이문규(2017), 김봉국(2018)). 따라서,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이 준성조방언인지 아니면 성조방언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김차균(1999:40-42)는 전라방언 중에 광주방언을 준성조방언으로 분류하고, 광주방언이 장단과 성조가 비긴 상태에서 성조방언에서 음장방언으로 넘어가는 상태를 준성조방언이라 하였다. 먼저, 광주방언의 음조형에 대한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16) 성조방언의 관점에서 기술

- ㄱ. 광주방언은 상성형과 비상성형의 두 가지 성조형이 대립을 이룬다.
- ㄴ. 상성형은 [iM₀]으로 나타난다.
- ㄷ. 비상성형은 [MHM₀]으로 나타나되, 어두자음이 된소리, 거센소리(/ㅅ, ㅎ/ 포함)으로 시작되면 첫 음절이 높아져서 [HHM₀]으로 변한다.

(17) 음장방언의 관점에서 기술

- ㄱ. 장음절로 시작되는 어절의 음조형은 [iM₀]으로 나타난다.
- ㄴ. 단음절로 시작되면서 된소리, 거센소리(/ㅅ, ㅎ/ 포함)으로 시작되면 어절의 음조형은 [HHM₀]이다.
- ㄷ. 단음절로 시작되면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ㅈ/으로 시작되는 어절의 음조형은 [MHM₀]이다.

(16)과 (17)을 토대로 보면, 준성조방언은 상성형(장음)이나 비상성형(단음)이냐, 어절의 첫음절의 분절음 종류에 따라 높낮이가 결정되는 언어를 준성조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16)과 (17)에서 제시한 기준을 운율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을 것이다.

<표-4> 운율 유형에 따른 방언의 운율 실현

ㄱ. 성조방언			ㄴ. 준성조방언			ㄷ. 음장방언	
평측형	거성형	상성형	비상성형(단음)		상성형(장음)	단음	장음
			[MHM ₀] ⁵⁾	[HHM ₀] ⁶⁾			
말(斗)이 손(手)이	말(馬)이 손(客)이	말(言)이 손(孫)이	말(馬)이 말(斗)이	손(客)이 손(手)이	말(言)이 손(孫)이	말(斗)이 말(馬)이 손(手)이 손(客)이	말(言)이 손(孫)이

그러나,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의 음조형 실현을 고려하면, (16)과 (17)의 기술처럼 비상성형의 음조형이 어절에서 첫음절의 분절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8)

가. 정선방언		나. 평창방언	
(·코·가→)코가	/H ² /[MH]	(·코·가→)코가	/H ² /[MH]
(·코·를→)코를	/H ² /[MH]	(·코·를→)코를	/H ² /[MH]
(·코·도→)코도	/H ² /[MH]	(·코·도→)코도	/H ² /[MH]
코·에	/HM/[HM]	코·에	/HM/[HM]
(·코·부·터→)코부·터	/H ² M/[MHM]	(·코·부·터→)코부·터	/H ² M/[MHM]
(·코·까·지→)코까·지	/H ² M/[MHM]	(·코·까·지→)코까·지	/H ² M/[MHM]

만약 (16)과 (17)의 기술을 따라 기술한다면, (18)의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의 예시는 어절의 첫음절의 분절음이 격음이니까 2음절은 [HH]나 [HM]으로 실현되고, 3음절은 [HHM]~[HMM]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에서는 [MH], [MHM]으로 실현된다. 이것은 어절 첫음절의 분절음으로 음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음고와 음장이 비기는 운율 유형을 볼 수 없다는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을 성조언어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동남방언의 성조와 비교해보면, 강원방언 성조는 변화하고 있다. 동남방언에서는 거성형이 성조체계 내에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나 강원방언에서

5) 어두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ㅈ/으로 시작하고 단음인 어절이 갖는 음조형이다.

6) 어두자음이 된소리, 거센소리(/ㅅ, ㅎ/ 포함)로 시작하고 단음인 어절이 갖는 음조형이다.

는 거성형이 성조체계 내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강원방언 개별 하위방언의 성조체계에서 거성형은 1음절에서만 실현되고, 다음절에서는 모두 평2형과 합류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강원방언 하위방언에 따라 성조형과 음조형 실현 규칙과 변이 성조형과 음조형 실현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 <표-3>에 제시한 강원방언에 속한 개별방언의 성조형과 음조 실현 규칙을 토대로 강원방언에서 각 방언에서 존재하는 방점형을 보이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강원방언 성조의 방점형 실현의 방언차

방점형		삼척방언	영월방언	강릉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	
양평측형	(평1형)	①□□□□□□	①□□□□□□	①□□□□□□	①□□□□□□	①□□□□□□	
	평복형	(평2형)	②□□□□□□	②□□□□□□	②□□□□□□	②□□□□□□	②□□□□□□
		(평3형)	③□□□□□□	③□□□□□□	③□□□□□□	③□□□□□□	③□□□□□□
		(평4형)	④□□□□□□	④□□□□□□	④□□□□□□	④□□□□□□	④□□□□□□
		(평성형)	⑤□□□□□□	⑤□□□□□□	⑤□□□□□□	⑤□□□□□□	⑤□□□□□□
음평측형	음평성형	*	*	*	*	⑩□□□□□□	
양측형	거성형	⑥□□□□□□	⑥□□□□□□	⑥□□□□□□	⑥□□□□□□	⑥□□□□□□	
	상성형	⑦□□□□□□	⑦□□□□□□	⑦□□□□□□	⑦□□□□□□	⑦□□□□□□	
음측형	음거성형	⑧□□□□□□	*	⑧□□□□□□	*	⑧□□□□□□	
	음상성형	⑨□□□□□□	*	*	⑨□□□□□□	⑨□□□□□□	

<표-5>를 보면, 삼척방언에서는 거성형의 평2형화 규칙의 적용으로 인해서 ②번과 ⑥번이 [MHMMM]으로 같은 음조로 실현되어서 토박이들의 의식에는 하나의 성조형으로 합류되었다. 강릉방언, 영월방언, 정선방언에서는 ②③④⑤⑥번이 거성형의 평2형화 규칙과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되어서, 수의적으로 변동하고 있지만 토박이들의 의식으로는 다른 음조형으로 구별된다. 특히, 거성형은 이론적으로 1음절 명사의 준굴곡형과 1음절 동사어간의 굴곡형의 성조형의 도출을 위해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창방언에서는 ①②③④⑤⑥번이 거성형의 평2형화 규칙,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 평1형의 평복형화가 적용되어서, 모두 수의적으로 변동하고 있지만 토박이들의 의식으로는 다른 음조형으로 구별된다. 또한, 거성형은 삼척방언, 강릉방언, 영월방언, 정선방언과 같이 1음절 명사의 준굴곡형과 1음절 동사어간의 굴곡형의 성조형의 도출을 위해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강원방언 성조는 하위방언에 따라 변화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동남방언 성조와 비교할 때, 성조변화의 정도성을 기준으로 보면, 강원방언 성조는 삼척방언이 가장 변화가 적고, 영월방언, 강릉방언, 정선방언은 변화의 정도가 비슷하며 삼척방언보다 더 성조변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고, 평창방언은 영월방언, 강릉방언, 정선방언보다 더 많이 성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삼척방언 < 영월방언·강릉방언·정선방언 < 평창방언 순으로 변화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방언연구회(2001:29-30)은 운율을 기준으로 방언구획을 할 때, 강릉, 삼척, 영월을 성조방언으로 구획하고, 정선, 평창, 양양, 고성을 준성조방언으로 구획했으며, 횡성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을 음장방언으로 구획하고 있다. 또한 김봉국(2002)에서도 정선방언이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이 혼효된 상태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강원방언 성조 변화를 토대로 운율을 기준으로 하여 강원방언을 구획하면, 강원방언은 강릉, 삼척, 영월, 정선, 평창을 성조방언으로 구획할 수 있고, 양양과 고성을 준성조방언으로 구획할 수 있으며, 그 외 원주, 횡성, 춘천 등의 나머지 지역은 음장방언으로 구획할 수 있겠다.⁷⁾ 이처럼 성조를 기준으로 강원방언 하위방언을 구획한 결과는 정성훈(2018)에서 4개의 핵심방언으로 구획한 결과와 유사하다. 먼저, 동남방언권과 전이지역으로 설명하면서 삼척방언권을 핵심방언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강원방언 하위방언 중 가장 성조변화가 적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평창방언, 정선방언, 영월방언, 강릉방언을 하나의 핵심방언권으로 구획한 것은 강원방언 중에서 삼척방언 다음으로 성조 변화를 겪고 있으나 성조언어이므로 묶어야 할 것이다. 특히 평창방언은 음장방언과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하위방언보다 성조방언을 많이 겪는 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북부 해안 방언권인 인제방언, 고성방언, 양양방언과 영서방언권인 원주(원성)방언, 횡성방언, 철원방언, 홍천방언, 화천방언, 양구방언, 춘천(춘성)방언은 음장방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정선방언, 평창방언, 강릉방언, 삼척방언, 영월방언의 성조체계와 성조 실현을 비교하여 강원방언의 성조 변화를 설명하고, 성조를 기준으로 한 방언을 구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 논의 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원방언 하위방언을 성조변화의 정도성 기준으로 보면, 삼척방언 < 영월방언·강릉방언·정선방언 < 평창방언 순으로 변화 정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그러나 필자는 양양방언과 고성방언의 운율을 살피지 못한 상태이다. 면밀히 살핀 후에 준성조방언 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준성조방언은 상성형(장음)과 비상성형(단음)으로 구분하고, 어절의 첫 음절의 분절음 종류에 따라 높낮이가 결정되는 언어를 말한다. 이러한 준성조방언의 판단 기준에 적용할 때,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은 비상성형(단음) 중에 어절의 첫 분절음에 의해서 음고가 예측되지 못하는 예시를 통해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의 운율 유형이 성조방언임을 설명했다.

셋째, 강원방언 성조 변화를 토대로 운율을 기준으로 하여 강원방언을 구획하면, 강원방언은 강릉, 삼척, 영월, 정선, 평창을 성조방언으로 구획할 수 있고, 양양과 고성을 준성조방언으로 구획할 수 있으며, 그 외 원주, 횡성, 춘천 등의 나머지 지역은 음장방언으로 구획하여 설명했다.

<참고 문헌>

- 강흥구(2002), 강릉방언 1음절 어간 풀이씨 성조, 『한글』 270, 한글학회, 5-63.
- 강흥구(2003), 삼척방언 성조와 음조에 대한 연구, 『개신어문연구』 20, 개신어문학회, 47-69.
- 김봉국(1998), 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봉국(1999), 삼척지역어의 상승조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고찰, 『관악어문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9-154.
-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봉국(2007), 강원도 태백 지역의 언어 -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 『한민족문화연구』 21, 한민족문화학회, 63-93.
- 김세진(2006),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옥영(2019), 남북 강원지역의 방언구획, 『국어학』 92, 국어학회, 203-239.
- 김주원(2003), 강원도 동해안 방언 성조의 특성, 『민족문화논총』 27, 영남대, 249-283.
- 김주원(2022), 국어 운율의 발달에 대하여-성조방언과 비성조방언의 통합적 연구-, 『국어학』 104, 국어학회, 1-48.
- 김차균(1999), 삼척방언과 강릉방언 성조의 비교, 『우리말 방언 성조의 비교』, 역락.
- 김차균(2006) 『중부 동해안 방언의 성조 비교』, 글누림.
- 김차균(2021), '이극로 박사 음성 녹음 자료'의 성조론적 연구, 『한글』 333, 한글학회, 569-622.
- 문효근(1969), 영동방언의 운율자질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22,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7.
- 문효근(1974), 『한국어성조의 분석적 연구』, 세종출판공사.
- 박숙희(2012), 강원 방언 외래어의 성조형, 『어문학』 118, 한국어문학회, 1-35.
-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손웅일(2006), 정선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윤종남(1987), 강릉방언의 초분절음소(Suprasegmental Phoneme)에 대한 고찰, 『동악어문학』 22, 동악어문학회, 355-382.
- 윤주희(2017), 울진·삼척 전이 지역 방언의 음운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김완진·최명옥(1991), 한국어 방언의 기초적 연구,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 30, 대한민국학술원.
- 이문규(1998), 동해안 세 방언의 성조 연구, 『문화와 융합』 20, 문학과 언어학회, 51-74.
- 이문규(2011), 국어 방언 성조의 성격과 성조 체계 기술의 기본 단위, 『국어학』 60, 국어학회, 68-98.
- 이문규(2012), 성조의 청취적 인식과 실험 음성학적 실측의 상관성, 『어문연구』 72, 어문연구학회, 103-132.
- 이문규(2013), 국어 성조론에서의 성조형의 개념과 위상, 『한글』 301, 한글학회, 5-42.
- 이병근(2002), 강원도 정선 지역의 언어 연구, 『관악어문』 27, 서울대학교, 31-48.
- 이상녀(1991), 삼척지역어의 음운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 이상녀(2005), 강원도 영동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 이익섭(1972), 영동방언의 Suprasegmental Phoneme 체계, 『동악어문』 2, 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17-25.
- 이익섭(1981), 『영동영서의 언어분화-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진호(2009), 국어 최소대립쌍의 설정에 대하여, 『어문학』 107, 한국어문학회, 119-137.
- 임미숙(1993), 평창 지역어의 음운 연구, 『청람어문교육』, 청남어문학회, 112-132.
- 임석규(2003), 동남방언의 성조소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37-69.
- 임석규(2014), 성조 현상을 토대로 한 방언구획론을 위하여, 방언학 19, 한국방언학회, 5-40.
- 임석규(2022), 『국어성조의 이해』 역락.
- 정성훈(2018),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강원도 하위방언구획 연구, 『우리말연구』 55, 우리말연구학회, 145-173.
- 정성훈(2020), 중부지방 방언구획과 네트워크 분석, 『방언학』 32, 한국방언학회, 283-315.
- 최명옥(1998), 현대국어의 성조소체계, 『국어학』 31, 국어학회, 23-52.
- 최명옥(1999), 현대국어의 성조형과 그 분포,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555-581.
- 최영미 외(2012), Language Specificity in Perceptual Compensation for Native and Non-native Assimilation, 『언어』 37-2, 한국언어학회, 445-480.
- 최영미(2001), 「삼척 지역어의 운소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건국대).
- 최영미(2003), 삼척지역어의 장단과 고저에 대한 청취실험 연구, 『국어교육』 110, 한

국국어교육학회, 345-366.

최영미(2009), 정선방언의 성조 체계와 그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최영미(2010ㄱ), 정선방언의 성조체계와 그 역사적 변천, 역락.

최영미(2010ㄴ), 정선방언 성조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겨레어문학』 44, 겨레어문학회, 295-324.

최영미(2010ㄷ), 「정선방언 ‘가·다’류 동사의 성조형의 변화」, 『한말연구』 27, 한말연구학회, 407~438쪽.

최영미(2012), 정선방언 운율유형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73, 어문연구학회, 127-160.

최영미(2013), 정선방언의 비음절화와 성조의 변동, 『한말연구』 33, 한말연구학회, 269-300.

최영미(2014ㄱ), 모음 탈락과 성조 재배열 -중세국어와 정선방언의 비교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52, 겨레어문학회, 331-367.

최영미(2014ㄴ), 평창방언 체언의 성조 연구, 『한말연구』 35, 한말연구학회, 261-296.

최영미(2015ㄱ), 강원방언 ‘가·다’류 동사의 성조 변화, 『한말연구』 38, 한말연구학회, 219-252.

최영미(2015ㄴ), 평창 방언의 성조 연구, 『한글』 308, 한글학회, 31-84.

최영미(2015ㄷ), 평창방언 성조와 언어 분화, 박이정.

최영미(2015ㄹ), 평창방언 용언의 성조 연구, 『겨레어문학』 54, 겨레어문학회, 331-373.

최영미(2017), 강원방언 성조의 인지에 대한 방언차 연구, 『한말연구』 46, 한말연구학회, 207-237.

최영미(2017ㄱ), 강원방언 성조의 인지에 대한 방언차 연구, 『한말연구』 46, 한말연구학회, 207-237.

최영미(2017ㄴ), 국어 ‘가·다’류 동사의 성조변화, 『한말연구』 43, 한말연구학회, 271-305.

최영미(2019), 영월방언 성조체계에 대한 연구-음성·음운론적 관점에서-, 『한말연구』 53, 한말연구학회, 241-268.

최영미(2020), 영월 방언의 거성형과 성조 변화, 『한글』 327, 한글학회, 5-44.

최영미(2021), 영월방언 ‘가·다’류 동사의 성조연구, 『한말연구』 61, 한말연구학회, 361-387.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충청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김정태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kimjt@cnu.ac.kr

1. 서론

국어 방언에 대한 연구가 100년을 넘기고 있다. 짧지 않은 시간이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방언 연구의 결과를 모두 검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비록 특정한 지역의 하위 방언의 연구 성과라도 그렇다. 또한 방언 연구의 결과를 하나의 잣대로 획일화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연구자에 따라 그 의도나 목적, 방법, 대상 자료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연구 성과에 대한 회고,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바르게 발전적인 미래 방언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본고는 국어의 대단위 방언구획에서 중부방언의 하위 방언에 해당하는 충청방언¹⁾의 연구 결과에 대해 조망하고 충청방언 연구의 방향을 전망해 보려는데

1) 본고의 대상이 되는 충청 지역의 지리적 공간은 현재의 충청남북도 및 대전, 세종을 아우른다. 이 지역의 방언은 중부방언의 하위 방언으로서 '방언, 지역어' 등으로 불리는데, 본고는 편의상 '충청방언'이라 부르려 한다. 충청방언에 대한 대방언권으로서의 독립성 여부는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충남방언/충북방언, 천안방언, 영동방언' 등도 등어선에 의해 구획된 방언이 아니라 '지역의

목적이 있다. 일찍이 충청방언에 대해서는 “이 지방이 서울에 가까워 소위 방언적 특색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김형규(1972:110)) 연구의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학문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²⁾ 그 결과 다른 지역의 방언 연구에 비해 다소 미미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소창진평(1918) 이후 1960년대 이래로 충청방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충청 지역 개별 방언의 언어적 특징을 조사³⁾하고 분석 기술하였다. 그 결과 충청방언 연구의 기틀이 형성되고 양적 질적 측면에서 생산적인 연구가 현대에 이른 것이다. 현재까지 250여 편의 연구 결과가 정리됐는데,⁴⁾ 이는 양적으로 결코 적은 분량은 아니라고 본다.

본고가 충청방언에 대해 그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청방언의 조사·자료에 대한 것과 방언 구획에 대한 논의, 그리고 개별방언에 대한 국어학적 논의 등이다. 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목적 달성을 도모코자 한다.

지리상 충청 지역은 충남의 서편이 서해 바다에 닿아 있고, 충청남북도의 북쪽은 경기도, 북동은 강원도, 그리고 충남의 남쪽은 전북, 충북의 남쪽은 경북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구획하고 있는 대방언권⁵⁾의 관점에서 충청방언은 중부방언에 속하는데, 충청방언의 남부는 충청남도가 서남방언과, 충청북도는 동남방언에 접하여 있다.

2. 본론

방언은 지리적인 공간이나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분화된 독립된 언어체계를 일컫는다. 즉 방언 간에 차이를 드러내면서 자체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어의 변종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언형의 분포상의 차이(분화)와 독립된 언어체계(개별방언)의 관점에서 충청방언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개관하고자 한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 가지이다. 이를테면, 방언 조사에 의한 자료와 방언 구획, 그리고 개별방언으로서의 충청방언에

언어'로서 사용된 용어이다.

- 2) 이와 같은 견해는 여러 논의에서 언급된다. 충청방언이 중앙어와 인접해 있어 방언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들을 들고 있다.
- 3) 개인 연구자에 의한 조사와 연구 외에도 각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학술답사에서 자료 조사는 폭넓게 이루어졌다.
- 4) 충청방언의 연구 결과에 대해 누락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여 충청방언의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5) 오늘날 한국의 6대 방언권으로 중부방언, 서남방언, 서북방언, 동북방언, 동남방언, 제주방언을 일컫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대한 국어학적 논의 등이다.

2.1. 충청방언의 자료에 대하여

방언 조사는 “방언의 특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줄 표본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자료로써 그 방언을 파악하는 길(이익섭 1979:88)”이 일반적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제보자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자료 수집은 이에 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언 조사는 전형적인 특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표본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추출해 내는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언 연구는 방언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집’을 간행하는데서 출발한다.⁶⁾ 충청방언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이제까지의 충청방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는 전국 또는 도별 방언 자료집과 시군별 자료집들이 있다. 먼저 전국적으로 조사된 결과의 자료집에서 충청방언을 담고 있는 자료집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충청방언 연구자들이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자료집들이다.

- (1) ㄱ. 小倉進平(1944), 朝鮮語 方言의 研究(상: 자료편, 하:연구편), 岩波書店
- ㄴ.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 試攷-‘缺’語攷, 東都書籍
- ㄷ.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 출판부(상권: 자료편, 하권: 연구편)
- ㄹ. 최학근(1978),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 ㅁ. 한국방언자료집(1987/1990)Ⅲ,Ⅳ 충청북/남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ㅂ. 지역어(보완) 조사 보고서(2005-2020),
- ㅅ.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2)

소창진평(1944)의 방언 자료(1ㄱ)는 상권 자료편인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국 259 지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내용별로 분류하고 정리한 것으로써, 국어 방언 연구에 소중한 자료집이다. 충청지역에서는 33개 지역(충남 23, 충북 10)에서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 보아, 충청도 전역을 아우른 조사 지역이다. 하야육량(1945)의 (1ㄴ)의 방언 자료도 ‘으, △ 등’ 국어 음운사를 논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들이었다. 그리

6) 자료집이란 수집된 자료를 전사하여 기록해 놓은 자료집을 ‘방언을 모아 도서의 형태로 제작한 공적 기록물’(정승철 2014:8)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료집은 수집 자료를 전사하여 방언 자료만 제시한 것과 사전 형태의 자료집 등이 있다.

고 (1ㄷ, ㄹ)의 김형규(1974) 상권 자료편과 최학근(1978)도 전국 단위의 방언 자료집인데, 여기에서도 정밀하게 전사되어 있는 충청방언을 확인할 수 있다.

(1ㄱ)은 전국 방언(남한)에 대해 음운, 문법, 어휘에 있어 정밀하고 균일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써, 충청방언에 대한 많은 논의에서 활용한 자료집이다. 아울러 근자의 (1ㄴ, ㄷ)에도 다양한 형태의 충청방언이 담겨 있다.

(2) 한영목(1999), *충남방언의 연구와 자료*(제3장 충남 방언 자료), 이회문화사

반면 (2)는 행정 단위명인 도 단위의 충남방언 자료집이다.⁷⁾ 군 단위로 조사되었는데, 표준 어휘의 자모 차례에 따라 방언형을 간략전사한 자료집이다.

충청 지역의 시군 단위의 자료집들도 있다. (3)과 (4)이다.

(3) ㄱ. 이결재(2009), *공주말 사전:공주의 사투리.민속.속담.생활용어사전*, 민속원

ㄴ. 이명재(2012), *예산말 사전*, 이화

ㄷ. 장경윤(2020), *정다운 우리말 서산사투리*(증보판), 가야

(4) 영동문화원(2014), *정겨운 우리 영동 사투리-충청북도 영동지역 방언 조사 자료집-*

(3)은 비전문가에 의해 수집 정리된 충남 공주, 예산, 서산 지역의 방언 자료집이다. 이들은 모두 방언형을 표제어로 간략전사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표준어형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나 예문에 있어서는, (3ㄱ, ㄴ)이 방언형인 반면, (3ㄷ)은 표준어로 제시하는데, 예를들어, ‘거머리(금지리) 달라붙듯 한다.’처럼, 표제어인 방언형만 ()에 병기하였다.⁸⁾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는 표제어와 관련된 부가 정보들도 보여주고 있다.

반면 (4)는 충북 영동 지역의 방언 자료집이다. 여기에는 세 부류의 방언 자료들이 실려 있다. 하나는 ‘한국방언자료집 III 충청북도편(1987)’ 등 기존의 방언 조사 자료에 제시된 자료를 통합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구비문학대계 3-4 충청북도 영동군편(1984)’에서 채록되어 있는 구술녹취자료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2014년에 2일에 걸친 현지조사의 자료를 실고

7) 이 자료집의 제3장 ‘충남 방언의 자료’는 본래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1987년에 향토교육자료로 간행한 ‘우리고장 충남(구비문학편)’의 부록 부분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8) (3ㄴ, ㄷ)에 대한 자료집으로서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정태(2020)과 김정태(2021) 참조.

있다. 자료의 양으로 보면 방대하지만, 체재면에서 서로 이질적인 자료들이다. 즉 정밀전사와 간략전사가 혼용되어 있고, 어휘의 배열에 있어서도 균등한 모습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자료집의 방언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확인조사 등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다. 자료들의 성격 상 시간적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질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5) 한갑득·한상수(2017), 진산언어박물관, 웃는나무

또한 (5)는 금산군 진산면의 토박이 화자들이 진산 지역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방언형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집이다. 표제어는 간략전사한 방언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표준어, (한자), 뜻풀이. (참고사항)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에는 ‘국어사전에 없는 말’도 제시하고 있다.

(6) 박경래(2010), 문학 속의 충청 방언, 글누림

아울러 (6)은 1930년대 발표된 문학작품부터 근래에 발표된 문학작품에 사용된 충청방언들을 가려 놓은 것이다.⁹⁾ 먼저 표제어로 방언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표준어를 보였으며, 품사항목에서는 속담이나 관용구까지 포함시켰다. 그리고 뜻풀이와 다른 방언형을 보이고, 사용지역이 충청도라는 순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문과 설명을 붙인 것이다. 이는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방언 가운데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것들을 가려 뽑아 간략한 뜻풀이와 언어적 특징을 예문을 통하여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코자 한 것으로, 특히 음운, 문법, 어휘 체계 등을 고려하여 기술한 것이다. 비록 작가에 의해 쓰여진 문학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와 연구가 이어져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하겠지만, 많은 양의 방언 자료를 담고 있어 충청방언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충청방언의 방언적 특징을 확인하고 연구의 토대가 되는 자료집들은 다양하다. 충청방언도 형성 과정으로 보아 통시성이 형성되었을 것인데, 이들 자료집이 충청방언에 대한 통시적 연구까지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그 범위에 있어 충청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뿐만 아니라 개별방언으로서 각각의 하위 지역에 대한 방언 현상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들이라 할 수

9) 박경래(2010)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합친 구역에 해당하므로 대방언권의 자료집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표 2022:53) 참조.

있다. 다만 간략 전사의 경우 형태음소적인 교체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비전문가라는 한계도 있을 수 있어, 활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신빙성이 없는 자료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할 때도 있을 것(이익섭 1979:115)’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많은 논의에서 ‘한국방언자료집’ 등 기존에 조사된 자료들이 활용되고 있었다. 기존의 자료들이 조사된 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현재까지 일어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현주 2015:248)에서,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균등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변화를 반영한 자료와 젊은 세대의 방언 자료까지 아우르는 충청방언의 연구가 균형 있게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충청방언의 방언 구획에 대하여

방언 구획은 의미 있는 방언 특징들으로써 등어선과 등어선속에 의하여 방언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투리를 세별하여 말하기는 꽤 복잡할 뿐 아니라 오래 동안 상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극로 1932:9)”이다. ‘방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에 방언 구획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듯하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국어는 방언 구획에 의해 몇 개의 방언권으로 나뉘어졌다. 대방언권으로 설정된 일련의 방언 구획들에서 충청방언의 구획 상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독자적인 방언권 설정 여부에 따라, 충청방언을 다른 방언권에 예속시키는 견해와 독자적인 충청방언권을 설정한 견해이다.

국어 방언 구획에 대한 최초의 논의¹⁰⁾는 이극로(1932)이다. 지리역사적 관계와 어휘, 어법, 음운, 특히 어조의 다름으로써 국어를 5대 방언으로 대별하고 있다.

- (7) -. 관서방언(평안도사투리, 고구려방언)
- . 호남방언(전라도사투리, 백제방언)
- . 영남방언(경상도사투리, 신라방언)
- . 관북방언(함경도사투리, 옥저방언)
- . 중부방언(경기도사투리, 혼성방언)

10) 이극로(1932)의 방언 구획에 대한 주장은 최초의 방언 구획론으로 최명옥(1998)에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구획에서 호남방언은 백제 고지 중심으로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1932:10)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부방언은 경기도와 또 그 인근지인 충청북도와 강원도 일부(양양 이북)와 황해도 일부(1932:10)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방언은 호남 및 중부 방언에 예속되어 있어 그 독자성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¹¹⁾

충청방언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언 구획은 소창진평(1940)과 하야육량(1945)에서도 확인된다. 소창진평(1940)에서는 음운, 어휘, 문법 등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몇몇 특징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평안도방언, 함경도방언, 경기도방언, 경상도방언, 전라도방언, 제주도방언의 6대 방언권을 설정하고 충청도를 경기도방언에 포함시켰다. 하야육량(1945)은 남선방언, 중선방언, 북선방언, 서선방언, 제주도방언 등 5대 방언권을 설정하고, 충청도방언을 중선방언에 소속시키고 있다.¹²⁾

그리고 이송녕(1967)에서도 소창진평(1940)처럼 6대 방언권(평안도방언, 함경도방언, 전라도방언, 경상도방언, 제주도방언, 중부방언)으로 구획하고 중부방언에 충청남도(논산, 금산 제외)와 충청북도를 포함시켰다. 최학근(1982)은 충청남도를 전라도방언과 중앙방언과의 접촉 내지 등어지대(1982:194-245)로, 충청도를 남부방언군과 북부방언군의 등어지대로 설정(1982:129-131)하였다. 이처럼 충청방언은 여러 논의에서 그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방언권에 예속되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근래까지도 이어져 국어를 여섯 개의 대방언권으로 나누어 충청남북도를 중부방언에 예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충청방언을 처음으로 독립시킨 김형규(1962)는 주목할 만하다. 이후 충청방언의 독자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¹³⁾

일찍이 김형규(1962)는 지리적 조건을 토대로 한 행정구역을 가지고 국어 방언을 7개 구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1962:200-201)

(8) -. 함경도방언: 함경북도 전부와 정평 이북의 함경남도. 평북 후창

11) 이극로(1932)에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호남방언과 중부방언에 예속시켰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충남과 충북의 방언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12) 하야육량(1945)이 충청도방언을 중선방언에 소속시킨 근거는 ① 옛적 [i]음이 현재 [o]로 발음되는 현상 ② [gi]음 ③ [gi]음 ④ [bi]음의 약화 탈락 문제 ⑤ 복합 모음 현상 등이다.

13) 개정판인 김형규(1962) 이전의 김형규(1958)에는 소창진평(1940)과 하야육량(1945)처럼, 충청방언을 경기도방언 또는 중선방언에 예속시키고 있다. 즉 김형규(1958)에서는 소창진평(1940)처럼 여섯 개의 방언 구역으로 설정하고, 충청도방언을 경기도방언(여기에서는 하야육량(1945)처럼 중선방언으로 바꿈)에 예속시켰다가 김형규(1962)에서 일곱 개의 방언 구역으로 바꾼 것인데, 중선방언을 다시 경기도방언으로 바꾸고 충청도방언을 추가 독립시킨 것이다.

그리고 김형규(1962)에서 설정한 세 개의 방언군(중부방언군, 경상방언군, 충청방언군)도 김형규(1958)에서는 두 가지 큰 계통(방언군)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중선, 평안 방언’과 ‘경상, 전라(제주 포함), 함경 방언’이다.

- 평안도방언: 평안남북도(후창군 제외)
- 경기도방언: 경기도.황해도.강원도(울진은 제외).영흥 이남의 함남
- 충청도방언: 충청남북도와 전북의 금산, 무주
- 경상도방언: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울진
- 전라도방언: 전라남북도(금산, 무주 제외)
- 제주도방언: 제주도

이는 대체로 소창진평(1940)의 구분에 따른 것이다. 다만 소창진평(1940)이 충청도방언을 경기도방언에 예속시킨 것과 달리, 충청도방언을 독립시키고 있다. 즉 지리적 조건을 중심으로 구분한 충청도방언을 독립시키는데, 이는 대체로 행정 구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김형규 1962:200-201)

그리고 방언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을 통한 방언간의 비교 대조를 실시하였다. 즉 ‘△의 변화’, ‘빙의 변화’, ‘ㄱ(g)음의 실현’, ‘복합모음의 현상(이중모음으로 발음)’, ‘구개음화 현상’, ‘나조, 성냥, 험마’ 등 고어의 자취와 같은 특징들을 통해 3대 방언군을 (9)처럼 설정하였다.(김형규 1962:205-206)

(9) 중부방언군-중부방언.평안도방언

경상방언군-경상도방언.전라도방언.함경도방언.제주도방언

충청방언군-충청도방언(강원도 영동 지방의 방언도 같은 경향)

여기에서 충청도방언군의 충청도방언을 중부방언과 경상도방언의 중간적 위치(1962:205), 또는 충청도방언을 남선과 중선 두 방언의 중간적 존재로 독립시키기를 주장(1962:205-206)한 것이다.

그 근거 중의 하나로 김형규(1972:153)는 하야육량(1945)이 충청도방언을 중선방언에 소속시키는 것에 대해 ‘무조건 중선방언에 소속시키기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¹⁴⁾

그런데 김형규(1962, 1972)에서 주장하고 있는 충청도방언의 독립 위상에 대해 ‘중간적 존재’란 표현이 있다.

(10) -. 중부방언과 경상도 방언의 중간적 위치(김형규 1962:205)

14) 충청도 방언을 중선방언에 소속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음에 대해서는 이곳 방언에선 [o]로 나타나는 일이 없기에 제외하고, [z], [g], [b]음의 약화 탈락 문제는 남선방언과 그렇게 대립되는 구분을 이루는 것 아니고, 또 강원도에서도 보존된 방언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명확한 구분을 이루지 못한다. 또 복합모음 현상은 충청도에만 국한되는 것이다.”(김형규 1962:153)

- . 남선과 중선 두 방언의 중간적 존재(김형규 1962:205-206)
- . 충청도 방언을 남선과 중선 두 방언의 중간적 존재로 독립시키기를 주장(김형규 1972:153)

여기에서의 ‘중간적 위치 또는 존재’란 충청방언이 회색지대가 아니라 독자적인 방언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언적 특징이란 의미이다. 그 방언적 특징으로 충청도방언을 (8)처럼 독립 설정(김형규1962:200-201)한 것이다.

도수희(1965:237-239)는 특히 충남을 중심으로 한 음운 현상 및 어법에서의 일련의 특수 현상을 기준으로 충청도방언의 독자성을 제기하였다. 이를테면 충청도방언을 경기도방언의 개신지역(북부지방)과 미개신지역(남부지방)으로 구분할 때, 남부지방은 하야식의 남선방언권, 소창식의 전라도 방언에 친근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가 “김형규(1972)는 충청방언을 중부방언군과 경상방언군¹⁵⁾의 중간적 성격으로 보려 하였지만 도수희(1965)는 완전한 독자성을 전제”(도수희 1987:89)로 하고 다시 하위 방언권(1977)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충청방언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는 이후의 충청방언에 대한 많은 개별방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방언에 대해 그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방언 구획의 결과는 충청방언이 경계하고 있는 방언이 많고, 또 충청방언의 구획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언 구획의 결과로 설정된 어떤 방언권도 해당 지역 안에서 모든 언어 요소가 동일하게 나타나서 완전히 등질적인 체계를 이룰 수는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역적 변이를 포함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변이 때문에 하나의 방언권은 또 다시 하위의 작은 방언권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기갑 2005:110-111)이다. 방언 구획은 모든 언어 특징을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선별된 특징을 통해 설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방언 구획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방언 구획의 특수성에 의해 충청방언에 대해서도 다시 하위의 충남방언과 충북방언으로의 구획을 확인할 수 있다. 방언 구획의 결과는 ‘방언적 차이’를 보여주는데, 충청방언에서 충남과 충북의 방언적 차이가 여러 논의에서 언급되었다. 이극로(1932)에서 충청남도를 호남방언, 충청북도를 중부방언

15) 도수희(1987:89)에 기술되어 있는 “김형규(1972)의 ‘중부방언군(중부방언·평안도방언), 경상방언군(경상도방언·전라도방언·제주도방언), 충청방언군(충청도방언·강원도 영동 지방 포함)’ 등 3대 방언군 설정”은 김형규(1972)가 아니라 김형규(1962)이다.

에 예측시킨 것이나, 김형규(1974)에서 “충남보다 충북이 [g]음의 보존이 강한 것(1974:359)”으로 보아 같은 충청도이지만 충북과 충남 사이엔 차이가 있고, “[b]음의 보존 또는 개입 현상으로, 충남은 전라도에, 충북은 경상도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다. 즉 “방언을 비교 구분할 때, 남북 방향의 차이만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동서의 관계에서도 보아야 될 것이라면서 충청도 방언에서도 남도와 북도(실제로는 동과 서의 차이지만)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김형규(1972:154)이라고 하였다.¹⁶⁾

아울러 충남방언과 충북방언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충남방언의 독자성 주장은 도수희(19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 지역의 방언과는 행정 단위가 다르기도 하지만, 방언사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고 접촉 환경이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근래의 이현주(2022)에서도 충남방언의 모음체계와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을 통하여 충남방언만이 갖는 독자적인 특징이 존재함을 보인바 있다.

또한 충북방언의 독자성도 김진봉·조향근·정인상(1984)과 정인상(1984), 박경래(199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단위의 하위 방언 구획은 충남과 충북에서 각각 시도되었다. 먼저 충남방언에 대한 하위 방언구획은 도수희(1977)에서 볼 수 있다.

도수희(1965)에서는 충청방언(엄밀하게는 충남방언)의 하위 방언권 설정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에 따라 도수희(1977)에서는 차령산맥을 분계선으로 한 서북부와 동남부 지역으로 지세에 따라 일단 대분하고, 이에 대한 하위 구분으로 경기어(중양어)의 개신파에 휩쓸린 동북지역과 그렇지 않은 동남지역으로 세분(소창, 하야 식의 대구분에 비할 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삼역의 핵 방언권을 설정하였다.

- (11) A지역: 서천, 보령, 부여, 청양, 공주, 논산, 연기, 대덕, 금산, 옥천(충북), 영동 일부(충북)
- B지역: 서산, 당진, 홍성, 예산
- C지역: 아산, 천원, 천안, 보은¹⁷⁾

그리고 류구상(1996:15)에서는 어휘, 음운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12)와 같이 세 지역어권을 설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16) 이와 같은 주장은 김형규(1974:428)에도 구체적으로 보인다. “충청도 방언에도 경상도에 인접한 충북방언은 경상도 방언과 친근성을 보이고, 전라도에 인접한 충남방언은 전라도 방언과 친근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방언은 남북의 거리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동서의 관계에서도 검토해야 될 것이다.”

17) 충북 보은이 도수희(1981)부터는 빠져 있다.

서북 지역어권과 동남 지역어권으로 언어권을 설정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산맥보다는 하천을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12) -. 천안, 연기 대덕 지역어권
- . 아산, 당진, 예산, 부여, 공주, 청양 지역어권
- . 서산, 보령, 서천 지역어권

한영목(1999:16)에서는 “충남방언은 남북에 의한 등어선과 해안과 내륙의 동서로 등어선을 긋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에 따라 충남방언의 하위 방언권을 세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 (13) 1 지역: 대전, 연기, 논산, 금산, 부여, 공주, 천안
- 2 지역: 서천, 보령, 홍성, 서산, 태안
- 3 지역: 당진, 예산, 청양, 아산

김홍석(2006)에서는 한국방언자료집(1990)의 농사관련 어휘 122개 중 유의미한 40여 항목을 통하여 등어선속으로 방언 구획을 시도하여 소방언권 및 극소방언권을 설정하였다. 농사 관련 용어의 분포로 그은 등어선과 등어선속, 그리고 방언 구획이 언어 외적 요소인 산맥, 하천 등 지형적 특징과 일치한다고 본 논의이다.

소방언권은 충남방언의 하위 방언으로 볼 수 있고, 극소방언권은 하위 방언의 하위 방언이라 할 수 있다.

(14) <소방언권>

- . 북부방언(서산(태안 포함), 당진, 아산, 천안, 예산, 홍성)
- . 중동부방언(연기, 공주, 대전)
- . 남서부방언(청양, 보령, 부여, 서천, 논산(계룡 포함), 금산)

<극소방언권>

- 1) 북부방언: 동부(아산, 천안), 남부(홍성), 중서부(서산, 당진, 예산)
- 2) 중동부방언: 북부(공주, 연기), 남부(대전)
- 3) 남서부방언: 서부(보령), 중부(청양, 부여, 서천), 동부(논산)¹⁸⁾

18) 충남 금산도 동부에 해당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충남방언의 고유성 혹은 독자성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방언의 차이와 공간의 차이를 함께 적용하여 지역 구분을 시도한 강경원(2018)의 충남 방언 지역 구분이다. 이는 어휘들의 지역적 분포와 방언의 공간 거리 개념을 활용하여 지리학적으로 충남의 방언지역의 경계를 설정하고 방언지역을 구획한 논의이다. 여기에서는 4개의 방언 구획을 시도하였다.

(15) 서북방언, 동북방언, 서남방언, 동남 방언

강경원(2018)의 방언 구획을 통하여, 남북과 동서 방향의 분화를 관찰할 수 있었고¹⁹⁾, 동북-서남방향을 가로 지르는 차령산맥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기존의 방언 구획에서 차령산맥을 기준한 논의와 사뭇 다른 견해이다. 또한 충남의 방언 지역은 서부방언, 동부방언으로 의미 있게 구분되는데, 경계 선의 방향이 지형과는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차령산맥이나 금강이 방언 지역을 가르는 장벽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반면 충북 지역은 동쪽으로 경상북도, 서쪽으로 경기도와 충청남도, 남쪽으로 전라북도, 북쪽으로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인접해 있어, 각각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형적인 내륙 방언권이다. 많은 인접지역의 영향이 지리적인 거리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거리도 고려해야(박경래 2000:81)한다는 관점에서 충북방언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도 양적으로 적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충북방언의 독자성 아래에서 시도된 하위 방언 구획은 먼저 김중희(1982)에서 볼 수 있다. 3개의 하위 방언권을 설정하고 있다.

(16) (A) 단양 방언권: 단양.제원(제천)

(B) 청주 방언권: 중원(충주).음성.진천.괴산.청원(청주)

(C) 영동 방언권: 보은.옥천.영동

이와 같은 방언 구획은 지리적으로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충청북도 동부 대부분의 지역이 소백산맥을 가운데 두고 언어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데, 교통로의 연결로 볼 때,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통하는 단양.제원권(A)과,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 통하는 영동권(C) 및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통하는 충주.청주권(B)의 3개 문화, 경제권의 성립과도 연결되는 것(1982:32)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언

19) 남북의 분화는 인접한 전북지역과 경기지역과의 유사성에 기인한다. 동서 방향의 분화는 해안과 내륙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륙과의 어휘의 유사성은 인접 충북 사군 지역과 더불어 멀리 강원도와 경기도와 경북까지 나타내 보인다.

구획은 김충희(1983)에서도 성립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김충희(1990)에서도 언어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충청북도의 방언 분화상을 언어지도로 작성하고 방언 구획을 시도하였는데, 기존의 3개 방언권 설정의 타당성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읍면 단위의 현지조사에 따라 하위 방언 구획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다만 방언 구획의 용어가 (17)처럼 단양방언권→(Ⅰ)충북동부방언, 청주방언권→(Ⅱ)충북중부방언, 영동방언권→(Ⅲ)충북남부방언으로 변경되었다.

- (17) (Ⅰ) 충북동부방언: 단양·제천
- (Ⅱ) 충북중부방언: 충주·음성·진천·괴산·청주
- (Ⅲ) 충북남부방언: 보은·옥천·영동

충북방언의 방언 구획 시도는 박경래(2000)에서도 이루어졌다.²⁰⁾ 어휘에 의한 등어선을 활용하여 세 방언권을 설정한 것인데, 김충희(1990)와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이 세 방언권은 역사적으로 한강 유역의 고구려 고토(북부), 금강 유역의 백제 고토(중부), 신라의 고토(남부)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 (18) 북부 방언권²¹⁾: 단양, 제천, 충주, 괴산의 연풍과 장연면
- 남부 방언권: 옥천의 군북면을 제외한 전역, 영동, 보은의 동부 지역
- 중부 방언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18)의 방언 구획은 충청북도 방언의 하위 방언권과 지리적인 조건과의 관련성으로 볼 때,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및 차령산맥에 의한 지형적인 조건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충남과 충북의 방언 구획은 충남과 충북의 방언을 독자적인 것으로 보고, 역사, 지리 및 방언 어휘를 통해 다양하게 시도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충청방언’이란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충남은 3개의 방언권, 충북도 3개의 방언권이다. 그렇다면 6개의 하위 방언 구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해 도수희(1987)에서는 충청방언을 5개의 하위 방언으로 구획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도수희(1977)에서 구획된 ‘천안, 천원’ 등의 C역이 김충희(1990)의 B역(청주, 진천 등)과 동일권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가정하였기 때

20) 박경래(2000)은 충청북도 방언에 대한 방언구획이 방언학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전제한 논의이다.

21) 박경래(2000)의 북부 방언권은 김충희(1990)의 동부방언권이다.

문이다.

반면 지명을 통한 방언 구획 시도도 특기할 만하다. 지명은 지역 사람들의 방언을 반영하고 있기에²²⁾ 분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인석(1991)에서 마을을 나타내는 이름씨와 ‘골, 마을 등’ 16개의 뒷가지(후부지명형태소) 분포를 통해 충청방언을 네 개로 방언 구획을 시도한 것이다. 앞에서 구획한 충남방언에서의 3개의 하위 방언과 충북방언에서의 3개의 하위 방언을 아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³⁾

- (19) -. 동부방언권: 단양, 제천
- . 중부방언권: 공주, 연기, 아산, 천원, 진천, 음성, 중원, 괴산, 청원
- . 남부방언권: 논산, 금산, 대덕, 보은, 옥천, 영동
- . 서부방언권: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 예산, 청양, 부여

하나의 개별방언이 또 다시 하위의 작은 방언으로 나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대어, 충청 지역의 개별방언에 대한 하위의 방언 구획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충남방언의 아산, 홍성, 청양 지역에서 읍·면 단위에 대한 더 하위의 방언 구획이 시도되었다.

최영희(1982)는 충남방언의 개별방언인 아산지역에 대해 어휘를 통해 등어선을 긋고 등어선속의 굵기로 소구획을 시도한 논의이다. 그리하여 아산지역을 5개의 소방언권으로 세분하고 제4, 5방언권은 다시 더 작은 하위의 방언권을 설정하고 있다. 일련의 방언적 차이를 통한 결과들이다.

- (20) 제1방언권: 둔포면
- 제2방언권: 영인면
- 제3방언권: 인주면
- 제4방언권: 신창면, 선장면, 도고면
- 1) 신창면, 도고면

22) 지명도 지역의 언어 또는 구획된 방언의 언어이기에, 지명에 방언이 반영되어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보수성이 강한 지명은 해당 지역의 방언 화자들에 의해 대부분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지명과 방언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정태(1996, 1997) 참고.

23) 지명의 언어를 통한 방언 구획 가능성은 김우선(2023)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우선(2023:101)은 ‘덕’(둘레가 상처럼 급경사면을 이룬 동시에 윗부분은 평평한 땅)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명 연구’ 발표에서, ‘덕’ 지명형태소의 이형태로 ‘더기, 데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자강도에서는 ‘덕’ 지명형태소 971개 중 878개(90.4%), 평안남도에서는 393개 중 288개(73.2%), 평안북도에서는 175개 중 166개(94.8%)로 ‘데기’ 지명형태소가 쓰이는데, 이는 이들 지역이 지리적으로 청북정맥과 백두대간으로 둘러 싸인 하나의 언어권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하며, 방언 지도 작성 등 추후 심화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2) 선장면으로 하위 구분

제5방언권: 음봉면, 염치면, 온양면, 탕정면, 배방면, 송악면

1) 음봉면, 염치면, 온양면, 탕정면, 송악면

2) 배방면으로 하위 구분

또한 김정헌(1983)은 충남방언의 개별방언인 홍성지역에 대해 어휘의 차이에 따른 등어선을 통해 방언 지도를 작성하고 지도상에 등어선속의 두께를 수치화 하여 하위 방언 구획을 시도한 논의이다. 즉 세 개의 방언권으로 구획하고, 최영희(1982)처럼 제1, 제2 방언권은 더 작은 하위의 방언권을 설정하고 있다.

(21) 제1방언권 - 홍성, 홍북, 금마, 홍동, 구항, 갈산

<셋으로 하위 구분>

1) 홍성, 금마, 구항, 갈산

2) 홍북

3) 홍동

제2방언권 - 결성, 서부

<둘로 하위 구분>

1) 결성

2) 서부

제3방언권 - 광천, 은하, 장곡

그리고 조오현(1997)은 충남방언의 개별방언인 청양지역에 대해, 청양 지역을 생활권별로 나누고, 음운, 형태, 어휘 분포상의 특징을 살핀 결과에 따라 네 개의 소방언권으로 구획한 논의이다.

(22) 1. 대치면권: 대치면

2. 중앙권: 청양읍, 남양면, 비봉면, 운곡면

3. 동남권: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4. 화성면권: 화성면

반면 충북방언에서의 개별방언에 대한 하위의 방언 구획은 김충희(1979)의 청주와 김충희(1980)의 단양, 박명순(1997)의 제천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김충희(1979)의 청주 지역에 대해서는 3개의 소방언으로, 김충희(1980)의 단양 지역에 대해서는 2개의 소방언으로 구획하였다.

(23) <청주>

- 1) 청주 방언(청주시)
- 2) 청원 서부방언(충청남도과 접촉)
- 3) 청원 동부방언(타 군과 접촉)

(24) <단양>

- 1) 북부 지역(강원도와 인접)
- 2) 남부 지역(경상북도와 인접)²⁴⁾

그리고 박명순(1997)에서는 김충회(1990)에서 구획한 충북방언 중 ‘동부방언권’에서 제천 지역을 4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무작위의 35개의 어휘와 종결어미, 음운현상, 그리고 형태에서의 언어 현상을 가지고 등어선속을 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5) 백운, 봉양면언어권

송학면언어권

금성, 청풍, 한수, 수산면언어권

덕산면언어권

이와 같은 방언 구획에 대한 논의들에서 용어 문제가 하나 있다. 대방언권의 하위방언에 대한 용어로 ‘하위방언, 소방언(극소방언), 핵방언’ 등이 사용되고 있다. 행정 구역으로 볼 때, 도를 아우르는 대방언권에서 충청방언>충남방언·충북방언>개별시·군방언>읍·면방언으로 구획을 시도하고 있는데, 무엇이 하위 방언이고, 핵방언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방언 구획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기갑(2005)의 숫자에 의한 차수 매기기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그리고 방언 구획을 지리적인 조건에만 기대거나 수삼의 방언적 특징으로 구획을 시도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차적으로 음운, 문법, 어휘에서의 방언적 특징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 구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역사, 지리적인 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기에 급변하는 젊은층의 방언을 함께 고려할 때(박경래 2000:82), 비로서 신뢰할 만한 충청방언 구획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24) 제목에서는 ‘충북단양 남부방언 연구서설’처럼, ‘남부 방언’으로 부르고 있다.

2.3. 충청방언의 국어학적 연구에 대하여

개별방언으로서 충청방언에 대한 이른 시기의 연구는 소창진평(1918)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⁵⁾ ‘청양, 안면도 등’을 제외한 충남 지역의 전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채록한 자료를 통하여 음운, 어휘, 어법의 관점에서 논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충청남도방언은 충청남도 지역어로서의 방언적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충청남도 방언에는 경성(서울) 방면의 어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경상도 방언과 유사한 것도 발견된다. 셋째, 분포의 상태로 보아 경성어에 가까운 북부와 경상도 방언의 침입을 받은 남부의 방언이 있다. 다만 경상도 방언이 아니라 전라도 방언의 영향일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 충청방언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재개되었다. 먼저 도수희(1963)에서 음운, 어휘, 어법의 관점에서 논산 방언의 특징을 경기 방언과 대비로 기술하였고, 이병근(1969)은 개별 방언을 체계와의 관련성에서 구조기술언어학에 기반하여 기술한 논의이다. 행정구역 상 서남방언과 접경을 이루는 논산, 동남 방언과 접경을 이루는 영동 황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충청방언 연구의 출발에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중부방언의 남쪽에 있는 충청도의 경계가 행정구역 상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도 의미 있게 보여진다. 이전의 일인 학자들에 의한 국어 방언 연구가 대체로 음운(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70년대 들어 김형규(1972)에서 충청남북도를 조망하는 방언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방언사적으로 충남과 충북이 다르고 접촉방언의 환경이 다른 탓으로(도수희 1987:91, 한성우 1996:2) 하위의 충남방언과 충북방언으로 나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위의 충남방언에 대해서는 류구상(1970, 1971), 도수희(1977), 성낙수(1972, 1973 ㄱ, ㄴ, 1977)가 대표적이고, 충북방언에 대해서는 박일범(1972), 박명순(1975, 1978), 김충회(1979) 등이 있다.

그동안 음운론의 전유물처럼 취급되었던 방언 연구에서, 1970년대 중반의 중부방언이 음운론 일변도의 태도에서 탈피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보였다(전광현 1971:74)고 하는데, 충청방언에서도 류구상(1971)과 도수희(1977), 그리고 박명순(1975, 1978), 김충회(1979)에서 개별방언의 음운체계와 음운현상 등 그 방언적 특징이 기술되고, 한편으로는 류구상(1970)과 성낙수(1973 ㄱ, ㄴ, 1977),

25) 소창진평(1918)의 충남방언에 대한 논의는 최초의 국어학적 논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열 개의 음운, 아홉 개의 어휘, 다섯 개의 어법으로 충남 방언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경성어 및 경상도 방언과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아홉 개의 어휘 상당수는 단어에서 실현되는 음운 변이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박일범(1972) 등에서 충남·충북방언의 형태 및 통사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성낙수(1972)는 음운과 통사의 관점에서 경상도 지역과 접경을 이루는 영동 황간의 방언적 특징을 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방언은 여전히 음운에 편중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충청방언에 대한 연구가 60년대에 시작되었을 때, 4명의 연구자에 의한 5편의 논의, 1970년대에는 10명의 연구자에 의한 15편의 논의가 확인되었다. 다른 지역의 방언권에 비해도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다가 80년대에는 38명의 연구자에 의한 63편의 논의로 증가하고, 90년대에는 40명의 연구자와 81편의 논의로 정점을 찍는 시기이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29명의 연구자와 62편의 논의로 연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80, 90, 2000년대가 충청방언 연구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감소 폭이 커져 2010년대에는 16명의 연구자와 22 편의 논의, 2020년대 현재까지는 3명의 연구자와 7편의 논의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연대	연구 논문	저서	비고
1960년대	5(4) ²⁶⁾		
1970년대	15(10)		
1980년대	63(38)		
1990년대	81(40)	6	
2000년대	62(29)	3	
2010년대	22(16)	1	
2020년대	7(3)		
합	255(140)	10	

[표-1] 충청방언 연구 성과의 연대별 추이

양적인 수치를 가지고 질을 담보할 수 없지만, 위의 그림은 충청방언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어 가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배경의 변화이다. 다른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적 배경이 역사언어학, 구조주의 언어이론에서 변형 생성 이론의 적용으로 진화해 왔다는 점이다. 현재도 전통적인 방언 연구의 방법들이 견지되며 전개되고 있다.

둘째, 방언의 접근 관점이 여전히 음운의 측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방언에 대한 지역별 연구 분포도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 준다. (26), (27)은 논의의 대상 지역을 제목으로부터 추출한 결과인데, (26)의 ‘충청도, 충남, 충북’에는 연구자에 따라 더 하위의 개별방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26) ()의 숫자는 연구자 수이다.

(27)의 접촉 지역 및 시·군 단위의 지역 분포는 해석 상 의미 있는 내용을 암시해 준다.

(26) 지역별 연구 현황

- 충청도: 11
- 충남: 37
- 충북: 31

(27) - 접촉 지역: 12

- (충남 지역) 서산: 4, 당진: 10, 예산: 3, 홍성: 2, 보령: 7, 서천: 6, 아산: 3, 천안: 10, 연기: 2, 공주: 2, 청양: 7, 논산: 4, 금산: 11
- (충북 지역) 단양: 10, 제천: 7, 충주: 6, 괴산: 7, 음성: 3, 청주: 15, 영동: 15

첫째, 충청도와 접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비교 대조 논의는 12편에 이른다. 그중 동남 및 서남방언과의 접촉지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대 국어의 중부방언 남방 한계선은 행정구역상 전라도와 경상도이다. 따라서 중부방언의 남부지역인 충청방언과 서남방언 및 동남방언의 접경지역에서 방언적 차이를 확인코자하는 대비 논의는 충분히 예측된다. 이른 시기의 이병근(1969)은 영동 황간 지역을 주목하였다. 언어적 요인 외에도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인 비언어적 요인에 의한 대방언권(중부방언권, 경상방언권, 전라방언권)의 접촉 지역이기 때문이다. 음운의 관점에서 황간 지역어의 특징을 분석하여 접촉 방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도모코자 한 논의로 여겨진다. 이후 충청방언과 대방언권의 접촉 지역에 대해서는 이혁화(2005)에서 ‘무주(전라)-영동(충청)-김천(경상)’의 지역들에 대한 음운론적 대비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충청북도과 전라북도의 접촉 지역인 영동과 무주, 즉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의 대비는 전광현(1983)에서 음운의 관점으로 이루어졌고, 이현주(2015)에서는 음운의 관점으로 완주(전북)와 논산(충남)의 대비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접촉 지역, 즉 중부방언과 동남방언의 대비 연구는 다소 활발한 편이다. 김덕호(1985)에서 상주와 보은, 성석제(2004)는 음운 현상의 관점에서 충북과 경북 방언 경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상규(1991)는 형태를 중심으로 경북과 충북, 그리고 괴산과 문경 등 접촉 지역에 대한 비교, 대조가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박경래(1985, 1986)에 의해 논의된 것들이다.

반면 현재의 중부방언과 경기도 접경지역과의 비교, 대조는 확인된 바가 없

다. 충청도를 중부방언에 예속시키는 이유와 동궐일 듯하다.

둘째, 시·군 지역의 개별방언으로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 (27)의 연구 대상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의 수치에서 보듯, ‘서산, 당진’ 등 충남의 내포지역과 ‘보령, 서천, 금산’ 등 전라북도에 인접한 지역에서 연구가 생산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충북에서는 동쪽 내륙에 위치한 ‘단양, 제천’ 지역에서 생산적이고, 특히 영동은 서남, 동남 방언과의 접촉 지역임에서 생산적임이 특징적이다.²⁷⁾

전반적으로 충청방언을 아우르는 논의는 발견하기 힘들다. 그마저도 개별방언만의 독자적인 방언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논의들은 각각의 개별방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별방언으로서의 방언적 특징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인접 방언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방언 구획의 가능성까지 모색해 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충청방언’의 성립 여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충청방언의 남부인 서남, 동남 방언과의 대비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중부방언권인 경기도 및 강원도와의 접경 지역에 대한 비교, 대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충청방언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그 동안 방언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대방언권으로 ‘충청방언’의 설정 견해를 검토하여, 대체로 중부방언에 예속시키는 등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와 독립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살펴본다. 충청방언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충청방언의 독립성을 전제로 충남·충북의 방언 구획, 또 하위의 시·군 방언 구획의 실상을 검토하여 보았다. 인접 방언과의 대비 관점보다 개별방언의 주요한 현상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었다.

그리고 충청방언에 대한 개별방언으로서의 연구는 소창진평(1918)으로 시작해서 1960년대에 국내 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 1990, 2000년대를 정점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전히 음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적극적이었다. 또한 남부 방언과의 접경지역에서의 대비 연구가 경기 강원 지역과의 접촉 지역에서보다 더 생산적임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들 외에도 사회 방언에 의한 논의(박경래 1984 등), 김영진(1996 등), 방언사를 엿볼 수 있는 통시적 논의(곽충구 1982, 유소연 2021 등), 언어

27) 여기에는 한 연구자에 의한 다수의 연구물이 있어, 그 수치로만 평가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 또한 ‘충청, 충남·충북’이라는 지역명을 사용했지만 사실 그 하위의 지역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27)은 연구 대상 지역에 대한 대체적인 경향일 수도 있다.

지리(강경원 2018, 강병륜 1996ㄱ,ㄴ 2006, 김충희 1990 등) 및 지명의 문제도 언급될 수 있다.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다.

3. 결론

(생략)

[부록] 충청방언 관련 논저 목록

- 강경원(2018), 충남의 방언 지역 구분-어휘를 중심으로-문화역사지리 제30권 제1호.
강병륜(1996ㄱ), 충청남도 방언에 나타나는 유성자음[g] 탈락의 언어지리학적인 연구, 한어문교육 4, 한국어언어문학교육학회.
강병륜(1996ㄴ), 충청남도의 언어지리(1)-음운론적 변이를 중심으로, 공주교대논총 33(1).
강병륜(2006ㄷ), 충청남도의 언어지리(2)-농업 어휘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육연구 6(1).
강현석(2010), 충남 지역 화자들의 방언 구획, 방언 태도 및 인지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제18권 2호, 사회언어학회.
강희숙(2004), 이문구의 소설과 움라우트, 우리말글 31, 우리말글학회.
구본관(1997), 서산 지역어의 언어적 특징-음운 및 어휘적 특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4집, 서경대인문과학연구소.
곽진섭(1988), 청주지역어의 음운변화에 대한 연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곽충구(1982), 아산지역어의 이중모음 변화와 이중모음화: y계 이중모음과 ə>wə 변화를 중심으로, 방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곽충구(1983), 충청·경기방언의 현지조사 과정과 반성, 방언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곽충구(1996), 충남방언, 한글 사랑 96년 겨울호(통권 3호).
권미영(1998), 강경지역어의 공시음운론적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 논문.
김기태(1999), 금산 지역의 청자대우법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밭한글 4, 한글학회 대전지회.
김덕호(1985), 경북·충북 접경지역어의 음운 연구-특히 상주·보은을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김시중(1985), 충남 청양지역어의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단국대).
김시중(1992), 충남 방언의 주격조사 연구-청양, 부여군을 중심으로- 흥익어문 10, -11, 흥익대 국어교육과.

- 김시중(1997), 충남 청양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 김시중(2001), 충남 청양지역어의 방언 연구, 한밭한글 6, 한글학회 대전지회.
- 김영진·박문성(1996), 대전 사회방언 연구(1), 인문과학논문집 22,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영진·권오주(1998), 대전 사회방언 연구-사회계층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문집 26,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영진·서은영(1999), 대전 사회방언의 세대별 연구, 인문과학논문집 27,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영진·이정애(1996), 대전 사회방언 연구(2)-성별을 중심으로, 대전어문학 14집, 대전대.
- 김용석(1973), 충북 보은지방 방언의 연구, 방언 6, 연세대 방언연구회.
- 김원중(1988), 예산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남대 교육석사학위 논문.
- 김은명(2001), 진천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 김정대(1989), 단양 지역어 연구-음운·어휘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 김정아(2003), 대전·충남 지역의 언어적 특징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1), 어문연구 42, 어문연구학회.
- 김정태(2002), 충남천안방언의 움라우트에 대하여,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 김정태(2003), 천안방언의 모음상승에 대하여(1),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 김정태(2004), 천안방언 ‘어→으’ 모음상승에 대하여, 한글 266, 한글학회.
- 김정태(2006ㄱ), 충남방언 활용에서의 음성모음화,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 김정태(2006ㄴ), 충남방언의 음운현상과 음운규칙,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 김정태(2010ㄱ), ‘X]vst+어요’ 충남방언형의 외연과 특징, 방언학 11호, 한국방언학회.
- 김정태(2010ㄴ), 대전지역어의 모음변이에 대하여, 어문연구65, 어문연구학회.
- 김정태(2010ㄷ), 충남방언 ‘X]vst+어요’의 음운론, 한국언어문학 75, 한국언어문학회.
- 김정현(1983), 충남 홍성 지역의 언어 분화에 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 김진대(1988), 제원지역의 언어지도와 방언구획, 청사논문 6, 서원대.
- 김진봉·조항근·정인상(1984), 제천지역어의 언어구조에 대한 연구, 호서문화연구 제4집, 충북대.
- 김진수·이윤희(2015), 대전 지역 담화 표지 사용 양상의 화용론적 분석, 인문학연구 10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진식(1980), 충북 제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교육).
- 김진식(1987), 제천 방언의 자음 변동, 어문연구 16, 어문연구회.
- 김찬중(1994), 청산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 김충희(1979), 청주지역어에 대한 일고찰, 논문집 제17집, 충북대.
- 김충희(1980), 충북단양 남부방언 연구서설, 논문집 제19집, 충북대.
- 김충희(1981), 충북단양 북부방언 연구서설, 개신어문연구 제1집, 개신어문연구회(충북대).

- 김충희(1982), 충북단양 방언 연구(1)-음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제2집, 개신어문연구회.
- 김충희(1983), 충청북도의 방언구획시론, 방언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충희(1985), 충북 충주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 개신어문연구 4, 개신어문연구회.
- 김충희(1990), 충청북도의 언어지리학-충청북도의 방언구획론,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 김충희(1992), 충청북도의 언어지리학, 인하대 출판부.
- 김형규(1972), 충청남북도 방언 연구, 학술원논문집 11, 대한민국 학술원.
- 김홍석(2006), 충남의 방언 구획 설정: 농사 관련 용어의 분포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16,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노승숙(1998), 천안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순천향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 노재봉(1974), 충청북도 남부 방언의 일고찰-방언의 세대차에 의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 도수희(1963), 논산방언연구, 상원(충남대) 4.
- 도수희(1965), 충청도 방언의 위치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8, 국어국문학회²⁸⁾.
- 도수희(1977), 충남방언의 모음변화에 대하여, 이송녕선생 고회기념논총, 탑출판사.
- 도수희(1981), 충남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방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도수희(1987), 충청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국어생활 9.
- 류구상(1970), 병천지방어의 형태론적 고찰, 어문논집 12, 고려대.
- 류구상(1971), 병천 지방말의 음운론적 고찰, 한글 147, 한글학회.
- 류구상(1992), 천안 지방말의 경어법, 한남어문학 17·18, 한남대.
- 류구상(1994), 천안 지방어의 불규칙 용언, 우리말연구의 샘터, 도수희선생회갑기념논총, 문경출판사.
- 류구상(1996), 천안지역어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 류준(2006), 충남 연기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 박경래(1981), 충북 괴산 연풍 방언의 일고찰, 개신문학1, 충북대.
- 박경래(1984), 괴산 방언의 음운에 대한 세대별 연구, 국어연구 57, 국어연구회(서울대).
- 박경래(1985), 괴산방언과 문경방언의 자음군단순화에 대한 세대별 비교 고찰, 방언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경래(1986), 괴산방언과 문경방언의 모음체계에 대한 세대별 비교 고찰, 동천조건상 선생고회기념논총.
- 박경래(1989), 괴산지역어의 사회방언학적 고찰, 국어국문학 101, 국어국문학회.
- 박경래(1992), 충청북도 방언의 특징과 방언구획, '남북한의 방언 연구' 김영배 편저, 경운출판사.
- 박경래(1993), 충주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8) 엄밀한 의미에서 도수희(1965)는 소량의 발표 요지이다. 그렇지만 음운과 어법 등 충청도 방언의 특수 현상(특히 충남)을 중심으로 경기도보다는 전라도 방언과 동일하다는 결론은 이후의 충청방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었다.

- 박경래(1994), 충주방언의 움라우트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개신어문연구 제 10집, 개신어문연구회.
- 박경래(1995ㄱ), 19세기 후기 충북 보은방언의 모음 ‘외, 위’에 대한 음운론적 신분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제12집, 개신어문연구회.
- 박경래(1995ㄴ), 충주 방언의 움라우트 사회언어학적 고찰, 국어사회언어학논총(장태진편), 국학자료원.
- 박경래(1996), 19세기 후기 회인 방언의 모음체계, 개신어문연구 제13집, 개신어문연구회.
- 박경래(1998ㄱ), 중부 방언, 새국어생활 제8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박경래(1998ㄴ), 충청북도 방언의 성격,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 박경래(1999), 청원방언의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청자대우법에서의 힘과 유대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제16집, 개신어문연구회.
- 박경래(2000ㄱ), 단양 방언의 음운에 대한 세대별 비교 고찰, 개신어문연구 제17집, 개신어문연구회.
- 박경래(2000ㄴ), 충청북도 방언²⁹⁾의 특징과 하위방언권, 충북학 2, 충북연구원.
- 박경래(2003), 충청북도 방언의 연구와 특징, 한국어학 21, 한국어학회.
- 박경래(2010), 문학 속의 충청 방언, 글누리출판사.
- 박경래(2011), 충청도 방언과 충청도 문학: 정지용의 시 ‘향수’에 쓰인 충청도 방언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1, 영주어문학회.
- 박경래(2015), ‘반촌등속’에 나타난 청주 방언, 방언학 21, 한국방언학회.
- 박광호(1983ㄱ), 서산지역어의 형태론적 연구, 동악어문논집 17, 동국대.
- 박광호(1983ㄴ), 충청남도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1)-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 지방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V집, 대유공업전문대학.
- 박명순(1975), 충북 청원지역 방언 연구-음운론적 연구를 중심으로-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 박명순(1978), 충북 진천방언의 음운 연구-체계와 변화를 중심으로-, 성대문학 20, 성균관대.
- 박명순(1980), 충북 진천방언의 대우법 연구-종지법의 표현 양식을 중심으로-, 성대문학 21, 성균관대.
- 박명순(1981), 충북 음성방언의 고찰, 성대문학 22, 성균관대.
- 박명순(1984), 충북 음성지역어의 음운 연구-음운변화를 중심으로-, 청주사대논문집 13, 청주사대.
- 박명순(1985), 충북 음성 지역어의 대우법 연구-종지법의 표현 양식을 중심으로-, 호서문화논총 3, 청주사대.
- 박명순(1988), 청원지역어의 음운현상, 호서문화논총 5, 서원대.
- 박명순(1992), 청원지역어의 대우법 연구-종지법의 표현양식을 중심으로, 호서문화논

29) 충청북도 방언에 대한 방언구획이 방언학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전제한 논의

총 7, 서원대.

- 박명순(1994), 영동지역어의 음운 연구, 호서문화논총 8, 서원대 호서문화연구소.
- 박명순(1995), 영동지역어의 대우법 연구-종결형의 표현 양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연구 3-44, 서원대 인문과학연구소.
- 박명순(1997), 제천지역어의 네 언어권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6, 서원대인문과학 연구소.
- 박명순(1998), 충북 옥천지역어의 음운 연구, 인문과학연구 7, 서원대인문과학연구소.
- 박명순(2000), 단양지역어의 형태음소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9-1, 서원대인문과학연구소.
- 박명순(2001ㄱ), 영동지역어의 형태음소적 고찰-매곡면, 추풍령면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0-1, 서원대 인문과학연구소.
- 박명순(2001ㄴ), 제천지역어의 형태음소적 고찰, 반교어문연구 13, 반교어문학회.
- 박숙희(2010), 굴절의 음운현상으로 본 충남 방언의 특징, 어문학 109.
- 박영환(1986), 대덕 지역어의 음운, 언어연구 3, 한국현대언어학회.
- 박영환(1997), 충청 지역어의 지시어, 충청문화연구 제5집, 한남대 충청문화연구소.
- 박일범(1972), 충북 영동 방언의 종결 접미사 연구, 연세국문학 3, 연세대.
- 박종우(1988), 충북 괴산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 배영환(2009), 청주지역어에서의 고모음화와 중모음화, 방언학 10, 한국방언학회.
- 배영환(2019), 영동 송병필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19세기 충북방언-모음 음운론을 중심으로-, 언어와문화 1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배영환(2020), 17세기 충북방언의 구개음화 연구-우암의 한글 편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60, 동아시아고대학회.
- 배영환(2021), 문헌 자료 속의 충청도 방언 연구, 방언학 34, 한국방언학회.
- 서금덕(2000), 공주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 성낙수(1972), 영동군 황간 지방 방언의 연구, 연세국문학 3.
- 성낙수(1973ㄱ), 충남 당진 지방 방언의 동사류 접미사 연구(1) 종지법에서 쓰이는 접미사와 그 배합-, 국어국문학 61(제16회 전국국어국문학 연구발표대회 발표요지).
- 성낙수(1973ㄴ), 충남 당진지방 방언의 연구(1)- 동사류 종지법에서의 접미사 배합법, 연세어문학 4, 연세대.
- 성낙수(1977), 충남 당진지방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표현방식(Expression style)을 중심으로, 말 2, 연세대한국어학당.
- 성낙수(1985), 충남 당진지방의 방언의 동사류 접미사 [-M], [-KAN] 연구, 교수논문집 1, 한국교원대.
- 성낙수(1992), 충남 서산시(군), 태안군 방언, 국어학연구백년사(Ⅲ).
- 성낙수(1993ㄱ), 충청남북도 방언 연구와 방언지도 작성(I), 청하성기조선생회갑기념논문집.
- 성낙수(1993ㄴ), 충청남북도 방언 연구와 방언지도 작성(Ⅱ), 청람어문학 9, 청람어문

교육학회.

성석제(2004), 충북과 경북 지역간의 방언 경계에 대하여-몇몇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성희제(2000), 충남방언 움라우트현상의 유형 연구, 어문학 71, 한국어문학회.

성희제(2006ㄱ), 영동 충청방언권의 음운적 특성 연구, 어문연구 49, 어문연구학회.

성희제(2006ㄴ), 영동지역어 내의 충청방언 남동부 하한선 연구, 인문언어 8, 국제언어인문학회.

성철재(2005), 충남지역 대학생들의 한국어 단모음 포먼트 분석, 언어학 43.

소강춘(1991), 움라우트 현상에 의한 충남 서천지역어의 공시성과 통시성-19세기말 20세기 초의 문헌자료와 현재 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학 21, 국어학회.

손명기(2001), 성별을 중심으로 한 대전 사회방언 연구-어휘편, 대전어문학 18집, 대전대.

손명기(2003), 성별을 중심으로 한 대전 사회방언 연구-음운·의미·문법편, 어문논총 창간호, 대전어문연구회.

손명기(2004), 대전지역 대학생의 언어변이 연구, 어문논총 2집, 대전어문연구회.

손명기(2006), 대전에서의 종결어미 '-유'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언학 3, 한국방언학회.

손민숙(1983), 괴산 방언의 어휘론적·음운론적 고찰, 중원춘추 1, 건국대충주.

염종진(2019), 충남 논산 지역어 담화표지 '머'의 기능과 분포, 방언학 30, 한국한언학회.

오기환(1999), 예산 지역어의 종결어미 연구, 순천향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오연근(2000), 공주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순천향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유세진(2007), 논산 지역어의 연결어미 연구, 방언학 제6호, 한국방언학회.

유세진(2014), 충남 방언 '가다'의 문법화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유소연(2021), 20세기 충남 지역 후설 모음의 특징에 대하여, 방언학 33, 한국방언학회.

유소연(2022ㄱ), 19세기 말 서천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 방언학 36, 한국방언학회.

유소연(2022ㄴ), 19세기 말~20세기 서천 지역어 후설 모음 체계의 특징-『초학요선』과 『한국방언자료집』을 중심으로-, 한글 제83권 제1호(335호), 한글학회.

유영숙(1988), 단양 동북부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유영철(1997), 영동지역어의 음운변동에 관한 연구, 서원대 석사학위 논문.

윤지현(2013), 충남방언 화자에 의한 /오/와 /우/의 청지각적 분류,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이경호(1996), 충남 연기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이기동(1999), 충남 보령군 연지리의 방언 고찰, 한국학연구 11,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이동희·유승현(2003), 충청북도 방언의 특징-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동국어문학 15.

이미란(2014), 격음 'ㄸ', 'ㄷ', 'ㅌ' 종성의 표준 발음 실현 양상에 관한 연구: 충청지역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 이병근(1969), 황간지역어의 음운, 논문집 1, 서울대 교양과정부.
- 이병근·정승철(1989), 경기·충청 지역의 방언분화,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회.
- 이상규(1991), 경북·충북 접경지역의 어휘분화: 복합어, 파생어를 중심으로-, 들머서 재극박사환갑기념논문집.
- 이승재(1984), 전북·경기·충북방언과 현지조사 과정과 반성, 방언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우희(1985), 당진군 지역어, 국어국문학 3, 건국대.
- 이원직·허삼복(1996), 충남 서부 방언의 음운체계, 인문과학논총 2, 순천향대.
- 이원직(1996), 충남 방언 연구 -충남 서부 방언의 모음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 한국어학회.
- 이원직(1997), 충남 방언의 음운 고찰-서부지역 음절통합을 중심으로-, 순천향 어문논집 3·4합집, 순천향대.
- 이익섭(1968), 충청·경상도 접경 지역의 전라북도방언의 연구, 문교부학술연구보고서 15, 국립도서관.
- 이인석(1991), 충청남북도 마을이름 연구, 그 분포를 통한 충청도 방언 구획 시론,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 이재춘(1991), 19세기 충북방언의 음운론적 연구:「여소학」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 이재춘(1995), 19세기 충북방언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단국어문논집 창간호, 단국대.
- 이재춘(1998), 19세기말 서천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초학요선」을 중심으로, 단국어문논집 2, 단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단국어문연구회.
- 이주행(1990), 충청북도 방언의 상대경어법 연구, 평사 민제 선생화갑기념논총.
- 이해숙(1968), 충북 진천지역어에 나타난 얇힌 음운 연구, 특히 고저와 장단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 8, 이화여대.
- 이혁화(2005), 무주·영동·김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현주(2010), 아산 지역어의 활음 w탈락 현상 연구, 국어연구 22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이현주(2015), 전북·충남 접경 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완주·논산지역어를 중심으로-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 이현주(2021), 「이문구 소설에 반영된 충남방언과 실제 충남방언 사이의 간극을 통해서 본 충남방언의 음운론적 특징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인문학연구』62,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이현주(2022), 충남방언의 모음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장미자(1987), 충북 영춘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 장충덕(2015), 청주지역어 체언 어간말 자음 교체의 사회적 변이, 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 전광현(1983), 영동·무주 접촉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13, 단국대.

- 전광현(2000), 충청남도 서산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논집 17,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전병철(1991), 금산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 전병철(1996), 금산 지역어의 모음변이에 대한 세대별 비교 연구, 개신어문연구 제13집, 개신어문학.
- 전병철(1997ㄱ), 금산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 논문.
- 전병철(1997ㄴ), 금산 지역어의 자음변화에 대한 세대별 비교 연구, 오당조항근선생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전병철(1997ㄷ), 청주지역 G3의 음운변이에 대한 연구(1), 개신어문연구 14, 개신어문학회.
- 전병철(1999), 청주지역 G3의 모음변이에 대한 연구, 언어학 3, 중원언어학회.
- 전병철(2004), 일반적 인식의 충청도 방언 특징 고찰, 개신어문연구 21.
- 전익진(1993), 충남 당진 지방 방언의 받침소리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전철웅(1993), 충북방언의 통시적 구개음화, 전농어문연구(서울시립대) 6.
- 전철웅(1994), 충북방언의 어간말파찰음의 비파열화에 관한 통시적 연구, 우산이인섭 교수화갑기념논문집.
- 전철웅(1996), 충북방언의 단어변천사, 개신어문연구 13, 개신어문학회.
- 전철웅(1998), 충북방언의 역사적 연구: 어형 및 음운 변화를 중심으로, 보고서.
- 전철웅(1999), 충북 방언의 단어 변천사, 보고서.
- 전철웅(2000ㄱ),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1), 운강송정헌선생화갑기념논총.
- 전철웅(2000ㄴ),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2), 어문논총(충북대) 9.
- 전철웅(2001),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3), 개신어문연구 18, 개신어문연구회.
- 전철웅(2004), 한국어의 Metathesis에 관한 일고찰:충북방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5, 한국어교육학회.
- 전철웅(2005),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4), 인문학지 31,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 전철웅(2006),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5), 인문학지 33,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 전철웅(2007),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6), 새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학회.
- 전철웅(2008),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7), 중원문화논총 제12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 전철웅(2009),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8), 개신어문 30, 개신어문학회.
- 전철웅(2010),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9), 개신어문 32, 개신어문학회.
- 전철웅(2013),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10), 새국어교육 제95호.
- 전철웅·김종숙(2016),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11), 언어학연구 38, 한국중원언어학회.
- 정공용(1994), 청양지역어의 자음 음운현상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 정근문(1987), 영동 방언 연구-용산.매곡면을 중심으로-,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 정민영(1983), 충주지역어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 정민영(1986), 충주 지역어의 모음변이 양상, 동천조건상선생고희기념논총.
- 정원수(1992ㄱ), 충북 영동방언의 청자대우법 어미 연구, 언어연구 8, 한국현대언어학회.
- 정원수(1992ㄴ), 충북 영동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용운언어 2, 대전대.
- 정원수(1993), 영동방언의 음운론, 언어연구 9, 한국현대언어학회.
- 정원수(1999), 대전 토박이말의 언어적 위상과 음운체계, 언어 20, 충남대 어학연구소.
- 정원수(2002), 충남 서해안 지역어 대화문의 운율 분석 시론, 어문연구 40, 어문연구학회.
- 정원수(2003), 충남 예산·당진 지역 의문문의 억양 분석과 문장 의미 해석, 어문연구 42, 어문연구학회.
- 정은희(1984), 단양 방언의 어휘론적·음운론적 고찰, 중일춘추 2, 건국대충주.
- 정은희(1985), 보은 방언의 어휘론적·음운론적 고찰, 중일어문학 1, 건국대.
- 정인상(1984), 제원 지역어의 음운현상, 개신어문연구 제3집, 충북대.
- 정인상(1986ㄱ), 충북방언의 사회적 변이에 대한 일고찰, 동천조건상선생고희기념논총.
- 정인상(1996ㄴ), 청주지역어의 사회적 변이에 대한 연구, 호서문화연구 14,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 정진영(1990), 충남 당진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 논문(교육대학원).
- 조성귀(1983), 옥천방언연구-특히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충남대).
- 조성미(1996), 보령 주포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충남대 교육대학원).
- 조소형(2010), 대전지역 20대 성인과 6~7세 아동의 모음 특성 비교:formant 분석을 통하여,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 조오현(1997), 청양 방언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말연구 3, 한말연구회.
- 조오현(2004), 충청남도 청양방언 의향씨끝 [-유]의 억양에 의한 서법 체계 연구, 한말연구 14, 한말연구학회.
- 조항근(1980), 충북 청원 지역 방언 연구, 어문학 39, 한국어문학회.
- 조항근(1986), 청원지역어의 구조에 관한 연구:음운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조항근·김재윤·전철웅(1990), 충북 북부방언 연구, 개신어문연구 제7집, 개신어문연구회.
- 조항범·배영환(2008), 청주시 토박이말 조사.연구, 청주시.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
- 진종진(1989), 서산방언의 격어미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 최갑순(1977), 영동방언의 음운론적 고찰,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교육대학원).
- 최명옥·한성우. (2001), 충남방언 연구.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 최범훈(1983), 충북 영춘지역어 연구, 경기어문학 4, 경기대.
- 최상식(1984), 천원군 북면 지역어-어휘와 음운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 건국대.
- 최영희(1982), 충남아산지역어의 언어분화에 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교대원).

- 최태영(1986), 괴산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송실어문 3, 송실대 국문과.
- 최태영(1989), 예산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이정 정연찬 선생 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 한성우(1996), 당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41, 국어연구회.
- 한영목(1982), 충남방언의 고찰, 남북한의 방언연구, 경진출판사.
- 한영목(1983), 금산 지방 방언의 고찰-충남 방언 구획 설정을 위한 시고-목원어문학 제4집,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 한영목(1987), 금산 지방의 방언 연구, 논문집 14권 1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한영목(1988), 충청남도 방언에 대하여, 학림 제7집,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 한영목(1991), 충남 방언의 고찰, 김영배교수화갑기념논총, 경운출판사.
- 한영목(1997ㄱ), 금산 지역어의 분화와 위치에 대한 연구, 한밭한글 제2호, 한글학회 대전지회.
- 한영목(1997ㄴ), 금산 지역어의 자음 분화, 성재이돈주선생화갑기념 국어학연구의 새 지평, 태학사.
- 한영목(1998), 충남 방언의 현상과 특징에 대한 연구, 청암 김영태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 한영목(1999ㄱ), 충남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어문연구 32, 어문연구학회.
- 한영목(1999ㄴ), 충남방언의 연구와 자료, 이회문화사.
- 한영목(2000ㄱ), 충남 방언의 보조용언과 상, 어문연구 33, 어문연구학회 .
- 한영목(2000ㄴ), 보조용언 ‘-번지다, -쌩다’와 충남 방언, 한글 249, 한글학회.
- 한영목(2000ㄷ), 충남 금산지역어 연구, 한국문화사.
- 한영목(2001ㄱ), 충남 방언의 격조사, 어문연구 35, 어문연구학회.
- 한영목(2001ㄴ), 충남 방언 어미 ‘-데’와 ‘-다’의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47집, 한국언어문학회.
- 한영목(2003), 이문구 소설의 방언 연구-모음 현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 한영목(2004ㄱ), 충남방언의 보조사 연구(1), 우리말글 30, 우리말글학회.
- 한영목(2004ㄴ), 충남방언의 보조사(2), 어문연구 44, 어문연구학회.
- 한영목(2007), 서천 지역어의 연구, 서산문화원.
- 한영목(2008), 충남 방언 문법, 집문당.
- 한영목(2010), 충남방언 ‘-일랑사리’와 ‘-할래’ 구문 연구, 방언학 12, 한국방언학회.
- 홍윤표(1991), “초학요선”과 19세기말의 충남 서천지역어,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김완진 선생 회갑기념 논총, 민음사.
- 황인권(1987), 보령군 웅천지역어의 자음변동에 대한 고찰, 한남어문학 13.
- 황인권(1988), 보령군 웅천지역어의 모음변화에 대하여(2), 한남어문학 14.
- 황인권(1990), 보령군 웅천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하여(3)-격어미의 연결을 중심으로 -, 한국어학신연구, 한신문화사.
- 황인권(1991) 충남 보령지역어의 음운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황인권(1992), 담반가와 보령지역어의 음운 비교, 국어학연구백년사Ⅲ, 일조각.
황인권(1999), 충남편, 韓國 方言 研究. 국학자료원.
황인권(2002), 충남 홍성지역어에 대한 고찰, 한남어문학 26, 한남어문학회.
황인권(2004), 충남 서천지역어의 자음변화에 대하여(1), 우리말글 30, 우리말글학회.
영목윤(1995ㄱ), 대전 지역 대학생의 방언 의식, 대전대 석사학위 논문.
영목윤(1995ㄴ), 충남방언형 ‘기-’와 ‘-냐’ 사용의 남녀차, 세대차에 대하여, 대전어문학 11, 대전대.
소창진평(1918), 충청남도의 방언에 대하여, 조선교육연구회 잡지 35호(대정 7년 8월).

<참고 문헌>

- 김우선·김현종(2023), 북한 지명 연구-‘덕(德)을 중심으로, 제37회 한국지명학회전국 학술대회 발표집(한국지명의 유래와 변천).
김정태(1996), 전래지명어와 방언과의 상관성 고찰(1), 한국언어문학 제37집, 한국언어문학회, 41-58.
김정태(1997), 전래지명어와 방언과의 상관성 고찰(2), 어문연구 25-2호(통권 9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4-99.
김정태(2020), 예산말 사전(제1~4권)에 대하여, 방언학 제31호, 한국방언학회, 243-266.
김정태(2021), 정다운 우리말 서산사투리(증보판)의 체재상 특징과 서산 방언, 충청문화연구 제26집, 충청문화연구소, 55-93.
국립국어원(2009), 2009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충청남도 서산군, 국립국어원.
김형규(1958), 국어학개론, 일성당서점.
김형규(1962), (개정판)국어학개론, 일조각.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 출판부.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이병근(1967), 중부방언의 어간 형태소고, 문리대학보(서울대) 13.
이병근(1979), 방언 연구의 흐름과 반성, 방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병근(2005), 1910-20년대 일본인에 의한 한국어 연구의 과제와 방향, 방언학 2, 한국방언학회, 23-61.
이승녕(1967), 한국문화사대계 9, 언어·문학사 상,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이익섭(1979), 방언 자료의 수집 방법, 방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8-117.
전광현(1979), 중부방언연구에 대한 검토, 방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2-87.
정승철(2010), 소창진평의 생애와 학문, 방언학 11, 한국방언학회, 155-184.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승철(2014), 한국 방언자료집 편찬의 역사,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7-35.
- 최명옥(1998), 국어의 방언 구획, 새국어생활 8-4, 국립국어연구원, 5-29.
- 최학근(1978),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 최학근(1982), 한국방언학, 태학사.
- 한영균 역(1982), 방언하위분류의 방법, 방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소창진평(1918), 충청남도의 방언에 대하여, 조선교육연구회 잡지 35호(대정 7년 8월).
- 소창진평(1924), 남부조선의 방언, 조선사학회(대정 13년 3월). (소창진평저작집(3)(1930)에 수록, 경도대학국문학회)
- 소창진평(1940),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 Tokyo: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 소창진평(1944), 조선어 방언의 연구(상: 자료편, 하:연구편), 암파서점.
- 하야육량(1945), 조선방언학 시고-‘협’어고, 동도서적.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서남방언 연구 동향 및 과제 —전남 방언을 중심으로—

강희숙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hskang@chosun.ac.kr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국어의 대방언권 가운데 하나인 서남방언에 관한 공시적 연구 동향 및 향후 연구 과제에 관해 기술하되, 일차적으로 전남방언 연구 동향 및 과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남방언은 국어 대방언권 중 하나로 전남방언과 전북방언을 아우르는 개념이긴 하지만 한 편의 글에서 두 하위 방언 연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아우르기엔 지면상의 한계가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두 사람의 일본인 학자, 곧 小倉進平¹⁾과 河夜六郎²⁾의 연구성과를 제외하고 순수한 국내학자에 이루어진 첫 번째 전남의 방언 조사 및 연구성과를 이강수(1936)³⁾이라고 한다면, 전남방언 연구의 역사는 대략

1) 1919년 小倉進平은 '전라남도방언'이라는 글을 『조선어교육연구회잡지』에 게재하였으며, 1924년에는 『남부조선의방언』이라는 단행본을 간행하면서 광주를 비롯하여 17개 지역의 음운과 어휘를 조사하였는바, 이러한 연구성과가 전남 방언 연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2) 하야육량(1945) 참조.

87년의 역사를 지닌 셈이다. 이러한 시간 축 위에서 이루어진 전남방언의 연구사는 여타 국어 방언의 역사가 그러하듯 연구대상 및 방법론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언어지리학과 사회방언학적 연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언어지리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전남방언 연구성과를, 3장에서는 사회방언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마지막 4장에서는 전남방언 연구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언어지리학적 연구 현황

2.1. 전남방언의 특징과 방언 구획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1960년대 이전 시기까지 이루어진 몇몇 개별 지역 방언 어휘 조사 결과⁴⁾를 제외한다면, 언어지리학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남방언에 대한 본격적인 방언 조사 및 연구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최학근(1962)에 의해 처음으로 전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비교적 광범위한 방언형 조사가 이루어지는 한편, 홍순탁(1963), 서주열(1964), 홍순탁·이돈주(1965), 김차균(1969), 이돈주(1969) 등등의 연구에 의해 전남 방언 또는 전남의 개별 지역방언의 특징을 밝히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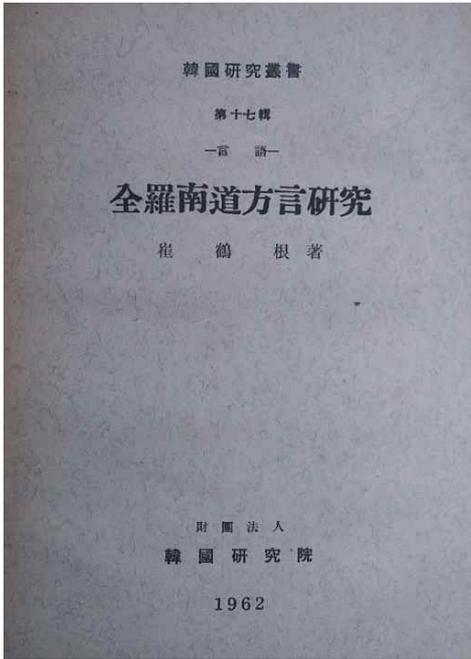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의 열일곱 번째 연구총서로 간행된 최학근(1962)에서는 총 805개 어휘⁵⁾의 전남 방언형들을 24개의 범주로 나누어 수록하였음이 특징이다. 천문(天文), 지리(地理), 시일(時日) 등의 범주에 속하는 명사류 어휘들에서부터 형용사, 동사 등의 품사에 이르기까지 표준 어휘에 대응하는 지역적 변이형들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방언 어휘집은 개별 지역 방언이 아닌 최초의 전남방언 어휘 자료집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홍순탁(1963)에서는 전남방언의 음운 현상과 어휘적 성격 두 가지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졌다. 음운 현상으로는 음절 사이에 개재된 중간자음 ‘g, b, s’의 유지 혹은 탈락 현상 및 자음 ‘ㅂ’와 ‘ㄱ’의 대응에 따른 방언 분화 현상 두 가지를 다루었다. 어휘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전남의 도서 지방⁶⁾에서 주로 나타

3) 이강수(1936), 방언(3) 함평지방, 한글 32. 이돈주(1987:64) 참조.

4) 이강수(1936), 천영희(1938), 정익섭(1958)이 거의 전부이다.

5) 최학근(1962:3)의 서언(序言)에 따르면, 저자는 애초에 3000여 개의 어휘를 기초어휘로 선정한 후 이에 대한 가급적 다수의 변이형을 조사하여 전사하는 방식으로 방언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 책에 수록된 것은 그 일부에 해당하는 총 805개 어휘로 되어 있다.



[그림 1] 최학근(1962)의 표지 모습

나는 ‘풍명(風名)’과 ‘선구명(船具名)’의 특징이 기술되었다.

서주열(1964)은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의 전이지대 연구의 효시로서, 단모음 체계에 의한 방언 구획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전남방언과 경남방언, 두 방언의 전이지대 모음체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홍순탁·이돈주(1965)는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에서 계획한 남해도서 지방의 학술조사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문도 방언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거문도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과 함께 이 방언에서 나타나는 접미사로서 이른바 축소접미사와 몇몇 명사 파생 접미사 및

방언의 보수적 특징을 보여주는 고어 및 특이어 등을 포함하는 어휘적 특징에 대해 다루었다.

全南方言型	等語地帶型 I	等語地帶型 II
/i/ /ö/ /u/	/i/ /ö/ /u/	/i/ /u/
/e/ /ə/ /o/	/e/ /ə/ /o/	/e/ /ə/ /o/
/a/	/ε/ /a/	/ε/ /a/
	섬	慶南方言型
	진	/i/ /u/
	강	/ε/ /ə/ /o/
		/a/

[그림 2] 전남방언과 경남방언 전이지대 모음체계(서주열 1964:145)

김차균(1969)은 전남방언의 초분절음소 체계를 다룬 최초의 연구성과로서 전남의 남서부 방언에 해당하는 해남과 무안방언을 통해 전남방언이 성조방언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즉, 해남과 무안방언의 경우, 고조와 저조라는 두 가지 성조 체계를 갖고 있으며 어휘의 음절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조형 (tonemic patterns)이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6) ‘풍명(風名)’은 ‘흑산도 진리’와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수문포’, ‘광양군 중도’ 등지에서, ‘선구명(船具名)’은 ‘완도군 청산도’에서 각각 조사된 것이다.

- (1) ㄱ. 1음절어: /3/, /2/
- ㄴ. 2음절어: /2-2/, /3-2/, /2-3/, /3-3/
- ㄷ. 3음절어: /2-3-2/, /3-3-2/, /3-2-2

중요한 사실은 (1)과 같은 성조형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환경에 따라, 또는 전남의 하위 지역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광주 방언은 성조 방언으로서의 자격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 있으며, 해남-무안 방언과 목포 방언은 총 어휘의 50% 이상이 환경에 따른 변화를 보인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바, 전남방언 내에서도 초분절음소와 관련된 지역적 변이는 물론 일정한 언어 변화가 진행 중일 수 있음을 보였다.

다음으로 이돈주(1969)는 1968년 문교부 학술조성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전남 도서지방의 민속, 민요 및 방언에 관한 조사연구’ 중 방언에 관한 소론(小論)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도서지방 외에도 이전에 이루어진 상당수의 육지방언 조사 결과를 포함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남방언 전반에 관한 연구성과로 보아도 크게 손색이 없다고 할 만하다. 연구 내용으로는 모음과 자음 관련 음운 현상과 함께 형태론의 관점에서 전남방언에서 나타나는 축소 접미사⁷⁾ 및 몇몇 명사 형성 접미사의 변이형 및 분포 양상이 기술되었다.

한편, 전남방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방언 구획 및 방언권 설정의 첫 시도는 이돈주(1978)에서 이루어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전남 방언의 구획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음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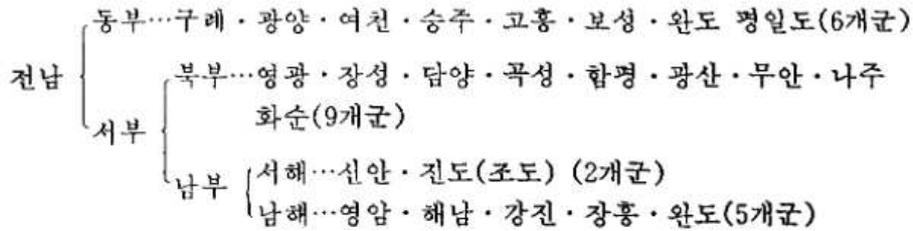
- (2) A 지역: 광산, 담양, 곡성,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영광, 무안
- B 지역: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흑산도
- C 지역: 구례, 광양, 여천, 승주, 고흥, (거문도)

이돈주(1978:190)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전남 방언의 구획은 다분히 잠정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백운산과 섬진강, 노령산맥 등 언어 외적인 요인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⁸⁾ 이후 전남 방언의 구획은 이기갑(1982, 1984, 1986) 등을 통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기갑(1982)에서는 전남 방언의 분화상을 몇몇 특징적인 문법적 요소와 이를 뒷받침하는 음운론적 특징을 바탕으로 전남 방언권을 동부와 서부의 두 지

7) ‘-아지, -에기, -앵이, -아리, -약지, -양지, -억지, -양구’ 등이 그 예이다. ,
 8) A 지역은 노령산맥을 분계선으로 전북방언과 대립을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B 지역은 백운산과 섬진강을 분계선으로 하여 경상도 방언의 개신파에 영향을 받은 동남부 지역에 속한다.

역으로 하위 구획하였다. 이후 이기갑(1984)에서는 유성음 사이의 [-g-], [-b-]의 탈락, 어말의 모음 첨가 및 탈락, 기타 상이한 어형들의 대립이 그리는 등 어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식의 방언 구획을 시도하였다.



[그림 3] 이기갑(1984:43)의 전라남도 방언구획

이기갑(1982, 1984)에서 시도된 전남방언의 구획은 이기갑(1986)에 이르러 좀더 정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기갑(1986)에서는 전남 지역 방언의 단절상과 등어선의 방향에 따른 조사 항목의 1/2선을 근거로 방언권 사이의 상호 관계를 토대로 <표 1>과 같이 방언구획을 하였다.

<표 1> 전라남도의 하위 방언구획(이기갑 1986)

구획	서부	동부
북부	영광·함평·장성·담양·광산·나주·화순·곡성 서부	구례·광양·여천·승주 동부 곡성 동부
남부	무안·영암·해남·진도·완도·해남·강진·장흥·보성 서부	고흥·승주 서부·보성 동부

이러한 방언구획에 따르면, 전남 방언은 1차적으로 동부와 서부 두 방언권으로 크게 나뉠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동부와 서부 방언권이 각각 남북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전남 방언이 1차적으로 동부와 서부 방언권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은 경남방언과의 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바, 경남에 인접한 전남의 동부 지역이 서부와 다른 언어상을 보이기 때문임이 확인되었다.

전라남도 방언 구획을 시도한 또 다른 연구로는 서상준(1984)와 최근의 연구인 이진숙(2019, 2021)을 들 수 있다. 서상준(1984)에서는 이기갑(1982)와 마찬가지로 전남방언을 동부와 서부 두 방언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가정하에 동부 전남과 서부 전남을 갈라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음운, 형태음소, 문법, 어휘 등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한편, 이진숙(2019)에서는 전라남도 방언 구획 설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서 음운론 층위에서 음소목록과 음운 현상⁹⁾의 분화상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진숙(2021)에서는 총 13개의 어휘 항목¹⁰⁾을 중심으로 방언의 분화 양상을 다루었다. 방언 구획 설정을 위한 음운 현상이나 어휘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 변화까지를 고려한 방언 분화 양상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60년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시도된 전남방언에 대한 언어지리학적 연구들은 여타의 국어 방언 연구들이 그러하듯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구조방언학 또는 생성방언학적 방법론을 동원하거나 다양한 문법 층위에 걸친 연구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2.2. 이하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2.2. 방언음운론

방언음운론의 층위에서 이루어진 전남 방언 연구성과는 전남 방언 전체 또는 하위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음소 체계 및 개별 음운 현상 또는 그에 따른 방언간의 차이나 분화 양상에 대한 기술에 초점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학위논문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 바, 그동안 전남방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방언음운론의 성과를 하나의 표로

9) 여기에서 다룬 음운 현상으로는 ‘예>이 변화, ‘ㅎ-’의 모음 변화, 유성자음 ㄱ[ɡ] 탈락, p/k 교체’ 등 모두 네 가지이다.

10) ‘부추, 시래기, 무, 여우, 어레미, 달걀, 흰자위/노른자위, 하품, 회오리바람, ‘택호’ 표지, 따뜻하다, 달라, 줄리다’ 등.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방언음운론의 학위논문 현황

순서	연도	연구자	논제	학위(대학)	비고
1	1980	이승재	구례 지역어의 음운 체계	석사(서울대)	
2	1981	기세관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전남대)	
3	1990	남정식	전남 내륙 방언의 음운고	석사(수원대)	
4	1993	위평량	여천지역어 연구	석사(호남대)	
5	1994	배주채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박사(서울대)	
6	1995	정인호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서울대)	
7	1995	정채삼	全南 康津方言의 音韻論的 研究	석사(전북대)	
8	2003	김광헌	신안 지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목포대)	교육 대학원
9	2004	정인호	原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照 研究 : 龍川 地域語와 和順地 域語를 중심으로	박사(서울대)	
10	2008	김경표	해남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전남대)	
11	2008	이경진	영광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연구	석사(국민대)	
12	2008	이상신	전남영암지역어의 공시음운론	박사(서울대)	
13	2009	김철	전남 완도군 신지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교원대)	교육 대학원
14	2010	이진숙	진도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전남대)	
15	2010	하신영	전남 곡성지역어와 경남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박사(서울대)	
16	2013	김경표	전남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박사(전남대)	
17	2013	이진숙	고흥지역어와 진도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박사(전남대)	
18	2017	강보나	전남 방언의 격음화 비실현 양상 연구	석사(고려대)	
19	2017	김다솔	전남 방언 이중모음 'ㄴ'의 실현 양상 연구	석사(전남대)	
20	2017	김민서	담양 방언의 역행적 유기음화	석사(전남대)	

위의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언음운론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남방언의 학위논문은 총 20편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띠

는바,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례 지역어의 음운 체계를 다룬 이승재(1980)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가 전남방언 혹은 해당 조사지점의 방언에 대한 음운론적 기술을 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둘째, 정인호(2004)를 효시로 하신영(2010), 김경표(2013), 이진숙(2013) 등 국어 대방언권 간 또는 대방언권 내 소방언 간의 대조 혹은 대비 연구의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바, 정인호(2004), 하신영(2010)은 대방언권 간의 음운론적 대조 연구이고, 김경표(2013), 이진숙(2013)은 전남방언의 소방언 간의 대비 연구에 해당한다.¹¹⁾

셋째, 그 사례가 많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들어 조사지점의 음운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대신 그 범위를 좁혀 ‘격음화 비실현’(강보나 2017), ‘이중모음 /-/의 실현 양상’(김다솔 2017), ‘역행적 유기음화’(김민서 2017) 등 개별 음운 현상에 대한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학위논문이 아닌 개별 학술논문에서 전남방언의 음운 체계 및 음운 현상을 다룬 연구성과는 어떠한 경향성을 보일까? 다음은 전남 방언의 음운 체계 및 음운 현상을 다룬 연구 현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방언음운론의 학술논문 현황

순서	연도	연구자	논제	서지사항	비고
1	1983	기세관	전남 북서부 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국어국문학 90	
2	1983	박양구	전남방언의 모음체계	논문집 7	한성대
3	1986	기세관	光山地域語의 音韻體系-30代와 40代 以上の 母音體系를 中心으로	語文論叢 9	전남대
4	1991	배주채	고흥방언의 음장과 음조	국어학 21	
5	1996	기세관	여수방언의 음운론적 특성	선청어문 24	
6	1996	강희숙	장흥방언의 모음조화	언어학 4	대한언어학회
7	1996	강희숙	진도 방언의 / n / 탈락 현상에 대한 고찰	국어학 27	
8	1998	강희숙	‘오>우’ 변화와 언어적 화석 -전남방언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33	

11) 김경표(2013)에서는 <신안>, <진도>, <완도> 세 지역어를 이진숙(2013)에서는 <고흥>과 <진도> 두 지역어를 대비하여 연구하였다.

9	1999	위평량	전남, 경남 접경지 방언의 음운: 단모음 체계와 아래아(·)의 변화를 중심으로"	호남학연구 27	
10	2000	강희숙	전설모음화의 발달과 방언분화-전남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4	
11	2004	기세관	광양 방언의 음운론과 형태론	배달말 35	
12	2005	강희숙	고모음화의 실현과 방언 분화-전남 방언과 서울말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3	
13	2008	위진	전남방언에 나타난 어두경음화	한국언어문학 65	
14	2009	김차균 강흥구	광양시 진상 방언의 성조형과 음조형	한글 285	
15	2009	강흥구	광양 방언의 성조 연구	한말연구 25	
16	2010	강흥구	광양 방언 1음절 어간 풀이씨 성조	한글 289	
17	2010	강희숙	/j/첨가와 전남방언 분화	한민족어문학 57	
18	2011	강흥구	남부지역 방언의 운율체계 비교 연구 -하동 방언과 광양 방언의 다음절 풀이씨 성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68	
19	2012	김봉국	전남 광양 지역어의 'X + Y' 음운론	방언학 15	
20	2012	이진숙	고흥지역어와 진도지역어의 모음체계 연구 -'e, ε, ü, ö'의 변화를 중심으로	방언학 16	
21	2013	소신애	개음절(開音節) 뒤의 ㄴ 삽입(插入) 현상(現象)에 대하여 - 전남(全南) 방언(方言)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41-1	한국어 문교육 연구회
22	2014ㄱ	이진숙	담양 지역어의 특징적인 음운 현상	국어학 69	
23	2014ㄴ	이진숙	전남 함평 지역어의 형태음운론	배달말 54	
24	2018	하영우	순천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언어와 정보 사회 35	서강대
25	2018	하영우 신우봉	전남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	민족문화연구 79	고려대
26	2019	하영우 오재혁	전남 방언 자음군 단순화의 변화 양상	한말연구 30	
27	2019	하영우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 변화	민족문화연구 85	
28	2019ㄱ	강희숙	진도 지역어의 비모음화 재고	국어학 91	
29	2019ㄴ	강희숙	전남방언 비모음화의 지리적 분포,	방언학 30	
30	2020	하영우	전남 진도 지역의 음장과 운율 구조	어문논집 89	민족어 문학회

위의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언음운론의 층위에서 이루어진 전남방언의 음운체계 또는 음운 현상을 다룬 학술논문의 성과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주제 면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방언 또는 그 하위 지역어의 음운 체계의 기술, 개별 음운 현상과 그에 따른 방언의 분화 양상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연구성과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음운 체계의 기술에서는 특히 개별 지역 방언의 운소 체계에 대한 기술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주채(1991)에서는 고흥방언의 음장과 음조에 대해 다루고 있고, 김차균·강흥구(2009), 강흥구(2009, 2010)에서는 광양방언의 성조 체계를, 하영우(2020)에서는 진도방언의 음장과 운율 구조를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는 전남방언의 운소 체계에 대한 기술이 좀더 정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남방언은 음장방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¹²⁾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더더욱 그러하다. 김차균(1969)에서 일찍이 지적된 바와 같이 전남방언이 애초에 성조방언에 속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특히 광양방언의 경우는 전이지대에 속한다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경남방언과 유사한 성조방언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이지대를 제외한 여타 전남방언이 중부방언과 동일한 음장 방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음조나 운율 구조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배주채(1991)에서는 고흥방언의 경우, 음장이 어휘적인 변별성을 지니며, 그러한 변별성은 어두 위치에서만 실현된다는 사실과 함께 고흥방언에서 언어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음조는 고조와 저조이며, 각 분절음의 음조를 고조와 저조로 결정하는 요소는 음장과 어두 초성의 자음 종류인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음조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2) ㄱ. 어두음절이 장음일 때: 제1 음절이 고조, 제2 음절이 저조(2-1 음조형)
 ㄴ. 어두음절이 단음일 때: ① 초성이 된소리, 유기음, ㅅ, ㅎ인 경우: 2-2 음조형
 ② 초성이 모음이거나 그 밖의 자음인 경우: 1-2 음조형

이와 같은 고흥방언의 음조는 예측이 가능한 비변별적인 요소이면서 어절 경계를 알려주는 분계적 기능을 한다. 또한 음조가 어절 경계를 알려주는 것은 주로 강조적 강세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한편, <표 3>의 연구성과 가운데 하영우(2018), 하영우·신우봉(2018), 하영우(2019) 등 일련의 연구성과는 실험음성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로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12)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학술원(1993)에서는 국어 하위방언들의 운소 체계를 기술하면서 전남 방언을 비롯한 서남방언이 음장방언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남 방언의 모음체계를 다룬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전남 방언의 모음체계가 일반적으로 /l, ɛ, ɨ, ɔ, ɯ, ʌ, ɔ, ɯ, ɯ/ 등의 9모음 체계이며, 일부 동부 지역어의 경우에만 /ɛ/, /ɛ/가 변별적인 10모음 체계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하영우(2019)에서는 전남 지역의 단모음 체계는 하위 방언권보다는 세대를 중심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청소년층은 /ɨ/, /ɔ/가 단모음 체계에서 완전히 이탈한 7모음 체계인 데 반해, 노년층은 두 모음이 단모음 체계에 한정적으로 남아 있는 잠정적 7모음 체계를 보이되, 동부의 경남·전남 접경지대는 노년층에 한정하여 /ɛ, ɛ/가 변별적인 잠정적 8모음 체계라는 것이다.

또한 하영우(2019)에서는 전남방언의 단모음 변화는 음가에서도 나타났는바, 세대를 주요 변수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진행 중임을 제시하였다.

- (3) ㄱ. 노년층의 /ɨ/는 전통적인 전남방언 연구의 가정대로 /ɯ/에 가깝게 실현되는 데 비해 청소년층은 후설저모음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 ㄴ. 청소년층의 경우, /ɨ/의 후설저모음화와 함께 /ɯ/의 고모음화, /ɯ/와 /ɯ/의 전설화로도 나타났다.
 - ㄷ. 일부 노년층의 /ɨ/는 청소년층과 동일한 음가 변화 양상을 보여 노년층의 단모음 음가도 가변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표 3>에서는 전남방언에서 나타나는 개별 음운 현상에 대한 방언학적 기술과 함께 해당 음운 현상을 토대로 한 전남방언의 내적 분화는 물론 국어의 다른 방언들과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강희숙(2000)에서는 치찰음과 유음 /ɾ/ 아래서 후설모음 /ɯ/가 전설모음 /ɨ/로 실현되는 현상인 전설모음화가 전남방언의 하위 지역어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강희숙(2005)에서는 고모음화, 곧 모음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직적인 모음 상승(vowel raising) 현상의 경우 전남방언을 포함하는 국어 방언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3. 방언문법론

방언문법론, 곧 형태·통사 층위에서 이루어진 전남 방언 연구성과는 음운론의 층위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 분야에서의 연구는 주로 일반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위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구

별 없이 연대순으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살펴보기도 한다. 우선 형태론의 층위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형태론적 연구 현황

순서	연도	연구자	논제	서지사항	비고
1	1971	김용배	全南方言의 接尾辭에 關한 研究	석사논문(전남대)	
2	1974	성낙수	전라남도 방언의 동사류 연구-종지법에 쓰이는 접미사와 그 배합-	언어문화 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3	1977	홍순탁	전남방언에 나타나는 접미사의 유형	아카데미논총 5	세계평화교수 아카데미
4	1981	김용배	전라남도 방언의 접미사에 관한 연구	목포대논문집 2	
5	1983	이기갑	전남방언의 매편이름씨	언어학 6	
6	1985 L	김용배	전남방언의 이중어미에 대한 연구	어문논총 7, 8호	전남대
7	1987	이기갑	전남방언의 토씨 체계	국어국문학연구 (장태진 교수 화갑기념논총)	
8	1989	이종길	全南方言의 文法素考察: 谷城地域의 活用語尾를 중심으로	석사논문(전남대)	
9	2005	이기갑	전남 방언의 파생접미사(1)-명사와 동사의 파생을 중심으로,	언어학 41	
10	2006	이기갑	전남 방언의 파생 접미사(2)-형용사와 부사의 파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54	
11	2008	강희숙	전남방언 남성 호칭 접미사 '-센'의 용법과 방언 분화	사회언어학 16-2	
12	2009	송복승 임유나	전남 방언 형용사 파생 접미사에 대하여,	남도문화연구 17	순천대
13	2010	송복승 박은지	전남 방언 부사 파생 접미사에 대하여,	남도문화연구 18	
14	2010	송복승 홍여진	전남 방언 동사 파생 접미사에 대하여,	남도문화연구 19	
15	2012	정성경	전남 방언의 파생접미사 '-치-'와 '-씨-'의 기능	방언학 15	

16	2013	정성경	전남방언의 파생접사 연구	박사논문(목포대)	
17	2016	정성경	전남 완도 지역의 친족어 결합 접사 연구	방언학 24	
18	2017	송복승	전남방언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파생접미사 '-보'의 특성	배달말 61	
19	2021	송복승	전남방언의 어기 형성 접미사에 대하여	배달말 69	
20	2022	박은경	전남방언 합성명사에 나타나는 '용언+(-으)ㄴ, -(으)ㄹ' 구성에 대하여	배달말 70	
21	2023	박은경	전남방언의 합성명사 연구	박사논문(순천대)	

이와 같이 진행되어 온 전남방언의 형태론적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비교적 뚜렷한 연구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조어법 차원에서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형성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김웅배(1971)에서 시작된 파생어 형성 연구는 뒤이은 연구, 곧 성낙수(1974), 홍순탁(1977), 김웅배(1981) 등에서도 계속되었고, 이기갑(2005, 2006)을 비롯하여 정성경(2013), 최근의 송복승(2017, 2021) 등의 연구로 이어져 오고 있는 셈이다.

강희숙(2008)과 송복승(2017)은 남성 호칭 접미사 '-샌'과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보' 등 전남방언 특유의 접미사에 대한 기술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전자의 경우, 남성호칭접미사 '-샌'의 기원과 용법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샌'형 호칭이 보여주는 전남 방언의 분화 양상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송복승(2017)에서는 전남방언의 접미사 '-보'가 표준어보다 훨씬 더 생산성¹³⁾을 보일 뿐만 아니라 '-보'가 통사적인 영역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통사적인 구구성을 어기로 삼아 단어를 형성하는 이른바 통사적 파생의 기능을 수행함을 밝혔다.

조어법 차원에서 이루어진 형태론적 연구성과 가운데 박은경(2022, 2023)은 파생어 중심의 연구 풍토에서 합성어 연구로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박은경(2023)에서는 전남방언에서 사용되는 합성명사의 목록을 추출하고, 그러한 합성명사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특성을 파악해 내는 데 집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남방언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 또한 양적인 면에서 형태론적 연구와 유사한

13) 표준어의 경우 모두 25개의 'X+-보'형 파생어가 가능한 반면 전남방언에서는 총 35개의 파생어 형성이 가능할 정도로 생산성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지금까지 전남방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통사론적 연구 현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통사론적 연구 현황

순서	연도	연구자	논제	서지사항	비고
1	1980	박양규	서남방언 경어법의 한 문제	방언 3	
2	1980	이승재	남부 방언의 형식명사 '갑'의 문법-구례지역어를 중심으로	방언 4	
3	1982	이기갑	전남북부방언의 상대높임법	언어학 5	
4	1983	박형래	전남방언의 청자대우법 연구	석사논문(전남대)	
5	1983	김용배	서남방언의 '-라우'에 대하여	목포대 논문집 5	
6	1985	이기갑	물음말 '어느'의 빈자리 메우기-전남방언에서	국어학신연구(김민수 교수 회갑 기념논문집)	
7	1985ㄱ	김용배	전남방언의 '-우, -라우, -오께'에 대하여	방언학 3	
8	1989ㄱ	김용배	전남방언의 서법 연구	박사논문(전남대)	
9	1989ㄴ	김용배	전라방언의 존대소 -게-에 대하여	어문논총 10, 11	
10	1989	이기갑	전남방언의 간접인용문 축약 현상	이정 정연찬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1	1997	배주채	고흥방언의 장형부정문	애산학보 20	
12	1998	송복승	전남동부지역어의 단형확인문과 부정소 '안'의 기능 변화	어학연구 9	순천대 어학연구소
13	1998	이기갑	전남방언의 상대높임법	한글학회 240	
14	1999	고광모	문법화의 한 양상-전남 방언의 주체 높임법에 쓰이는 '-게'의 경우-	언어의 역사(성백인 교수 정년 퇴임 기념논문집)	
15	2004	고광모	전남 방언의 상대높임법 조사 '-(이)라우, -(이)람닌짜, -(이)람니야, -(이)랑가'와 '-이다'의 기원과 형성 과정	언어학 38	
16	2010	이상신	남부(南部) 방언(方言)의 '달라'와 '다오' -영암(靈巖) 지역어(地域語)와 경주(慶州) 지역어(地域語)를 중심(中心)으로-	어문연구 38-3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17	2017	이진숙	용언어간 '심-'(植)의 방언학적 연구-영암 지역어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66	

18	2017	진주	전남방언의 보조용언 ‘쌩다’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62	
19	2019	이진숙	전남 서부방언의 높임 어미 ‘계’ 연구	방언학 29	
20	2022	이기갑	서남방언의 문법	태학사	

이와 같은 통사론적 연구의 경향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전남방언의 경어법에 대한 연구성과(박양규 1980; 이기갑 1982, 1998; 김웅배 1983, 1985ㄱ, 1989ㄴ; 고광모 1999, 2004; 이진숙 2019)가 가장 활발한 가운데 의문법(이기갑 1985), 서법(김웅배 1989ㄱ), 인용법(이기갑 1989), 부정법(배주채 1997), 확인법(송복승 1998) 등등 비교적 다양한 문법소 또는 문법적 특징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남방언의 경어법 관련한 연구들은 김웅배(1983, 1985ㄱ, 1989ㄴ), 고광모(1999, 2004), 이진숙(2019) 등 전남방언의 높임법에 관여하는 문법소 ‘-우, -라우, -으께’를 비롯하여 ‘-(이)라우, -(이)람닌짜, -(이)람니야, -(이)랑가’와 ‘-이다’ 등의 조사 및 어미 ‘-계’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전남방언의 높임법 관련 통사적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문법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별 연구논문 외에 전남 방언을 포함한 서남방언의 문법 현상을 거의 전면적으로 기술한 연구성과로 최근에 간행된 이기갑(2022)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무려 12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저술에서 저자는 조어법과 굴절법, 시제와 양태, 높임법, 부정법 등등을 포함한 서남방언의 문법 현상을 전통적인 기술문법과 문법화 이론, 담화 이론, 용법에 바탕을 둔 언어 이론의 틀 안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 책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한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사업’의 구술 발화 전사 자료 등 두 가지 자료에 주로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구어 자료에 바탕을 둔 구어문법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2.4. 방언어휘론

전남방언에 대한 어휘론적 접근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은 그동안에 이루어진 방언어휘론 층위의 연구성과이다.

<표 6> 전남방언의 방언어휘론적 연구 현황

순서	연도	연구자	논제	학술지(권/호)	비고
1	1984	김용배	조도방언의 특수어휘에 대한 고찰	도서문화 2	목포대
2	1995	강희숙	전남방언의 준말에 대한 고찰 -진도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4	
3	1999	정인호	전남방언 색채어의 형성과정	한국문화 24	
4	2001	김상현	나로도 방언의 어업 용어 연구	석사(순천대)	
5	2003	손춘섭	전남 방언의 정도부사에 대한 연구	호남문화 32·33	
6	2003ㄱ	위평량	방언의 어원	새국어교육 65	
7	2003ㄴ	위평량	방언(方言)의 어원(語源) 2 - 전남방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6	
8	2005	위평량	방언의 어원 수제(語源 數題) - 전남방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9	
9	2005	위진 손희하	전남 장흥 지역 주거 공간 어휘-말레, 물레를 중심으로 .	호남문화연구 36	
10	2006	강희숙	전남방언 택호의 변이와 변화	사회언어학 14-2	
11	2007	강희숙 양영희 손춘섭	전남방언 여성호칭어의 유형과 분포-접미사형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12	2008ㄱ	오청진	전남 지역의 친족어	방언학 7	
13	2008ㄴ	오청진	전남 무안 지역의 색채 형용사	한글 279	
14	2010	정성경	전남의 기혼자 호칭어 연구 -‘네, -실, -손’을 중심으로-	방언학12	
15	2011	정성경	전남 완도 약산면의 친족어 연구	배달말 49	
16	2012	오청진	전남 방언의 미각어	방언학 15	
17	2014	오청진	전남 방언 형용사의 형태와 의미 연구: 색채어, 미각어, 공간차원어, 온도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목포대)	
18	2019	위평량	『전라도 말의 뿌리』	북트리	단행본
19	2019	홍기옥	전남지역 김 관련 어휘의 분화 양상 연구	인문연구 89	영남대
20	2019	황금연	‘벼랑’ 계열의 어휘 고찰- 전남지역의 지명어와 방언을 중심으로-	지명학	

21	2020	오청진	전남 방언의 조리어 어휘장 연구	방언학(32)	
22	2021	오청진	전남 방언의 바람 어휘장 연구	방언학 34	

이와 같은 방언어휘론의 연구성과 또한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바,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몇몇 연구를 제외하면 전남방언에서의 방언어휘론적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들어서 비로소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연구대상 어휘는 ‘특수어, 준말, 색채어, 어원, 호칭어, 미각어, 공간차원어, 온도어,¹⁴⁾ 해조류(김)¹⁵⁾, 조리어, 바람명’ 등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되, 가장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호칭어’이다.

셋째, 호칭어로는 주로 ‘택호’에서부터 ‘여성호칭어’, ‘기혼자 호칭어’, ‘친족어’ 등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바, ‘친족어’를 제외하면 모두 ‘여성호칭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로는 여성호칭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넷째, 이른바 ‘어휘장’의 범주에 속하는 일련의 어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청진(2008ㄱ, 2008ㄴ, 2012, 2014, 2020, 2021)이 그 예이다.

다섯째, 방언어휘의 어원을 밝히려는 시도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바, 위평량(2003ㄱ, 2003ㄴ, 2005, 2019) 등이 그것이다.

2.5. 방언화용론 및 담화문법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화용론 또는 담화문법의 층위에서도 전남방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7> 화용론 및 담화 문법적 층위의 연구현황

순서	연도	연구자	논제	학술지(권/호)	비고
1	2006	강희숙	소설 태백산맥의 화용론-담화	한국언어문학 57	

14) 박사학위논문인 오청진(2014)에서는 전남 방언에서 일련의 어휘군을 형성하는 색채어,미각어,공간차원어, 온도어의 형태와 의미 양상을 살펴 어휘군의 체계를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다.

15) 홍기옥(2019)는 전남지역에서 사용하는 김 양식 관련 어휘목록을 정리한 것인데 ‘김 양식장 만들기(재료, 종류, 행위), 김 기르기(행위), 발장치기(명칭, 재료, 도구, 행위), 김 손질하기(도구, 장소, 행위), 김 완성품(명칭, 단위, 기타) 등 범주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 분석하였다.

			표지 ‘와, 웨, 잉’을 중심으로>		
2	2011	강희숙	전남 방언 담화표지 고찰-종결 담화표지를 중심으로>	언어 사실과 관점 27	
3	2011	이기갑	서남방언의 대명사 ‘그놈’과 ‘그것’의 담화문법	담화와 인지 18-1	
4	2015	김태인	서남방언 담화표지 ‘이’ 고찰	방언학 21	
5	2016	이기갑	응답어의 문법화-전남방언의 화용 첨사 ‘에, 야, 어이, 웨’-	방언학 24	
6	2018	이태성	전남 방언 담화 표지 연구	석사논문(조선대)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남방언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성과는 고작 6편에 불과하다. 그것도 강희숙(2006)은 문학방언, 곧 소설 <태백산맥>에 반영된 담화표지에 대한 분석이고 보면, 2011년대 이후 들어서야 전남방언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기갑(2016)에서는 ‘담화표지’라는 용어 대신 ‘화용첨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장 끝에 나타나 말할 이의 심리를 드러내는 ‘이, 예, 웨, 와, 야’ 등의 형태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것인바, 강희숙(2006, 2011)이나 김태인(2015)와 동일한 ‘담화표지’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어쨌든 석사논문이긴 하지만 이태성(2018)에서 처음으로 학위논문 범주에서도 담화표지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진일보한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6. 기타

지금까지 살펴본 문법 층위별 연구성과 외에도 꾸준히 계속되어 오고 있는 연구가 전이 지대 방언에 대한 연구, 방언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고 전남의 하위 지역어 또는 전라도의 말과 문화에 대한 기술을 시도한 연구 성과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연구성과를 ‘기타’로 묶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동남방언과 서남방언의 접촉으로 두 방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전이 지대 방언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서주열(1964)에서 이른바 ‘등어지대’의 단모음 체계에 의한 방언 구획을 목적으로 연구가 처음 시도된 이후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전이지대 방언 연구 현황이다

<표 8>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의 전이지대 방언 연구 현황

순서	연도	연구자	논제	학술지(권/호)	비고
1	1980	서주열	전남, 경남 방언의 등어지대 연구	석사논문(명지대)	
2	1983	서상준	광양지역의 방언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13	
3	1984	김재문	경남방언과 전남방언과의 방언 경계상의 음운 고찰	진주문화 5	진주교대
4	1999	위평량	전남, 경남 접경지 방언의 음운; 단모음 체계와 아래아(·)의 변화를 중심으로	호남학연구 27	
5	2000	위평량	전남·경남 접경 지역의 언어 연구	박사논문(전남대)	
6	2004	기세관	광양방언의 음운론과 형태론	배달말 35	
7	2005	위평량	섬진강 유역 방언의 성격	배달말 37	
8	2011	김봉국	경남·전남 접경어의 음운	동남어문논집 31	
9	2017	강희숙	남성호칭접미사 ‘-샌’의 지리적 분포 및 사용 양상-섬진강 유역 방언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7	
10	2021	위평량	전이지대 방언의 변이 양상 고찰 -서남방언과 동남방언의 접경지를 중심으로-	방언학 33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남방언에 대한 언어지리학적 연구로서 전이지대 방언에 대한 연구성과는 수적으로 활발한 편은 아니며 연구자의 수도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이 특징이다.

- (4) ㄱ. 전이 지대 설정: 서주열(1980), 위평량(2000, 2005)
- ㄴ. 음운목록의 대비: 김재문(1984), 위평량(1999), 김봉국(2011)
- ㄷ. 전이지대 방언의 특징: 서상준(1983), 기세관(2004), 강희숙(2017), 위평량(2021)

이와 같은 연구성과들 가운데 강희숙(2017)은 전남의 동부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샌형’ 호칭이 전이 지대에서도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샌’형 호칭이 전남의 동부 지역어에서 발생하여 방언 접촉에 의해 하동이나 함양과 같은 경남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샌’형 호칭이 섬진강 유역 전이 지역 방언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전남의 하위 지역어 또는 전라도의 말과 문화에 대한 기술을 시도한 연구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다음이 그 현황이다.

<표 9> 전남방언의 방언어휘론적 연구 현황

순서	연도	연구자	논제	서지사항	비고
1	2011	이기갑	전남 신안군 하의면 방언 문화		
2	2012	이기갑	전남 신안군 신의면 방언 문화		
3	2012	이진숙	전남 진도의 언어와 문화		
4	2013ㄱ	이기갑	전라도의 말과 문화	지식과 교양	단행본
5	2013ㄴ	이기갑	전남 신안군 암태면 방언 문화		
6	2014ㄱ	이기갑	전남 신안군 자은면 방언 문화		
7	2014ㄴ	이기갑	전남 신안군 장산면 방언 문화		
8	2015	이진숙	영암 지역의 언어와 문화	역락	단행본

3. 사회방언학적 연구 성과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지리학의 차원에서 축적된 전남 방언 연구성과가 다양한 문법적 층위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과는 달리, 전남 방언에서 나타나는 언어 변이를 다양한 사회적 변수와 관련지어 기술하거나 특정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언어 사용의 실제적 양상을 기술하는 데 관심을 두는 사회방언학적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편이다. 일단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들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0> 사회방언학적 연구 현황

순서	연도	연구자	논제	서지사항	비고
1	1992	강희숙	음장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30	
2	1993	강희숙	장흥지역어의 불규칙활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p, t, s 불규칙 활용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5	조선대인문과학연구소

3	1994ㄱ	강희숙	음운 변이 및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전남장흥방언을 중심으로	박사논문(전북대)	
4	1994ㄴ	강희숙	국어 유기음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전남 장흥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2	
5	1999	강희숙	언어 변화와 언어 유지의 원리의문법 어미 '-니'의 확산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6	2001	강희숙	언어의 변화와 보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광주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7	
7	2001	손희하 위평량	구림 지역어의 변화-노년층과 장년층의 음운 비교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8	
8	2002	서성원	순천 지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석사논문(순천대)	
9	2005	이길재	언어변이와 사회계층에 대한 일고 - 나주지역어의 마찰음화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5	
10	2007	강희숙	'자네'의 용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전남 방언을 중심으로, 5-28.	한국언어문학 63, 5-28.	
11	2009	강희숙 양영희 손춘섭	전남방언 여성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변이와 변화에 대한 연구	호남학 44	
12	2015ㄱ	강희숙	광주·전남 지역 출신 대학생의 언어적 불안정과 방언 전환	방언학 21	
13	2015ㄴ	강희숙	한국어 방언 접촉의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전남방언 어휘의 표준어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94	
14	2017	강희숙	어→으' 모음 상승과 음운 변이-전남 영광 지역어를 중심으로-	영남학 31	
15	2015	이진숙	용언 어간 '심-'(植)의 방언학적 연구	국어문학 66	
16	2020	김영규	전남 방언 화자들의 격식적 발화에서의 음운론적 변이 양상 -방송 토론 발화를 사례로-	방언학 32	
17	2021	김경표	전남 신안군 해녀의 언어 연구	한국언어문학 116	
18	2022	김경표	완도군 서부지역 자생해녀의 언어 연구	한국언어문학 122	
19	2022	강영란	조동사 '버리-'의 표준어형과 전남 방언형 사용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한국어학 97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보면, 전남방언에 관한 사회방언학적 접근은 주로 언어 변이나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적 접근에 해당하는 미시사회언어학적 연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전남방언에서 나타나는 언어 변이에 대한 접근은 주로 음운과 문법적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변이 및 그러한 변이와 관련이 있는 진행 중인 언어 변화가 대부분이다. 이를 유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 ㄱ. 음운 변이: 강희숙 1992, 1994ㄱ, 1994ㄴ, 2001, 2017; 서성원 2002; 이길재 2005; 김영규(2020)¹⁶⁾
- ㄴ. 문법 변이: 강희숙 1993, 1999; 이진숙 2015; 강영란 2022

전남방언에 관한 미시사회언어학적 연구의 두 번째 유형으로는 2인칭 대명사 ‘자네’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호칭어 사용(강희숙 2007, 강희숙·양영희·손춘섭 2009)에 대한 분석이나 ‘해녀’ 집단의 언어 사용(김경표 2012, 2.22)에 대한 분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방언 접촉의 양상과 관련한 언어적 불안정이나 방언 전환 및 전남방언의 표준어화 양상에 대한 연구(강희숙(2015ㄱ, 2015ㄴ)도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지역에서의 사회방언학적 연구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전남방언 연구의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서남방언의 하위 방언 가운데 전남방언에 대한 공시적 연구성과를 크게 언어지리학과 사회방언학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윤곽으로 말하자면 1960년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시도된 전남방언에 대한 언어지리학적 연구들은 다양한 문법 층위에 걸친 연구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과는 달리, 사회방언학적 연구는 199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싹이 특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바, 사회방언학적 연구보다는 전통적인 언어지리학적 연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지리학적 연구 또한 문법의 층위별로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는 가운데 석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음운론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연구는 한두 편에 그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윤곽은 전남

16) 이 연구는 전남의 중장년층 남성 화자들이 방송 토론에서 사용한 격식적인 발화에 대한 미시사회 언어학적 연구로 (ㄱ), (ㄴ), (변자음밑 ㄱ), (장애음+ㅎ), (ㄱ-모음조화) 등 5개 음운론적 변형에 대한 혼합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방언 연구의 과제 및 연구 방향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바,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 참고문헌은 본론의 기술에서 제시한 서지사항으로 대신함.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제주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2010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foratog@daum.net

1. 서론

이 연구는 2010년대 이후의 제주방언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RISS에서 2010년 이후 제주방언과 관련된 연구 논문 131편을 찾아 연도별, 연구 주제별 연구 논문 수의 추이를 기존 연구 결과들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 주제별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와 의의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방언 연구에서 지향해야 할 사항들과 연구 과제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제주방언 관련 논문은 학위 논문 15편(박사 학위 논문 5편, 석사 학위 논문 10편), 학술지 논문 116편으로 총 131편이다. 이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RISS에서 ‘제주방언’, ‘제주도방언’, ‘제주어’, ‘제주말’, ‘Jeju dialect’, ‘Cheju dialect’, ‘Jeju speaker’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확보한 것이다.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보고서 혹은 자료집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검색 시점은 2023년 3

월 13일이며, 2010년 1월부터 이때까지 발표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방언은 다른 지역방언들과 큰 차이를 보여서 설명해야 할 것이 상대적으로 많다. 다른 지역방언은 제주방언에 비해 표준어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면 되지만 제주방언은 그러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방언 자체에 대한 보고와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방언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제주방언 연구들을 음운, 형태, 통사, 어휘, 정책으로 나누어서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업적들을 정리한 바가 있다(정승철 2014, 송상조 2014, 김지홍 2014, 오창명 2014, 문순덕 2014). 이후 강영봉(2015)에서는 제주방언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물들을 자료집과 사전 그리고 분야별 어휘 및 개별 어휘, 차용과의 비교, 언어지도, 보고서, 구술과 구비 전승, 대화 및 교육 자료로 나누어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신우봉(2020)에서는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한 음성학의 연구 성과들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고동호(2014)에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제주방언 연구들을 양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1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제주방언 연구의 결과물들을 주제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1980~2000년대 후반까지 제주방언 연구가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¹⁾ 이와 같이 제주방언 관련 연구 현황의 상당 부분이 위의 연구들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2010년대 이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고 기존 시기 연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방언 연구 결과들을 주제(‘음성/음운, 형태/통사, 어휘/의미, 기타²⁾’)별로 나누어서 성과를 정리해 보고,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소개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 이후 제주방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주방언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바를 밝히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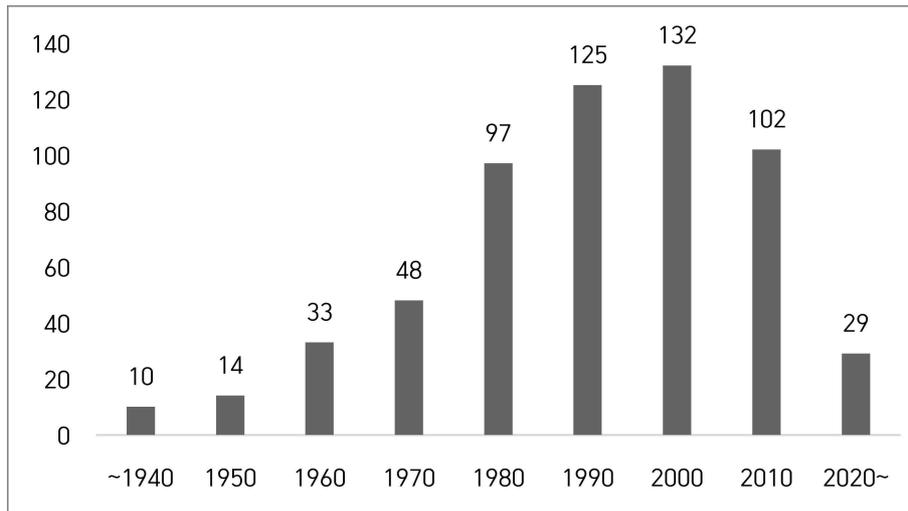
2. 제주방언 연구 현황

앞서 언급했듯이 RISS를 통해 검색된 2010년 이후 제주방언 연구의 전체 논문 수는 학위 논문 15편, 학술지 논문 116편으로 총 131편이다. 기간으로는 2010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해당한다. 131편 중에서 102편은 2010년대

1) 고동호(2014)에서는 제주방언 연구 성과의 양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말야기(1910~1950년대), 성장기(1960~1970년대), 융성기(1980~2000년대), 조정기(2010년대)’로 시대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기타’ 분야는 ‘음성/음운, 형태/통사, 어휘/의미’ 분야 중에서 2개 이상의 주제를 다룬 연구들과 교육/정책 등의 연구들 그리고 앞의 세 가지 기준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의 연구들을 의미한다.

에 이루어진 연구이며, 29편은 202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이다. 고동호(2014: 4)에서는 1913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제주방언 연구 수를 제시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논문 수를 합하여 제주방언 연구의 시기별 현황을 살펴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주방언 연구의 시기별 현황

고동호(2014:3)에서는 제주방언 연구는 1980년~2000년대에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2010년대에 주춤해졌다고 하였는데³⁾, 실제로 201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 결과물의 양을 살펴본 결과가 예측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2020년대의 3년 3개월 동안의 연구 수는 29편으로 2010년대에 비하여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0년대 이후 제주방언 연구들의 주제별 현황을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음성/음운	형태/통사	어휘/의미	기타	합계
학위 논문 (석사/박사)	2010년대	1(0/1)	2(2/0)	4(3/1)	4(2/2)	11(7/4)
	2020년대	1(0/1)	1(1/0)	1(1/0)	1(1/0)	4(3/1)
학술지 논문	2010년대	17	16	35	23	91
	2020년대	6	10	2	7	25
합계		25	29	42	35	131

<표 1> 제주방언 연구의 주제별 현황

3) 고동호(2014)에서는 2010~2014년까지의 연구 결과물들로 2010년대의 연구 결과물들을 예측하였다.

학위 논문의 경우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총 15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학위 논문 중에서 석사 학위 논문은 10편, 박사 학위 논문은 5편이다. 2010년대 이후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석사 학위 논문은 제주방언 상대 높임법(고맹훈, 2018), 종결형에서의 시간 표현(현혜림, 2020) 등 제주방언 형태/통사 분야의 연구, 제주방언의 친족 어휘(김미정, 2010), 친척 명칭(박민경, 2015), 해녀 어휘(양희주, 2015), 감정 표현 어휘(김신자, 2022) 등 제주방언 어휘 연구와 제주방언 언어 변이 양상(권미소, 2012), 제주방언 화자의 내·외적 언어태도(곽새봄, 2018) 연구가 수행되었다. 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제주방언의 어휘(김순자, 2011), 제주방언의 여성 발화(김미진, 2015), 재일제주인의 언어변화 및 언어 전환(김보향, 2015), 제주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신우봉, 2015ㄱ), 제주방언의 음운 체계 및 음운 현상(권미소, 2021) 연구가 수행되었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총 116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음성/음운, 형태/통사, 어휘/의미, 기타’ 분야의 연구가 양적인 측면에서 고르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이후의 연구로 한정하면 25편의 연구에서 ‘어휘/의미’ 연구는 2편만 수행되어서 이 분야 연구가 상대적으로 급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연구 주제별로 연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2>는 제주방언의 음성/음운 분야 연구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분류	연구 목록
자음(6)	Han(2011, 2012, 2021, 2022), 김원보·변길자(2014), 한경임(2014)
모음(4)	신우봉·신지영(2012), 신우봉(2016ㄱ), 이승진·최홍식(2018), 고재환(2019)
음운현상(3)	조성문(2013), 권미소·배영환(2022), 이은미·고훈주(2022)
운율(8)	강석한(2011), 강석한 외(2011), 이숙향(2014), Kang(2015), 김원보·임화순(2015), 신우봉(2015ㄷ, 2019ㄱ), 김태경·백경미(2022)
전체(4)	신우봉(2015ㄱ:박사, 2020), 권미소(2021:박사), 신우봉·하영우(2021)

<표 2> 제주방언 음성/음운 분야 연구 현황

제주방언의 음성/음운 분야의 연구는 총 25편(19.1%)으로, 박사 학위 논문 2편과 학술지 논문 21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25편의 연구는 자음(6편), 모음(4편), 음운현상(3편), 운율(8편), 전체(4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운율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음성/음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음향음성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

지한다는 점이다. 총 25편의 음성/음운 분야의 논문 중에서 18편(72%)이 음향 음성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였다.

다음으로 <표 3>은 제주방언의 형태/통사 분야 연구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분류	연구 목록
어미(20)	정수빈(2012), 정성여(2013), 양창용·김원보(2013ㄴ), 정승철·김보향(2013), 강정희(2015), 김지홍(2016, 2021), 김미진(2016ㄴ, 2019, 2021), 고맹훈(2018), 고영근(2019), 김지홍(2019), 고영진(2019, 2021), 현혜림(2020), 김보향(2021, 2022), 최대희(2022), 최대희·허월영(2022)
조사/어미(4)	문순덕(2011), 김보향(2017), 신우봉(2022), 하영우·신우봉(2022)
용언/ 보조용언(5)	강정희(2012ㄱ), 문순덕·김원보(2016), 우창현(2016ㄴ), 김보향(2019ㄴ, 2020)

<표 3> 제주방언 형태/통사 분야 연구 현황

제주방언의 형태/통사 분야의 연구는 총 29편(22.1%)으로, 석사 학위 논문 3편과 학술지 논문 26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29편의 연구는 어미(20편), 조사/어미(4편), 용언/보조용언(5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미 연구가 상대적으로 다수 이루어졌는데, 김지홍(2016)에서는 제주방언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 체계 전반을 다루었으며, 상대높임법, 의문문, 인용문을 중심으로 제주방언 어미들의 실현 양상을 살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보조용언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체로 문법화의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세대에 따른 제주방언 문법 형태소들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표 4> 제주방언의 어휘/의미 분야 연구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분류	연구 목록	
어휘	개별어휘(18)	김미정(2010:석사), 김미진(2010), 김순자(2012, 2013ㄱ, 2013ㄴ, 2013ㄷ, 2014ㄴ, 2015ㄱ, 2015ㄴ, 2016ㄱ, 2016ㄴ, 2018), 박민경(2015:석사), 양희주(2015:석사), 신우봉(2016ㄴ, 2017), 김미진 외(2022), 김신자(2022:석사)
	차용과의 비교(3)	배영환(2016ㄱ), 임도희(2016), 권성훈(2017)
	언어지도(2)	김순자(2011ㄱ:박사), 김원보(2012)
	어휘사(2)	배영환(2016ㄴ, 2018)
	종합(1)	강영봉(2015)
의미	담화표지(11)	문순덕·김원보(2012, 2018), 양창용·김원보(2013ㄱ), 이기갑(2013), 신우봉(2015ㄴ, 2019ㄴ), 양창용(2016), 김원보(2017), 김미진(2018), 양용준(2019), 김선미(2022)

어휘의미(4)	문순덕·김원보(2013, 2017), 김미진(2016ㄱ), 우창현(2016)
문장의미(1)	양용준(2014)

<표 4> 제주방언 어휘/의미 분야 연구 현황

제주방언의 어휘/의미 분야의 연구는 총 42편(32.1%)으로, 석사 학위 논문 4편과 박사 학위 논문 1편, 학술지 논문 36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42편의 연구는 어휘(26편), 의미(16편)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6편의 어휘 연구들은 대체로 개별 어휘들의 의미영역에 따른 제주방언 어휘 형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용과의 비교 연구와 언어지도와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에는 어휘사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편의 의미 연구들은 제주방언 담화표지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5>는 제주방언의 기타 분야 연구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분류	연구 목록
언어변화(9)	강정희(2011), 권미소(2012:석사), 김보향(2014ㄱ, 2014ㄴ, 2015: 박사, 2020ㄱ), 김미진(2015:박사), 김지숙(2020), 최은순·안미정(2021)
언어태도(8)	강영봉(2013), 김은희(2015), 광재봄(2018:석사), Yang(2019), 김순자(2019), 권미소·배영환(2020), 고영희·고용진(2021), 권미소(2022)
정책(4)	문순덕(2010), 김순자(2011ㄴ), 강정희(2012ㄴ), 김미진(2020)
교육(7)	우창현(2012ㄱ, 2012ㄴ, 2014), 이철기(2015), 신우봉(2016ㄷ), 권미소(2018), 김현진(2021:석사)
그 외(7)	강석한(2010), 강영봉(2012), 양창용(2014, 2016), 조태린(2014), 오창명(2018), 정승철(2018)

<표 5> 제주방언 기타 분야 연구 현황

제주방언의 기타 분야의 연구는 총 35편(26.7%)으로, 석사 학위 논문 3편과 박사 학위 논문 2편, 학술지 논문 30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35편의 연구는 언어변화(8편), 언어태도(8편), 정책(4편), 교육(7편), 그 외(7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언어변화와 관련한 연구들은 제주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해녀와 재일제주인에게서 나타나는 제주방언의 변화 양상을 살핀 연구들이었으며, 언어태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도내 사람들과 도외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제주방언 언어태도를 조사한 연구였다. 그리고 소멸위기의 관점에서 제주방언의 보존 정책 연구와 함께 방언교육과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제주방언을 다

른 연구도 수행되었다.

3. 제주방언 연구 주제별 성과 및 과제

3.1. 음성/음운 분야

제주방언의 단모음 체계에서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으/의 존재 여부와 /계/와 /개/의 합류 여부이다. 제주방언 노년층 화자들은 /으/를 음소로 가지고 있으며, /계/와 /개/를 변별할 수 있어서 9모음 체계를 지니며 청소년층 화자들은 /으/를 /ㄴ/와 변별하지 못하고, /계/와 /개/를 변별할 수 없어서 7모음 체계를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세대에 따른 단모음의 실현 양상에 대해서는 2000년대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세대 외에도 ‘성별, 지역’이라는 변수에 따른 단모음의 실현 양상을 살핀 연구들이 신우봉(2012, 2015ㄱ, 2016ㄱ)에서 이루어졌다. 신우봉(2012)에서는 세대 외에 지역과 성별에 따른 단모음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대에 따른 단모음의 실현 양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중산간 마을의 화자들이 해안 마을의 화자들보다 /계/와 /개/의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이는 중산간 마을의 화자들보다 해안 마을의 화자들이 표준어 화자들과의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20대와 70대 화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산출 실험의 결과를 통해 단모음의 실현 양상을 파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신우봉(2015ㄱ)에서는 20대, 50대, 70대 화자들을 대상으로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제주방언 내에서 세대, 성별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차이(중산간 지역 vs. 해안 지역)가 단모음뿐만 아니라 어두 장애음의 발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우봉(2016ㄱ)에서는 앞서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주방언 내에서 단모음의 변화에 중심이 놓인 세대인 50대를 대상으로 산출 실험과 지각 실험을 실행하여 단모음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 화자들의 경우 50대 내에서도 초반과 후반에 따른 /으/의 실현 양상이 다르며, 남성 화자들은 50대들은 모두 /으/를 다른 모음들과 구별하여 발음함을 확인하였다.

음향음성학적 방법 외에도 조음음성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으/의 특성을 살핀 연구가 이승진·최흥식(2018)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70대 화자를 대상으로 /으/를 영상의학적 및 음향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CT 이미지를 통하여 /으/가 조음될 때 성도의 세로 길이는 /ㅣ/와 /ㄴ/의 중간 정도이며, 가로 길이는 /ㅣ/와 유사하고, 입술의 개방정도는 /가/보다는 좁고

/ㄴ/보다는 더 별려서 내는 소리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음향음성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ㄹ/의 발음을 분석한 결과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2010년대 이후의 제주방언 단모음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0년대 이후 제주방언 자음 연구들은 대부분 음향음성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Han(2011, 2012, 2021)의 일련의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장애음과 마찰음 그리고 파찰음의 음향적 실현 양상을 살폈다. Han(2011)에서는 30대 제주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어두 폐쇄음의 VOT와 F0를 측정하여 성별에 따라 VOT의 실현 양상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Han(2012)에서는 제주방언 70대 화자를 대상으로 /ㅅ/와 /ㅆ/의 VOT, 마찰음 길이, COG(중력중심값), F0 등의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표준어와 동일하게 제주방언 화자들도 /ㅅ/와 /ㅆ/를 구분하는 데에 마찰음의 길이와 COG를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an(2021)에서는 제주방언 화자들이 발화한 마찰음과 파찰음의 음향적 차이를 파악하였는데, 두 자음의 변별에서는 마찰 구간의 길이와 상승 시간 및 진폭의 상승 기울기가 중요한 음향 신호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자음 연구에서도 세대와 성별과 같은 사회적 변수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김원보·변길자(2014)에서는 제주방언 화자의 세대별 어두 파열음의 VOT, F0 및 파열 강도의 변이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신우봉(2015)에서는 어두 장애음에서 나타나는 음향적 변수들의 세대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최근 연구인 Han(2022)에서는 제주방언 장애음과 파찰음에서의 평음, 경음, 격음을 구별하는 음향적 단서인 VOT, F0, H1-H2가 세대에 따른 차이를 보이며, 그 결과 현재 제주방언 화자들의 자음에서 진행중인 음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연구 가운데 권미소(2021)에서는 공시음운론적 관점에서 제주방언 자음 음소 목록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소대립쌍 및 최소대립군을 통해 제주방언 자음은 장애음 15개, 공명음 4개를 포함하여 표준어와 동일한 19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19개 자음 외에 ‘짙-’의 방언형인 ‘지꼭, 지지, 지영, 지민, 지는 / 지꼭(~짙꼭), 지찌, 지영~정, 지으민, 진는’의 활용 패러다임에서 자음어미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지꼭, 지찌’가 ‘지꼭, 지치’와 같이 유기음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 ‘ㅎ’을 음소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생성음운론적 관점에서 제주방언 어간의 기저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다양한 공시적인 음운현상도 살펴보았다. 제주방언에는 자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인 ‘평파열음화, 경음화, 비음화, 연구개음화, 자음군단순화, 유음탈락, 후음탈락, 유기음화’와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인 ‘원순모음화, 전설고모음화, 반모음화, ㅏ탈락, ㅡ탈락, ㅓ탈락,

반모음탈락, 반모음첨가'가 확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용언 어간말 'ㄴ, ㅁ' 뒤의 경음화가 수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며, 'ㄹC'의 언간말 자음군의 단순화가 항상 'C'가 남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권미소·배영환(2022)에서는 제주방언의 복합어 중에서 후행하는 형태소의 초성이 평음일 경우에 후행어의 초성이 유기음으로 실현되는 유기음화 현상이 다른 방언에 비하여 고빈도로 실현되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유추에 의한 확대라고 주장하였다. 즉, 복합어의 형태소 경계가 단어 경계로 느슨해짐에 따라 잠재적 휴지가 발생함과 동시에 합성 규칙이 적용되어 새 합성어가 형성되어 '그르팻4), 드르팻(들밭), 뒤칩(뒷집), 식계칩(제삿집)' 등에서와 같이 유추적 확대에 의한 유기음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음운현상과 관련해서는 산포이론의 관점에서 제주방언의 구개음화를 분석한 연구(조성문, 2013)와 최적성이론의 관점에서 모음 충돌 회피 현상(이은미·고훈주, 2022)을 살핀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방언의 운율과 관련한 연구들은 단어 내에서 나타나는 액센트 유형, 강세구의 운율 패턴,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억양, 발화 형식에 따른 억양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강석한(2011)에서는 제주방언 단음절 명사들에서 나타나는 액센트 유형이 음운론적인 변별적 대조를 가져오지는 못하나,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다. 즉, 중세국어의 거성으로 실현된 단어들이 제주방언에서 음길이가 길게 실현되며, 평성의 단어들은 음길이가 짧게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Kang(2015)에서는 2음절, 3음절 명사들에서도 중세국어의 성조 패턴의 흔적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다만, 이 연구들에서는 제주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표준어 단어들을 녹음하여 분석하여서 실제 제주방언 명사들의 액센트 패턴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강세구 억양 연구는 이숙향(2014)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강세구의 기본 억양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세구의 음절수를 1~8까지 달리 하여 음절수에 따른 억양 패턴의 변화와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강세구의 억양패턴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주방언의 강세구는 L로 시작하여 H로 끝나고, 강세구의 음절수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 음조가 +H나 L+또는 둘 모두가 미실현되나 적어도 음절수가 5개 이상이면 모든 화자에게서 첫 두 개 음절에서 L, H가 실현되고 마지막 두 개 음절에 나머지 L, H가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방언 강세구의 억양 기본패턴이 표준어와 동일한 <L+H L+Ha>이라고 하였다. 다만, 표준어와는 달리 L, M, H가 모두 한 음절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4) '그르팻'은 '곡식을 거둔 뒤 한번도 갈지 않은 밭'을 의미하는 제주방언이다.

계단식 음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강세구 내 음조 간 F0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경우가 고빈도로 관찰된다고 하였다. 김태경·백경미(2022)는 20~60대 화자들을 대상으로 대화체 담화에 나타나는 강세구 실현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이숙향(2014)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주방언 강세구의 첫 음절은 표준어와 동일하게 경음, 격음, 마찰음으로 시작하면 H로 시작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L로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표준어의 강세구 패턴이 마지막 음절이 H로 끝나는 데 비해 제주방언은 L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된다고 하였다.⁵⁾

제주방언의 억양구 경계에서 나타나는 운율 현상 연구는 신우봉(2015c, 2019ㄱ)에서 수행되었다. 신우봉(2015c)에서는 제주방언 20대 화자를 대상으로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종결어미 ‘-안/언, -으멘’의 억양구 경계성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어 화자보다 제주방언 화자들이 억양구 경계성조의 실현에서 평탄억양보다 굴곡억양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신우봉(2019ㄱ)에서는 기존 제주방언 운율 연구들이 낭독체 발화와 대화체 발화 중 하나로만 연구되었음을 지적하고 두 발화 스타일에 따른 제주방언의 운율 실현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낭독체보다 대화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경계 성조가 나타났으며, 발화 속도는 빠르게 실현되고, 기본주파수의 범위(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경계성조의 실현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굴곡 억양의 실현이 제주방언의 운율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3.2. 형태/통사 분야

김지홍(2016)에서는 제주방언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의 체계를 상대높임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종결어미 ‘-읍네다’와 ‘-수다’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읍네다’와 ‘-수다’의 차이에 대해 격식과 비격식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 제주방언의 상대높임법의 3분 체계인 ‘흡서, 햅여, 햅라’ 체계는 아래 <표 6>에서와 같이 ‘명령’ 서법만 고려한 것으로, 공식성과 격식성의 여부를 고려한 4분 체계로 상대높임법을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5) 이 연구에서는 세대에 따른 차이도 관찰하였는데, 2음절 강세구의 HL 유형과 4음절 강세구의 LHHL 유형은 노년층 화자보다 젊은층 화자들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제주방언의 강세구 성조에도 세대별 변화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어투 서법	청자대우		평대(대우하지 않음)	
	격식투 ‘-읍-’	비격식투 ‘-수-, ’-으우-’	서법 고유 형태	반말투
서술	-읍네다 -읍데다	-수다, -수괴, -수게 -으우다, -으웃괴, -으우께	-다(계사, 이어)	-어 (계사, 이라) (청유 ‘-게, -주’도 가능)
의문	-읍네까? -읍데가?	-수가?, -수과?, -수가? -으웃과?, -으우과?	-가?(계사, 이가?)	
명령	-읍서!, 읍서!, 읍소서!	X	-으라!, -거라!	
청유	-읍주!	X	-주!, -자!, -게!	
약속	X	X	-마!	
감탄	X	X	-고나!	

<표 6> 제주 방언의 청자 대우의 관련 형태 일부 예시(김지홍 2016: 140)

이와 관련하여 고영진(2019)에서는 김지홍(2016)에서와 같이 두 종결어미의 의미 차이가 ‘격식 vs. 비격식’이 기인한 것이라면 아래 (1ㄱ, ㄴ)에서와 같이 두 종결어미를 교차로 활용하여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두 종결어미의 차이를 격식과 비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수다’에는 명령과 청유 서법이 없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1) ㄱ. 이 방은 ㅎ쌀 족읍네까? *예, 이 방은 ㅎ쌀 족수다.
 ㄴ. 이 방은 ㅎ쌀 족수과? *예, 이 방은 ㅎ쌀 족읍네다.

고영진(2019)에서는 ‘-읍네다’의 ‘-네-’는 ‘-느+이’의 융합형인바 여기서 ‘-느-’가 ‘향상성’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요소이며, ‘-수다’에는 ‘-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일시성’의 의미를 갖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덧수다, 덧읍네다’가 각각 ‘일시적으로 따뜻하다, 늘 따뜻하다’의 의미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종결어미에 명령과 청유의 서법에서 대립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명령형과 청유형의 형태인 ‘줍서(주십시오), 경 협주(그리 합시다), 걸읍서(걸으 십시오)’가 청자 혹은 청자와 화자가 일시적으로 움직임은 가져가야 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사실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느-’가 함께 쓰일 수 없어서 ‘-읍

네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다'의 '-수-'는 이것이 형성된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형용사와 함께 쓰여서 명령형이나 청유형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두 종결어미가 '-으크-'와의 결합에서도 차이를 보임을 설명하였는데, 의도 혹은 추정을 나타내는 '-으크-'는 항상적인 사실 혹은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느-'와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충돌을 일으키므로 두 형태소는 공존이 불가능하며 '-수다'는 그러한 충돌이 없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제주방언 '-느-'와 관련하여 정성여(2013)에서는 '-느다'를 통합된 하나의 형태로서 보고 그 기능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암찌/엄찌, -다(저), -키여, -르거여, -르거 닻다' 등이 실현된 문장들과의 의미 비교를 통하여 제주방언의 '-느다'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형식이 아니라, 명제의 사실성과 관련하여 화자의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는 인식적 양태와 관련하는 형식으로, 화자가 확신을 가지고 명제내용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김지홍(2016)에서는 표준어 '-겠-'에 대응하는 '-으크-'가 제주방언에 존재하며 '-으커-'라는 형태와 양태상의 대립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으크-'는 짐작 추정 사건에 대해서만 쓰일 수 있으며, '-으커-'는 전형적으로 예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깃들여 있지 않고서는 쓰일 수 없다고 하였다. 고영진(2021)에서는 김지홍(2016)에서와 같이 '-으크-'와 '-으커-'를 다르게 분석한다면 '먹으크라/먹으커라'에서 '-어'의 의미 기능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으커-'를 '-으크-'의 수의적 변이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으크-'의 다양한 형태로 음운 조건에 의한 변이형태인 '-으크-, -크-'가 있으며, 수의적 변이형태인 '-으커-'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헉라체' 종결어미에 따라 '-으크-, -으키-'가 나타나며, 상대높임의 '-우-' 앞에서는 형태 조건에 의한 변이형태로 '-으크-'가 쓰인다고 하였다. 이 선어말어미의 의미로는 표준어 '-겠-'과 동일하게 '추정'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주어가 1인칭이면서 명제의 사태를 화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에는 '의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제주방언의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은 종결어미의 대립에 의해 구별된다는 특성이 있다. 정승철·김보향(2013)에서는 제주방언의 두 가지 의문문의 대립이 점차 약해져 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미의 중화 현상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설명의문문의 어미 대신에 판정의문문의 어미가 사용되는 반면에 그 반대로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의 어미에서의 중화 현상이 판정의문문의 어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주방언의 확인의문문 연구는 김미진(2016L)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2)에서와 같이 제주방언의 확인의문문은 부가의문문과 함께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 -네’를 사용하는 문장, ‘아니다, 알다’를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2) ㄱ. 것이 이버지주, **기지**?(그것이 이바지지, 그렇지?)

ㄴ. 것이 이버지주?(그것이 이바지지?)

ㄷ. 것도 이버지, **아니라**?(그것도 이바지, 아니냐?)

그리고 부가의문문의 경우 표준어와는 달리 제주방언에서는 ‘기다’와 ‘경허다’ 두 가지 형태로 결합이 가능하며, 전자의 경우 ‘명사+이다’ 서술문 뒤에서 주로 나타나며, 후자는 용언의 서술문 뒤에 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표준어에서의 ‘-지 않니’의 축약형인 ‘-잖니’의 형태가 되지만 제주방언에서는 ‘-지 안헤, 경 안헤’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제주방언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서 나타나는 인용 표지는 형태가 동일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에서 동일하게 ‘-엔/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인 ‘-넨, -덴, -렌, -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미진(2019)는 기존 연구들이 표준어를 중심으로 제주방언 인용 표지에 관심을 두고 인용 표지의 분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세국어에서 제주방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인용 표지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의 인용 표지로 ‘-엔/엥’을 설정한 것이 타당하나 이 표지의 형성이 ‘헨’에서의 ‘ㅎ’이 탈락하여 형성하였다는 기존 연구들의 설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헨’은 인용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인용 표지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엔/엥’이 형성되는 과정을 ‘햏야/햏여 > 햏연/햏영 > 연/영 > 엔/엥’로 파악하였다. 다만, ‘연/영 > 엔/엥’에서 나타나는 ‘ㅣ’모음 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지홍(2019)에서는 제주방언의 인용문이 표준어와 동일하게 상위문 핵어가 계사 ‘이다’인 경우와 묘사동사 ‘하다’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다. 전자의 경우 ‘-이엔 말#햏다’에서 ‘말’이 생략되어 ‘-이엔 햏다’로 쓰이고, 좀 더 융합된 모습을 보여 ‘-인 햏다, -은 햏다’처럼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간접 인용의 형식을 맡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 햏다’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그리고 인용과 문관한 내포문에서도 고루 실현된다고 하였다.

김미진(2021)에서는 김미진(2019)의 결과를 바탕으로 (3)에서와 같이 제주방

언의 인용문의 종류와 구조를 파악하고 세대별 변화 양상을 논의하였다.

- (3) ㄱ. 직접 인용: 피인용문 + (인용 표지) + (인용 동사) [+현장감, -간접화]
- ㄴ. 간접 인용: 피인용문 + 인용 표지 + (인용 동사) [-현장감, +간접화]
- ㄷ. 자유 인용⁶⁾: 피인용문 + 인용 표지 + (인용 동사) [+현장감, +간접화]

김미진(2021)에서는 위 세 가지 인용문들의 세대별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종결어미에 인용표지를 결합하여 전형적인 제주방언의 인용문을 사용하는 세대는 80대이며, 50대는 방언형을 사용하더라도 문장 종류별로 하나의 종결어미로 중화하는 경향이 보이며, 20대는 대체로 표준어형을 사용하지만 평서문의 인용에서는 방언형이 결합된 형태(길을 막았수덴 헛수다.: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를 표준어형인 ‘-다고’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제주방언의 보조용언 연구는 모두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과 함께 의미 기능의 실현 양상을 살핀 연구들이었다. 강정희(2012 ㄱ), 김보향(2019 ㄴ)에서는 제주방언의 ‘-어지다’ 구문을 중심으로 문법화 현상과 의미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정희(2012 ㄱ)는 제주방언의 ‘-어지다’ 구문이 순수 ‘피동’보다 ‘가능’의 의미를 가지는 현상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즉, 제주방언의 ‘-어지다’의 ‘가능’은 ‘공간 > 시간 > 인식 > (가능)’의 단계를 거쳐서 나타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제주방언의 고행에서 ‘-어지다’의 의미 영역이 ‘피동, 자발 가능, 가능, 피동적 가능, 재귀적 피동’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서 ‘-이-’계 접미 피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제주방언의 또 하나의 ‘가능’ 표현인 ‘-르 수 있다/없다’와 ‘-어지다’의 차이에 대해 전자는 의존명사 ‘수’의 의미가 투영되어서 ‘방법, 경우, 도리’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후자는 주관화 절차의 결과로서 ‘가능’만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다. 김보향(2019 ㄴ)에서는 구술자료집에 나타나는 제주방언의 피동 표현들의 실현 양상을 ‘-어지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강정희(2012 ㄱ)에서 지적한 대로 제주방언에서 피동접미사가 결합하는 어휘적 피동은 제한적으로 쓰이며, ‘-어지다’가 결합하는 통사적 피동이 70%에 가깝게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표준어의 ‘-어지다’의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제주방언의 ‘-어지다’가 ‘피동, 가능, 상태변화, 완료, 무의지’의 의미 기능으로 나타나며, 표준어와 동일하게 ‘피동’의 의미 기능이 가장 높은 빈도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6) 이 연구에서는 자유 인용이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간접화의 중간단계에 있는 인용문이라고 하였다. 즉, 피인용문의 내용이 직접 인용과 동일하나 문장이 구조는 간접 인용의 형태를 갖는 것이 자유 인용이라고 보았다.

문순덕·김원보(2016)에서는 표준어 ‘가지다’와 동일한 문법 기능을 지니는 제주방언 ‘가지다’의 문법화 현상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의 ‘가지다’는 ‘-어 가지고’ 형태로 보조동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조동사의 기능은 없고, 연결어미로 문법화 되어 쓰임과 동시에 담화표지의 기능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보향(2020)에서는 ‘-어나다’ 구문의 실현 양상과 의미 기능을 표준어의 보조용언 ‘나다’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표준어 보조용언 ‘나다’는 ‘-고 나다’의 형태로 특정 동사와 어미와 결합하는 제약을 갖는데, 제주방언 ‘-어 나다’는 상대적으로 결합하는 환경이 더 넓고 생산성이 높으며, ‘경험, 과거 상태, 순차’⁷⁾의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세대에 따른 문법 형태소의 변화 양상을 살핀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김보향(2017)에서는 제주방언 관형격조사(네), 부사격조사(이/디/레, 더레/레, 신디/안티/ㄱ라, 광/이영), 보조사(이랑/이라근에, 추룩/처룩/츄룩, ㄱ장/꺼지, 아올라, 냥으로, 베끼)의 세대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70대 이상은 거의 대부분 방언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40~50대는 방언형이 우세한 편이고, 20대에서는 방언형을 사용하는 비율이 27%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김보향(2021)에서는 제주방언 연결어미의 세대별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는데, ‘-ㄴ, -ㅇ’과의 융합형인 ‘-명, -난, -영, -당’ 등은 20대 이하나 30대에서도 40~50%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 외의 연결어미들은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신우봉(2022)에서는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의 실현 양상을 표준어형과 제주방언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사의 경우 앞서 연구인 김보향(2017)보다 표준어형의 사용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⁸⁾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문법형태소 내에서도 표준어화의 속도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⁹⁾ 김보향(2022)에서는 세대에 따른 제주방언의 명사형 어미의 실현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명사형 어미 ‘-ㄱ’은 조사와 자유롭게 결합하며, 표준어라면 ‘-기’ 혹은 ‘-

7)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삼메떡 행 올려뉘게.(우리 상화떡을 해서 (제사상에) 올렸었지.)’에서 ‘경험’, ‘옛날엔 성계국 었어난.(옛날에는 성계국 없었어.)’에서 ‘과거 상태’, ‘태풍 와나도 거 아니 한다.(태풍 오고 나셔도 거 안 해.)’에서 ‘순차’의 의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8) 김보향(2017)에서는 설문조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표준어형과 제주방언형 중에 선택하는 조사 방법을 취하였으며, 신우봉(2022)에서는 대화 자료에서 나타난 표준어형과 제주방언형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9) 조사와 선어말어미는 대부분이 표준어형을 사용하고 있어서 방언 접촉의 유형 중에서 ‘편입’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어말어미 ‘-앗/엇-, -(으)크’에 한하여 표준어형과 합쳐진 형태인 ‘병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결어미 중에서는 표준어형의 ‘-는데’에 대응하는 ‘-ㄴ디’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사용되어서 ‘병존’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결어미들은 다른 문법형태소들에 비해 제주방언형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안/언, -ㄴ, -주’의 형태가 표준어형보다 더 높게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은/을+것'이 쓰일 수도 있는 자리에도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ㅁ'은 표준어와는 달리 선어말어미와 함께 쓰이지 않으며, 보조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ㅁ직허다'가 높은 실현 빈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세대별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ㅁ이 쉽다, -ㅁ은 허다, -ㅁ전이, -ㅁ새에' 등의 표현을 60대 이상의 방언 화자들은 많이 사용하지만 50대 이하에서는 알고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며, 40대 이하에서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법형태소들의 세대별 실현 양상을 살핀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방언형보다 표준어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음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제주방언의 표준어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3. 어휘/의미 분야

어휘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분야별 어휘 및 개별 어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분야별 어휘 및 개별 어휘들 연구들을 하위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연구 주제	연구 목록
친족 어휘	김미정(2012: 석사), 김미진(2010), 박민경(2015: 석사)
우도/비양도/가파도 비교	김순자(2012, 2013ㄷ) ¹⁰⁾
김치	김순자(2013ㄱ)
어류 명칭	김순자(2013ㄴ)
호상옷(수의)	김순자(2014)
해조류	김순자(2015ㄱ)
말 이름	김순자(2015ㄴ, 2016ㄱ) ¹¹⁾
어로 활동	김순자(2016ㄴ)
주거 문화	김순자(2018)
정도부사	신우봉(2016ㄴ)
감정어휘	김신자(2022)
해녀 어휘	양희주(2015), 신우봉(2017) ¹²⁾
지명	임도희(2016)
우리말샘 방언 표제어	김미진 외(2022)

<표 7> 분야별 어휘 및 개별 어휘 연구 목록

10) 김순자(2012)에서는 279개의 어휘를 조사하여 세 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김순자(2013)에서는 어촌 생활어를 중심으로 106개의 어휘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11) 김순자(2015ㄴ)에서는 말 이름 관련 어휘 100개를 품종, 암수, 나이, 색깔 등 9개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김순자(2016ㄱ)에서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지역에서 수집한 말 부분

제주방언에 남아 있는 차용어와 관련한 연구로는 몽골어와 관련성을 연구한 배영환(2016L), 임도희(2016), 권성훈(2017)이 있다. 배영환(2016L)에서는 몽골 차용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몽골 차용어의 목록어를 정리하고, 한국어 공통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차용어와 제주방언에서 발견되는 차용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속의 몽골어 차용어가 대체로 문헌 속에 나타나며 약 80개의 어휘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어휘들은 ‘말’, ‘매’ 그리고 군사와 관련된 용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제주방언 속에 존재하는 몽골 차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라는 특징이 있으며, ‘말’이나 ‘민속’ 그리고 ‘지명’과 관련된 논의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임도희(2016)에서는 기존 김기선(1993)에서 몽골어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제주방언의 오름명(가시, 더데, 바리, 아진, 알)과 제주 지명(멜케, 모록밭, 무수내, 버랭이, 웃드르) 어휘들이 실제 중세몽골어와는 개연성이 적음을 음운, 형태, 의미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고 이들이 실제로는 제주만의 고유 지명임을 밝혔다. 그리고 권성훈(2017)에서는 제주방언 속의 몽골어 차용어들의 대부분 말의 털빛, 마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을 중세 한국어 문헌과 제주방언에서 발견되는 어휘(가라말/가레물, 간전이/코간전이, 고들개/고들게, 고라물, 구령물, 구령적다물/구령적대물, 부루물, 솔대왓, 연사라물, 오랑/오랑, 적다물/적대물, 주레, 지달(쓰다)와 제주방언에서만 발견되는 어휘(가달(석), 거리, 녹대, 다간, 도곰/도금, 참)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제주방언 어휘들의 지역적 분화 연구는 김순자(2011ㄱ), 김원보(2012)에서 수행되었다. 김순자(2011ㄱ)에서는 제주도의 14개 읍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어휘 305개와 제보자의 견해를 듣는 문항 5개 등 총 310개 항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156개의 언어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방언은 ‘제주도 동북방언, 제주도 서북방언, 제주도 동남방언, 제주도 서남방언’의 4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구획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원보(2012)에서는 제주도의 25개 마을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매미, 올챙이, 문어, 소라’의 어휘들에서 나타나는 제주방언의 지역적 분화를 살펴보았는데, ‘올챙이’에 해당하는 어휘 형태가 가장 다양한 형태로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제주방언 어휘들 연구들은 공시적인 측면에서 표준어에 대응하는 제주방언 어휘 형태를 밝히거나, 지역에 따른 어휘 분화 양상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2010년대 후반에는 어휘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수행되었다. 배

명칭 가운데 특이 어휘 33개를 살펴보았다.

12) 양희주(2015)에서는 해녀와 관련된 어휘를 ‘해녀 명칭, 바다, 작업, 해녀복 및 작업 도구, 채취물’로 하위 분류하여 분석하고, 어휘들의 형성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신우봉(2016)에서는 해녀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관련된 어휘를 낱말밭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영환(2016L)에서는 제주방언 ‘오분자기’를 조어론적으로 분석하고 어원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오분자기’는 단어 형성상 ‘오분’과 ‘자기’로 분석할 수 있으며, ‘오분’은 동북방언에서 확인되는 ‘오불-’[ㅅ]에 관형형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이며, ‘자기’는 중세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개’[貝]의 변화형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배영환(2018)에서는 제주방언 ‘올레’와 관련된 어휘의 형태 및 의미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올레’는 중세국어에서 ‘외문, 거리’의 의미를 가진 ‘오래’에서 ‘ㄹ’이 첨가된 것으로 ‘올래>올레’로 변화한 이유는 제주방언에서 /ㄱ/와 /ㄹ/가 구분되지 않고 /ㄱ/로 발음하는 경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골목길’이라는 의미인데 ‘올레’가 지닌 의미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올레 주변이나 일대’의 의미를 추가로 갖는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제주방언의 의미 연구는 앞서 [표 4]에서 보인 바와 같이 격조사(우창현 2016, 문순덕·김원보 2017), 의존명사(문순덕·김원보 2013), 접속부사(김미진 2016L) 등을 제외하면 모두 담화표지의 의미 기능과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여기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가 아닌 제주방언에만 존재하는 담화표지 ‘계메, 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방언 담화표지 연구들은 개별 담화표지의 의미를 밝히는 연구들이 선행되었으며, 이후 실험음성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담화표지의 의미에 따른 운율적 특성을 파악한 연구들이 이어졌다.

제주방언 담화표지 ‘계메’ 연구는 문순덕·김원보(2012), 신우봉(2015L), 양창용(2016L) 등에서 수행되었다. 문순덕·김원보(2012)에서는 제주방언 ‘계메’는 긍/부정문에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부정극어와 긍정극어의 기능을 가지며, ‘화자의 발화 내용에 자신이 없을 때,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화자의 발화문이 신정보일 때, 응답자가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제기할 때, 자신의 의지를 표출할 때’ 등의 담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신우봉(2015L)에서는 실제 자유발화 음성 자료를 분석하여, ‘계메’가 ‘불분명한 태도, 완곡한 부정, 강조, 시간 벌기, 발언권 가져오기’의 담화 기능이 있으며, 각각의 기능에 따른 운율적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주방언 담화표지 ‘양’ 연구는 김원보(2017), 신우봉(2019L), 양용준(2019)에서 수행되었다. 김원보(2017)에서는 제주방언 담화표지 중에서 높임과 낮춤의 대립적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양’과 ‘기’의 담화 의미와 운율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음의 길이에 측면에서 ‘양’은 놀람>되물음>부름말>응답의 순서로 나타나며, ‘기’는 놀람>되물음>동조>응답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하여 두 담화표지 모두 음의 길이가 의미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제주방언 ‘양’의 담화 의미를 살펴본 양용준(2019)에서는

‘양’이 ‘호격적인 의미, 주의를 끌기 위한 의미, 되묻기의 쓰임’의 세 가지 의미를 지니며 나타난다고 보았다. 신우봉(2019L)에서는 담화표지 ‘양’이 ‘확인, 동의 요구, 강조, 시간 별기, 완곡’과 같은 5가지 담화의미를 지니며,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다양한 발화 위치에서의 ‘양’이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발화 중간에서 ‘양’은 주로 ‘강조, 시간별기’의 담화의미를 지니는데, ‘시간 별기’로 실현될 때는 다른 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길이와 후행하는 휴지를 동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조’로 실현될 때는 가장 짧은 음길기와 함께 고조의 음높이 유형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발화 말에서는 ‘확인, 동의 요구, 완곡’의 담화 의미가 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확인’은 고조의 음높이 유형을 주로 지니고, ‘동의 요구, 완곡’은 주로 저조의 음높이 유형을 지니며 ‘완곡’의 의미를 지닐 때 상대적으로 긴 음길기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세대와 성별이라는 사회적 변수에 따른 담화표지의 실현 양상을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김미진(2018)에서는 제주방언 20대와 80대 남녀 화자의 자연 발화 자료를 분석하여 세대 및 성별 간 차이를 살폈다. 그 결과, 20대 화자가 80대 화자에 비해 표준어형과 축약형을 더 많이 사용하며,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혼합형인 담화표지(게가지고, 경해가지고)는 20대 화자에게서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성 화자가 여성 화자보다 더 많은 담화표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3.4. 기타 분야

제주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변화 연구는 재일제주인과 해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김보향(2014ㄱ, 2014L, 2015, 2020ㄱ), 최은순·안미정(2021)에서는 재일제주인들의 제주방언 사용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보향(2014ㄱ)에서는 오사카 이쿠노쿠 지역의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제주방언이 세대 간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세대 이후에는 제주방언이 일본어로 교체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보향(2014L)에서는 제주 출신 1세대의 언어를 관찰한 결과 제주방언과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는 형태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보향(2015)에서는 이민 집단의 언어인 제주방언이 이민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일제주인들에게서 제주방언 노년층 화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으/, 구개음화, 음운 첨가 등의 음운적 특성과 처격 조사나 종결어미 그리고 사동·피동문 등에서 나타나는 제주방언의 문법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주방

언의 변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대체로 음운이나 형태적인 변화 보다는 어휘나 문법 형태소의 일부가 일본어로 대체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은순·안미정(2021)에서는 일본으로 이주한 해녀들의 언어를 분석하였는데, 노동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어로서 다양한 혼성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해녀들의 언어 연구들은 제주 해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김지숙(2020)에서는 언어 접촉의 관점에서 제주 해녀와 출향 해녀와의 언어 사용 양상을 비교 분석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 해녀와 울릉도 동해안 지역 해녀들의 사용 어휘를 비교하였는데, 울릉도 동해안 지역 해녀들의 언어에 제주방언의 흔적이 ‘사람, 도구, 채취물’ 명칭에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녀들이 예전에 육지로 이주했음에도 제주방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해녀라는 직업에서 특수화된 언어로 제주방언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세대와 성별이라는 요인에 따른 제주방언의 언어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핀 연구가 권미소(2012), 김미진(2015)에서 수행되었다. 권미소(2012)에서는 1985년에 채집한 구술 설화 19편과 동일한 제보자에게서 채록한 설화 19편을 대상으로 언어 변이의 양상을 음운, 문법, 어휘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방언형이 쓰이던 자리에 표준어형이 대체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준어 사용 환경과 거주지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과 언어 수용 태도라는 내부적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김미진(2015)에서는 성별에 따른 제주방언의 사용 양상을 살피고자 75세 이상 남녀 화자 24명의 발화와 제주어구술자료 총서 2권을 분석하였는데, 제주방언의 여성 발화의 특징으로 ‘지역성, 보수성, 여성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성은 경제적 활동을 주도했던 제주도 여성의 자신감과 확신의 형태가 의문문과 명사 종결문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보수성은 고어형과 방언형을 선호하는 것, 여성성은 여성 화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종결어미인 ‘-심, -순, -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표준어와 각 지역방언 언어태도 연구는 이정민(1981)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후 제주방언을 중심으로 방언사용과 언어태도 추이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가 강영봉(2013), 김순자(2019)에서 수행되었다. 강영봉(2013)에서는 이정민(1981)에서 활용한 11개 항목의 언어태도에 대하여 제주대학교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는데, 제주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높아진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조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유네스코가 2010년 제주어를 소멸위기의 언어로 지정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김순자(2019)에서도 동일한 항목을 세대별로 조사하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세대가 높을수록 제주방언에 좀 더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권미소·배영환(2020)은 제주 지역 공무원들의 제주방언의 언어태도를 조사하였는데, 표준어와 비교했을 때 제주방언에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주방언의 사용 영역에서 공무원들은 [-공적]일 때는 제주방언, [+공적]일 때는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고영희·고용진(2021)은 제주 지역 의료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주방언의 사용과 태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였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제주방언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주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제주방언 화자와 타 방언 화자의 제주방언의 언어태도를 조사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객새봄(2018)에서는 설문조사와 가장 쌍 실험을 통하여 제주방언 언어태도를 살펴보았는데, 제주방언 화자들은 제주방언에 대하여 내·외적으로 모두 높은 친밀도를 가지는 반면 낮은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타 방언 화자들은 제주방언에 내적으로는 중립적인 친밀도와 낮은 지위를, 외적으로는 낮은 친밀도와 낮은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제주방언은 점차 사라지는 고유 언어로서,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정책 및 교육 연구들이 201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제주방언 보전과 관련한 연구는 문순덕(2010), 김순자(2011ㄴ), 강정희(2012ㄴ), 김미진(2020) 등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제주방언의 위상 정립(제주어 인식 전환), 제주방언 활동가 양성(제주어 교육 인력 확충, 제주방언 조사 및 연구자 지원, 토착방언 화자 발굴 및 보호와 육성), 제주방언 교육 환경 조성(제주어 교육 자료 개발), 제주방언의 문자화(제주어 채록 작업, 제주방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제주방언의 홍보와 확산(제주어 상호 및 상품 이름 활용, 지역 대중매체들의 방언에 대한 관심), 제주방언경연대회, 이중 언어 생활 유도’의 제주방언 보전 정책을 제안하고 있었다.

제주방언 교육은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철기(2015), 신우봉(2016ㄷ), 김현진(2021)에서 수행되었으며,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우창현(2012ㄱ, 2012ㄴ, 2014), 권미소(2018)에서 수행되었다. 이철기(2015)에서는 제주방언 /ㄹ/에 대한 부분을 2011 개정 교육과정 내의 국어의 변천과 관련하여 통시적인 측면에서 교육하는 방법과 현대국어(표준어)의 단모음 체계와 관련하여 공시적인 측면에서 교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우봉(2016ㄷ)에서는 /ㄹ/ 발음 교육 방안을 실제로 중심으로 한 발음 지도 방안(문제 확인하기, 자료 살펴보기, 방법 정리하기, 발음 연습하기)과 원리를 강조한 발음 지도 방안(문제 확인하기, 원리 설명하기, 표준 발음하기, 발음 점검하기)을 제안하였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창현(2012ㄱ)은 제주방언의 불규칙 활용(‘ㄷ’ 불규

칙, ‘ㅂ’ 불규칙, ‘여’ 불규칙)을 우창현(2012L)은 제주방언의 존대법을 표준어와 비교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우창현(2014)는 형태 중심 교수법(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 문법 의식 고양 과제 등)을 활용하여 제주방언의 시제 표현인 ‘-아시/어시-, -암시/엄시-’ 등을 교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권미소(2018)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을 활용하여 표준어의 ‘-겠-’과 제주방언의 ‘-으크-’를 함께 교육하는 방언 병행 교육의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4. 결론: 향후 전망 및 과제

지금까지 2010년대 이후의 제주방언 연구를 시기별, 하위 주제별 양적 현황을 살펴보고, 음성/음운 분야, 형태/통사 분야, 어휘/의미 분야, 기타 분야로 나누어 주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2010년대 이후 제주방언 연구들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지만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사회언어학적인 변인을 통한 연구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수행되었는데, 이는 표준어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제주방언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방언의 하위 주제별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음성/음운 분야에서는 단모음 연구에 비하여 이중모음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모음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여러 사회언어학적 변인들에 따른 이중모음의 실현 양상을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음운현상과 관련해서도 권미소(2021)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요인(세대, 성별, 직업 등)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제주방언의 자음, 모음, 운율적 요인이 노년층 화자와 청소년층 화자의 차이를 보이는바, 이러한 현상이 제주방언 음운현상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음성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대부분 산출 실험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지각 실험을 바탕으로 청취음성학적 연구가 수행되어서 제주방언의 지각 양상과 함께 산출과 지각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형태/통사 분야에서는 고영진(201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법 범주들의 통합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방언의 상대높임의 어미들은 시제나 상 그리고 양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을 연관하여 설명하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문장 안에서 실현되는 시제, 상, 양태와 함께 상대높임의 어미들의 실현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

리, 제주방언에는 다양한 조사와 연결어미들이 표준어와는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지고 실현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어사적 자료 및 다른 지역방언과의 대조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방언의 문법형태소들의 표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어휘/의미 분야에서의 연구들은 2010년대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020년대에는 2편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적어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고동호(2014)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론적 측면의 문제, 한문 해독력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어휘/의미에 대한 연구들이 표준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 다른 지역방언과도 비교를 하여 한국어의 어휘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제주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양한 교육 내용과 함께 교육 방안들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검증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방안 연구는 교육 효과 검증이 충분히 입증된 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주방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주방언 자료로는 『제주어구술채록자료집』이 있다. 이 자료집을 형태/통사 분야 그리고 어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형태소분석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으로 작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방언 연구자들이 힘을 모아 자료를 가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음성/음운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는 음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제주방언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방언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세대의 제주방언 화자들의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법 연구들에서는 세대별 변화 양상을 관찰한 연구들이 있지만 이는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 방법을 취했거나, 20대들의 대화만을 분석한 방법을 취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 대화하는 자료를 구축하여 세대별 그리고 세대 간 제주방언 사용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강석한. 2011. 「제주방언 단음절 명사의 음성학적 액센트 유형과 중세국어 성조와의 관계」,

- 영주어문 22. 영주어문학회. 5~21쪽.
- 강석한. 2010. 「제주 한국어의 반복 부사어 변이형 형성에서의 발화와 인지요소 연구」, 영주어문 20. 영주어문학회. 5~26쪽.
- 강석한·원종섭·김원보. 2011. 「초점과 주제의 음성/음운론적 분석을 통한 제주방언의 분화 연구」, 영주어문 22. 영주어문학회. 5~21쪽.
- 강영봉. 2012.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 언어학연구 21. 한국중원언어학회. 1~15쪽.
- 강영봉. 2013. 「제주문화와 제주어: 제주 사회 통합과 제주어」, 탐라문화 4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9~65쪽.
- 강영봉. 2015. 「제주도방언 어휘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7~57쪽.
- 강정희. 2011. 「제주방언 연구의 생태 언어학적 가치」,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53~83쪽.
- 강정희. 2012ㄱ. 「문법화로 본 제주방언의 가능 표현 연구: -어지다 구문을 중심으로」, 방언학 16. 한국방언학회. 241~271쪽.
- 강정희. 2012ㄴ. 「소멸위기의 제주방언 보전을 위한 방언 활성화 방안」, 영주어문 23. 영주어문학회. 185~205쪽.
- 강정희. 2015. 「제주방언 종결어미 '-게'의 양태성에 대하여」, 영주어문 29. 영주어문학회. 13~44쪽.
- 고맹훈. 2018. 「제주방언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고찰: 상대 높임법 형태와 등급체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근. 2019. 「제주어의 시상법에 대하여: 특히 서사 시상법과 관련하여」, 구결연구 42. 구결학회. 279~294쪽.
- 고영진. 2019. 「제주도 방언의 상대높임과 '-느-': '-수다'와 '-읍네다'는 어떻게 다른가?」, 방언학 29. 한국방언학회. 69~91쪽.
- 고영진. 2021. 「제주도 방언의 양태표지 '-으크-'에 대하여」, 한글 332. 한글학회. 295~333쪽.
- 고영희·고용진. 2021. 「제주어 보전과 부흥: 의료기관에서의 제주어 사용」, 언어학연구 26. 한국언어연구학회. 1~22쪽.
- 고재환. 2019. 「제주어에 남아 있는 <ㄱ>와 <!> 모음」, 인문학연구 26.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9~136쪽.
- 곽새봄. 2018. 「제주 방언에 대한 제주 방언 화자 및 타 방언 화자의 내·외적 언어 태도 분석: 2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미소. 2012. 「제주도방언의 실재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미소. 2018. 「제주방언 교육의 현실과 교육 방안: 제주 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40. 영주어문학회. 413~440쪽.
- 권미소. 2021.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남원읍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미소. 2022. 「제주방언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학에서의 방언 활성화」, 인문학연구 32.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7~155쪽.

- 권미소·배영환. 2020. 「제주방언에 대한 방언 태도 연구: 제주 지역 공무원을 중심으로」, 방언학 31. 한국방언학회. 183~217쪽.
- 권미소·배영환. 2022. 「복합어에서의 유기음화 현상 연구」, 영주어문 51. 영주어문학회. 5~28쪽.
- 권성훈. 2017. 「제주방언 속의 몽골어 차용어」, 동악어문 70. 동악어문학회. 53~67쪽.
- 김미정. 2010.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고찰」,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2010. 「제주도방언의 친족어 연구: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0. 영주어문학회. 27~47쪽.
- 김미진. 2015.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진. 2016. 「제주도 방언의 확인의문문 연구」, 어문논집 65. 중앙어문학회. 7~30쪽.
- 김미진. 2018. 「제주도 방언의 담화표지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언학 27. 한국방언학회. 155~180쪽.
- 김미진. 2019. 「제주방언의 인용표지 연구」, 영주어문 41. 영주어문학회. 29~55쪽.
- 김미진. 2020. 「제주방언의 특징과 보존 방안」, 인문학연구 28.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87~115쪽.
- 김미진. 2021.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 연구」, 탐라문화 6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93~330쪽.
- 김미진·권미소·현혜림. 2022. 「우리말샘의 방언 표제어에 대한 연구: 제주방언에서 '.'로 실현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6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29~267쪽.
- 김보향. 2014ㄱ. 「오사카 이쿠노쿠 지역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영주어문 28. 영주어문학회. 111~135쪽.
- 김보향. 2014ㄴ.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과 일본어 혼용 양상 고찰」, 언어학연구 19-2. 한국언어연구학회. 1~19쪽.
- 김보향. 2015. 「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와 언어 전환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보향. 2017. 「제주방언 문법 형태의 세대별 변화 연구」, 한국언어문학 101. 한국언어문학회. 7~35쪽.
- 김보향. 2019. 「제주방언 피동 연구: '-어지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08. 한국언어문학회. 7~30쪽.
- 김보향. 2020ㄱ.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접촉과 언어변화」, 방언학 32. 한국방언학회. 7~33쪽.
- 김보향. 2020ㄴ. 「제주방언 보조용언 '-어나다'의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 방언학 31. 한국방언학회. 117~138쪽.
- 김보향. 2021. 「제주방언 연결어미의 세대별 변화 연구」, 방언학 34. 한국방언학회. 159~188쪽.
- 김보향. 2022. 「제주방언의 명사형어미 '-ㅁ'의 연구」, 방언학 36. 한국방언학회. 195~219쪽.
- 김선미. 2022. 「한국어와 일본어 표준어, 한국어 제주방언과 전라남도방언 종조사의 출현양상과 정보관리기능」, 국어문학 80. 국어문학회. 25~48쪽.
- 김순자. 2011ㄱ.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자. 2011ㄴ. 「제주어의 보전과 활용 방안」,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1~33쪽.

- 김순자. 2012. 「제주도 부속 섬 방언의 어휘 비교 연구: 우도, 비양도, 가파도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3. 영주어문학회. 207~240쪽.
- 김순자. 2013ㄱ. 「제주도방언의 김치 명칭과 특징 연구」, 방언학 18. 한국방언학회. 229~263쪽.
- 김순자. 2013ㄴ. 「제주도방언의 어류 명칭 연구」, 영주어문 25. 영주어문학회. 19~54쪽.
- 김순자. 2013ㄷ. 「제주도 도서지역어의 생태학적 연구」, 탐라문화 4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67~100쪽.
- 김순자. 2014. 「제주도방언의 호상옷 관련 어휘 연구」, 탐라문화 4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13~141쪽.
- 김순자. 2015ㄱ. 「제주도방언의 해조류 관련 어휘 연구: 미역, 우뭇가사리, 툫, 모자반을 대상으로」, 영주어문 29. 영주어문학회. 45~78쪽.
- 김순자. 2015ㄴ. 「제주 말 문화 관련 어휘 연구 1: 제주도 방언의 말 이름을 대상으로」, 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367~406쪽.
- 김순자. 2016ㄱ. 「제주도 방언에 나타난 말관련 어휘 연구: 부분 명칭을 대상으로」, 어문론총 69. 한국문학언어학회. 9~38쪽.
- 김순자. 2016ㄴ. 「제주도방언의 어로 활동 관련 어휘 연구: 어로 도구와 어로 행위를 대상으로」, 탐라문화 5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7~46쪽.
- 김순자. 2018. 「제주도 방언의 주거 문화 관련 어휘 연구」, 한국어학 80. 한국어학회. 49~85쪽.
- 김순자. 2019. 「제주도 방언에 대한 방언 태도 추이 연구」, 한국어학 84. 한국어학회. 1~34쪽.
- 김신자. 2022. 「제주방언 감정표현의 유형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보. 2012. 「제주방언의 어휘 분화현상」, 언어학연구 17. 한국언어연구학회. 1~11쪽.
- 김원보. 2017. 「제주방언 문두 담화표지어 '양'과 '기'의 담화 기능과 운율적 특성」, 교육과학연구 19-2.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16쪽.
- 김원보·변길자. 2014. 「제주방언 화자의 세대별(20대/50대/70대) 어두 파열음의 VOT, F0 및 파열강도(burst energy) 변이양상」, 영주어문 22. 영주어문학회. 5~21쪽. 탐라문화 4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23~144쪽.
- 김원보·임화순. 2015. 「제주방언화자의 낱말 액센트: 제주화자와 재일제주인 화자의 비교 연구」, 언어학연구 20-2. 한국언어연구학회. 57~71쪽.
- 김은희. 2015. 「제주방언의 언어활력 평가」, 로컬리티 인문학 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93~324쪽.
- 김지숙. 2020. 「언어 접촉으로 육지 해녀의 언어에 나타난 제주 방언 연구」, 방언학 32. 한국방언학회. 191~220쪽.
- 김지흥. 2014. 「제주방언 통사 연구에서의 현황과 과제」, 영주어문 22. 영주어문학회. 5~21쪽.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고동호 외 공편). 제주발전연구원. 178~314쪽.
- 김지흥. 2016. 「제주방언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 체계」, 한글 313. 한글학회. 109~171쪽.
- 김지흥. 2019. 「제주방언의 인용 구문과 매개변항」, 한글 326. 한글학회. 745~792쪽.
- 김지흥. 2021. 「'-고' 어미를 매개로 실현된 제주 방언의 내포 구문」, 한글 331. 한글학회. 43~85쪽.
- 김태경·백경미. 2022. 「대화체 담화에 나타난 제주 방언 강제구 성조 실현 양상」, 국제어문

92. 국제어문학회. 59~81쪽.
- 김현진. 2022. 「제주어를 활용한 말붙임새 창작 활동 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5·6학년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순덕. 2010. 「제주방언의 보전 전략」, 영주어문 19. 영주어문학회. 187~207쪽.
- 문순덕. 2011. 「제주 구비문학에 나타난 제주방언의 문법 연구」, 영주어문 21. 영주어문학회. 173~192쪽.
- 문순덕. 2014. 「제주방언 정책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주어문 22. 영주어문학회. 5~21쪽.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고동호 외 공편). 제주발전연구원. 347~375쪽.
- 문순덕·김원보. 2012. 「제주방언 담화표지 '계메' 연구」, 언어학연구 17-1. 한국어언어연구학회. 27~42쪽.
- 문순덕·김원보. 2013. 「제주방언 '처레'와 '생'의 담화 의미」, 언어학연구 18-1. 한국어언어연구학회. 75~88쪽.
- 문순덕·김원보. 2016. 「제주방언에서 '가지다'의 문법화 현상 연구」, 언어학연구 21-2. 한국어언어연구학회. 117~130쪽.
- 문순덕·김원보. 2017. 「제주방언 격조사의 담화 기능」, 언어학연구 22-2. 한국어언어연구학회. 55~70쪽.
- 문순덕·김원보. 2018.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의 담화 기능」, 교육과학연구 20.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69~84쪽.
- 박민경. 2022.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영환. 2016ㄱ. 「제주방언 속의 몽골 차용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어문논집 68. 중앙어문학회. 7~36쪽.
- 배영환. 2016ㄴ. 「제주방언 '오분자기' 어휘사」, 국어문학 63. 국어문학회. 39~69쪽.
- 배영환. 2018. 「제주방언 '올레'의 어휘사」, 인문사회과학연구 19-3.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27쪽.
- 신우봉. 2015ㄱ. 「제주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우봉. 2015ㄴ. 「제주방언 평서문과 의문문에 나타나는 억양 연구: 어말어미 '-언/안, -으멘'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31. 영주어문학회. 87~109쪽.
- 신우봉. 2015ㄷ. 「제주방언 담화표지 '계메'의 운율적 특성과 담화적 기능의 상관관계」, 어문연구 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43~166쪽.
- 신우봉. 2016ㄱ. 「제주방언 단모음의 산출과 지각 양상 연구: 50대 화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7. 민족어문학회. 147~176쪽.
- 신우봉. 2016ㄴ. 「제주방언 정도부사 연구: 목록과 분류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4. 영주어문학회. 5~36쪽.
- 신우봉. 2016ㄷ. 「제주방언 학습자를 위한 발음교육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117~1138쪽.
- 신우봉. 2019ㄱ. 「발화 형식에 따른 제주방언의 운율 연구」, 영주어문 41. 영주어문학회. 144~169쪽.
- 신우봉. 2019ㄴ. 「제주방언 담화표지 '양'의 담화 기능과 운율적 특성」, 방언학 29. 한국방언

- 학회. 175~200쪽.
- 신우봉·신지영. 2012. 「제주방언 단모음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 한국어학 56. 한국어학회. 63~90쪽.
- 신우봉·하영우. 2021. 「제주방언성경의 서지와 음운론적 특성」, 한말연구 61. 한말연구학회. 165~194쪽.
- 양용준. 2014.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의 차이점 연구: 제주방언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70. 언어과학회. 251~270쪽.
- 양용준. 2019. 「제주방언의 담화표지어 '양'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89. 언어과학회. 109~123쪽.
- 양창용. 2014. 「제주어 사전에 대한 고찰」, 언어학연구 19-1. 한국언어연구학회. 65~84쪽.
- 양창용. 2016ㄱ. 「제주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동서인문학 51.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1~159쪽.
- 양창용. 2016ㄴ. 「A Discourse Marker keymey in the Language of Jeju: Its pragmatically-controlled functions and use」, 언어학연구 21-1. 한국언어연구학회. 149~164쪽.
- 양창용·김원보. 2013ㄱ. 「제주어 '게'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고찰」, 언어와 언어학 59.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43~163쪽.
- 양창용·김원보. 2013ㄴ. 「제주어 공손법 고찰」, 언어학연구 18-1. 한국언어연구학회. 115~140쪽.
- 오창명. 2014. 「제주방언 어휘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주어문 22. 영주어문학회. 5~21쪽.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고동호 외 공편), 제주발전연구원. 315~346쪽.
- 오창명. 2018. 「제주방언에 대한 관심, 연구 동향과 과제」, 제주도연구 50. 제주학회. 45~78쪽.
- 우창현. 2012ㄱ. 「결혼여성이민자 대상 불규칙 활용 교육 방법: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56. 한국문화언어학회. 5~21쪽.
- 우창현. 2012ㄴ. 「방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존대법 비교: 표준어와 제주방언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8-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99~121쪽.
- 우창현. 2014. 「제주 방언 시제 표현 교육 방안: 입력 강화 기법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47~168쪽.
- 우창현. 2016ㄱ. 「제주방언 격조사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격조사 의미 해석 방법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0. 국제어문학회. 29~50쪽.
- 우창현. 2016ㄴ. 「한국어 서술어의 사건 구조: 제주방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8. 한국국어교육학회. 437~462쪽.
- 이기갑. 2013. 「제주방언의 담화표지어 '근'과 '에」, 방언학 17. 한국방언학회. 143~167쪽.
- 이숙향. 2014. 「제주어 강제구의 억양」, 말소리와 음성과학 4. 한국음성학회. 117~123쪽.
- 이승진·최홍식. 2018. 「제주어 화자에서 아래아 조음의 영상의학적 및 음향학적 특성」, 말소리와 음성과학 10-1. 한국음성학회. 57~64쪽.
- 이은미·고훈주. 2022. 「An OT Analysis of Vowel Hiatus in the Jeju Dialect」, 언어학 30-4. 대한언어학회. 211~236쪽.
- 이정민. 1981.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173-174. 한글

- 학회. 559~584쪽.
- 이철기. 2015. 「소멸위기 언어 보전의 관점에서 본 지역방언 교육의 방향: 제주방언 말소리 아래아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8.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9~52쪽.
- 임도희. 2016. 「제주도 지명의 일연구: 중세몽골어와의 개연성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33. 영주어문학회. 23~43쪽.
- 정성여. 2013. 「제주방언의 ‘-ㄴ다’와 관련 어말형식들의 대립에 대하여」, 방언학 17. 한국 방언학회. 105~141쪽.
- 정수빈. 2022. 「헌기영 소설에 나타난 제주방언 양상 : 종결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철. 2014.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 ‘ㅇ’ 관련 업적을 중심으로」,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고동호 외 공편). 제주발전연구원. 29~60쪽.
- 정승철. 2018. 「석주명의 방언연구: 제주도방언(1947)을 중심으로」, 애산학보 45. 애산학회. 183~211쪽.
- 정승철·김보향. 2013. 「제주방언의 설명의문과 판정의문: 어미의 중화 현상을 중심으로」, 방언학 17. 한국방언학회. 79~103쪽.
- 조성문. 2013. 「산포이론에 의한 제주방언의 구개음화 분석」, 인문과학연구 20. 동덕여자대학교. 133~144쪽.
- 조태린. 2014. 「제주어와 제주방언, 이름의 정치언어학」, 어문학 126. 한국어문학회. 117~135쪽.
- 최대희. 2022. 「제주방언의 ‘-ㅁ, -ㄴ, -ㄹ’ 연구: 연령별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63. 한말연구학회. 1~19쪽.
- 최대희·허원영. 2022. 「제주 방언의 이름마디 연구」, 교육과학연구 24-3.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31~148쪽.
- 최은순·안미정. 2021. 「제주 해녀들의 초국적 이동과 언어혼용의 양상」,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75~110쪽.
- 하영우·신우봉. 2022. 「『제주방언성경』의 형태·통사론적 특징 연구」, 동남어문논집 54. 동남어문학회. 139~163쪽.
- 한경임. 2014. 「한국어 폐쇄음 VOT: 제주방언과 대구방언 비교」, 코기토 7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57~176쪽.
- 현혜림. 2020. 「제주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an, Kyung Im. 2011. Acoustic Cues for the Korean Stop Consonants Produced by Jeju Speakers, *언어과학연구* 57. 언어과학회. 247~260.
- Han, Kyung Im. 2012. Acoustic Study on Korean Alveolar Fricatives Produced by Jeju Korean Speakers, *언어과학연구* 62. 언어과학회. 361~374.
- Han, Kyung Im. 2021. Acoustic Analysis of Korean Fricatives and Affricates Produced by Jeju Dialect Speakers, *언어학연구* 26. 한국언어연구학회. 153~176.
- Kang, Seok Han. 2015. A Comparative Study on Accentual Patterns between Middle Korean and the Current Jeju Korean, *언어* 40. 한국언어학회. 1~18.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2023. 5. 12.)

Yang. 2019. Why Jejeo is Difficult to Understand for Monolingual Korean Speakers : Focusing on Linguistic Factors, *언어학연구* 24. 한국언어연구학회. 69~87.

제3부/ 주제 발표

평안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 정인호

황해도 방언의 지리적 분화 양상 / 장승익

박중화의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 연구

–1910~20년대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와의 비교 고찰 / 주현희

의존명사 ‘법’ 구문의 의미와 구조

–‘-은 법이-’ 구문을 중심으로- / 명정희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제3부/ 주제 발표

평안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정인호

대구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moyttara@hanmail.net

1. 서론

정도전은 평안도 사람들을 평하기를 ‘산림맹호(山林猛虎: 숲에 사는 사나운 호랑이)’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여러 가지 기질을 종합하여 평가한 것이겠지 만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1900년 10월 9일 자 <황성신문>에는 각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를 드러내는 꽤 흥미로운 논설이 실려 있는바(정승철 2018:35), 평안도(關西) 말씨는 굳세고 사납다(強悍)는 것이다.

이러한 평안(서북) 방언¹⁾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본 발표에서는 이 방언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방언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이미 몇 편의 글이 발표되었는바, 여기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래에서는 ‘평안 방언’을 ‘이 방언’으로도 칭할 것이다.

김영배(1977), 평안방언 연구 개설
김영배(1992), 평안방언 연구 현황과 과제
최명옥(1992), 북한의 방언론
곽충구(1994), 북한방언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정의향(2019), 평안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정인호(2019), 북한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따라서 본 발표가 기존의 연구사 검토와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다만 기존 검토를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약간 체제를 달리하여 정리를 할까 한다. 즉 먼저 연구대상인 평안 방언의 수집에 대해 살펴보고 기술방언학적 연구와 대비방언학적 연구로 나누어 연구사를 검토할 것이다. 기술방언학적 연구는 이 방언을 독립된 언어체계로 보고서 진행한 연구이며 대비방언학적 연구는 이 방언을 한국어의 분화체 내지는 변종으로 보고서 다른 방언과의 대조 또는 비교를 진행한 연구를 가리킨다.

2. 방언 자료 수집

이 방언을 연구하는 것은, 남한의 조사 연구자들이 북한에 들어가 방언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큰 제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정인호(2004:5)에서는 평안 방언의 조사 대상에 따라 지금까지의 연구를 대략 4가지 유형으로 나눈 바 있는데 이후의 연구 성과들을 추가하여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직접 조사 : 小倉進平(1944ㄴ), 河野六郎(1945), 경성사범대학교 조선어연구부(1937), 정태진·김병제(1947), 김병제(1959, 1965, 1975, 1980, 1988), 한영순(1956ㄱ, 1956ㄴ, 1967), 김영황(1982), 이금화(2007)²⁾ 등
- ② 실향민/새터민 조사 : 김영배 교수의 일련의 연구, 김이협(1981), 박정남(1982), 대한민국 학술원(1993), 강순경(1996, 1999ㄱ, 1999ㄴ), 곽충구(2003), 소신애(2010, 2022) 등
- ③ 19세기의 외국인 자료 : 김영배(1982, 1983), 최임식(1984), 최명옥(1985ㄱ, 1985ㄴ, 1985ㄷ, 1986, 1987) 등
- ④ 중국 동포 조사 : 宣德五 외(1990),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 집필조

2) 중국으로 방문한 평양의 제보자를 직접 대면 조사한 것이다.

(1985), 리윤규 외(1992), 신흥예(1997), 왕한석(1997), 이병근·정인호(1999, 2003), 한성우(2003), 정인호(2003, 2004), 최명옥(2006), 오영순(2006), 박화염(2008), 정의향(2008, 2010), 김홍실(2009), 이금화(2014ㄴ, 2015ㄴ) 등

이와 같은 방언 조사·연구를 통하여 평안 방언 자료가 수록된 자료집(사전)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검토된 바 있다(소신애 2014, 정인호 2019). 여기에 한두 자료집을 추가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경성사범대학교 조선어연구부(1937), 『방언집』
小倉進平(1944ㄱ), 『朝鮮語方言の研究』(上)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考—<鋏>語考』
정태진·김병제(1947), 『조선고어방언사전』
김영배(1977), 『평안방언의 음운체계연구』(자료편)
김병제(1980), 『방언사전』
김이협(1981), 『평북방언사전』
宣德五·趙習·金淳培(1990), 『朝鮮語方言調査報告』
리윤규·심희섭·안운(1992), 『조선어방언사전』
김영배(1997ㄴ), 『평안방언연구(자료편)』

또한 자료집의 형식은 아니어서 정인호(2019)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음 자료들도 충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㉑ 『매일신보』(1931.09.19.~11.20.) ; 『한글』(1935.10.~1942.05.)
- ㉒ 평양사범학교 학생들의 평북 방언 자료
- ㉓ 도당보(1976), 『피양말』
- ㉔ 이병근·정인호(1999), 중국 조선어 방언 조사,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이병근·정인호(2003), 중국 심양 조선어의 특징,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 문화』
- ㉕ 이금화(2014ㄴ), 『의주(심양)지역어 텍스트』
이금화(2015ㄴ), 『초산(집안)지역어 텍스트』

㉑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방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투고한 평안 방언 자료

들이다. 『매일신보』에는 평북 방언만이 4회 투고되었고 『한글』지에는 9회의 평남 방언과 18회의 평북 방언이 투고된 바 있다(정승철 2018:99-100). 그리고 ㉔는 이승녕 선생이 평양사범학교 교유 시절(1933~1945년)에 학생들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료이다. 이 자료는 한국방언학회 편(2014)에 영인되어 있고 그 자료적 특성에 대해서는 정인호(2009ㄱ/2014ㄱ)을 참고할 수 있다. ㉔는 평양말에 대한 문법 연구서인데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특이하게도 문법 기술이 평양말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훌륭한 평양 방언 자료가 된다. 그리고 ㉕는 원적지가 평북 용천인 중국 동포(조선족)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부록으로 실고 있으며 ㉕는 원적지가 각각 평북 의주와 초산인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채록된 구술발화 자료이다.

3. 기술방언학적 연구

3.1. 음운

평안 방언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의 효시는 小倉進平(1944ㄴ)이다. 이 논문에서는 30개 항목으로 이 방언의 음운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비슷한 유형을 묶어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ㅇ	(5) '녀, 네'의 실현 • '니'의 실현	(7) ㄱ-구개음화 • ㅎ-구개음화	• '유'의 실현 (10) '외'의 실현
(2) 'ㅈ, ㅊ'의 음가	(6) '라, 라'의 실현 • '러, 러'의 실현	(8) ∆ • 어중의 [b]	• '의'의 실현 • '위'의 실현
(3) 'ㅍ'의 실현	• '로, 료'의 실현	(9) '예'의 실현 • '야'의 실현	(11) '와'의 실현 • '워'의 실현
(4) '디, 티'의 실현 • '다, 타'의 실현 • '더, 터'의 실현 • '도, 토'의 실현 • '듀, 튜'의 실현	• '리'의 실현	• '여'의 실현 • '요'의 실현	• '왜'의 실현

이를 보면 평안 방언의 통시음운론적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현상들이 두루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후 통시음운론적 연구들에서는 이들 현상에 대한 기술·설명을 정밀화하거나(김영배 1977, 1978, 1986, 1988; 최임식 1984, 이병근·정인호 1999, 2003; 정인호 2003, 소신애 2022), 여기에 몇몇 음운 현상들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 ‘ㅈ, ㅊ’의 음가 변화 : 한영순(1956ㄴ), 정인호(2003)
- ㄴ첨가 : 한영순(1967:131-132), 정인호(2009ㄴ)
- i모음역행동화(움라우트) : 최학근(1980), 김영배(1985ㄷ)
- 이중모음의 분절화 : 최학근(1980), 최임식(1984)
- ‘ㄷ, ㄴ’의 음가 : 김영배(1977), 정인호(2004)
- 운소 : 대한민국 학술원(1993), 이병근·정인호(1999)
- 모음의 음가 : 강순경(1996), 정인호(2004), 소신애(2010)
- 모음체계의 재구 및 변화 : 최명옥(1987), 곽충구(2003)
- 비모음화 : 한영순(1967:128-129), 정인호(2004)

이와 같이 이 방언에 대한 통시음운론적 연구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초기의 공시음운론적 연구는 이 방언의 음운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김영배 1977, 최임식 1984). 그러다가 최학근(1980)에서 ‘리, 래, 레, 르 표, 르ㅌ’에 한해 형태소 경계에서의 자음 탈락을 논하게 되고 최명옥(1985ㄷ)을 필두로 해서 특정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운현상을 체계적으로 기술·설명하는 논의가 공시음운론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신홍예 1997, 한성우 2003, 오영순 2006, 이금화 2007, 박화염 2008, 정의향 2008). 이러한 연구들에서 드러난 이 방언의 중요한 공시음운론적 현상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최명옥 2001).

- ① 어간말 자음군 ‘리, 래’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르’만 실현된다(㉠ 달(←달), 발따(←발-다)).
- ② ‘ㅣ’로 끝나는 어간과 ‘ㅊ’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면 ‘개’로 축약된다(㉠ 빌레서(←빌리-어서)).
- ③ 격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탈락한다(㉠ 바바구(←밥-하구)).

3.2. 문법

이 방언의 종결어미에 대한 최초의 기술은 Ross(1877)인데 여기서는 경어법의 등급을 존대, 평대, 하대의 3등급으로 나누어 동사 ‘가-’에 명령법, 의문법, 서술법의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小倉進平(1944ㄴ)에서는 ‘어법’ 부문에서 25가지 항목을 언급하고 있는데 모두 어간, 조사, 어미의 형태론적 항목으로서 다음과 같다.

쫓-(啄), ㅂ-불규칙 ; 목적격 조사 ; -ㅁ메다, -쇠다, -쇄, -와요/사와요, -ㅁ네, -웨리다, -웨리, -ㄹ웨다, -ㅁ메, -ㅁ, -왜, -마, -ㄹ마, -리, -옴니까, -ㅁ마, -와, -간, -ㄴ, -시다나, -레, -러마

우선, ‘쫓-’는 ㅂ-불규칙을 확인하기 위한 용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방언에서는 2개의 불규칙(ㅂ-불규칙, ㅂ-불규칙) 활용 어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목적격 조사로는 ‘-으, -르’가 쓰이는 함경 방언과 달리 ‘-을, -를’이 쓰인다는 것인데 이 방언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어미들인데 그만큼 어미가 이 방언의 문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小倉進平(1944ㄴ)에서 통사론적 요소가 제외된 것은 아마도 그 특징이 중부 방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기초는 이후의 문법론적 연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바, 어간, 조사, 어미에 대한 몇몇 형태들이 추가되거나 기존에 보고된 형태들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는 노력들이 이어진다.

첫째, 이 방언의 어간 형태에 대한 기술을 보기로 한다. 김영배(1973)에서는 중부방언의 ㄷ-불규칙 활용 어간 중에서 유독 ‘듣-’(聽)만은 평안남북도 전역에서 규칙 활용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드드라(←듣+으라)) 이러한 사실은 김영황(1982:57)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김영배(1979)는 이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로서 주목할 만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어간 형태들에 대한 보고가 있다.³⁾ (1) ‘잇-(有), -엇/앗-, -갓-’ 등의 어간 말음이 ‘ㅅ’이 아니라 ‘ㅂ’이라는 것인데 최학근(1980)에도 동일한 보고가 있다. (2) 중부방언의 어간말 자음군 ‘래’이 일부 형용사에서 ‘리’으로 대응되는데(㉠ 늠-(넓-), 얹(얹-), 띠(띠-)) 김영황(1982:57)에도 동일한 보고가 있다. (3) 체언 어간 말 자음과 관련해서는 중세국어의 ‘ㄷ’이 ‘ㄱ’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띠(띠), 쑥(쑥), 닷(닷)) 최학근(1980)에서는 ‘ㄱ’에 대응시키고 있다. (4) 일부 지역에서 불규칙 곡용이 실현된다(㉠갈기(가루-가)).

둘째, 이 방언의 가장 특징적인 조사는 주격의 ‘래’이다.⁴⁾ 이 조사에 대해서는 김영배(1979)에서 특이한 형태의 조사로 예시되었다가 김영배(1989)에서 개음절로 끝난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로서 ‘가’와 수의적 변이를 보인다고 한 바

3) 특이한 어미 형태로서는 ‘없-’에 연결되는 관형형어미가 ‘-느’이 아니라 ‘-은’이라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돈 없는 사람).

4) 연구자에 따라서는 ‘래’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비어두에서 ‘ㄱ’과 ‘ㅂ’의 변별이 뚜렷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로서는 ‘래’로 보는 것이 더 통시적 변화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김영황(1982:136)에서는 이 형태가 중세국어의 ‘라’에 소급된다고 한 바 있다.

있다. 그리고 기타 조사에 대해서는 김영배(1979), 김영황(1982:135-137) 등에서 기술하고 있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이 방언의 형태론적 요소 중에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어미이다. 그러기에 이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가 어미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小倉進平(1944L)을 필두로 해서 계속되는 문법론적 연구들에서 종결어미에 대한 기술은 거의 빠지지 않으며 종결어미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도 계속 진행되어 왔다(김영배 1979, 1984L ; 김영황 1982:137-140, 최명옥 2010, 이병근·정인호 2003, 김홍실 2009, 정인호 2014L, 이금화 2022). 한편 최명옥(1985L)에 따르면 Ross(1877)에서 사용된 선어말어미로는 ‘-엇-’(과거)과 ‘-갓-’(추측 및 의도)밖에 없지만 이 방언에는 이외에 특징적인 선어말어미로 ‘-더랏~드랏~뎃-’이 있다.⁵⁾ 이 어미는 김영황(1982:137)에서 ‘과거지속’을 나타낸다고 언급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정인호(2016)에서는 이 어미의 문법화와 형태 변화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이병근·정인호(2003), 정인호(2016) 등에서는 이 방언의 미래시제 선어말어미로 ‘-을래-’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넷째, 김영배(1979)에는 단어형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접미사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의 연구들에서 이 방언의 접사들이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다가(김영황 1982:141, 박정남 1982, 이기갑 2003:615) 정의향(2010)에서는 비록 평북의 한 지역어(철산)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이 방언의 접미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이 시도된다.

3.3. 어휘

小倉進平(1944L)에서는 ‘어휘’ 부문에서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1) 『북새기략(北塞記略)』의 기록과 그 밖의 흥미로운 단어
- (2) 여진어와 만주어로부터의 영향
- (3) 한어(漢語)로부터의 영향
- (4) 심마니들의 은어

5) 이기갑(2003:483)에 따르면 충북·강원의 일부 지역어에서도 이 유형의 어미가 쓰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용 빈도를 감안하면 이 어미의 사용이 이 방언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은가 한다.

이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유창돈(1957)에서는 평북방언의 12개 단어와 문헌어의 연관성을 밝히려 하였다. 그리고 박정남(1982)에서는 평북 정주지방의 어휘를 품사별로 분류하고 나아가 특수어와 외래어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김영배(1985ㄱ)과 김영배(1985ㄴ)에서는 Ross(1877)에 실린 단어들을 각각 한자어와 고유어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김이협(1980)은 1910년대 평북 강계에서 수학한 3인의 실향민이 발음하는 천자문을 정리하여 수록한 것인데 김이협(1981)에도 그대로 전재되어 있다. 한편 최근에 이 방언의 친족어에 대한 몇몇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양오진·황대화·김현주 2008, 황대화·양오진 2009, 이금화 2014ㄱ). 끝으로 개론서이기는 하지만 최명옥(2015)는 어휘를 다양하게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이 방언의 특수 어휘들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 대비방언학적 연구⁶⁾

4.1. 방언분포론

4.1.1. 방언지도

국어 전 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방언지도 중에서 평안 방언이 포함된 지도를 작성한 업적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업적들에서 지도화한 방언 항목들을 아래에 보이고 참고로 2개의 지도만을 예시하기로 한다.

- ① 小倉進平(1944ㄴ) : 말, 외, 병, 구유, 누에, 벼, 옥수수, 달팽이<지도 1> (8개)
- ② 河野六郎(1945) : 확, 마름, 가위, 파리, 가을, 구유, 여우, 머루, 오이, 길, 혀, 사내아이, 계집아이 (13개)
- ③ 이승녕(1967) : 길, 겨울, 닭, 팔, 할아버지, 누이, 새우, 여우, 가을 (9개)
- ④ 김병제(1988)
 - ㉠ 제1부(어음) : 가위, 거마리, 겨드랑이, 고양이, 그을음, 개암, 게으르다, 귀밀, 귀뚜라미, 꿩이, 나중, 누에, 냉이, 마르다(웃을), 멀치, 모이, 무우, 박쥐, 병아리, 뱀장어, 뺨다, 새우, 생강, 추워서, 칼치,

6) 발표자는 정인호(2019)에서 '북한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북한방언의 연구 성과를 대비방언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를 평안 방언에 한정하여 요약·정리하고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기술하려 함을 미리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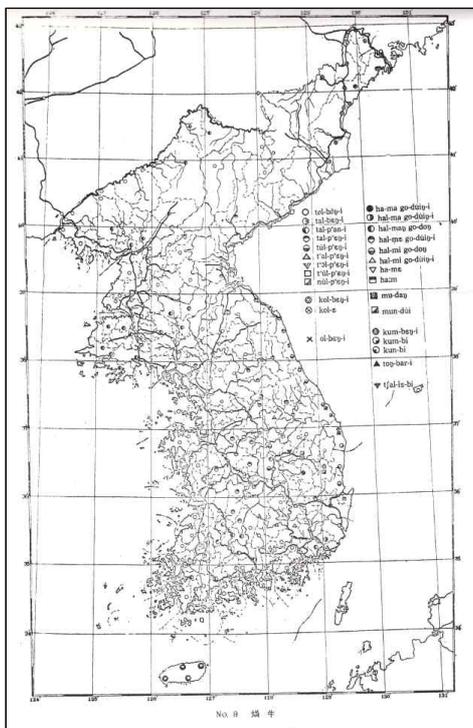
켜다, 키, 확(방아확), 여위다, 오이 (30개)

㉔ 제2부(문법, 어휘-의미) : -늬(습, 읍)니다, 거짓말, 가르치다, 강냉이, 고추, 그네, 게사니, 능쟁이, 반디벌레, 부루, 사라구, 새끼, 잠자리, 졸리다, 종다리, 지렁이 (16개)

⑤ 宣德五 외(1990) : 쇠, 귀/쥐/뉘, 때/뗏목/떼, 아침/짐승/기침/실컨, 가슴/이슬/사슴/쓰다, 들다/덜다, 살구/시루, 길/깃, 짚/지키다, 저/좋다, 이마/일곱, 여름/염통, 힘, 마름/누에, 여우/가위, 흙/붉다, 주걱조사, 공동격조사, -겠-, -읍/습니다, -읍시다, -라고, 벼, 노을, 쓸개, 연자방아, 우레, 성냥, 부엌, 부추, 큰아버지, 고추 (32개)

⑥ 대한민국 학술원(1993) : 말(言)<지도 2>, 여우, 새우, 듣-(聞) (4개)가

4.1.2. 방언구획



<지도 1> 小倉進平(1944)의 지도



<지도 2> 대한민국 학술원(1993)의 지도

평안 방언과 타 방언 사이의 방언구획은 이극로(1932)에서 최초로 행해진다. 여기서는 이 방언을 ‘관서방언(평안도사투리, 고구려방언)’이라 하여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부가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이어서 小倉進平(1944)에서는 평안남북도의 방언을 ‘평안도방언’으로, 河野六郎(1945)에서는 ‘서선(西鮮) 방

7) 여기에는 총 9개의 방언지도가 제시되어 있으나 평안 방언이 포함된 지도는 4개이다.

언'으로 분류하였다. 이송녕(1967)에서도 '평안도방언'을 설정하지만 세부적인 경계에서는 小倉進平(1944)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즉 평안도방언의 하한선을 황해도 사리원과 강원도 이천까지로 하며 평북 중강진·후창은 함경도방언에 포함시켜 평안도방언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학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명칭만 다를 뿐, 평안 방언(평안도사투리/서북방언/평안도방언)은 평안남 북도와 자강도에서 쓰이는 말을 가리키고 있다(한영순 1967, 김영항 1982, 김병제 1988).

이와 같이 이 방언과 다른 방언과의 경계 지역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지만 이 방언 내에서의 하위 방언구획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김이협(1981)에서 가끔 표제항에 대해 '【東部地域】' 또는 '【西部地域】'의 사용지역 표시가 있어 평북방언의 방언구획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정인호(2009)에서 평북방언의 지리적 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거의 전부가 아닌가 한다.

4.2. 방언분화론

4.2.1. 음운

이 방언에서의 모음체계는 小倉進平(1944), 김영배(1977) 등에서 8모음 체계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한영순(1967)에서는 주로 평남 남부에서 'ㄴ'와 'ㄹ'가 점차 대립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한 바 있으며 또한 곽충구(1994, 2003)에서는 젊은층에서 'ㄴ'와 'ㄹ'도 대립을 상실하게 되면서 6모음 체계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小倉進平(1944)에 따르면 어중자음 [ㅅ, ㅂ]은 이 방언에서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어중자음이 유지되는 함경방언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ㅅ, ㅂ]과 [ㄱ]의 분화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은 한영순(1967)을 비롯한 여러 논저들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이병근·정인호(2003)에서는 평북 용천지역 어에 한정하여 이를 통계수치화하기도 하였다. 이송녕(1967)에서는 어중자음 탈락이라는 개신이 중부방언에서 시작되어 방언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小倉進平(1944)에서도 변방에서 자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문화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옛 음가가 보존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방언에 모든 구개음화가 존재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ㄷ-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만 있을 뿐 ㄱ-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황

해방언(김영배 1981), 그리고 모든 구개음화를 활발하게 실현시키고 있는 함경 방언(육진방언 제외)과의 분화 양상을 보인다.

한영순(1967:128-129)에는 비모음화와 관련한 언급이 있다. 즉 ‘ㅇ[n]’의 비모음화는 방언 전반적인 현상인데 ‘ㄴ’의 비모음화는 함경·황해 방언과 달리 이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곽충구(1994)에서도 세 가지 환경, 즉 ① ‘V+n+V’(육진, 함경), ② V+n+i(육진, 함경, 황해), ③ V+n+i(함경, 황해, 강원)에서 비모음화 규칙이 있는데 평안도와 황해도 북부 지역은 제외된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인호(2007)은 이 방언의 ①과 ②의 환경에서 비모음화가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영순(1967:131-2)에는 ㄴ첨가가 방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고 있다. 즉 앞단어가 자음으로 끝나고 뒷단어가 ‘i, j’로 시작할 때 ㄴ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예)바밀(<밤일), 무락(<물약), 나딜(<낮일) 등) 평안 방언은 다른 모든 방언들과 대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인호(2009ㄴ)에 따르면 ‘물약’과 같은 ‘공명음#yV’의 환경에서는 ㄴ첨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4.2.2. 문법

한영순(1967:147)에 따르면 주격조사로 평안·황해 방언에는 ‘이’와 ‘래ㄴ라’가 있고 육진 방언은 ‘이’ 하나로 나타나며 나머지 사투리에는 ‘이’와 ‘가’가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평안 방언에서는 ‘래’가 쓰이는 반면 황해 방언(북부 지역)에서는 ‘라’가 쓰인다는 점에서(김병제 1988:61, 이기갑 2003:35) 두 방언은 차이를 보인다. 한편 이기갑(2003)은 주격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에 대해 방언별로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방언은 황해·육진 방언과 함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로 ‘-엇/앗-’이 쓰인다(한영순 1967:165). 그리고 추정·의도의 선어말어미로는 ‘-갓-’이 쓰여 ‘-갓-’이 쓰이는 함경방언과 차이를 보인다(이기갑 2003:496).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평안 방언은 특이한 선어말어미로 ‘-더랫~드랫~댓-’이 활발하게 쓰인다(김영황 1982:137, 이기갑 2003:485, 정인호 2016). 한편 이 방언에서는 이들 선어말어미에 해라체의문형어미가 결합할 때 특이한 형태가 실현된다(이기갑 2003:480, 정인호 2016). 즉 ‘-언/안(-엇+니?), -간(-갓+니?), -더랜(-드랫+니?)’ 등이 그 예이다.

다른 방언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방언만의 가장 특징적인 종결어미는 명령형의 ‘-으시’인데 다른 방언에서는 주로 ‘-게’로 쓰인다(한영순 1967:279). 그리고 정인호(2011)은 기존에 보고된 자료를 이용하여 의문형 종결어미의 방언분

화 양상을 검토하고 있다.

4.2.3. 어휘

小倉進平(1944-)에서는 ‘말, 여우, 매, 달팽이, 소주, 벼, 옥수수, 고구마, 더덕(인삼), 냉이, 그네’ 등에 대한 전국 방언형들을 어휘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김병제(1988)에서는 방언형을 다음과 같이 네 부류로 나누어 어휘론적 분화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 방언들사이의 뜻같은말

① 말뿌리가 다른 뜻같은말 : 노을, 부엌, 벼, 반찬, 고드름

② 덧붙이가 다른 방언들사이의 뜻같은말들 : -질, 노루

㉡ 방언들사이의 소리같은말 : 소리하라, 없다, 능금, 인간, 반찬, 사냥, 나그네

㉢ 방언들사이의 뜻반대말 : 싸다, 맛스럽다, 고추, 팔다/사다

㉣ 특수한 방언단어

아울러 양오진·황대화·김현주(2008), 정인호(2009-) 등에서는 ‘조부모’의 명칭이 ‘클아버지/클마니’계통의 평북 방언과 ‘할아버니/할마니’계통의 평남 방언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 바 있다.

5. 전망 및 결론

현재 남한 학자들은 평안 방언을 북한 지역에서 직접 조사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하여 이 방언을 직접 조사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북한이나 중국의 학자들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도 ‘조선어방언지도’(김병제 1988) 작성을 위해 지도작성자들이 현지에 나가 직접 방언조사를 시행한(1978~1982년)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한과 같은 체계적이고 균질적이며 정밀한 방언조사는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에서처럼 북한에서도 적어도 군 단위까지의 방언조사가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학문적인 연구 분야만이라도 남북한이 힘을 합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언조사를 남북한 공동으로 진행하여 한반도 전체의 방언지도가 작성되고 평안 방언을 포함한 북한 방언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이 방언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질적인 조사가 미지수인 상황에서는 학자들이 차선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바로 실향민들이나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원 평안 방언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개인에 의존하여 산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조사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제1세대 실향민이나 중국 동포들이 고령화로 인해 언제까지나 조사자들을 기다려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가 대규모의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진행되었으면 바람을 간절히 가져 본다.

〈참고 문헌〉

- 강순경(1996), 남북한의 모음분석, 『어학연구』 32-1, 1-18. [강순경(2001:22-49)에 재수록]
 강순경(1999ㄱ), 북한 후설모음의 융합(merger)현상, 『음성과학』 5-2, 41-55. [강순경(2001:112-140)에 재수록]
 강순경(1999ㄴ), 북한 모음 /ㅏ/→/ㅑ/에서 발견되는 과잉교정 현상, 『음성과학』 6-1, 33-44. [강순경(2001:141-161)에 재수록]
 강순경(2001), 『북한어 모음체계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경성사범대학교 조선어연구부(1937), 『방언집』. [1995, 모산학술연구소 영인]
 곽충구(1994), 북한방언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인문과학연구소논문집』 10, 263~294.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59~91.
 김병제(1959), 『조선어방언학개요』(상), 평양: 과학원출판사.
 김병제(1965), 『조선어방언학개요』(중), 평양: 과학원출판사.
 김병제(1975), 『조선어방언학개요』(하), 평양: 과학원출판사.
 김병제(1980), 『방언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 한국문화사]
 김병제(1988), 『조선언어지리학시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 탑출판사]
 김영배(1972), 미래시제의 한 고찰, 『동악어문논집』 6, 43-53.
 김영배(1973), 평안방언의 ‘듣다’[聞]에 대하여, 『양주동박사고희기념논문집』, 탐구당, 186-200.
 김영배(1976), 방언접촉의 한 고찰, 『국어학』 4, 83~91. [김영배(1997ㄱ)]
 김영배(1977), 『평안방언의 음운체계연구』(자료편),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영배(1978), 평안방언의 비구개음화, 『한글』 161, 199-202.
 김영배(1979), 평안방언의 형태론적 고찰, 『성곡논총』 10, 246-290.
 김영배(1981), 황해도지역방언연구, 『국어국문학논집』 11, 1-37.
 김영배(1982), Ross 목사의 저작과 평안방언, 『한국방언학』 2, 1-12.
 김영배(1983), Corean Primer의 음운과 표기, 『동악어문논집』 17, 45-58.
 김영배(1984ㄱ), 『평안방언연구』, 동국대출판부.
 김영배(1984ㄴ), 평안방언의 의문종결어미, 『박태권선생회갑기념논총』, 제일문화사, 91-99.

- 김영배(1985ㄱ), Corean Primer의 어휘(상): 한자어를 중심으로, 『어문론총』(전남대) 7·8, 15-22.
- 김영배(1985ㄴ), Corean Primer의 어휘(하): 고유어 중심으로, 『어문론지』(충남대) 4·5, 363-372.
- 김영배(1985ㄷ), i모음역행동화와 그 개재자음, 『한국문화연구』(경기대) 2, 101-116.
- 김영배(1986), 북한방언의 연구에 대하여, 『국어생활』 5, 79-90.
- 김영배(1987), 평안방언과 함경방언의 경계, 『우해이병선박사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357~374. [김영배(1997ㄱ)]
- 김영배(1988), ‘ㅈ·ㅊ’음의 실험음성학적 한 고찰, 『동국대학교논문집』 27, 1-49.
- 김영배(1989), 평북방언의 주격 /-레/에 대하여, 『송하이종출박사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561-570.
- 김영배(1992), 평안방언 연구 현황과 과제, 『남북한의 방언연구』, 경운출판사, 329-363.
- 김영배(1997ㄱ), 『평안방언연구(증보)』, 태학사.
- 김영배(1997ㄴ), 『평안방언연구(자료편)』, 태학사.
- 김영배(1998), 서북방언, 『새국어생활』 8-4, 국립국어연구원, 51~73.
- 김영황(1982), 『조선어방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한국문화사]
- 김이협(1980), 평북방언 <천자문>, 『방언』 3, 137-149.
- 김이협(1981),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홍실(2009), 평북 초산지역어의 종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한민국 학술원(1993), 『한국언어지도집(Language Atlas of Korea)』, 성지문화사.
- 도덕보(1976), 『피양말』, 유인본.
- 리윤규·심희섭·안운(1992), 『조선어방언사전』, 연변인민출판사.
- 박정남(1982), 평북 정주지방의 방언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화염(2008), 평안도 방언 연구: 중국 길림성 통화지역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신애(2010), 평안 방언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국어학』 58, 231-291.
- 소신애(2014), 대방언권 자료집의 체제와 성과, 『방언학』 20, 37~72.
- 소신애(2022), 평양 지역어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 『언어와 정보 사회』(서강대) 45, 109-144.
- 신홍예(1997), 중국 심양 지역의 평안북도 방언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오진·황대화·김현주(2008), 평안도 서해안 방언의 지칭어·호칭어 연구: 용천·의주(평북)와 문덕·안주(평남)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6-2, 117-143.
- 오영순(2006), 중국 신빈현 백기 조선족촌 평북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한석(1997), 언어생활,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85-212.
- 유창돈(1957), 평북어산고, 『일석이희승선생송수기념논총』, 일조각.

- 이극로(1932), 조선말의 사투리, 『동광』 29, 9~12.
- 이금화(2007), 평양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금화(2014ㄱ), 평북 방언 친족어 연구: 초산지역어를 중심으로, 『방언학』 19, 137-165.
- 이금화(2014ㄴ), 『의주(심양)지역어 텍스트』, 역락.
- 이금화(2015ㄱ), 의주지역어 활용어간의 공시형태론, 『국어국문학』 171, 109-143.
- 이금화(2015ㄴ), 『초산(집안)지역어 텍스트』, 역락.
- 이금화(2019), 평북 <초산>지역어 활용어간 형태소의 유형, 『방언학』 30, 199-229.
- 이금화(2022), 평북방언의 종결어미 연구, 『방언학』 36, 221-254.
- 이금화·최소연(2018), 의주 지역어의 피동사와 피동접미사에 대하여, 『방언학』 28, 149-170.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기동(2001), 북한의 방언구획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15, 139~159.
- 이병근(1998), 석인 정태진과 방언 연구, 『새국어생활』 8-3, 국립국어연구원, 43~57.
- 이병근(2009), 이송녕 선생의 방언 채집과 방언 연구, 『방언학』 9, 211~276.
- 이병근·정인호(1999), 중국 조선어 방언 조사: 원평북방언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75.
- 이병근·정인호(2003), 중국 심양 조선어의 특징,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5.
- 이송녕(1965), 각 고장의 사투리 이야기, 『농원』 2-1(통권 10), 학원사. [심악이송녕전집 11(방언), 2011, 한국학술정보(주)]
- 이송녕(1967), 한국방언사, 『한국문화사대계 V: 한국어발달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323~411. [심악이송녕전집 11(방언), 2011, 한국학술정보(주)]
- 정승철(2014), 한국 방언자료집 편찬의 역사, 『방언학』 20, 7~35.
- 정승철(2018), 『방언의 발견』, 창비.
- 정의향(2008), 서북방언의 어미 -아/어(Y)교체의 실현 양상에 대하여, 『방언학』 7, 153-180.
- 정의향(2010), 평북 철산 지역어의 접미파생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의향(2019), 평안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방언학』 30, 33-57.
- 정인호(2003), 평북방언에서의 ‘ㅈ, ㅉ’의 음변화, 『한국문화』 31, 23-47.
- 정인호(2004), 원평북방언과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대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인호(2007), 소위 ‘비모음화’ 현상의 지리적 분포와 그 성격, 『우리말글』 41, 135~162.
- 정인호(2009ㄱ), 이송녕 선생 소장 평북방언 자료에 대하여, 『방언학』 9, 307~331. [정인호(2014ㄱ:615-634)에 재수록]
- 정인호(2009ㄴ), ㄴ첨가 관련 현상의 방언 비교, 『방언학』 10, 195~219.
- 정인호(2011), 의문형 종결어미의 방언 분화, 『방언학』 14, 85~111.
- 정인호(2014ㄱ), 이송녕 선생의 평사 학생 채집 평북방언 자료, 『이송녕의 방언채집 자료』, 태학사.
- 정인호(2014ㄴ), 평북방언 종결어미의 방언음운사적 검토, 『방언학』, 107-131.
- 정인호(2016), 평북방언의 선어말어미 고찰, 『방언학』 24, 267~292.
- 정인호(2019), 북한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방언학』 30, 5-31.

- 정태진·김병제(1947), 『조선고어방언사전』, 일성당서점. [2006, 민지사]
-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 집필조(1985),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 민족출판사.
- 최명옥(1985ㄱ), 존 로스의 *Corean Primer*(한국어 초보)와 평북 의주 지역어, 『국어학논총(소당 천시권박사 화갑기념)』, 형설출판사, 703-724.
- 최명옥(1985ㄴ), 서북방언의 문서술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방언』 8, 57-97.
- 최명옥(1985ㄷ),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음운론: 평북 의주지역어를 중심으로, 『인문연구』(영남대) 7-4, 713-746.
- 최명옥(1986),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음운체계: 평북 의주지역어를 중심으로, 『국어학신연구(약천 김민수교수 화갑기념)』, 탑출판사, 749-763.
- 최명옥(1987), 평북 의주지역어의 통시음운론, 『어학연구』 23-1, 65-90.
- 최명옥(1992), 북한의 방언론, 『어학연구』 28-3, 641-655.
- 최명옥(1998), 국어의 방언 구획, 『새국어생활』 8-4, 국립국어연구원, 5~29.
- 최명옥(2001), 서북 방언, 『방언학 사전』, 태학사.
- 최명옥(2006), 활용어간의 공시형태론: 평북 운전지역어를 중심으로, 『김규철 선생 퇴임기념 논총』, 역락.
- 최명옥(2010), 평안북도 운전지역어의 서법에 대하여, 『방언학』 11, 207-250.
- 최명옥(2015), 『한국어의 방언』, 세창출판사.
- 최임식(1984), 19세기후기 서북방언의 모음체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학근(1978),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 최학근(1980), 평안방언연구(1), 『한국방언학』 1, 278-297.
- 한국방언학회 편(2014), 『이송녕의 방언채집 자료』, 태학사.
- 한성우(2003), 의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영순(1956ㄱ), 평안북도 의주·피현 지방 방언의 어음론적 특성(상), 『조선어문』 4, 64-81.
- 한영순(1956ㄴ), 평안북도 의주·피현 지방 방언의 어음론적 특성(하), 『조선어문』 5, 47-63.
- 한영순(1967), 『조선어방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황대화(1998), 『조선어 동서방언 비교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한국문화사]
- 황대화·양오진(2009), 『서북방언의 친족어연구』, 제이앤씨.
- 宣德五·趙翊·金淳培(1990), 『朝鮮語方言調査報告』, 延邊人民出版社.
- 小倉進平(1944ㄱ), 『朝鮮語方言の研究』(上), 東京: 岩波書店. [이상규·이순형 교열(2009), 『조선어방언사전』, 한국문화사]
- 小倉進平(1944ㄴ), 『朝鮮語方言の研究』(下), 東京: 岩波書店. [이진호 역주(2009), 『국어방언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考一<缺>語考』, 京城: 東都書籍. [이진호 역주(2012), 『한국어방언학시론』, 전남대학교출판부]
- Ross, J.(1877), *Corean Primer*,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역대한국문법대계(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1979, 탑출판사) 2]02에 재수록]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제3부/ 주제 발표

황해도 방언의 지리적 분화 양상

장승익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교수

namoo119@gmail.com

1. 서론

1.1. 황해도 방언은 다른 방언에 비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김영배(1981/1997), 곽충구(1995), 정원수(2002), 강순경(1999), 황대화(2007) 등과 국어 방언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여러 논저들을 통해 그 특징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¹⁾ 김영배(1981/1997)는 황해도 출신 월남민을 대상으로 각 군별

1) 황해도 방언 관련 연구 업적과 동향은 곽충구(1992, 2001), 장승익(2019)를 참고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는 이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황해도 방언 관련 학위 논문으로 장승익(2018/2022나), 최소연(2020/2022)이 있고, 소논문으로는 최소연(2018, 2019), 소신애(2022, 2023), 장승익(2020, 2022나, 2022다, 2023)이다. 장승익(2018/2022)은 한국 전쟁 당시 송화, 은율 등지에서 월남하여 형성한 정착 마을 주민들의 언어를 한 연구이다. 최소연(2020/2022)은 황해도 안악 출신 재중 동포를 대상으로 안악 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소연(2018)은 안악 지역어의 모음조화 양상을, 최소연(2019)는 안악 지역어의 'j' 활음화에 대해 정리하였다. 소신애(2022, 2023)는 황해도 장연 출신 화자의 자료를 통해 각각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 및 그 변화 과정(특히 ㅅ, ㅆ, ㅈ의 음가)을 정밀하게 기술한 연구이다. 장승익(2020)은 황해도 안악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발화에서 음운론적인 특징을 확인하였다. 장승익(2022a, 2022b, 2023)은 남한에 존재하는 황해도 월남민 공동체에 대한 일련의 연구이다.

제보자를 선정하여 음운론적 측면에서 지리적인 분화 양상을 살핀 바 있다. 그리고 곽충구(1995)는 황해도와 북측 강원도 방언의 친족 명칭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어휘적 측면에서 황해도 방언의 지리적 분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국어 방언 구획 연구에서 황해도 방언은 중부 방언권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서로 다른 방언권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었다.²⁾ 아래 <표 1>에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구분	방언 구획	하위 지역	비고
이송녕(1967)	평안도 방언	사리원 이북	
	경기도 방언	사리원 이남	
김병제(1988)	서북 방언	황해도 대부분 지역	
	중부 방언	황해남도 배천, 연안, 청단 황해북도 토산, 금천	
김성근(2005)	서북 방언	황해북도	
	중부 방언	황해남도	
김영환(2013)	서북 방언	황해도 북부	
	중부 방언	황해도 대부분 지역	

<표 1> 황해도 방언을 두 개의 방언권으로 구획한 연구

<표 1>을 보면 연구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황해도의 남부 방언은 중부 방언에, 북부 방언은 서북 방언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송녕(1967)에서는 사리원 이북을 평안도 방언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중부 방언으로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는 사리원 이북이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³⁾ 김병제(1988: 208-209)에서는 황해도 대부분 지역을 서북 방언 지역으로 처리하고 남부의 배천, 연안, 청단, 토산, 금천만 중부 방언 지역에 포함시켰다. 이 다섯 개 지역은 분단 이후 개편된 행정 구역 명칭으로, 분단 이전의 행정 구역으로는 각각 연백(배천, 연안, 청단)과 금천(토산, 금천)에 해당한다. 즉, 김병제(1988)는 경기도에 인접한 연백과 금천 두 지역만 중부 방언에 속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김성근(2005: 33)은 황해남도는 중부 방언에 가깝고 황해북도는 서북 방언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⁴⁾ 그런데 황해남북도는 지리적으로 남-북보다는 동-서로 나뉘어 있기

2) 북한 방언의 방언 구획에 대한 연구사는 정인호(2019: 13-18)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3) 이에 대해 김영배(1992: 355)는 봉산, 황주, 안악, 은율이 사리원 이북 지역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4) 이 연구에 황해남북도 방언을 각기 다른 방언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황해도 방언 전체를 중부 방언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김성근 2005: 33)라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연구들과 하위 지역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영황(2013: 168)은 황해도 방언이 대부분 중부방언에 속하고 북부 지역만 서북 방언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였다.⁵⁾

황해도 방언 전체를 중부 방언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김영배(1981/1997: 842)에서도 황해도 북부와 서부(수안, 곡산, 서흥, 신계, 황주, 안악, 은율, 봉산, 송화, 장연, 신천 등)은 평안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전이 지역 방언의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곽충구(1994: 329)에 따르면 이 방언 친족 명칭의 방언 분화는 접미 요소에서 잘 확인되는데, 특히 ‘-아지’형과 ‘-어지’형이 남북의 분화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황해도 남부와 북부에는 어느 정도 뚜렷한 방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접 지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함경도, 강원도와 접해 있는 황해도 동부의 방언이 서부 지역과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곽충구(2001: 409)는 황해도 방언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이 방언의 하위 지역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1)

- ㄱ. 서북부: 황해도 방언의 독자적 특징 많이 보임
- ㄴ. 북부(황주 등): 평안도 방언의 영향 큼
- ㄷ. 남부(금천, 연백): 경기도 방언과 흡사함
- ㄹ. 동부(신계, 곡산): 함경도 방언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음

(1)을 보면 다른 방언권과 인접한 지역에서 접촉 방언적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언 분화에는 이 지역의 지형적 특징(대동강, 예성강, 낭림산맥, 멸악산맥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곽충구 2001: 409).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황해도 방언 어휘 자료를 이용하여 이 방언이 어떠한 분화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 방언의 분화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개별 지역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황해도 방언 어휘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방언 분화 양상을 살폈다. 2장에서는 이 글에서 분석하는 자료 목록을 제시하고 그 자료적 성격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몇 가지 단어를 통해 그 분화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으로 보아 김성근(2005)는 황해남북도를 각기 다른 방언권으로 처리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 이 책의 중부방언을 논하는 자리에는 황해도 방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김영황(2013: 200-201)에서는 중부 방언을 ‘서울소방언, 경기소방언, 충청소방언, 강원소방언’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황해도 방언에 대한 기술은 빠져 있다.

2. 분석 자료 목록

이 글에서 분석한 자료는 남한의 황해도 지역 군민회 등에서 편찬한 시지·군지·면지(이하 군지)의 방언 자료, 그리고 황대화(2007)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자료이다.⁶⁾ 먼저 분석에 활용한 황해도 지역 군지 목록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⁷⁾

지역	서명	출간연도	단어 수	구성
곡산	곡산군지	1997	383	방언 특징 기술 방언-표준어 목록
금천	금천군지	1980	32	표준어-방언 목록
	금천군지	1999	61	방언 특징 기술 표준어-방언 목록
벽성	벽성군지	1987	115	방언 특징 기술 표준어-방언 목록
송화	송화군지	1992	690	서문 ⁸⁾ , 방언-표준어 목록
수안	수안군지	1992	390	서문, 방언-표준어 목록
신계	신계군지	1988	420	서문, 방언-표준어 목록
신천	신천군지	1984	1269	서문, 표준어-방언 목록
안악	안악군지	1976	320	서문, 방언-표준어 목록
연백	황해도 연백군 계궁면지	1985	124	방언-표준어 목록
은율	은율군지	1975	478	서문, 방언-표준어 목록
	황해도 은율군지	2007	514	방언-표준어 목록
장연	장연군지	1995	154	방언 특징 기술 표준어-방언 목록
재령	재령군지	1999	504	서문, 표준어-방언 목록
평산	평산군지	1993	252	서문, 방언-표준어 목록
해주	해주시지	1994	276	서문, 표준어-방언 목록
황주	황주군지	1989	308	방언 특징 기술 방언-표준어 목록
계			6,290	

<표 2> 분석 자료1(황해도 지역 군지 목록)

6) 자료 선정에는 곽충구(1992: 311)에서 소개하고 있는 어휘 자료 목록을 참고하였다.

7) 곽충구(1992: 311)에는 『연백군지』(1986), 장연군 『해안면지』(1976), 장연군 『대구면지』(1982) 등도 소개되어 있으나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황해도지』(1982)는 하위 지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검색 과정에서 『웅진군지』(1989)도 확인하였으나 아직 목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서흥 지역은 군지나 면지가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8) 서문에 송화 지역 방언에 대한 기술이 있으나 분량이 매우 적어 이 방언의 특징을 기술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표 2>의 자료들은 한국 전쟁 당시 월남한 황해도 출신 인사들이 펴낸 군지이다. 각 지역의 역사 및 문화를 정리하는 책의 한 부분에 고향의 말을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이 정리되어 있다. 출간 시기는 1970~2000년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1980~90년대에 출판되었다. 이 자료에는 자료 수집 방법이나 제보자 인적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자료에 있는 다음과 같은 언급은 자료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2)

ㄱ. 방언 연구는 먼저 현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 분단의 현실적인 여건 아래서 불가능한 일이므로 현재 월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평산군지』(1993: 498) 중에서

ㄴ. 여기에 소개하는 재령의 방언은 재령에서 자라며 항상 쓰고 있던 재령의 말을 서울에 와서 여러 지방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사투리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재령의 사투리를 정리한 것이다.

- 『재령군지』(1999: 294) 중에서

ㄷ. 8·15 해방 이후 곡산 지방은 공산북한 체제에 포함되어 소위 '문화어'(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언어)의 영향이 어느 정도 끼쳤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우리 선조(곡산인)들의 얼이 스며 있는 고향어를 기록에 남기어 그 독특한 언어문화를 전승하는 것이 월남한 곡산군민들의 한 사명이기도 하다.

- 『곡산군지』(1997: 248) 중에서

ㄹ. 40대 후반의 본도민들은 다음에 열거하는 방언을 훑어보고 지난날 고향에 살며 그곳에서의 대화를 회상하면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 『송화군지』(1992: 180) 중에서

위의 내용을 보면, 이 자료에 실린 단어들은 월남 주민들(ㄱ)이 고향에 있을 때 사용한 말(ㄴ, ㄷ)을 기록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ㄹ)에는 이 말들을 40대 후반이면 수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1940년대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의미가 된다. 즉 <표 2>의 방언 자료는 월남 당시(1950년대)에 언어 습득이 완료된 1세대 주민들의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한 두 번째 자료는 황대화(2007: 317-448)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황해도 방언 어휘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표준어 항목에 대응하는 방언형 4,600여 단어가 수록되어 있으며,⁹⁾ 각 방언형에는 사용 지역이 시·군 단위로 표시되어 있다.¹⁰⁾ 이 자료에는 연구자가 현지답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황대화 2007: 17-18). 구체적으로는 小倉進平(1944)부터 河野六郎(1945), 김병제(1959, 1980, 1988), 김영황(1982) 등 여러 연구 논저에 있는 황해도 방언을 취합하여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¹¹⁾ 이렇게 본다면 이 자료에 실린 황해도 방언은 대략 1910년부터 1950년대 사이에 언어 습득을 완료한 자료 제공인들에게 수집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¹²⁾ 황해도 지역의 군지와 황대화(2007)의 자료를 종합하여, 이 글에서는 이 자료가 대략 20세기 전반기의 황해도 방언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¹³⁾

3. 지리적 분화 양상

이 장에서 분석하는 단어는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 황해도 방언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 열다섯 지역 이상의 자료가 확인된 것’과 같은 기준을 통해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11개 단어이다.¹⁴⁾

(3) 가위, 여우, 바위, 소꿉질, 대님, 고추, 거위, 칼국수, 원숭이, 서랍, 잠자리

3.1. 가위

-
- 9) 일부 단어는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표준어 대신 뜻을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예) 눈달치 <방언> 알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물고기. [황남-웅진]
- 10) 일부 단어의 경우, 세부 지역 표시 없이 ‘황해’, ‘황남’, ‘황북’과 같이 표시된 것도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단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도 단위의 지역 표시가 그 도의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1) 그러나 이 자료가 기초사 자료를 물리적으로 통합해 놓은 것은 아닌 듯하다. 전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단어들의 분포 지역이 기존 자료와 차이를 보이는 예가 발견되었다. 3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12) 이는 小倉進平이 1910년대 보통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황대화(2007)의 가장 젊은 제보자의 출생 연대가 1930년대 중후반(1995년 조사 당시 59세)임을 감안한 것이다.
- 13) 두 자료는 하위 지역 명칭에서 차이를 보인다. ‘군지’는 분단 이전의 행정 구역을 따르고 있는 데 반해 황대화(2007)는 분단 이후 개편된 행정 구역 명칭을 썼기 때문이다. 이를 같이 분석하기 위해 행정 구역을 분단 이전의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아울러 이 자료들은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먼저, 이 자료는 통일된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수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하위 지역당 단어의 수와 목록이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ㄱ, ㄷ’의 단순 모음 여부, ‘ㄱ, ㅈ’의 변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 14) 음운론적인 특징만을 보이는 단어는 배제하였다.

구분	가우	가워	가왜	가이	가새	가세	가시	가애	가예
곡산	0			0	0				
금천	0				0				
벽성	0								
봉산	0	0	0	0		0			
서흥	0	0	0	0	0		0	0	
송화		0							
수안	0	0	0		0				
신계	0				0	0			
신천		0							
안악	0	0							
연백	0				0				
용진	0								
은율		0							
장연		0							
재령	0	0							
평산	0				0	0		0	
해주	0								
황주	0	0	0	0	0	0			0

〈표 3〉 ‘가위’의 분포

황해도에서 ‘가위’의 방언형은 ‘가우’계, ‘가워’계, ‘가이’계, ‘가새’계, ‘가애’계가 확인되었다. 河野六郎(1945/1979: 306)에 따르면 ‘가위(kawi)’형이 ‘연백(연안), 해주, 용진(강령 포함), 벽성(태탄), 은율, 안악, 재령, 서흥, 황주, 수안, 곡산, 신계, 금천(토산 포함)’에서 확인되어 황해도 방언에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였는데 <표 3>에는 이 단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¹⁵⁾ <표 3>을 보면 ‘가위’의 방언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가우’형이다. 河野六郎(1945/1979: 306)에는 ‘가우(kau)’가 연백(연안), 수안, 곡산 등 동부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었고, 김병제(1980: 317)에는 ‘서흥(연탄), 평산(린산)’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표 3>에서는 ‘송화, 신천, 장연’ 등 서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가우’가 확인되어 이 형태가 동에서 서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가워’계에는 ‘가워’형과 ‘가왜’형이 확인되었다. 이 단어들은 ‘봉산, 서흥, 송화, 수안, 신천, 안악, 은율, 장연, 재령, 황주’ 등 황해도 북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워(kawe)’형이 평안남도(중화, 상원, 평양)에 분포한다는 河野六郎(1945/1979: 306)이나 ‘가왜’가 평안남도(룡강, 온천, 강서)에서 확인된다는 김병제(1980: 317)에 비추어 보아 황해도 북부에 분포하는

15) 김영배(1981/1997: 853)에도 ‘송화, 은율’을 제외한 16개 지점에서 ‘바위’형이 확인되어 이 글의 자료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궤’계는 평안남도 방언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새’계에는 ‘가새, 가세, 가시’ 등이 나타났는데, 이 단어들은 ‘곡산, 금천, 봉산, 서흥, 수안, 신계, 연백, 평산, 황주’ 등 황해도 동부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小倉進平(1944: 659)에 따르면 황해도 방언은 ‘△[s]’가 모두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글의 자료에서 ‘가새’형이 나타나는 것은 특 징적이다. 이는 ‘가새’형이 동북 방언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3.2. 여우

구분	여위	여쾌이	영쾌이	여이	여호	영호	야우
곡산							0
금천	0			0			
벽성	0				0		
봉산						0	
서흥	0						
송화			0				
신계	0			0			
신천	0		0				
안악		0					
용진	0						
은율		0					
장연		0					
재령	0						
평산	0			0			
해주	0						
황주	0						

〈표 4〉 ‘여우’의 분포

‘여우’의 황해도 방언은 ‘여위’계, ‘여쾌이’계, ‘여이’계, ‘여호’계, ‘야우’계로 나타났다. ‘여위’형의 분포는 황해도 대부분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河野六郎(1945/1979: 331)에는 ‘여위(joui)’형이 ‘장연(몽금포), 송화, 은율, 안악, 곡산’에서도 나타나 거의 전지역 분포를 보였으나 <표 4>에는 그보다 다소 축소된 모습이다. ‘여쾌이(영쾌이)’는 ‘여호(영호)+쾌이’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河野六郎(1945/1979: 331)에서 제시한 ‘jɔk'wei, jɔŋk'we’ 분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

16) 김병제(1980: 316)에 따르면 ‘가새’형은 ‘장연(룽연), 곡산, 신계’ 지역에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글의 분석 자료에는 ‘장연’에서는 이 단어가 확인되지 않았고 황해도 동부 지역에서는 널리 확산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게 나타났으며, 황해도 서북 지역에서 확인되었다.¹⁷⁾

‘여이(joi)’형은 河野六郎(1945/1979: 331)에서 제주도 방언에서만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김병제(1980: 423)에 따르면 평안남도(룡강, 온천, 강서), 강원도(평강)에서도 쓰인다. 즉, 서북·동북 방언에서도 이 단어가 확인되는 것이다. 북측 강원도와 인접한 동부 지역(신계, 평산, 평산, 금천)에서 ‘여이’가 확인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¹⁸⁾

3.3. 바위

구분	방쿠(들)	방귀(들)	방구들	방구들	방귀	방우	방위	바우	바이
곡산								0	
금천								0	
벽성		0				0	0		
봉산									0
서흥		0						0	
송화	0	0							
수안								0	
신천		0							
안악	0								
연백		0		0			0		
용진		0					0		
은율	0	0					0		
장연		0			0		0		
재령		0					0		
평산								0	
해주		0							
황주			0						0

〈표 5〉 ‘바위’의 분포

‘바위’의 황해도 방언은 ‘방쿠’계와 ‘방우’계, ‘바우’계, ‘바이’계가 있다. ‘방쿠’계는 ‘방쿠’형과 ‘방구’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방언에서 우세하게 쓰이는 것은 ‘방쿠’형이다. 河野六郎(1945/1979: 191)에서는 어중 ㄱ 유지형인 ‘pangwu’형이 황해도 방언에서 이 ‘방귀(pank'wi)’와 같이 독특하게 변화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쿠’계의 지역 분포는 ‘벽성, 서흥, 송화, 신천, 안악, 연백, 용진, 은율, 장연, 재령, 해주’로 황해도 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다.

17) 河野六郎(1945/1979: 331)에는 ‘jok^hwei’가 장연, 은율, 안악에서 나타나고 ‘joŋk^hwe’가 장연(몽골포 포함), 송화, 은율, 안악, 신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18) 그밖에 ‘야우’(곡산), ‘여호’(벽성), ‘영호’(봉산)가 일부 확인된다.

‘방우’계는 ‘방우(벽성), 방위(벽성, 연백, 웅진, 은율, 장연, 재령)’에서 확인되었다. 이 단어의 형성에 대해 이익섭 외(2008: 275)에서는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해 ‘ㅇ’이 첨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와 황해도 동부 지역에서 ‘바우’형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김병제 1980: 379) 이에 인접한 황해도 서부 지역에서 모음충돌 회피 전략으로 ‘방우’형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방쿠’계와 ‘방우’계는 그 분포 지역이 꽤 겹치는 반면 ‘바우’계는 앞선 두 부류와 달리 황해도 동부(곡산, 금천, 서흥, 수안, 평산)에서 확인된다. ‘서흥’은 ‘방쿠’계와 ‘바우’계가 같이 확인되는 전이 지역적 성격을 보인다.¹⁹⁾

3.4. 소꿍질

구분	세간	세간 녹질	세간 놀이	시간 놀이	시간 살이	시간 장난	시간 치	도꿍 장난	도꾸방 살이	소꿍 장난	바깸 살이	빠깸 살이	바빠 놀이	동구 막질
곡산									0					
금천										0				
벽성				0	0						0	0		
서흥									0					
송화		0	0											
수안										0				
신계								0						
안악		0	0											
연백							0							
웅진													0	0
은율	0		0											
장연	0		0											
재령			0											
평산										0				
해주						0								

〈표 6〉 ‘소꿍질’의 분포

‘소꿍질’의 방언 분포는 남한 지역에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는데(이익섭 외 2008: 184-185),²⁰⁾ 황해도 방언에서도 다양한 방언형이 확인되었다. 이 방언에서는 ‘세간’계, ‘도꿍’계, ‘바깸’계, ‘소꿍’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세간’계에는 ‘세간’계와 그 고모음화형인 ‘시간’계가 있다. 이 단어들은 ‘세간(은율, 장연), 세간녹질(송화, 안악), 세간놀이(송화, 안악, 은율, 장연, 재

19) 그밖에 ‘바위’에서 반모음이 탈락한 ‘바이’형이 ‘봉산, 황주’에서 나타난다.

20) 이익섭 외(2008: 184-185)에 따르면 ‘소꿍질’의 남한 지역 방언은 ‘소꿍질’계, ‘통꿍질’계, ‘종꿍질’계, ‘동두깨비’계, ‘반두깨비’계, ‘바꿈살이’계, ‘새금박질’계, 기타 등 총 일곱 계열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80여 개의 방언형이 확인된다.

령), 시간놀이(벽성), 시간살이(벽성), 시간장난(해주), 시감치(연백)과 같이 황해도 서부 지역에 분포하였다. 김병제(1980: 279)를 보면 ‘세간’계가 황해남도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평안남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도 확인되었다.²¹⁾

다음으로 ‘도곶’계는 ‘도곶장난(신계), 도꾸방살이(곡산, 서흥)’ 등 황해도 동북부 지역에 분포하였다. ‘도곶’계는 남한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이익섭 외 2008: 184-185), 북한 지역에도 강원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김병제 1980: 279). 이를 볼 때 황해도 동북부에 나타나는 ‘도곶’계는 강원도, 평안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소곶’계의 ‘소곶장난’은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황해도 동남부 지역(금천, 평산)에서 확인되었다. 이것은 경기도 방언에서 ‘소곶’계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²²⁾

3.5. 대님

구분	고매끼	고메끼	고매기	대님	덴님	다님매끼	대님매끼	다리매끼	다림매끼	다리마끼
곡산	0							0		
금천					0	0	0		0	
벽성	0			0						
봉산					0					
서흥	0									
송화	0									
수안	0								0	
신계	0							0		
신천	0									
안악	0									
연백										0
웅진	0			0						
은율	0									
장연	0		0							
재령	0									
평산					0					
해주	0			0						
황주		0								

〈표 7〉 ‘대님’의 분포

21) 김병제(1980: 248)에 제시된 ‘세간’계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시간살이: 황남(태탄) *시간장난: 황남(해주), *세간살이: 황남(장연, 은율), 평남(룡강, 온천), 강원(원산) *세감질: 함북(무산, 회령).

22) 그밖에 ‘바깸’계가 서남부 지역(벽성, 웅진)에서 확인되었다. ‘바깸’계는 남한 방언에서 주로 서남 방언에서 나타나고(이익섭 외 2008: 184-185), 북한 방언에서는 이 계열에 해당하는 ‘바꿈질’이 함북(명간, 명천, 무산)에서 확인된다. 현재로서는 이 지역들 사이의 지리적 인접성에 의한 연관 관계를 고려하기 어려울 듯하다.

황해도 방언에서 ‘대님’은 ‘고매끼’계와 ‘다님’계, ‘다님매끼’계로 나뉜다. 먼저 이 방언에서 두루 쓰이는 형태는 ‘고매끼’형인데, 이것은 문화어에 편입된 단어로 북부 방언에서 널리 확인된다. 이 단어는 ‘바지’를 의미하는 ‘고의’에 ‘새끼(끈)’을 뜻하는 ‘매끼’가 결합한 형태이다.

다음으로 ‘다님’계에는 ‘다님’형과 ‘댄님’형이 나타났다. 그 분포는 ‘다님(벽성, 옹진, 해주), ‘댄님(금천, 봉산, 평산)’으로 주로 황해도 남부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포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다님, 대님, 댄님’ 형이 주로 쓰이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님매끼’계는 주로 황해도 동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이 부류는 다시 ‘다님매끼’계와 ‘다리매끼’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님매끼’계는 황해도 이남 지역에서 쓰이는 ‘다님(대님)’에 ‘매끼’가 결합한 형태로,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금천’ 지역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다리매끼’계는 ‘다리매끼(곡산, 신계), 다림매끼(금천, 수안)’에 분포한다. 이는 북측 강원도와 함경도를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다리-’형과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³⁾

3.6. 고추

구분	당추	맹추	맹가지	맹그지	맹구지	맹가지	고치	꼬추
곡산	0					0		
금천	0			0				
벽성	0							
봉산	0			0	0		0	
서흥	0	0						
송화	0							
수안	0		0					
신계	0							
신천	0							
안악	0							
연백	0							
옹진	0							
은율	0							
장연	0							
재령	0							
평산	0			0				0
해주	0							
황주	0	0		0				

〈표 8〉 ‘고추’의 분포

23) 김병제(1980: 248)에 제시된 ‘다리-’형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다루매끼: 강원(고산, 안변) *다르메: 함남(홍원, 퇴조) *다리매: 함남(고원, 금야, 정평, 함주, 오로, 신흥, 북청) *다리매끼: 황북(토산, 신계, 곡산), 강원(법동) *다리맹이: 강원(천내, 법동) *다림매끼: 황북(수안, 금천)

‘고추’는 황해도 방언에서 ‘당추’계, ‘덴가지’계, ‘고추’계로 나뉜다. 이 방언 전체에서 확인되는 ‘당추’형은 고추의 유의어 ‘당초(唐椒)’에서 온 말이다. ‘덴가지’계는 ‘덴가지(수안), 덴그지(금천, 봉산, 평산, 황주), 덴구지(봉산), 땡가지(곡산)’등 황해도 동부에 주로 분포한다. 이 단어는 ‘당(唐)+가지(茄子)’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²⁴⁾

3.7. 거위

구분	계사니	당아니	당아지	거위
곡산	0			
금천	0			0
벽성		0	0	
서흥	0			
송화		0		
수안	0			
신계	0			
신천		0	0	
안악	0			
연백	0			
용진			0	
은율	0	0		
장연	0	0	0	
재령	0	0	0	
해주		0		
황주	0			

〈표 9〉 ‘거위’의 분포

황해도 방언에서 ‘거위’는 ‘계사니’와 ‘당아니’계, ‘거위’와 같이 나타난다. ‘계사니’형이 거의 전역에서 확인되며, 이는 ‘고매끼(대님)’와 마찬가지로 문화어에 편입된 단어이다.²⁵⁾ 이 방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당아니’계이고 그 분포는 주로 황해도 서부이다. 이 단어는 ‘거위’의 유의어 ‘당안(唐雁)’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당아지’와 같은 계열인 ‘당아지’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²⁶⁾ 그리고 ‘거위’는 ‘금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경기도

24) 그밖에 ‘고추’계는 ‘고치(봉산), 꼬추(평산)’에서 나타난다.

25) 이익섭 외(2008: 248-249)를 보면 북한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양구’에서도 ‘계사니’형이 확인된다.

26) ‘당아지’는 ‘당안’과 ‘-아지’의 결합형으로 분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접미 요소인 ‘-아지’는 동물의 새끼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가 아닌 동물에 ‘-아지’가 결합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추정일 것이다. 다만 전북 방언에 ‘살아지(살쟁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볼 때 ‘당안+아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언과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3.8. 칼국수

구분	낭아국	낭와국	낭와쪽	낭화국	나마쪽	나마국	제비국	국제비	칼국
곡산		0							0
벽성		0		0					
봉산	0						0		
서흥	0						0		
송화	0	0						0	
수안		0					0		
신천			0		0				
안악	0							0	
용진	0								
은율	0	0							
장연	0	0					0		
재령	0		0					0	
평산		0							0
해주				0					
황주	0					0	0		

〈표 10〉 ‘칼국수’의 분포

황해도 방언에서 ‘칼국수’는 ‘낭화국’계, ‘제비국’계, ‘칼국’계로 나뉜다. ‘낭화국’은 칼국수의 유의어 ‘낭화(浪花)’에 ‘국’이 결합한 말인데, 황해도의 전 지역에서 확인된다. ‘제비국’계는 ‘제비국’형과 ‘국제비’형이 있는데, 이 부류는 ‘봉산, 서흥, 송화, 수안, 안악, 장연, 재령, 황주’에 분포하고 있다. 김병제(1980: 264)에 따르면 평남(룡강, 남포, 온천, 양덕, 신양)에서 ‘제비국’형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포가 황해도 북부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그밖에 ‘칼국’은 ‘곡산, 평산’에서 확인되었다.

3.9. 서랍

구분	떼랍	떼랍	뽕합 ²⁷⁾	떼다지	서랍
곡산	0	0			
금천	0				0
벽성	0				0
서흥	0				0
송화	0			0	
수안	0	0			
신계	0	0			
신천	0			0	

안악	0	0
용진	0	0
은율	0	0
장연	0	0
재령	0	0
평산	0	0
해주	0	0
황주	0	0

〈표 11〉 ‘서랍’의 분포

황해도 방언에서 ‘서랍’은 문화어인 ‘빠람’계와 ‘서랍’계, 그리고 ‘빠랍’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²⁷⁾ 문화어 ‘빠람(빨함)’형은 이 방언에서 ‘곡산, 수안, 신계, 황주’와 같이 황해도 동북부에서만 확인된다. ‘서랍’은 황해도 서부 대부분 지역(벽성, 안악, 은율, 장연, 재령, 용진, 해주)과 동부 일부 지역(금천, 서흥)에 분포하는데 이는 경기도 방언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방언에서는 ‘빠랍’형이 우세한 가운데 평안도·함경도와 인접한 동북부 지역에서 ‘빠람’형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울러 이 방언 전체에서 확인되는 ‘빠랍’형은 ‘빠람’과 ‘서랍’의 혼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0. 원숭이

구분	젠내비	젠내비	젠내비	젠내비	웬생이	원세이	원서이	원새	원세
곡산								0	
금천					0	0	0	0	0
봉산		0			0		0		
서흥						0	0		0
송화	0								
수안	0								
신계								0	
신천	0								
은율	0								
장연				0					
재령	0								
해주	0								
황주		0	0						

〈표 12〉 ‘원숭이’의 분포

황해도 방언에서 ‘원숭이’는 ‘젠내비’계와 ‘웬생이’계가 비교적 뚜렷한 분화

27) ‘빠람’을 ‘빨(빠--+ㄹ)+함(函)’과 같이 오분석한 결과로 보인다.

28) ‘빠다지’형도 ‘송화, 신천’에서 확인되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이 형태는 동남서남 방언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경가강원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인된다(이익섭 외 2008: 102-103).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해도 서부 지역에는 ‘쟌내비(송화, 신천, 은율, 재령, 해주), 쟌나비(장연)’이 분포하고 있다. ‘원생이’계는 ‘원생이(금천, 봉산), 원세이(금천, 서흥), 원서이(금천, 봉산, 서흥), 원새(곡산, 금천, 신계), 원세(금천, 서흥)’과 같이 황해도 동부 지역에 분포하는데 이는 강원도 방언과 그 어휘적 특성을 공유한다. 물론 동부 일부 지역에는 ‘쟌내비(수안), 쟌내비(봉산, 황주), 쟌내미(황주)’와 같이 ‘쟌내비’계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분포는 본래 ‘쟌내비’계가 황해도 방언형이었는데 강원도와 인접한 동부 지역에서 그 영향을 받아 ‘원생이’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11. 잠자리

	장 잘 기	장 절 기	잠 잘 기	젼 자 리	쟁 자 리	젠 자 리	젠 재 리	쟌 잘 나 비	잔 잘 래 비	잔 잘 래 비	잠 잘 래 비	쟌 잘 래 기	꼬 잔	꼬 장	안 지 리	안 질 퐁	안 질 뱅 이	얏 을 퐁
곡산				0				0			0							
금천						0				0								
벽성	0																0	0
봉산				0	0				0				0	0	0			
서흥				0														
송화	0	0																
수안				0														
신계									0		0							
신천	0																	
안악	0		0															
연백																		0
용진																0		
은율	0														0			
재령	0																	
평산				0														
황주						0	0						0	0				

〈표 13〉 ‘잠자리’의 분포

‘잠자리’의 황해도 방언형은 ‘장잘기’계, ‘젼자리’계, ‘쟌잘나비’계, ‘꼬잔’계, ‘안지리’계로 나뉜다. ‘장잘기’계와 ‘젼자리’계는 비교적 뚜렷한 경계를 보인다. 먼저, ‘장잘기’계는 ‘장잘기(벽성, 송화, 신천, 안악, 은율, 재령), 장절기(송화), 잠잘기(안악)’과 같이 황해도의 서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반면 ‘젼자리’계는 ‘젼자리(곡산, 봉산, 서흥, 수안, 평산), 쟌자리(봉산), 쟌자리(금천, 황주), 쟌재리(황주)’ 등 황해도 동부 지역에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쟌잘나비’는 ‘쟌자리’와 ‘나비’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단어이다. 이 부류는 ‘쟌자리’계와 같이 황해도 동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중 ‘쟌잘래기’형

은 ‘쟁잘래비’형과 ‘장잘기’의 혼효형으로 보이는데 이 형태가 확인된 ‘봉산’의 전이 지역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황해도 방언 어휘의 지리적 분화 양상을 성글게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어형	방언형	분포 지역	비고
가위	‘가우’계	대부분 지역	
	‘가웨’계	북부	
	‘가새’계	동부	
여우	‘여위’계	대부분 지역	
	‘여쾌이’계	서북부	
	‘여이’계	동부	
바위	‘방쿠’계	서부	
	‘방우’계	서부	
	‘바우’계	동부	
소꿍질	‘세간’계	서부	
	‘도꿍’계	동북부	
	‘소꿍’계	동남부	
대님	‘고매끼’계	대부분 지역	
	‘다님’계	남부	
	‘다님매끼’계	동부	
고추	‘당추’계	전지역	
	‘랭가지’계	동부	
거위	‘게사니’계	대부분 지역	
	‘당아니’계	서부	
	‘거위’계	동남부	
칼국수	‘낭화국’계	전지역	
	‘제비국’계	북부	
서랍	‘빠랍’계	전지역	
	‘빠람’계	동북부	
	‘서랍’계	서부, 동부 일부	
원숭이	‘쟁내비’계	서부, 동부 일부	
	‘원생이’계	동부	
잠자리	‘장잘기’계	서부	
	‘쟁자리’계	동부	

〈표 14〉 황해도 방언 어휘의 지리적 분화

<표 14>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황해도 서부(특히 서북부)에서 확인되는 방언형은 황해도 지역에서 우세하게 쓰이는 형태(예: 가우, 방쿠, 세간)이거나 황해도의 특징적인 형태이다(예: 여쾌이, 당추, 당아니, 낭화국, 잔내비, 장잘기). 둘째, 황해도 동부는 인접 방언의 영향을 받은 어형들이 나타난다(예: 가새, 여이, 바우, 도곶, 소곶, 다님매끼, 덩가지, 거위, 빼람, 웬생이, 잼자리). 셋째, 어휘적인 측면에서 황해도 방언은 남북보다는 동서의 차이가 더 현저하다. 앞으로 누락된 자료를 보충하고 좀 더 많은 어휘들의 양상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논의가 조금 더 선명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순경. 1999. 황해 방언의 모음체계. 언어 24-3. 335-356.
- 곡산군지. 1997. 곡산중앙군민회.
- 곽충구. 1992. 황해도 방언의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남북한의 방언연구. 경운출판사.
- 곽충구. 1995a. 황해도 및 강원도 북부지역 친족명칭의 지리적 분화와 그 역사성. 대동문화연구 30. 309-332.
- 곽충구. 2001. 황해도 방언. 방언학사전. 태학사.
- 금천군지 제2집. 1999. 금천군지편찬위원회.
- 금천군지. 1980. 금천군지편찬위원회.
- 김병제. 1959. 조선어 방언학 개요(상). 사회과학원출판사.
- 김병제. 1980. 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병제. 1988. 조선어 지리학 시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김성근. 2005. 조선어 방언학(조선어학전서 38). 사회과학출판사.
- 김영배. 1981. 황해도 지역 방언 연구 -음운체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논문집 11 [(증보)평안방언연구. 1997. 서울: 태학사. 839-904.에 재수록].
- 김영배. 1992. 평안방언의 연구 현황과 과제. 남북한의 방언연구. 경운출판사.
- 김영항. 1982. 조선어 방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영항. 2013. 개정 조선어 방언학. 태학사.
- 대구면지. 1982. 대구면민회.
- 벽성군지. 1987. 벽성군민회.
- 소신애. 2022. 황해도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 변화 - 장연 지역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103. 국어학회. 171-208.
- 소신애. 2023. 황해도 방언의 자음 체계와 그 변화 - 장연 지역어의 /ㅈ, ㅉ, ㅊ/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48. 27-58.
- 송화군지. 1992. 군지편찬위원회.
- 수안군지. 1992. 수안군중앙군민회.

- 신계군지. 1988. 신계군민회.
신천군지. 1984. 신천군지편집위원회.
안악군지. 1976. 안악군민회.
용진군지. 1989. 용진군.
은율군지. 1975. 은율군민회군지발간위원회.
은율군지(개정판). 2007. 은율군중앙군민회.
이승녕. 1967. 한국방언사. 한국문화대계 V.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25-411.
이익섭·전광현·이광호·이병근·최명옥. 2008.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장승익. 2019. 황해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방언학 30. 한국방언학회.
장승익. 2020. 황해도 안악 출신 북한이탈주민 발화의 음운론적 특징. 한국언어문학 114, 한국언어문학회. 29-52.
장승익. 2022ㄱ. 「황해도 방언 기반 언어섬 공동체 사례 연구-정농 2세대 언어의 방언 접촉 양상을 중심으로-」, 『한글』 335, 한글학회, 41-66면.
장승익. 2022ㄴ. 황해도 방언의 변이 양상 연구 -전북 완주군 정농 마을' 자료를 중심으로-. 태학사.
장승익. 2022ㄷ. 국어 언어섬 모델로서의 황해도 방언 기반 언어 공동체. 어문론집 92. 155-184.
장승익. 2023.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Hwanghae-do Dialect-Based Community in Sinchang, Pyeongtaek. 한국어학 98. 69-93.
장연군지. 1995. 장연군중앙군민회.
재령군지. 1999. 재령군지발행위원회.
정원수. 2002. 황해도 방언 어휘의 몇 가지 특성. 인문학연구 29-2. 47-79.
최소연. 2018. 황해도 안악 지역어의 모음조화 연구. 어문연구 4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9-161.
최소연. 2019. 안악 지역어의 'j'활음화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4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93-108.
최소연. 2022. 황해도 안악 지역어의 음운론. 역락.
평산군지. 1993. 평산군중앙군민회.
해안면지. 1976. 해안면민회.
해주시지. 1994. 해주시중앙시민회.
황대화. 2007. 황해도 방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황주군지. 1989. 황주군지편찬위원회.
황해도 연백군 계곡면지. 1985. 계곡면민회.
황해도지. 1982. 황해도지편찬위원회.

小倉進平. 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岩波書店(영인판. 1974. 아세아문화사).
河野六郎. 1945. 朝鮮語方言學試攷 -「缺」語考-. 東都書籍[영인본. 河野六郎著作集1. 1979. 平凡社].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제3부/ 주제 발표

박중화의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 연구 -1910~20년대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와의 비교 고찰

주현희

부경대학교 HK연구교수
npr0215@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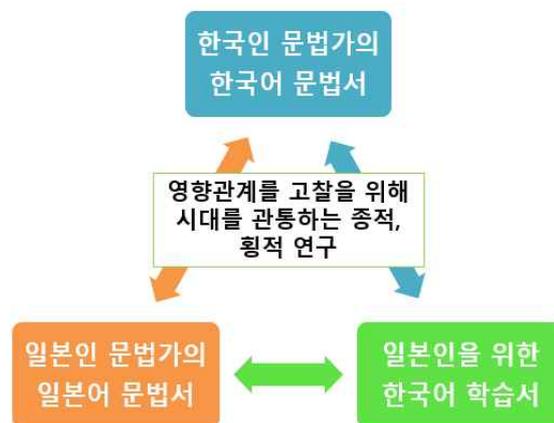
1. 서론

근대 시기에 일본인을 교육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학습서가 대량으로 간행되었다. 1900년대에 이르러 서양 및 일본의 문법 체계를 도입하여 한국어 문법의 기틀이 갖추어지면서 한국어 학습서에도 이러한 문법 체계를 학습 내용으로 수록하기 시작하였다.¹⁾ 그리고 1910년 일본의 국권 침탈 이후 한국 거류 일본인이 급증하면서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가 대량으로 간행되었으며 1920년대에 이르러 좀더 정교한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면

1) 주현희(2019:22)에서는 달레(C. C. Dallet)의 『조선어(La langue Coréenne)』(1874)에서 전반적인 문법적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후 1880년대가 되면서 서양인에 의한 근대적 의미의 문법 체계를 갖춘 한국어 문법서가 간행되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 문법서로 리델(F. C. Ridel)의 『조선어문법(Grammaire Coréenne)』(1881), 스코트(J.Scott)의 『언문말칙』(1887), 위아르의 『조선어구어법』(1889), 언더우드(H.G.Underwood)의 『한영문법(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1890)을 제시하였다.

서 문법을 체계적으로 학습 내용으로 다룬 학습서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초반까지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의 저자는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일본의 오오츠키(大槻文彦), 야마다(山田孝雄) 문법을 도입하여 한국어 문법 체계를 기술하였다. 이후 주시경, 최현배를 중심으로 한 조선어학회의 한국어 문법 연구의 성과가 한국어 학습서에도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 문법가가 정립한 일본어 문법과 한국인 문법가가 정립한 한국어 문법의 절충적인 기술 방법을 도입한 한국어 학습서가 간행되었다.²⁾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 방법

주현희(2019)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문법 체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인 문법가의 문법서와 일본인 문법가의 문법서에 나타난 품사 체계의 분류 및 기술 양상을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서 간의 문법 기술 양상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영향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몇몇 학습서에 대한 품사 체계 및 음운 현상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에 간행된 몇몇 학습서의 문자 및 발음 기술의 영향 관계를 논한 바 있다. 또한 근대 시기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음운 현상 기술의 변화 양상 등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등 여러 학습서의 음운 현상 기술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³⁾

2) 주현희(2019:3)에서는 김희상의 『조선어전』(1911),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 등에서 주시경의 문법 체계를 계승하였으며 존 게일(J.S.Gale),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등이 주시경의 문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였다.

3) 「송헌석의 『최신속성 조선어자통(最新速成 朝鮮語自通)』(1928)」과 「魯璣柱의 『應用自在朝鮮語法詳解』(1923) 고찰」, 「박중화의 한일 학습서에 나타난 문법 기술 고찰-문자와 발음 및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근대 시기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음운 현상 기술의 통시적 고찰」 등의

이처럼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의 연장 선상에서 여러 학습서 간의 문법 체계 기술의 영향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한, 두 권의 학습서를 대상으로 단편적으로 연구가 이뤄지거나 개화기부터 해방 전까지의 학습서를 개괄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대상의 시점을 한국어 학습서 간행이 급증한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로 한정하고 영향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습서 6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박중화(朴重華)가 저술한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의 문법 기술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1920년대 전후 간행된 여러 한국어 학습서와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저자 박중화(朴重華)는 보성중학교 교장(1909~1912), 휘문의숙 교장(1912~1916)을 역임하였으며 1920년 4월에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애국계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한국인의 일본어 학습을 위한 『精選日語大海』(1909), 『日鮮大字典』(1912)의 저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에서는 중앙노동강습소 등의 노동야학을 개설하여 한국어·한문·일본어 등의 대중교육에 힘썼는데 박중화도 이러한 교육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무렵에 한국어 학습서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도 간행하였다.⁴⁾

한편, 박중화(朴重華)가 보성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던 시기에 주시경 또한 보성중학교 강사로 재직하면서 『국어문법』(1910)을 간행하고, 『보충친목회보』 제1호에 「한나라말」(1910)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11년에는 보성중학교 교내에 조선어강습원을 개설하여 1912년에 조선어강습원 중학과 1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한편, 「소리갈」(1912)을 간행하였다. 1913년에는 조선어강습원 고등과 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조선어문법』(1913) 재판본을 간행하였다. 1914년 4월

선행 연구를 통해서 1920년대 간행된 몇몇 학습서의 문자 및 발음 기술의 영향 관계를 논한 바 있다.

4) 1878년 2월 3일 경상남도 경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897년 일본 동경보통학교에 입학, 1900년에 시즈오카현립중학교 입학, 1903년 시즈오카농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였다. 1907년 4월 양기탁, 안창호, 전덕기 등을 중심으로 창설된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909년 신민회의 청년단체인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가 창설될 때 발기 위원으로 참여하여 애국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신용하(1977),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상」, 『한국학보』 3권 3호, 일지사, p.58). 보성중학교 학교연혁에 따르면 1909년 2월 6일 보성중학교 교장에 임명되었으며 1909년 대동청년단을 조직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휘문의숙 교장(1909년부터 1916년까지)을 역임하여 조선총독부 금지도서인 『대한역사』(1908)를 가르쳤으며 반일사상을 고취하였다. 1917년 독립자금을 마련하려다가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형을 받았으나 그해 10월에 무죄로 풀려났다.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를 조직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행적은 명확하지 않으며 196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한국근현대인물자료(<http://db.history.go.kr>) 참조, 오재식(1959), 『항일순국의열사전』, 동방문화사, p.71; 홍영도(1956),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문화회 pp.91-93)

에는 『말의 소리』(1914)를 간행하고 7월에 사망하였다.⁵⁾

박중화는 주시경과 보성중학교 시절 이전부터 교류하기 시작하여 그가 휘문의숙 교장이 된 후에도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1932년 7월 3일 『동광』 제35호에 「한글學의 先驅 周時經 先生」이라는 제목의 글이 수록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박중화와 주시경의 친분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을 수록되어 있다.

更히 氏와 平昔에 契分이 敦厚하던 徽文義熟長 朴重華 氏를 訪하니 氏는 慨然히 襟을 正하고 兩眼에 淚를 凝하며 余의 周君을 知함은 于今 約10 년간이라 公私間에 頗히 意思가 相合하여 吾輩사업에 携手同進하기를 約하였더니 今에 돌연히 彼를 九泉으로 永別하니 痛惜의 情은 實로 形言기 難하오.⁶⁾

주시경은 박중화와 옛날부터 두터운 친분을 맺고 있었는데 그는 휘문의숙 교장으로 있던 박중화를 방문하여 옷깃을 바르게 가다듬고 눈물을 흘리며 박중화와 상봉하였다. 그리고 주시경과 박중화는 서로 안 지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공사에 서로 의견이 잘 맞아서 함께 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주시경이 돌연히 사망하여 그와 영별하였으며 박중화가 이를 애통해하였던 일화를 수록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박중화가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귀국한 직후인 1904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주시경 선생과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어 연구나 저술, 교육 등의 활동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1914년 7월 27일 주시경 선생이 사망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박중화는 1909년 간행한 『精選日語大海』를 시작으로 약 20여 년간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해왔는데 주시경 선생과 교류하였던 1904년부터 1914년의 10년 동안에도 여러 권의 어학 학습서를 저술하였다. 이로 볼 때 그가 저술한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은 주시경과 교류하던 시기로부터 9년 후에 간행되었으나 그 내용 체계에는 주시경 문법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⁷⁾

5) 안정아 외(2016), 『쉽게 풀이한 주시경의 국어문법』, 월인, p.12.

6) 김선기, 「한글學의 先驅 周時經 先生」, 『동광』 제35호, 1932.07.03.

7) 박중화는 『日語大海』(1913)의 저술 이후 약 10여 년간 공백이 있었으며 이후 『速修自解國語讀本』, 『日本人之朝鮮語獨學』 등이 간행되었다. 1917년 독립자금을 마련하려다가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형을 받았으나 그해 10월에 무죄로 풀려났다.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를 조직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노동운동에 헌신하였다. 1921년에는 독립군 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崔益翰 독립군자금 모집 사건」, 『경찰고문조서수사복명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중화의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을 비롯한 1920년대를 전후한 여러 한국어 학습서를 살피는 한편, 주시경 문법과의 영향 관계도 아울러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 박중화의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 및 이와 문법 기술에 있어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에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로 다음과 같다.

	저서명	저자	출판사	간행연도
1	『國語文法』	周時經	博文書館	1910
2	『말의 소리』	周時經	新文館	1914
3	『朝鮮語法及會話書』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	1917
4	『鮮語階梯』	新庄順貞	大阪屋号書店	1918
5	『日本人之朝鮮語獨學』	朴重華	振興書館	1923
6	『應用自在朝鮮語法詳解』	魯璣柱	博文書館	1924
7	『朝鮮語發音及文法』	李完應	朝鮮語研究所	1926
8	『現行朝鮮語法』	鄭國采	宮田大光堂	1927

<표 1> 본 연구의 분석 저서 목록

위에서 제시한 주시경의 저술 2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국어의 문법 체계를 다룬 대표적인 저서이다. 그리고 주시경 사후 이를 김희상, 김윤경, 최현배 등이 계승하여 발전시켜 오늘날 국어 문법의 근간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주시경의 당대의 국어 문법의 연구 성과가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먼저 주시경의 저술 2종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에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 6종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학습서 6종은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그 문법 내용이나 체계가 상세하게 논의된 바가 없으며, 이 시기의 한국어 학습서를 논의할 때 대략적인 서지사항이나 저자의 서언 등이 일부 언급된 적은 있다.⁸⁾ 그러므로 먼저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 학습서의 음운 현상 및

서』, 1921.03.25.) 이와 같이 독립 운동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간행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8) 이완응(李完應)은 경성 조선어연구회에서의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논의된 바가 있으며 정국채(鄭國采)는 친일 행적으로 인해 그의 한국어 학습서의 저술 및 교육활동에 대한 논의가 미미하

품사 분류 체계 기술의 양상을 고찰하고 이들 학습서 간의 문법 기술의 영향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3. 음운 현상 기술 분석

3.1. 자모음 기술 양상

1910년대 이전에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에서는 조음기관이나 조음방법을 상세하게 다루어 한국어 자모 발음을 설명한 학습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어 자모 발음을 조음기관과 조음방법을 들어 설명한 학습서가 나타난다. 특히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 『現行朝鮮語法』(1927)에서 자음을 ‘어금닛소리, 혀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牙舌脣齒喉)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現行朝鮮語法』(1927)는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따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반면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에서는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주시경의 『國語文法』(1910)에서는 자모음을 설명하면서 훈민정음과 훈몽자회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은 정국채의 『現行朝鮮語法』(1927)에서 나타난다. 『現行朝鮮語法』(1927)에서는 제2편 언문에서 훈민정음과 훈몽자회의 원전과 해석을 수록하고 훈민정음과 훈몽자회를 비교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다른 한국어 학습서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 구성으로 주시경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3.2. 음운 현상 기술 양상

한편, 음운 현상의 기술 양상을 살펴보면 주시경의 『말의 소리』(1914)에서는 ‘닷소리의 잇는 일’과 ‘말의 익음소리’, ‘접변(닷소리의 잇어박구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닷소리의 잇는 일 : ‘닷소리가 서로 맞아날 때에는 얼마든지 다 거듭하고 따로 나지 못하’는 현상
- 말의 익음소리 : ‘말의 익음으로 박굶과 나이지 아니함이 잇’는 현상
- 접변(닷소리의 잇어박구임) : ‘닷소리가 서로 잇어날 때에는 저로 박구이어 짐이 잇’는 현상

다.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은 강신항(1995:35)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단어 중 일본어에 영향을 받은 한국어 한자어를 정리하여 제시했다.

‘닷소리의 잇는 일’은 자음이 이어질 경우 ‘다 거듭하고 따로’ 발음되지 못하는 현상이며, ‘익음소리’는 ‘말의 익음으로’ 소리의 변화와 발음이 되지 않는(탈락) 현상이다. ‘닷소리의 잇는 일’의 예로 제시한 ‘막하- → 마카-, 갓집 → 갓씹’ 등에 반영된 현상은 경음화와 격음화이다. 이들 예는 두 자음이 이어날 때 ‘한 덩이의 거듭소리’로 난다는 점에서 접변의 예와 변별되고 있다. 또한 ‘닷소리의 잇어 뱃구임’에서는 음운의 배합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닷소리가 계기적으로 나타날 때에 ‘절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제 소리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러’ 또는 좀더 ‘흔하게’ 바뀌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절로’의 경우는 소위 필수적인 현상의 경우이며 ‘더러’나 ‘흔하게’는 수의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시경은 국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음들간의 접변 현상을 보편적인 음운 현상으로 도식화하려고 하였다.⁹⁾

박중화의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에서는 제2장 음편(音便)에서 음운 현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음이 연속할 때는 음의 접합으로 인해 다른 음으로 바뀌거나 또는 그 외의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 있으며 이를 음편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음편의 종류를 크게 ‘습관에 의한 변음’, ‘음의 이동’, ‘음의 변화’, ‘조음(助音)’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¹⁰⁾

음편의 종류

- (1) 습관에 의한 변음 - 어두의 라를 나로 발음하고, 니를 이로 발음하는 것.
- (2) 음의 이동 - ‘책을’을 ‘채글’로 읽고 앞의 말의 종성이 뒤의 말의 초

9) 김경훈(1998), 「주시경 말의 소리에 대하여-그의 음학을 중심으로」, 『논문집』, 서울산업대, p.19.
 10) 음운 현상에 대한 정의 및 분류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1910년대에는 일본어 음운 현상의 분류 방법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1920년대에는 음운 현상을 ‘전음(轉音)’ 또는 ‘음편(音便)’이라 지칭하고, 음운의 변화 양상에 따라 분류하였다. 1930년대에는 몇몇 학습서에서 음운 변화의 수의성/필연성을 기준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음의 변화와 습관상으로 발생하는 음의 변화로 분류한 것을 볼 수 있다.

『新案韓語彙』 (1910)	음성 서로간에 연속하여 언어를 만들 때에 어로(語路)의 간섭을 피하여 어세의 완급을 도모하거나 혹은 한자음을 그 나라의 음으로 바꾸지 않기 위한 등의 다양한 필요상에 의해 문자를 변화한다. 혹은 다른 음으로 발음을 바꾸는 일이 있다. 그 형식은 일본어법에 가장 유사하다. 전호음(轉呼音), 약음(約音), 약음(略音), 음편(音便)의 4종류로 나누어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	음편의 종류 (1) 습관에 의한 변음 - 어두의 라를 나로 발음하고, 니를 이로 발음하는 것. (2) 음의 이동 - ‘책을’을 ‘채글’로 읽고 앞의 말의 종성이 뒤의 말의 초성으로 이동하는 것. (3) 음의 변화 - ‘잇나’를 ‘인나’로 발음하고 ‘시’ ‘니’의 음으로 변화하는 것. (4) 조음(助音) - 「本じゃ」라는 말은 책(冊本)과 다(じゃ)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이’를 첨가하여 ‘책이다’를 이룬다.
『わかり易い朝鮮語會話』 (1934)	일본어에서 음편 현상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어에서도 또한 연음의 경우, 발음 작용상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음의 변화와, 습관상으로 일어나는 음의 변화가 있다. 단, 모두 발음상의 것을 가리킬 뿐으로 전음대로 표기하는 것은 아니다.

성으로 이동하는 것.

(3) 음의 변화 - ‘잇나’를 ‘인나’로 발음하고 ‘시’이 ‘니’의 음으로 변화하는 것.

(4) 조음(助音) - 「本_ㅈㅈ_ㅈ」라는 말은 책(冊(本)과 대(_ㅈㅈ)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이’를 첨가하여 ‘책이다’를 이룬다.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37~41))

제2절 습관에 의한 변음에서 ‘두음법칙’ 등의 음운 현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시경의 문법서를 비롯한 한국어 학습서에서 다루고 있는 음운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서 음운 현상	『國語文法』 (1910)	『말의 소리』 (1914)	『朝鮮語 法及會 話書』 (1917)	『鮮語 階梯』 (1918)	『日本 人之朝鮮語 獨學全』 (1923)	『應用自在 朝鮮語法詳 解』(1924)	『朝鮮語發 音及文法』 (1926)	『現行朝 鮮語法』 (1927)
유성음화			○		○			
연음규칙			○	○	○	○	○	
비음화	○			○	○	○	○	○
구개음화	○ (연구개음 화, 구개음 화)	○ (ㅎ구개음 화, ㄱ구개 음화, 구개음화)	○	(ㅎ구개 음화, ㄱ구개 음화)	○			○(연구 개음화)
유음화	○	○		○		○		○
두음법칙	○	○	○	○	○		○	○
음절끝소리 규칙	○	○		○	○	○		○
ㅣ모음탈락	○		○	○	○		○	○
ㅎ탈락		○					○	○
ㄴ첨가	○							○
격음화		○					○	○
경음화	○	○		○				
ㅣ모음역행 동화								
ㄹ탈락	○	○		○				○
모음축약								○
ㅅ탈락		○						
ㅇ첨가				○				
합계	9	9	5	10	7	4	6	11

<표 2> 저서별 음운 현상 분포 양상

주현희(2023)에서는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에서 ‘유성음화’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일본어 음운 현상을 학습서에 도입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는 일본어는 유·무성의 여하에 따라 의미 변별이 발생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19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유성음화에 대한 기술은 점차 사라지거나 한국어에서는 유, 무성의 구별을 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데, 위의 학습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朝鮮語法及會話書』(1917)를 제외한 나머지 학습서에서는 유성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주현희(2023)에서는 한국어 학습서에서 구개음화가 1910년대 후반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구개음화에 대한 국어학의 연구 성과가 한국어 학습서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말의 소리』(1914)에서는 구개음화를 ‘ㅎ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ㄴ구개음화’로 세분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는 『鮮語階梯』(1918), 『現行朝鮮語法』(1927)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말의 소리』(1914)에서는 용언의 활용에 따른 음운 탈락을 상세히 다루었는데 이 또한 1910년대 후반에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허재영(2007:305)에서는 이완응의 『朝鮮語發音及文法』(1926)을 예로 들어 발음과 문법 기술이 짜임새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朝鮮語發音及文法』(1926)에서는 중성자 11, 초성자 14, 종성 7(8), 돌받침, 중종성, 된시옷 등의 순서로 학습 내용을 배열하고 ‘전음’에서는 소리가 이어나는 현상(연음법칙), ‘ㄴ두음법칙’, ‘ㄹ두음법칙’ 등의 변동 규칙을 체계적으로 밝혀 놓았다. 이처럼 한국어 학습서의 발음과 문자 체계가 정교해진 대표적인 요인을 1920년대의 우리말 연구 성과, 조선어연구회의 활동, ‘조선어 장려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조직한 ‘경성 조선어연구회’의 활동 등으로 분석하였다.

4. 품사 분류 양상 분석

4.1. 품사 체계 정립 양상

주시경은 품사 분류에 있어서 『國語文法』(1910)에서는 9품사로 설정하고 있으나 『말의 소리』(1914)에서는 ‘관형사, 부사, 감탄사’를 제외하여 6품사로 설정하였다.¹¹⁾ 최형용(2013)에서는 이러한 주시경의 품사 분류 과정에서의 ‘관형사, 부사’의 제외 이유를 분류 기준의 우선 순위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11) 일본어 문법에 있어서는 마츠시타(松下大三郎)의 『標準日本文法』(1924)에서 5품사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조사와 어미를 각각 명사와 동사의 일부분으로 보는 종합주의(제3유형)으로 『標準日本文法』(1924)에서는 ‘명사, 동사, 부체사(副體詞), 부사, 감동사’의 5품사 체계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어의 관형사에 해당하는 부체사를 처음 독립된 품사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말의 소리』(1914)의 품사 체계는 『國語文法』(1910)에 비해 그 수는 줄었으나 어미를 일률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 억, 놀’이 품사 분류의 기준 가운데 ‘형식’을 기준으로 하면 한데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형사형과 관형사, 부사형과 부사를 분리할 수 있는 품사 분류의 기준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관형사나 부사, 감탄사는 그 모양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품사 설정에 있어서는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의 경우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조동사, 감탄사’의 9품사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당시 오오츠키의 문법으로 대표되는 품사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에 간행된 여러 학습서에서 ‘접속사’를 설정하여 10품사 체계로 설정하고 있는 데에 반해 ‘접속사’를 독립된 품사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주시경에서는 『國語文法』(1910)에서는 9품사 체계로 하여 명사에서 대명사, 수사를 독립된 품사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에 반해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에서는 대명사, 수사를 독립된 품사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주시경 문법과의 영향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시경의 『말의 소리』(1914)에서는 품사를 ‘형식’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관형사, 부사’ 등을 설정하지 않은 6품사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양상은 『鮮語階梯』(1918)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鮮語階梯』(1918)는 5 품사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시경에서 분류한 곳(종지사)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사 항목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곳(종지사)의 경우 독립된 품사 항목으로 설정하여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계급어’라고 하여 높임법 체계에 따라 종결어미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鮮語階梯』(1918)에서는 기존의 학습서에서 ‘명사 - 대명사 - 수사 - 조사 - 동사 - 형용사 - 부사 - 접속사 - 감탄사’ 등의 순으로 품사 항목을 배열하여 기술한 것과는 달리 ‘ㄷ=ㅏ’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연음규칙을 제시하여 명사와 결합한 조사의 발음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鮮語階梯』(1918)에서는 상대적으로 품사 기술의 비중이 낮으며, 자모의 체계 및 발음과 표기를 중심으로 학습서가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시경의 문법서를 비롯한 한국어 학습서에서 다루고 있는 품사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분사	관사	부사	관형사	후치사	접속사	전치사	조동사	감탄사	종지사	존재사
『國語文法』 (1910)	9품사	임 (名詞)			움 (動詞)	엇(形容詞)			억 (副詞)	언 (冠形詞)	것 (助詞)	잇 (接續詞)			늘 (感歎詞)	끗 (終止詞)	
『말의 소리』 (1914)	6품사	임			움	엇					것	잇				긋	
『朝鮮語法 及會話書』 (1917)	9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접속사			감동사		
『鮮語階梯』 (1918)	5품사	명사			동사 (수동사)	형용사					テ ニ ハ	접속사					
『日本人之朝 鮮語獨學』 (1923)	9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조동사	감탄사		
『應用自在朝 鮮語法詳解』 (1924)	10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토	접속사		조동사	감동사		
『朝鮮語發 音及文法』 (1926)	11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접속사		조동사	감탄사		존재사
『現行朝 鮮語法』 (1927)	11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접속사		조용사	감동사		존재사

<표 3> 저서별 품사 체계 정립 양상

4.2. 품사 체계 영향 관계 분석

한국어 학습서의 품사 설정에 있어서는 일본어 문법의 영향이 지적되었다. 김민수 외(1977)에서는 『應用自在朝鮮語法詳解』(1924)의 경우 오오츠키(大槻文彦)의 『口語法』(1916)의 10품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現行朝鮮語法』(1927)의 경우 오오츠키(大槻文彦)의 『廣日本文典』(1897)의 8품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오오츠키(大槻文彦)의 『廣日本文典』(1897)에서는 대명사, 수사가 명사와 위치, 용법이 다르지 않다는 전통 문법의 입장을 이어받아 명사에 모두 포함시켰다.¹²⁾ 주시경의 『國語文法』(1910)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명사, 수사를 명사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말의 소리』(1914)에서도 이어졌다.

한편, 『廣日本文典』(1897)에서는 ‘르爾乎波’¹³⁾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조사뿐만 아니라 조동사, 접미어에 용언의 어미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치사,

12) 이후 『口語法』(1916)에서 대명사와 수사를 모두 설정하였다.

13) 이후 『口語法』(1916)에서 ‘조사(助詞)’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후치사보다는 범위가 넓다.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에서는 ‘조사(助辭)’에서 조사(助詞)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미, 의존명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에서는 다른 한국어 학습서와 달리 ‘접속사’를 설정하지 않고 이를 ‘조사’에 포함하고 있다. 조사에 관해서 『國語文法』(1910)에서는 이를 ‘곶’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의 제1류 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國語文法』(1910)에서의 ‘잇’은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의 제2류 조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에서는 곶(종지사)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동사, 형용사에서 종지태(終止態)를 제시하고 있다.¹⁴⁾

	『國語文法』(1910)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
곶	임기의 만이나 움기의 자리를 이르는 여러 가지 기 예) 가, 이, 을, 도	제1류 조사 예) 가, 이, 는, 은, 를
잇	한말이 한말에 잇어지게 함을 이르는 여러 가지 기 예) 와, 과, 고, 면	제2류 조사 예) 서, 고, 아/어, 다가, 면 (중략) 시, 수, 기 (동사, 형용사의 접속태에서 중복됨)
곶	한말을 다 맞게 함을 이르는 여러 가지 기 예) 다, 이다, 나, 이나	곶(종지사) 설정 X(동사, 형용사의 종지태에서 제시됨)

<표 4> 『國語文法』(1910)과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의 조사, 접속사, 종지사 분류

안예리(2020:34)에서는 당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영어나 일본어의 문법서가 한국어 문법 기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시경 역시 해당 서적들을 접했다면 외국어 문법 기술에 적용된 개념, 법칙, 체계 등을 참고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國語文法』(1910)의 저술 이전에 간행된 유길준의 『大韓文典』(1909) 등의 문법서나 외국인들이 저술한 한국어 학습서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國語文法』(1910)에서는 임기의 성류(性類)라 하여 수(陽性), 암(陰聲), 보통성, 무별성(無別性)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명사의 성별 구분에서 영문법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연(관형사)’을 설정하고 있는 것, ‘조동사’를 설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말의 소리』

14) 이러한 종지태(終止態)는 오오츠키(大槻文彦)의 『廣日本文典』(1897)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주시경의 곶(종지사)는 야마다(山田孝雄)의 『日本文法論』(1908:680)에서 조사의 하위 분류로 설정한 종조사(終助詞)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주시경(1910)	야마다(1908)
한말을 다 맞게 함을 이르는 여러 가지 기. (본)다, 이다, 나, 이나, 아라, 어라, 도, 다, 오, 소	문장의 술소(述所)에 관한 조사로 술어의 종말로서만으로 사용하는 것. 예) か `も `かも `かな `かし

(1914)에 이르러 6품사 체계로 설정한 것은 일본어 문법이나 영문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어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사 체계를 설정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에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에서는 ‘조동사’, ‘존재사’, ‘지정사’ 등의 설정으로 보았을 때, 일본어의 품사 체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에 간행된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의 음운 현상 및 품사 분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자모의 발음, 음운에 대한 기술은 주시경 음운 기술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日本人之朝鮮語獨學』(1923)에서 자모의 발음을 조음기관과 조음방법을 통해 기술한 점, 일본어 음운 기술의 영향으로 보이는 ‘유성음화’의 삭제,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음운 현상인 ‘구개음화’의 세분화, ‘ㅎ탈락’, ‘ㄹ탈락’ 등 특수한 음운 환경에 따른 음운의 탈락 등의 기술이 정교해진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음운 현상에 관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음편(音便), 전음(轉音) 등의 일본어 문법의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품사 분류 및 항목 설정에 있어서는 일본어 문법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양상을 볼 수 있었다. 『鮮語階梯』(1918)에서만 주시경의 6품사 체계와 유사한 5품사 체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말의 소리』(1914)에는 품사의 분류 및 예만 제시되어 있고 관형사, 부사, 감탄사를 명사에 포함한 분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그 영향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주시경은 상동교회와 배재학당 등에서 5년여간 외국인 선교사들에게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김윤경(2016:53)에서는 주시경이 1900년 1월 8일부터 1905년 9월까지 영국인 선교사 스크랜튼을 비롯하여 여러 영국인과 미국인들에게 한국 말을 가르치면서 영어를 배웠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주시경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활용했던 학습서들을 구해 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김병문(2013:264-266)은 외국인을 가르쳤던 약 5년간의 경험이 주시경 문법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관점에서 한국어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모어 화자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한국어 현상들을 원리와 법칙으로서 기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시경의 문법 기술의 관점은 바로 한국어 학습서에서의 문법 기술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박중화를 비롯한 한국어 학습서의 저자 대부분이 실제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였던 이들로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나 기술 방식은 당대에 통용했던 문법 체계를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 좀 더 기술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실제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발음이나 문법 활용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자주 틀리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간행된 학습서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저자가 자신의 교육 경험에 비추어 학습서를 저술하여, 자모음에 대한 설명 방식이나 품사 체계에 대한 기술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서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개별 학습서 간의 영향 관계 고찰을 위한 단순 비교, 분석에 그친 것이 한계점이라 하겠다. 이는 향후 과제로 삼아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자료의 측면에서 이러한 음운 현상이나 품사 체계를 어떻게 배열하고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강신항. 1995. 「일본 한자어」, 새국어생활 5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27~60쪽.
- 김경훈. 1998. 「주시경의 말의 소리에 대하여-그의 음학을 중심으로」, 논문집. 서울산업대. 15~23쪽.
- 김민수. 1962. 「주시경(周時經)의 업적 : 주시경론(周時經論)을 위한 서론(序論)」, 국어학 1권. 국어학회. 25~40쪽.
- 김병문. 2013. 『언어적 근대의 기획: 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 김선기. 「한글學의 先驅 周時經 先生」, 『동광』제35호. 1932.07.03.
- 김영선. 2014. 「주시경의 접변 관련 현상 연구」, 우리말연구 36집. 우리말학회. 5~28쪽.
- 김윤경 편. 2016. 『주시경 선생 전기』, 열화당.
- 남옥희. 1989. 「주시경의 생애와 업적」, 중원어문학 5권.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98~115쪽.
- 보성중고등학교. 1986. 『보성80년사』, 보성팔십년사편찬위원회.
- 신용하. 1986. 「조선노동공제회의 창립과 노동운동」, 사회와 역사 3권. 한국사회사학회. 71~201쪽.
- 신용하. 1977.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상」, 한국학보 3권 3호. 일지사. 31~75쪽.
- 안예리. 2020. 「『국어문법』(1910)의 문장론과 외국인에 의한 근대 한국어 학습서의 비교」, 한국어학 88권. 한국어학회. 31~60쪽.
- 안정아 외. 2016. 『쉽게 풀이한 주시경의 국어문법』, 월인.
- 오새내. 2016.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상 조선어 교육에 종사한 조선인 교육자들의 행적에 대한

- 국어학사적 연구-언론 기록과 출판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5집. 우리어문학회. 459~486쪽.
- 오재식. 1959. 『항일순국의열사전』. 동방문화사.
- 주현희. 2019. 「근대 시기 국어 품사 체계 형성 연구」.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 주현희. 2020. 「송헌석의『最新速成 朝鮮語自通』(1928) 고찰-문자 및 발음 기술 양상을 중심으로」, 한글 328권. 한글학회. 369~397쪽.
- 주현희. 2022. 「노기주의『應用自在朝鮮語法詳解』(1924) 고찰」, 영주어문 51집. 영주어문학회. 315~358쪽.
- 주현희. 2022. 「박중화의 한-일 학습서에 나타난 문법 기술 고찰-문자와 발음 및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한글 327권. 한글학회. 693~732쪽.
- 주현희. 2023. 「근대 시기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음운 현상 기술의 통시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48집. 대구가톨릭대학 인문과학연구소. 51~85쪽.
- 최형용. 2012. 「분류 기준에서 본 주시경 품사 체계의 변천에 대하여」, 국어학 제63집. 국어학회. 313~340쪽.
- 허재영. 2007. 「일제강점기 조선어 장려 정책과 한국어 교육」, 한말연구 20권. 한말연구학회. 293~316쪽.
- 홍영도(1956),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원호회.

<기타 원문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라이브러리 (<https://www.nl.go.kr>)
-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https://dl.ndl.go.jp>)
- 일본 서지 자료 (<http://webcatplus.nii.ac.jp>)
-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db.history.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주시경(周時經). 1910. 『國語文法』(역대문법대계 제1부 제4책 11).
- 주시경(周時經). 1914. 『말의 소리』(역대문법대계 제1부 제4책 13).
- 조선총독부. 1917. 『朝鮮語法及會話書』(역대한민국문법대계 제2부 제17책 36).
- 신조준테이(新庄順貞). 1918. 『朝鮮階梯』(역대문법대계 제2부 17책 37).
- 박중화(朴重華). 1923. 『日本人之朝鮮語獨學』(역대문법대계 제2부 19책 39).
- 노기주(魯璣柱). 1924. 『應用自在朝鮮語法詳解』(역대문법대계 제2부 20책 40).
- 이완응(李完應). 1926. 『朝鮮語發音及文法』(역대한민국문법대계 제2부 제21책).
- 정국채(鄭國采). 1927. 『現行朝鮮語法』(역대한민국문법대계 제2부 제21책).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제3부/ 주제 발표

의존명사 ‘법’ 구문의 의미와 구조 —‘-은 법이-’ 구문을 중심으로—

명정희

서강대학교 강사

jhmyeong.kr@gmail.com

1. 들머리

- 의존명사 ‘법(法)’은 관형형 어미가 선행하고 ‘이다’, ‘하다’ 등의 술어가 후행하여 아래와 같은 구문들을 형성함.¹⁾

(1) 가. 그는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아침밥을 거르는 법이 없다.

나. 죄를 지으면 누구나 벌을 받는 법입니다.

다. 그 말을 들으니 또 그럴 법도 하네요.

<표준국어대사전>

1) 수사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는 법이 있-’ 구문은 ‘-는 법이 없-’ 구문과 의미가 같다. 가령 ‘세상에, 기척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는 법이 (어디) 있-’ 구문은 어떤 사건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여 ‘-는 법이 없-’ 구문과 동의(同義)이다. 안주호(2004: 190-191)에서도 ‘-는 법이 (있, 없)-’ 구문 중 ‘-는 법이 있-’ 구문은 항상 의문형 종결 어미와 결합되며 ‘-는 법이 없-’ 구문의 의미로 쓰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 (1ㄱ)~(1ㄷ)의 예문에 쓰인 ‘법’은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결합 제약이 각각 다름.²⁾

- ‘법’의 앞, 뒤에 결합하는 요소가 달라지면서 구문의 의미도 다르게 해석됨.³⁾

- ‘-은 법이-’나 ‘-을 법하-’ 구문과 달리 ‘-는 법이 없-’ 구문의 의미가 구문을 형성하는 어휘항목들에 의해서 더 투명하게 해석되는 것은 ‘-는 법이 없-’ 구문을 구성하는 어휘항목들 사이의 긴밀성이 다른 두 구문에 비하여 적다는 것에서도 드러남.

가령 ‘-는 법이 없-’ 구문은 ‘법’ 다음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고 이는 보조사 ‘-도, -은’으로도 교체될 수 있음. 반면에 ‘-은 법이-’ 구문은 ‘법’ 다음에 어떤 조사도 결합할 수 없고 ‘-을 법하-’ 구문의 ‘법’은 보조사 ‘-은, -도’ 정도만 후행할 수 있음. 또한 ‘-는 법이 없-’ 구문은 술어 ‘없다’ 앞에 ‘절대로’와 같은 부사어가 개재할 수 있으나 ‘-은 법이-’, ‘-을 법하-’ 구문은 술어 앞에 부사어가 개재할 수 없음.

- 이러한 통사적 차이 및 의미적 차이를 이유로 이 글에서는 ‘법’이 포함된 구문 중 ‘-은 법이-’ 구문과 ‘-을 법하-’ 구문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파악되어 온 ‘-은 법이-’ 구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2) ㄱ.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식이 나이를 먹어도 어른으로 보지 않는 법이다. [필연성 인식]

ㄴ. 어른 앞에서는 꼭 무릎을 꿇고 앉는 법이다. [의무]

(이상 안주호 2004: 190의 예)

ㄷ.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인 환락에 빠져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법이다. [당연 인식] (다카치 2018: 105의 예)

- (2)에서 보듯이 ‘-은 법이-’ 구문은 인식 양태나 의무 양태로 논의되기도

2) 의존명사 ‘법’의 선행 관형형 어미 결합 제약은 박승윤(1998), 안주호(2004), 시정곤김건희(2009), 이금희(2012), 다카치 토모나리(2018), 명정희(2021) 등에서 계속 언급되어 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법’의 뜻을 제시할 때 (1ㄱ)의 ‘법’은 어미 ‘-는’ 뒤에 쓰인다고 하고 (1ㄴ)의 ‘법’은 ‘-은/는 법이다’ 구성으로 쓰인다고 하였으며, (1ㄷ)의 ‘법’은 어미 ‘-을’ 뒤에 쓰인다고 하여 각 구문에서 함께 쓰이는 관형형 어미를 명시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세 구문을 각각 ‘-는 법이 없-’, ‘-은 법이-’, ‘-을 법하-’ 구문으로 나타내겠다.

3)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ㄱ)에 쓰인 ‘법’을 ‘행동하는 습성의 예(例)’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법’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2절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하고 양상 효력(양태의 정도성)도 ‘필연’ 또는 ‘당연’으로 논의되어 왔음 (안주호 2004, 다카치 2018 등).

- ‘필연성’과 ‘당연성’은 같은 개념인가? ‘필연성’ 혹은 ‘당연성’의 개념은 ‘-은 법이-’ 구문을 구성하는 어휘항목 중 어떤 요소에 의해서 보장되는가? 또한 (2ㄱ), (2ㄴ)에서 분류하고 있는 의미 차이는 ‘-은 법이-’ 구문이 가진 의미 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
 -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은 법이-’ 구문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항목의 의미 및 구문의 구조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2ㄱ)~(2ㄴ)이 사용되는 맥락이 ‘-은 법이-’ 구문의 해석을 결정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
-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은 법이-’ 구문의 양태를 어휘항목과 통사구조 및 구문이 사용되는 맥락을 토대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울러 이 글에서는 ‘보편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사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법’의 의미와 ‘-은 법이-’ 구문의 의미가 ‘총칭성(genericity)’과 연관된다고 보고, 총칭성의 의미가 양태 논의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함.⁴⁾

2. ‘-은 법이-’ 구문의 어휘항목과 구조

2.1. ‘법’의 [일반성]과 양태 의미 분화

- ‘법(法)’은 공시적으로 자립명사적 쓰임과 의존명사적 쓰임을 모두 가짐.⁵⁾ ‘법’이 아래 (3)에서처럼 자립명사로 쓰일 때에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서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의미함.⁶⁾ 하지만 의존명사로 쓰일 때에는 아래 (4)에서 보듯 ‘법’이 나타나는 통

4) 이금희(2012: 62)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 인용하며 ‘법’의 의미가 ‘방법, 규정’에서부터 의존명사의 ‘방법, 이치’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습성’에서 ‘보편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사건, 사태’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명사의 의미에서 의존명사의 의미로 전이,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하게 해석되는 의존명사 ‘법’의 의미를 관통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2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5) ‘법’은 후기중세국어와 근대한국어에서 자립명사이던 것이 현대한국어에서 의존명사로 전성된 것이다(이주행 2009: 191).

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자립명사 ‘법’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예 법을 제정하다.

2. 불교: 그 자체의 성품을 간직하여 변하지 않고 궤범이 되어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

사적 환경에 따라 ‘방법’, ‘습성’, ‘당연한 이치’, ‘가능성’의 의미를 가짐.

(3) ㄱ. 국가생활을 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법이다.

ㄴ. 가맹 본부가 직영점을 해야지만 끼어들 수 있다는 법이 없어요.

(이상 방송인터뷰 말뭉치)⁷⁾

(4) ㄱ. 혹시 스트레스를 푸는 법이 있으세요? [방법, 방식]

ㄴ. 사자는 굶어 죽을지언정 썩은 고기를 먹는 법이 없다. [습성, 상시성]

ㄷ. 새는 나는 법이다. [당연한 이치]

ㄹ. 누가 봐도 남자대학생이 살고 있을 법한 [개연성, 가능성]⁸⁾

- 요컨대 의존명사 ‘법’의 의미는 크게 ‘방법’, ‘일반성’, ‘가능성’으로 나누어 짐. 이 중 ‘방법’으로 해석되는 (4ㄱ)의 ‘법’은 (4ㄴ)~(4ㄹ)의 ‘법’과 달리 후행 조사나 후행 술어의 제약이 없으며 양태 구문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글의 연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결국 이 글에서 주로 논의하는 양태 구문에 쓰인 ‘법’은 ‘일반성’과 ‘가능성’,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일반성(generality)’의 의미로 분석될 수 있는 예: (4ㄴ)과 (4ㄷ)

(4ㄴ), (4ㄷ)에 쓰인 ‘법’은 모두 필수적이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표현함.

(4ㄴ)과 (4ㄷ)은 아래에서처럼 총칭문으로 환언될 수 있음.⁹⁾

(5) ㄱ. 사자는 굶어 죽을지언정 썩은 고기를 먹는 법이 없다. (=4ㄴ)

ㄴ. ≡ 사자는 굶어 죽을지언정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ㄷ. 새는 나는 법이다. (=4ㄷ)

ㄹ. ≡ 새는 난다.

를 낳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

3. 불교: 부처의 가르침이나 계율.

4. 불교: 물질과 정신의 온갖 것.

5. 언어: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 변화. 인도 유럽 어족에서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국어에서는 ‘평서법’, ‘의문법’, ‘감탄법’, ‘명령법’, ‘청유법’을 인정한다.

7) 이 글에서 인용한 예 중 말뭉치에서 인용한 예는 모두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모두의 말뭉치>의 구어 말뭉치에서 가져왔다.

8) 이주행(2009), 이금희(2012), 다카치(2018) 등 참고.

9) 이 글에서는 (5ㄹ)의 총칭문이 (5ㄷ)으로 환언되어도 큰 의미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에 명시적인 양태 술어가 결합되지 않은 (5ㄹ)과 같은 문장도 그 논리 형식(logical form)은 (5ㄷ)이 나타내는 총칭성의 논리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명시적 양태 표현이 결합한 ‘-는 법이-’ 구문과 그러한 표현이 없는 일반 총칭문 사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사자’와 ‘새’는 모두 특정 개체가 아니라 종류를 지시하는 명사구(kind-referring noun phrases)임(Krifka et al. 1995). 또한 (5ㄱ)과 (5ㄷ)의 ‘법’ 구문에는 모두 확실성을 나타내는 관형형 어미 ‘-ㄴ’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가 결합한 ‘-는’이 선행함.¹⁰⁾ 이는 동사 뒤에 오는 현재 시제의 관형형 어미 ‘-는’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나 일반적 상황을 나타내는 데 어울리기 때문.¹¹⁾
- ‘-는 법이 없-’ 구문과 ‘-은 법이-’ 구문의 차이
 - (6) ㄱ. 아빠는 뭐 하나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니까요.
 ㄴ. 역시 자네는 그저 쉬는 법이 없군.
 - (7) ㄱ. 사람은 죽는 법이다.
 ㄴ. #우리 할아버지는 죽는 법이다.
- (6ㄱ)의 ‘아빠’나 (6ㄴ)의 ‘자네’는 특정 개체를 지시하지만 ‘-는 법이 없-’ 구문이 결합하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음. 반면에 ‘-은 법이-’ 구문은 (7ㄱ)처럼 총칭 명사구 ‘사람’이 올 때는 자연스럽게 (7ㄴ)의 ‘우리 할아버지’처럼 특정 개체를 지시하는 명사구가 오면 비문이 됨. 이처럼 ‘-는 법이 없-’ 구문과 ‘-은 법이-’ 구문에 나타나는 주어 명사구의 의미 특성은 다르지만 두 구문 모두 [일반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 ‘-을 법하-’ 구문에서 해석되는 [가능성]도 [일반성]과 연관이 있음.
 - (8) ㄱ. 그분이 쾌차하셨을 법하다. (양정석 2017: 163의 예, 밑줄 필자)
 ㄴ. 비취두 어디 맞춤한 신랑감 없나? 우리, 집꼴 이래두 이쁘구 똑똑 하구 인제 직업까지 갖췄으니 돈 있는 집에서 사람 하나 보구 데려갈 법한데...?
 ㄷ.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는 할 법한데. 풀려나니까 볼 일 없으신 모양이네.

10) 관형형 어미 ‘-은’과 ‘-을’의 대립을 [±확실성]의 대립으로 본 견해는 서태룡(1980)이 있고 이를 도입해 설명한 사례로는 이정훈(2020) 등이 있다.

11) ‘-은 법이 없-’이나 ‘-은 법이-’ 구문 앞에 형용사가 올 경우에는 ‘-는-’의 영 이형태 ‘-∅-’가 실현된다. ‘-는-’의 이형태 규칙에 대한 논의는 이정훈(2006)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시제 어미가 총칭성에 쓰이는 것은 ‘상황시의 동시성’을 나타내는 현재의 의미가 총칭적 상황을 구성하는 하부 상황들 중 하나인 발화 순간과 동시적인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한동완 1996: 107), 전형적인 현재시제가 영구적이고 항상적인 현재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전후민 2011: 5). ‘-는-’의 의미 기능을 어떻게 설명하든 총칭문과 현재 시제 어미가 잘 어울린다는 현상에 주목하는 이 글의 입장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 (8ㄱ)~(8ㄴ)의 ‘-을 법하-’는 화자가 정황 근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어떤 상황이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하다고 판단할 때 사용됨. 그래서 (8ㄱ)은 ‘(치료를 잘 받아왔으므로) 그분이 쾌차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와 통하고 (8ㄴ)은 ‘어떤 신랑감이 비취를 데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와 통함. (8ㄴ)에서도 ‘(이 정도 상황이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화자의 판단이 해석됨.¹²⁾
- 즉 ‘-을 법하-’ 구문의 [가능성]은 가능성의 정도에서도 높은 가능성의 의미를 담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다른 양태 구문들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히 드러남.

- (9) ㄱ. #그럴 리 없지만 어쩌면 그분이 쾌차하셨을 법하다.
 ㄴ. 그럴 리 없지만 어쩌면 그분이 쾌차하셨을 수 있다.
 ㄷ. #그럴 리 없지만 어쩌면 철수가 시험에 합격할 법하다.
 ㄹ. 그럴 리 없지만 어쩌면 철수가 시험에 합격했을 지도 모른다.

- (10) ㄱ. 웬만하면 그분이 쾌차하셨을 법하다.
 ≡ 웬만하면 그분이 쾌차하셨을 직하다.
 ㄴ. 웬만하면 돈 있는 집에서 사람 하나 보구 데려갈 법한데.
 ≡ 웬만하면 돈 있는 집에서 사람 하나 보구 데려감 직한데.
 ㄷ. 웬만하면 고맙다는 인사 한 마디는 할 법한데.
 ≡ 웬만하면 고맙다는 인사 한 마디는 함 직한데.

-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을 법하-’ 구문에서 해석되는 [가능성]을 ‘어떤 정황 조건이 성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이때의 ‘법’ 역시 [일반성]의 의미에 포함됨.
- ‘-을 법하-’ 구문이 ‘-은 법이-’ 구문이나 ‘-는 법이 없-’ 구문과 달리 ‘일반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분화된 것은 관형형 어미 ‘-을’과 ‘-은’의 의미 대립에 의한 것. 즉 확실성을 나타내는 ‘-은’과 결합하지 않고 비확실성을 나타내는 ‘-을’이 일반성의 ‘법’과 결합하면서 ‘-은 법이-’ 구문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임.¹³⁾

12) 양정석(2017: 163~165)에서도 ‘-을 법하-’ 구문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대치 또는 기대의 수준을 고려하는 표현’이라고 하였으며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수일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13) ‘-을 법하-’ 구문의 ‘하-’와 ‘-은 법이-’ 구문의 ‘이-’에 대해서는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술어들이 논항을 실현하는 본동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 구문의 의미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고 본다. 자세한 논의는 명정희(2021: 108~116) 참고할 수 있다.

- 이 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는 법이 없-’, ‘-은 법이-’, ‘-을 법하-’ 구문에 쓰인 의존명사 ‘법’은 공통적으로 [일반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결합하는 술어의 종류에 따라 [일반성]이 드러나는 양상이 달라지고,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에 따라 [일반성]의 의미가 조정되어 분화됨.

2.2. ‘-은 법이-’ 구문의 구조

- ‘이-’: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경우, 서술성(predication)을 나타내는 경우¹⁴⁾

(11) ㄱ. 이것이 그 책이다.

 ㄴ. 철수가 학생이다.

(12) 겨울은 추운 법이다.

- (11ㄱ): ‘이것’과 ‘그 책’이 동일성 관계를 맺는 ‘이다’ 구문

(11ㄴ): ‘학생’이 ‘철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다’ 구문

- 그러면 (12)의 ‘이다’는 어떠한가? 먼저 ‘겨울’과 ‘추운 법’이 동일성 관계를 맺는다면 ‘그 책이 이것이다’처럼 ‘추운 법이 겨울이다’가 성립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음.

- (12)의 ‘이-’는 (11ㄱ)과 (11ㄴ)에 제시된 ‘이-’의 의미 외에 새로운 종류의 ‘이-’를 상정하지 않는 한, (11ㄴ)에 쓰인 ‘이-’와 같이 분석될 것임.

- (11ㄴ)의 문장에서 서술성은 ‘학생’과 ‘이-’가 함께 실현하며 ‘이-’는 통사범주를 실현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의미역을 부여하지는 못함. 그리하여 첫 번째 명사구(NP1) ‘철수’는 ‘학생’이 요구하는 의미역을 가짐.¹⁵⁾ 이와 마찬가지로 (12)의 문장을 분석하면 NP1 ‘겨울’은 ‘이-’에 의해 의미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에 선행하는 명사 ‘법’이 가진 의미역 자질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면 (12)는 [VP 겨울은₂ [V [NP [CP

14) (11ㄱ)의 ‘이것이 그 책이다’는 ‘그 책이 이것이다’처럼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가 자리를 바꾸어 나타날 수 있지만 (11ㄴ)은 ‘*학생이 철수다’에서 보듯 같은 의미를 유지하면서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다’ 구문의 유형 및 구조에 대한 논의는 엄정호(1989), 양정석(1996), 남길임(2003), 이정훈(2023 예정)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5) ‘이다’ 구문에서 ‘이다’에 의해 의미역이 부여되지 않고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에 의해 의미역이 부여되는 경우는 ‘나는 그 의견에 반대이다’와 같은 문장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다’ 구문에서 V ‘이-’ 앞에 결합하는 명사가 가진 의미역 자질에 따라 논항이 실현되고 ‘이-’에 의해 통사범주 V가 결정되므로 (11ㄴ)의 ‘NP1이 NP2이다’에서 서술성은 NP2와 계사 V ‘이-’가 공모해서 실현하는 것과 같다. 계사 구문에서 서술성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이정훈(2023 예정: 4장)을 참고할 수 있다.

겨울은₂ 추운] 법] 이-]]와 같은 통사구조를 갖게 되고 관형절 주어가 필수적으로 삭제되었다고 보아야 함. 이처럼 ‘법’이 두 개의 논항을 가진다고 볼 경우 두 개의 논항 중 하나는 관형절로 실현되고 또 다른 하나는 V ‘이-’에 그 의미역 자질이 전달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보게 됨.

-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관형절 서술어인 ‘춥다’의 논항과 ‘법’의 논항이 동시에 ‘겨울’로 실현되는 문제가 생긴. 또 ‘법’이 [일반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어휘 의미를 지니지 않은 의존명사 ‘법’이 적극적으로 의미역 자질을 부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함.
- 이에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V ‘이-’는 (11ㄴ)에 쓰인 ‘이-’와 달리 선행 명사에 의해 전달받아 채워져야 하는 의미역 틀을 지니지 않는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이정훈 2023 참고). 다만, ‘-은 법이-’ 구문에 실현되는 첫 번째 명사구는 아래 (13)에서 보듯 모문 위치에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니므로 단순히 ‘[VP [NP [CP 겨울은 추운] 법] 이-]’의 구조로 설명할 수는 없음.

(13) ㄱ. <u>미나는</u> 똑똑하다.	[중립적]
ㄴ. 나는 <u>미나는</u>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대조]
ㄷ. <u>미나가</u> 똑똑하다.	[초점]
ㄹ. 나는 <u>미나가</u>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중립적]
ㅁ. <u>겨울은</u> 추운 법이다.	[중립적]
ㅂ. <u>겨울이</u> 추운 법이다.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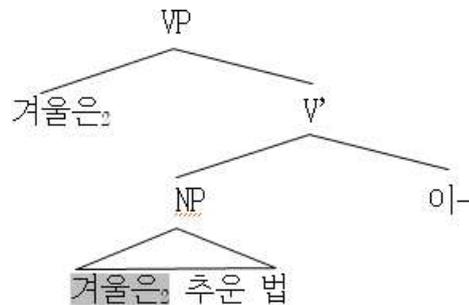
(이상 명정희 2021: 122의 예)

- (13)에서 보듯이 명사구에 ‘-은’이 결합할 때 중립적인 해석이 나오고 ‘-이’가 결합했을 때 초점 해석을 받는 것은 명사구가 모문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임. 이에 따르면 ‘겨울은 추운 법이다’에서 ‘겨울’은 ‘이다’가 결합한 모문 주어의 위치에 실현되고 ‘추운 법’은 ‘이다’ 앞에 결합함.
- 그렇다면 ‘-은 법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가 모문 위치에 분포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이는 ‘-은’과 ‘법’이 결합하며 총칭성의 술어를 형성하게 된 데에 기인함. (13ㅁ), (13ㅂ)과 달리 아래 (14ㄱ), (14ㄴ)의 NP1은 내포절에 위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은 법’과 ‘-을 법’이 형성하는 의미 차이와 연결됨.

(14) ㄱ. 지금쯤 <u>철수는</u> 도착했을 법하다.	[대조]
ㄴ. 지금쯤 <u>철수가</u> 도착했을 법하다.	[중립적]

- 사건 양태와 비교하여 추측의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해석이 적용되는 영향권(scope)은 명제 전체이다(신서인 2017, 명정희 2019 등). (14)의 ‘-을 법하-’ 구문의 구조도 ‘[[…법] 하다]’로 해석된다. 한편 ‘-은 법이-’ 구문은 관형절의 의미가 NP1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임을 나타내므로 NP1이 총칭성의 해석을 받기 위해서 V ‘이-’의 주어 자리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음.¹⁶⁾

(15) 겨울은 추운 법이다.



- ‘-은 법이-’ 구문은 주어 명사구가 어떤 속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나타냄.

3. ‘-은 법이-’ 구문의 의미 해석

- 이 절에서는 ‘-은 법이-’ 구문에서 해석되는 [일반성] 및 [총칭성]이 양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양태로 해석된다면 어떤 양태로 해석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¹⁷⁾

3.1. ‘-은 법이-’ 구문의 총칭성

- 16) 한편 Diesing(1992)에서는 ‘출다’와 같은 개체층위 술어와 (individual-level predicates)와 ‘도착하다’와 같은 장면 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s)에 따라 총칭성 해석을 받는 명사구의 위치가 다르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LF에서 VP의 spec에 오는 명사구와 달리 IP의 spec에 오는 명사구만이 총칭 운용소(generic operator)에 의해 총칭 해석(generic reading)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살펴보는 ‘-은 법이-’ 구문은 내포절의 주어 위치와 달리 모문의 위치에 오는 명사구만이 총칭성 해석을 받는데 ‘-은 법’과 ‘이-’가 결합하며 ‘-은 법’이 지닌 총칭성의 의미가 ‘이-’에 전달되어 총칭 해석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7) [일반성]은 전체에 두루 해당하는 성질을 나타내고 [총칭성]은 언어학에서 양화 논의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구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총칭성]이 ‘어떤 상황이 대개 혹은 일반적으로 성립되 예외도 인정함’을 나타낸다고 보았을 때, 총칭성은 일반성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일반성과 총칭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고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2절에서는 ‘법’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일반성]이라는 술어를 사용하였으나 3.1절 이하에서는 기존 양화 논의에서 다루어졌던 총칭성의 개념을 가능성 및 필연성 개념과의 관계 하에 조명한다는 점에서 [총칭성]이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 ‘-은 법이-’ 구문은 총칭 명사구만 주어로 허용하며 총칭문과 같이 해석됨. 총칭성(genericity)은 어떤 상황이 대개 혹은 일반적으로 성립하되 예외도 인정함을 나타내는데, ‘-은 법이-’ 구문 역시 아래와 같이 예외가 인정되는 추론을 야기함(강범모 2011, 전영철 2013, 염재일 2011 등).¹⁸⁾

- (16) ㄱ. 새는 나는 법이다.
 ㄴ. 펭귄은 새이다.
 ㄷ. 따라서 펭귄은 나는 법이다.

- (16ㄱ) ‘-은 법이-’ 구문: 일반성을 표현하되 예외를 인정함. (17)에서 다시 확인 가능.

- (17) ㄱ. 새는 나는 법이다. 그러나 어떤 새는 날지 못한다.
 ㄴ. 새는 알을 낳는 법이다. 그러나 어떤 새는 알을 낳지 못한다.
 ㄷ. 거북이는 오래 사는 법이다. 그러나 어떤 거북이는 오래 살지 않는다.

- 만약 총칭성을 일종의 양화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처럼 총칭성이 예외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필연성(\forall , necessity)의 의미론적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움.¹⁹⁾
- 그렇다면 보편 양화보다 약화된 ‘대개/거의 대부분(MOST)’과 같은 양화사의 의미로 총칭의 의미를 표상할 수 있을까?

(18) 대부분의x[새(x)][난다(x)]

- (18)은 (17ㄴ)의 ‘새는 알을 낳는 법이다’와 같은 문장에는 적용할 수 없

18) 이러한 추론을 비단조적(nonmonotonic) 추론이라고 하는데, 비단조적이라는 것은 한 정보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면서 다른 결론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추론을 야기하는 것에는 총칭문이나 양태가 포함된 문장이 있다. 이에 (15)와 같은 긍정식을 취소가 가능한 긍정식(defeasible modus ponens)라고 한다(염재일 2011: 308, Thakral 2019: 38~42).

19) 가령 (17ㄱ)의 의미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 명사구가 전칭 양화사(universal quantifiers)에 결속되는 구조인 ‘(모든 x에 대하여)(x가 새라면, x는 난다)’와 같은 의미구조를 설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전칭 양화사를 사용하여 총칭문의 의미를 삼부구조(tripartite structures)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가. $\text{ALL}_x[\text{새}(x)][\text{난다}(x)]$

위의 식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연산자(operator), 제약부(restrictor), 작용역(nuclear scope)이라고 부른다. 위에서 제약부가 나타내는 ‘새’의 집합과 작용역이 나타내는 ‘나는 것들’의 집합의 관계는 연산자 ALL(모든)에 의해 포착된다. 따라서 ‘새는 난다’나 ‘새는 나는 법이다’의 의미 표상 구조를 위와 같이 나타내면 새의 집합이 나는 것들의 집합 안에 부분 집합으로 포함됨을 보여준다. 하지만 위에서도 이야기하였듯 총칭문은 예외를 인정하므로 전칭 양화 연산자를 통해 의미를 표상하기 어렵다.

음. ‘대부분의 새’가 ‘알을 낳는 것들’의 집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새 중에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암컷 중에서도 건강한 암컷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새의 절반에도 못 미침.²⁰⁾

- 이에 일반 양화사 GENERIC(줄여서, GEN) 연산자를 도입하여 총칭문의 의미를 표상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맥락에 따라 총칭 명사구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특성(19)과 총칭 명사구가 아니라 서술어에 의해 총칭성이 해석된다는 점(20)을 반영하기 위해 맥락 술어 C와 상황 변항 s를 도입함.²¹⁾

(19) ㄱ. 초등학교생들은 잘 떠든다 (전영철 2012: 70의 예)

ㄴ. GENx, s[C(x, 초등학교생, s)][잘.떠든다(x, s)]

(20) ㄱ. 저 개는 시끄럽게 짖는다 (전영철 2012: 65의 예)

ㄴ. GENs[C(저.개, s)][시끄럽게.짖는다(저.개, s)]

- (19ㄴ), (20ㄴ)에서 제시되었듯이 총칭성 해석이 적용되는 대상은 맥락에 따라 달라짐. ‘-은 범이-’ 구문 역시 아래에서 보듯 맥락에 따라 일반성이 성립하는 상황이 달라짐.

(21) 새는 나는 법이다.

ㄱ. 새의 DNA 구조 및 신체 구조에 따르면 새는 나는 법이다.

ㄴ. 어미 새가 키운 새끼들의 성향에 따르면 새는 나는 법이다.

ㄷ. 내가 본 새들에 따르면 새는 나는 법이다.

(22) 손윗동서랑 막내동서는 사이가 좋은 법이다.

ㄱ. 한국에 있는 동서지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손윗동서랑 막내동서는 사이가 좋은 법이다.

ㄴ. 한국의 동서지간 중 동서가 셋인 경우를 본 나의 경험에 따르면 손윗동서랑 막내동서는 사이가 좋은 법이다.

- 맥락에 따라 일반성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가 달라짐.

20) 즉 총칭문이라고 하여 주어 명사구의 과반이 총칭성 해석의 절대적 조건은 아닌 것이다(강범모 2018: 113, Krifka et al. 1995: 44 참고). 강범모(2018: 113)에서는 총칭문 중 과반의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예로 ‘한국인은 개를 먹는다’, ‘미국 과학자는 노벨상을 탄다’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고 Krifka et al.(1994: 44)에서는 ‘An Anopheles mosquito carries malaria’, ‘A turtle lives a long life’와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21) GEN은 아래에서 보듯 특정 맥락(C)에서 상황(s)을 결속한다(전영철 2012, Parsons 1990, Chierchia 1995, Herburger 2000 참고).

(21ㄱ): ‘새’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세상의 모든 새가 됨.

(21ㄴ): ‘새’는 양육 환경을 기준으로 어미에 의해 키워진 새들을 대상으로 좁혀짐.

(21ㄷ): 화자가 살면서 본 새들에 한정되어 훨씬 좁은 범위 안에서 일반성을 논의함.

- 위의 현상은 ‘-은 법이-’ 구문의 해석이 화자의 특정 관점 하에 해석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서로 다른 관점의 대화 배경(conversational background)에서는 같은 ‘-은 법이-’ 구문이라도 진릿값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이는 다시 말하면 실제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일반성이 확보되는 가능세계만 가정한다면 ‘-은 법이-’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함. 이에 아래 (23)처럼 실제 세계의 일이 아니어도 ‘-은 법이-’ 구문은 일반성을 표현할 수 있음.

(23) ㄱ. 산타할아버지는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시는 법이다.

ㄴ.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범죄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법이다.

- 이처럼 특정 가능세계에서 맥락에 따라 의미 해석이 결정되는 것은 아래 ‘-을 수 있-’ 양태 구문이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가지는 것과 같은 양상임.²²⁾

(24) ㄱ. 개의 성향에 따르면, 개는 물 수 있다. [성향]

ㄴ. 철수가 다니는 회사의 휴가 제도에 따르면, 철수는 일주일 휴가를 쓸 수 있다. [허가]

ㄷ. 철수의 신체 조건과 연습 시간에 따르면, 철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능력]

ㄹ. 경찰이 획득한 증거들에 따르면, 철수가 범인일 수 있다. [추측]²³⁾

22) ‘-을 수 있-’ 구문의 양태에 대한 논의는 시정곤김건희(2009), 이정훈(202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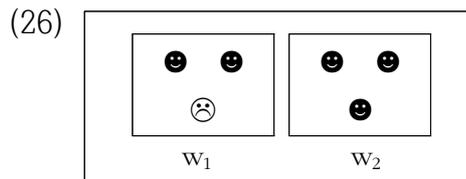
23) (24)에서 ‘~에 따르면’에 의해 나타나는 내용은 ‘-을 수 있-’ 구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맥락 조건이며 어떤 경우에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양태 해석의 배경을 제공한다. ‘~에 따르면(in view of-)’으로 나타나는 맥락을 Kratzer(1977, 1981)에서는 대화 배경(conversational backgrounds)라는 함수로 설명하였다. 이는 다시 양상 기반(modal base)과 순서 근거(ordering source)로 나누어지는데 양태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인식양태는 ‘내가 알고 있는 증거에 따르면’과 같은 인식 양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석된다.

- (21), (22)에서 살펴봤던 ‘-은 법이-’ 구문의 총칭성도 ‘~에 따르면’에 의해 특정 대화 배경(맥락)이 가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양화사 논의가 아니라 가능 세계(possible worlds)를 도입한 양상 논의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것임.²⁴⁾

3.2. 총칭성과 가능성 및 필연성

- ‘-은 법이-’ 구문은 문장이 기술하는 상황이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generic)임을 나타내는데 일반성 판단이 적용되는 세계는 맥락에 따라 달라짐.²⁵⁾
- 그렇다면 상황이 일반적으로 성립함을 나타내는 총칭성은 무엇인가?
 - GEN이라는 양화사를 새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이에 이 글에서는 GEN을 도입하기 이전에, 기존 논의에 존재하는 가능성이나 필연성 개념으로 총칭성의 의미를 해석해 보는 접근 방법을 취함.
- ‘-은 법이-’ 구문의 의미를 가능성(possibility), 즉 가능세계에 대한 존재 양화로 표상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25) 아이들은 행복한 법이다.



☺는 아이가 행복한 것을 나타내고 ☹는 행복하지 않은 것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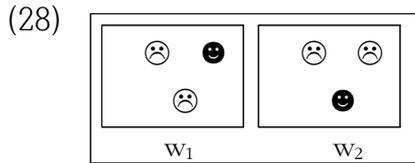
- (25)는 (26)의 w_1 처럼 예외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아이(☹)가 존재하더라도 화자가 상정한 가능세계에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할 경우 참이 됨. 따라서 위의 (26)에서 w_1 과 w_2 를 모두 고려하여 가능성과 필연성을 따져보면, 모든 세계에서 100% 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은 법이-’ 구문은 가능성으

24)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해 총칭문을 설명한 논의에는 Yeom(2002)가 있다.

25) 이때 어떤 상황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양태 논의에서는 가능세계(possible worlds)라고 한다. 상황이 성립하는 경우가 특정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가능성(possibility) 양태라고 하고, 모든 가능세계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은 필연성(necessity) 양태라고 한다. 이러한 양상 논리(modal logic)의 개념을 토대로 양태에 접근하는 경우, 양태는 가능세계에 대한 존재(existential) 양화와 보편(universal) 양화로 설명된다. 가능세계에 대한 양화로 양태를 설명하는 논의는 이기용(1978), 양정석(2016), 이정훈(2020), 명정희(2020, 2021), 전영철(2022), Kratzer(1977, 1981), Portner(200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로 볼 수 있을 듯함. 그런데 (25)는 아래 (27)의 ‘-을 수 있-’ 구문이 성립하는 (28)의 가능세계들을 고려했을 때는 참이 되지 않음.

(27) 아이들은 행복할 수도 있다.



- 즉 ‘아이들은 행복할 수도 있다’가 참이라고 하여 ‘아이들은 행복한 법이다’도 항상 참이 되는 것은 아님. 반대로 ‘아이들은 행복한 법이다’가 참이 되는 가능세계에서는 ‘아이들은 행복할 수도 있다’도 참이 됨. 이는 다시 말하면, ‘-은 법이-’ 구문이 나타내는 가능성은 ‘-을 수 있-’ 구문이 나타내는 가능성과는 구분되며 가능성 중에서도 ‘강한 가능성’을 나타냄. 추측으로 해석되는 ‘-을 수 있-’ 구문은 ‘낮은 가능성’부터 (26)의 상황과 같은 ‘높은 가능성’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반면 ‘-은 법이-’ 구문의 가능성은 ‘강한 가능성’으로만 한정되는 것. 이러한 차이는 아래 (25), (27)에서도 드러남.

(29) ㄱ. #그럴 리 없지만 어쩌면 아이는 행복한 법이다.

ㄴ. 그럴 리 없지만 어쩌면 아이는 행복할 수 있다.

- 이에 ‘-은 법이-’ 구문의 의미 표상은 강한 가능성으로 한정지어 포착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강한 가능성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어 나타내느냐는 것임. 이 글에서는 이 질문의 답을 필연성 성립 여부에서 찾고자 함.
- ‘-은 법이-’ 구문은 화자가 상정하는 특정 가능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반면, ‘-을 수 있-’ 구문은 화자가 상정하는 특정 가능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성립하지 않음.²⁶⁾

(30) ㄱ. 언제나 사람은 실수를 하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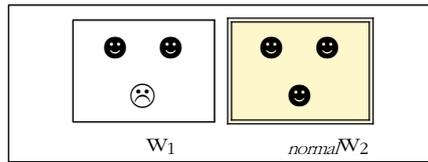
ㄴ. 항상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법이거든.²⁷⁾

26) 다카치(2018: 107)에서도 ‘-은 법이-’ 구문은 [+항시]의 의미 특성을 가진 부사어와 공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안주호(2004)에서 ‘-은 법이-’ 구문을 필연성에 속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논의에서 ‘-은 법이-’ 구문의 의미를 양상 논리(modal logic) 접근법을 취해 해석한 것은 아니었으나, 가능성보다는 필연성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은 법이-’ 구문이 필연성으로 해석된다는 직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27) 위의 예는 ‘-은 법이-’ 구문을 기존 논의에서 필연성으로 분류하게 했던 주된 예문이기도 하다(안주호 2004, 다카치 2018 등 참고).

- ‘-은 법이-’ 구문을 발화하는 화자는 자신이 상정하는 특정 가능세계에서는 명제가 항상 참이 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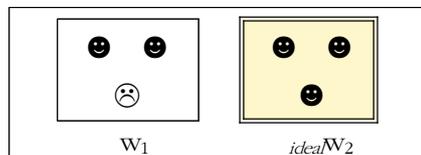
(31) 아이들의 특성이 지켜지는 가장 정상적인(일반적인) 세계를 가정하면, 아이들은 행복한 법이다. (= (25))



- (31)의 ‘-은 법이-’ 구문을 발화한 화자가 가정하는 가능세계는 아이들의 특성과 관련된 사실(facts)을 고려한 가능세계 중에서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로 좁혀짐. (31)은 정상적 세계(normalW2)에서는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다는 것을 나타냄.²⁸⁾ 요컨대 ‘-은 법이-’ 구문이 나타내는 총칭성은 필연성으로 설명할 수 있되, 명제가 참이 되는 상황(가능세계)의 범위를 두 가지의 기준으로 제약하는 것임(von Fintel and Iatridou 2008 참고). 위의 (31)에서는 아이들 특성(사실)들이 성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능세계가 한 번 좁혀지고, 그 다음으로 ‘정상적(normal)이라고 생각되는 것’ 혹은 ‘일반적(general)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한 번 더 좁혀지는 것이다.

- 이는 필연성을 나타내는 ‘-어야 하-’ 구문에서 가능세계를 고려하는 과정과 같음.

(32) 아이들의 특성이 지켜지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가정하면,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 ‘-은 법이-’ 구문과 ‘-어야 하-’ 구문은 모두 화자가 상정하는 가능세계의 범위 안에서는 명제가 항상 성립함을 나타내므로 아래 대화에서처럼 화자가 고려한 좁은 가능세계 안에서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음.

28) Heim(1982)에서는 총칭성 연산자(operator)가 필연성(necessity)의 양상 연산자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33) ㄱ. 철수: 학생들은 노는 걸 좋아하는 법이야.

미나: 아니야. 영수는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아.

철수: 그래? 몰랐네.

ㄴ. 철수: 학생들은 노는 걸 좋아해야 해.

미나: 아니야. 영수는 노는 걸 좋아하면 안 돼.

철수: 왜? 영수도 놀아야 해.

- (31)~(33)에서 살펴보았듯, ‘-은 법이-’ 구문은 ‘-어야 하-’ 구문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상정하는 가능세계 안에서 필연적임을 나타냄. 이와 비교하여 ‘-을 수 있-’ 구문은 화자가 상정하는 가능세계 안에서도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와 거짓이 되는 경우가 공존함을 나타내 가능성을 나타냄.²⁹⁾ 이러한 차이는 아래 예들에서처럼 같은 가능세계 안에서 모순되는 두 개의 상황을 대등하게 접촉했을 때도 드러남.

(34) ㄱ. #아이들은 행복한 법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법이다.

ㄴ.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아야 한다.

ㄷ.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35) ㄱ.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는 법이다. 그리고 어른을 보면 인사를 안 하는 법이다.

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른을 보면 인사를 안 해야 한다.

ㄷ.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른을 보면 인사를 안 할 수도 있다.

- (34), (35): ‘-은 법이-’ 구문은 가능정보다는 필연성과 통하는 의미 특징을 가짐.³⁰⁾

29) ‘-을 수 있-’ 구문 중에서 (33ㄱ), (33ㄴ)과 같이 화자가 가정한 가능세계에서 명제가 항상 참이 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에는 ‘-을 수 있-’ 구문이 추측으로 해석되지 않고 능력으로 해석되는 경우인데 가령 ‘영수는 영어를 할 수 있다’와 같은 문장이 능력으로 해석될 때에는 ‘영수가 영어를 할 만한 물리적, 정신적 환경에 따르면, 영수가 영어를 하는 것이 항상 성립한다’와 같이 필연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양태 논의에서도 능력(ability)은 총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논의된바 이 역시 가능성 혹은 필연성의 양상 개념 중 무엇으로 설명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을 수 있-’의 능력(총칭성)을 필연성으로 설명한 논의는 Mun(2016)을 참고할 수 있다.

30) 이는 양태 논의에서 ‘약한 필연성(weak necessity)’이라고 구분되어 오기도 하였는데 영어에서는 필연성의 ‘must’와 구분하여 ‘should’나 ‘ought to’가 약한 필연성(WN)을 나타내는 형태로 제시되어 왔다. 영어에서 ‘ought to’가 쓰인 아래 표현은 필연성과 가능성의 양태가 이어 발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함축 관계가 다르다.

I ought to help the poor.

- 그러면 ‘-은 법이-’ 구문이 나타내는 필연성과 ‘-어야 하-’ 구문이 나타내는 필연성은 항상 동일한가?

↳ ‘-은 법이-’ 구문과 ‘-어야 하-’ 구문의 의미 차이는 상정되는 가능세계의 차이. 각각 상정하는 가능세계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 ‘-어야 하-’ 구문의 필연성이 성립하는 맥락(개인적, 개별적 규칙 가정되는 맥락 가능)과 ‘-은 법이-’ 구문의 필연성이 성립하는 맥락(일반적 규칙, 관습 가정되는 맥락)은 다를 수밖에 없음.

(36) 맥락(context): 철수는 영희에게 여행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영희는 철수에게 화가 나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ㄱ. 영희: 너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해야 한다.

ㄴ. 영희: #너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하는 법이다.

(37) 맥락(context): 미주는 오늘 상견례를 하기로 했지만 남편(하림) 부모님에게 일이 생겨 상견례가 취소됐다. 미주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그러자 미주의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상견례를 취소한 것과 이 사실을 자신에게 직접 알리지 않아 매우 화가 났다. 화가 난 미주 엄마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ㄱ. 미주 엄마: 연기해야 할 사정이라면 그 사람 엄마가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양해를 구해야 해! 우릴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ㄴ. 미주 엄마: #연기해야 할 사정이라면 그 사람 엄마가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는 법이야!

- 그런데 위의 맥락에서 ‘-은 법이-’ 구문만 사용되면 어색하지만 ‘-어야 하는 법이-’ 구문이 사용되면 자연스러움.

(38) ㄱ. ((36)의 맥락에서)

영희: 너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해야 하는 법이다.

ㄴ. ((37)의 맥락에서)

a. In fact, I must. [cancellation]

b. But I don't have to. [reinforcement]

c. Maybe I have to. [suspension] (Silk 2022: 1-2)

약한 필연성에 대한 논의는 von Stechow and Iatridou(2008), Portner and Rubenstein(2016), Rubenstein (2020), Silk(202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엄마: 연기해야 할 사정이라면 그 사람 엄마가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법이야!

- (38)처럼 ‘-어야 하는 법이-’ 구문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개인적인 상황의 당위성이 일반적인 도덕성이 지켜지는 세계에서도 성립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

4. 마무리

- 이 글에서는 ‘-은 법이-’ 구문의 의미를 ‘-은’, ‘법’, ‘이-’의 의미와 ‘-은 법이-’ 구문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한편 ‘-은 법이-’ 구문이 나타내는 총칭성(genericity)이 무엇인지 가능성 및 필연성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였음.
- ‘어떤 상황이 당연함’을 나타내는 ‘-은 법이-’ 구문의 의미는 관형형 어미 ‘-은’과 의존명사 ‘법’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특히 의존명사 ‘법’은 ‘법’을 포함한 의존명사 구문에서 공통적으로 [일반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의 종류와 후행 술어에 따라 구문의 의미가 조정되어 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줌.
- ‘-은 법이-’ 구문이 나타내는 ‘당연성’의 의미는 총칭문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 글에서는 총칭성의 개념을 가능세계의 양상 의미론적 관점에서 설명함. 총칭성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성과 필연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은 법이-’ 구문의 총칭성은 화자가 상정한 특정 가능세계에서의 필연성으로 설명될 수 있음. 요컨대 ‘-은 법이-’ 구문의 의미는 가능세계에 대한 필연성 양화로 설명할 수 있되,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가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로 그 기준이 좁혀질 때 도출됨.
- 이 글에서는 ‘-은 법이-’ 구문의 의미를 다른 양태 구문과의 관계 및 가능성, 필연성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살펴 체계적인 설명을 추구하였으나 ‘-을 법하-’에서 해석되는 일반성의 의미와 ‘-은 법이-’의 의미와의 관계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은 법이-’ 구문의 구체적 양태 의미, ‘-기 마련이-’와 ‘-은 법이-’ 구문의 관계 등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연구 주제로 남아 있음.

<참고 문헌>

강범모. 2011. 「명사구의 의미 해석」, 염재일 외, 『영어 의미론』. 종합출판 EnG. 105~139쪽.

- 강범모(2018), 『의미론 국어, 세계, 마음』, 한국문화사.
- 남길임(2003), 「‘이다’ 구문의 한 유형-양태 구문으로서의 ‘이다’ 구문 연구-」, 한글 259, 한글학회, 171~198쪽.
- 다카치 토모나리(2018),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양태 정도성」, 어학연구 54(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97~121쪽.
- 다카치 토모나리(2020), 「빈도성과 시간적 국소 한정성의 상관관계: 한국어의 문법적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 39, 언어정보연구소(서강대), 1~30쪽.
- 박승윤(1998), 「형식명사 술어 구문의 문법화 현상」, 담화와인지 5(2), 담화인지언어학회, 41~56쪽.
- 명정희(2019), 「‘-을 수 있-’의 양태와 시간 해석」, 한국어학 82, 한국어학회, 1~29쪽.
- 명정희(2020), 「맥락을 반영한 양태 도출 과정에 대하여-양태의 다기능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93, 국어학회, 309~341쪽.
- 명정희(2021), 『한국어 양태 구문의 의미 해석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시정곤·김건희(2009), 「의존명사 구문의 양태적 고찰」,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177~212쪽.
- 시정곤·김건희(2011), 「‘의존명사+이다’ 구문에 대한 양태적 고찰」, 어문연구 68,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79~102쪽.
- 신서인(2017), 「양태 표현의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1~29쪽.
- 안주호(2004), 「‘-ㄴ 법이다’류의 양태표현 연구」, 국어학, 국어학회, 185~210쪽.
- 양정석(1996), 「‘이다’ 구문의 의미 해석」, 동방학지 9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99~134쪽.
- 양정석(2017), 『주관적 판단의 문법: 주관성 형용사, 양상, 증거성』, 한국문화사.
- 엄정호(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 18, 국어학회, 110~130쪽.
- 염재일(2002), 「Reasoning with Generics Based on Truth-Conditional Semantics」, 어학연구 38(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585~617쪽.
- 염재일(2011), 비표상적 이론에서의 동적 의미론, 염재일 외, 『영어 의미론』, 종합출판 EnG, 277~322쪽.
- 이기용(1978), 언어와 추정」, 국어학 6, 국어학회, 29~64쪽.
- 이금희(2012), 「의존명사의 문법화 정도와 양태적인 의미」, 어문연구 40(3), 한국어문교육 연구회, 57~89쪽.
- 이양희(2005), 「한국어 ‘법이다’ ‘마련이다’의 의미용법」, 언어과학연구 32, 269~284쪽.
- 이정훈(2006), 「어미의 형태분석에 대하여-이형태 규칙과 통사구조 형성을 중심으로-」, 형태론 8(1), 형태론, 65~86쪽.
- 이정훈(2020), 「‘-을 수 있-’ 구문의 어휘항목과 통사구조 그리고 의미」, 국어학 95, 국어학회, 65~113쪽.
- 이정훈(2023 예정), 『한국어 기술 생성 통사론』, 역락.
- 이주행(2009), 『한국어 의존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 전영철(2012), 「총칭성과 양화」,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51~76쪽.
- 전영철(2013),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한정성/특정성, 총칭성, 복수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전영철(2022), 「한국어 양상 범주의 형식의미론적 접근에 대하여」, 인문논총 79(2),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7~38쪽.
- 전후민(2011), 「‘-느-’의 형태소 분석에 대하여」, 형태론13(2), 형태론, 311~333쪽.
- 한동완(1993), 「‘-느-’ 脫落形 語尾에 대하여」, 서강어문 9, 서강어문학회, 45~61쪽.
-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 연구』, 태학사.
- Carlson G. and F. Pelletier, eds., (1995), *The Generic Boo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erchia, G.(1995), Individual-Level Predicates and Inherent Generics, in G. Carlson and F.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76~223.
- Deising, M.(1992), *Indefinites*, Cambridge, MA: The MIT Press.
- Heim, L.(1985), Generic Descriptions, Default Reasoning, and Typicality, *Theoretical Linguistics* 11, 33~72.
- Herburger, E.(2000), *What Counts Focus and Quantification*, *Linguistics Inquiry Monograph* 36, The MIT Press.
- Kratzer, A.(1977), What ‘Must’ and ‘Can’ Must and Can Mean, *Linguistic and Philosophy* 1, 337-355.
- Kratzer, A.(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In H. -J. Eikmeyer & H. Rieser eds., *Words, Worlds, and Contexts: New Approaches in Word Semantics*, Walter de Gruyter, 38-74.
- Krifka, M., Pelletier, F., Carlson, G., ter Meulen, A., Chierchia, G., and Link, G.(1995), Genericity: An Introduction, in G. Carlson and F.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124.
- Mun, B. K.(2016), *The Interaction of Modality and Tense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Papafragou, A.(1996), On generics,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8, 1~35.
- Parsons, T.(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A Study in Subatomic Semantics*, The MIT Press.
- Portner, P.(2009), *Mod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ortner, P. and Rubinstein, A.(2016), Extreme and non-extreme deontic modals, in Charlow, N. & Charisman, M. eds., *Deontic Mod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56-282.
- Thakral, R.(2019), *Generics, Modality, and Moralit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t Andrews.
- Rubinstein, A.(2020), Weak Necessity, in Gutzmann, D., Matthewson, L., Meier, C., Rullmann, H., and Zimmermann, T. E., eds.,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Semantics V.5*, 3153-3196.
- Silk, A. (2022), Weak and Strong Necessity Modals: On Linguistic Means of

Expressing, “A Primitive Concept OUGHT”, in Billy Dunaway & David Plunkett eds., *Meaning, Decision, and Norms: Themes from the Work of Allan Gibbard*, Michigan Publishing Services.

von Fintel, K. and Iatridou, S.(2008), How to Say Ought in Foreign: The Composition of Weak Necessity Modals, in Jacqueline, G. & Jacqueline, L. eds., *Time and Modality*, Springer, 115-141.

정태진 선생 탄생 120돌 기념 특별 강연

정태진 선생의 우리말 사랑 / 권재일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3년 5월 12일(금) 10:00~17:40 / 한글학회 강당

□ 정태진 선생 탄생 120돌 기념 특별 강연

정태진 선생의 우리말 사랑

권재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kwonjil@snu.ac.kr

1. 머리말

석인 정태진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우리말 말살 정책에 항거하여 우리말을 연구·교육하여 지켰으며, 광복 이후에도 계속하여 우리말의 연구와 보급에 큰 업적을 이루었다. 정태진 선생은 일제강점기에는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를 거쳐 조선어학회에서 『큰사전』 편찬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으로 3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광복과 더불어 한글학회에 돌아와 『큰사전』 편찬을 다시 시작하는 한편, 여러 교육기관에서 국어학을 강의하였다. 이제 정태진 선생의 우리말글을 지킨 **우리말 사랑** 정신을 살펴보고, 우리말 연구의 업적, 특히 **방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는 선생이 태어나신 지 두 갑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정태진 선생은 말에는 겨레의 얼이 들어 있으니, 겨레의 말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겨레의 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였다. 이렇듯 선생이 평생 지녔던 정신은 한글 사랑의 정신이며, 겨레 사랑의 정신이었으며, 우리 겨레의 행복을 위하여 한글을 사랑하였다. 말과 글은 한민족의 피요, 생명이요, 혼이라고 생각하였다.

정태진 선생의 국어학에 대한 업적은 저서와 강의안, 기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업적은 『석인 정 태진 전집(상)(하)』(1995/1996, 나주정씨월헌공파총회 발행)에 담겨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강의안은 모두 직접 손으로 쓴 글인데, 더하고 지우고 하여 여러 차례 고친 흔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국어학에 대한 선생의 생각과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대학 강의를 위한 강의안으로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의안이 더 보태고 고쳐서 온전한 저서로 출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정태진 선생의 우리 말글에 대한 정신과 학문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이제 정태진 선생의 우리말 사랑 정신과 학문(특히, 방언 연구)을 되새겨 보아 이에 담긴 가치를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의 정신과 학문을 이어가고자 한다.

2. 정태진 선생의 삶

2.1. 생애

정태진(丁泰鎭) 선생은 1903년 7월 25일(음력) 경기도 교하군 아동면 금릉리(지금의 파주시 금촌1동)에서 부친 정규원 선생과 모친 죽산 박씨 사이의 3형제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의 호는 석인(石人)인데, 쇠돌, 흰메 등으로도 썼다.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한문과 한시를 배우고 교하보통공립학교를 마친 후, 1921년에 경성고등보통학교를, 1925년에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였다. 그리고는 미국인 선교사인 연희전문학교 부교장 빌링스(Bliss W. Billings) 목사가 미국으로 유학 가라고 권유하였지만 이를 사양하고, 그보다도 정인보 교수에게서 받은 애국심의 발동으로 교사 구하기를 어려워하는 추운 지방, 함흥에 있는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에 교사로 근무하였다. 학생들에게 조선어와 영어를 가르치면서 틈나는 대로 민족의 얼을 심어 주며, 국내외 문학 작품을 소개해 주고, 또한 한글의 우수성과 조선문학의 뛰어남을 통하여 조선말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선생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신이 남을 가르치는 스승이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지내던 차에 세 번째로 빌링스 목사의 유학 권유를 받고 미국 유학을 결심하였다. 그렇게 하여 1927년 미국 우스터대학의 철학과에 입학하였다. 1930년에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 대학원에 가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였다. 1931년에 귀국하자 서울에 있는 여러 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했지만 다 거절하고 영생학교로 복귀하였다.

선생은 교실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너희들은 조선말만 써야 한다. 너희들이 아름다운 조선말을 안 쓰면, 얼마 아니 가서 조선말과 조선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게 된다.”라고 교훈하였다. 그렇게 하여 10년을 함흥에서 지냈는데 어느 날 선생보다 여섯 살 위인 연희전문학교 동기생인 정인승 선생으로부터 뜻밖의 간청을 받았다. 연희전문학교 시절 두 사람은 정인보 교수의 지도를 받아 우리가 고유한 민족문화를 가진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정인승 선생은 일제의 조선말 말살정책으로 이 지구상에서 조선말이 없어져 가고 있음이 안타까워서 고창고 등보통학교 교사직을 내던지고 조선어학회에 와서 큰사전 편찬 일을 하는 중인데, 같이 조선어학회에서 일을 하자고 간청한 것이다. 선생은 정인승 선생 뜻에 동의하여 결국 1940년 봄방학에 영생학교를 사직하고 서울로 왔다. 그 시절 영생학교는 월급이 115원이고 한글학회는 50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개학을 하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시라고 간청하였다.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복귀하였으나 선생은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다시 사직하고, 1941년 봄에 조선어학회로 와서 큰사전 편찬 사업에 힘을 합쳐 일하였다.

그러던 중, 선생은 1942년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의 첫 인물로 걸려들어 모진 옥고를 치르고 나서 1945년 1월 16일, 선생은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 때문에 두 동지가 순국하고 그 밖의 많은 동지들에게도 죽을 고통을 받게 한 것에 대해 속죄하는 뜻으로 선생은 상고를 포기하고 선고받은 실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광복 한 달 전인 1945년 7월 1일 풀려나왔다.

선생은 광복 다음 날인 8월 16일, 혼자 조선어학회에 나가 편찬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이곳저곳 다 찾아보았으나 큰사전 원고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부터 새롭게 사전 원고를 쓰려 하니 고문당할 때보다 더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폐허가 된 학회 사무실에서 남은 인생을 다시 큰사전 원고 쓰는 일에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8월 20일 조선어학회는 긴급 총회를 열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국어 교육이라 판단하고 국어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선생은 큰사전 원고 쓰는 일과 함께 새 교과서 엮기에 온 힘을 다하였다.

미국 유학까지 마쳤으니 미 군정청과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관료로 오라는 청을 받았다(정해동 1999 : 181). 연희대학을 비롯한 이 대학 저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는 청도 받았다. 그러나 모두 거절하고 오로지 큰사전 편찬 일을 고집하였다. 아울러 세종 중등국어교사 양성소, 연희대학, 중앙대학, 흥익대학, 동국대학, 국학대학 등에서 국어학 강의를 맡으며 틈틈이 저술

활동도 이어갔다. 이렇듯 선생이 모든 세속적인 출세를 마다한 채, 큰사전 편찬, 그리고 우리말 연구와 교육에만 힘썼다.

선생의 돌과 같이 단단한 의지에 힘입어 조선어학회는 마침내 1947년 한글날에 『조선말 큰사전』 첫째 권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우리 민족문화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금자탑을 세웠다. 이어서 둘째 권과 셋째 권을 펴내었다.

1949년 9월 25일에 선생은 한글학회 이사를 맡았다. 그러면서도 큰사전 편찬 일에 더욱 힘을 쏟았다. 넷째 권의 마지막 교정을 마치고 다섯째 권의 원고 교정도 마쳤다. 그러던 중, 1952년 11월 2일, 고향인 파주에 성묘할 겸 식량을 구하러 갔다. 기차가 다니지 않으니 평소 하던 대로 서대문에서 파주로 가는 군용 트럭을 타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덜컹덜컹하던 트럭이 파주 입구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전쟁으로 파괴된 언덕길을 달리던 트럭이 그만 논바닥으로 내리굴러 뒤집혔다. 큰사전 완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선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3월 1일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선생에게 추서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 석인정태진기념관을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33에 세워 선생의 우리 말글 사랑 정신을 기리고 있다.

2.2.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

조선어학회의 큰사전 편찬이 막바지에 이른 1930년대 말, 당시는 일제의 전쟁 감행으로 여러 민간 문화단체를 함부로 해산시키는 상황이어서 이런 불안과 위협을 나날이 느끼는 조선어학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어떻게 해서라도, 사전 편찬은 완성해야겠다는 의지뿐이었다. 드디어 1939년 말에 원고 작성이 완료된, 전체의 약 3분의 1가량을 총독부 도서관에 출원하여, 간신히 1940년 3월 본문을 상당히 고치고 지우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나마 우선 출판 허가를 받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고, 나머지 부분의 원고 편찬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미 출판 허가된 일부 원고의 조판이 1942년 봄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의 교정 작업 또한 바쁘게 병행되었다. 이리하여, 대부분 어휘의 뜻풀이가 끝나 조판을 시작한 부분의 교정도 병행하고 있던 무렵인 1942년 10월 1일부터 조선어학회 학자와 후원자가 체포되는 수난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이다. 일본 경찰이 1942년 10월 사전 편찬을 주도했다는 죄목으로 서른세 분의 조선어학회 선열들을 흥원경찰서와 함흥경찰서에 가두고 모질게 고문해 이윤재, 한징

두 선열이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다른 분들은 광복 전후에 반죽음 상태로 풀려난 사건이다.

조선어학회 사건의 발단은 정태진 선생의 제자인 한 여학생의 일기 몇 줄이었다. 1942년 여름 방학 직후, 함경남도 홍원군 전진역에 철도 승객을 단속하러 나왔던 홍원경찰서 형사가 박병엽이란 청년을 불심검문하였다. 반일 감정이 컸던 그는 당시 총독부가 강요하던 국방복도 안 입고 삭발도 하지 않았다 하여 형사가 그의 집을 수색하였다. 수색에서 박병엽의 조카인 영생학교 4학년 박영희 양의 일기장을 발견하니 2년 전에 쓴 일기 중에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는 문구가 있었다. 일제는 국어 상용이라 하여 일본어 쓰기를 강요해 왔는데 일기장을 압수한 경찰은 국어 즉 일본어를 썼다고 처벌하였다면 반일 사상을 품은 것이 틀림없다 하여 어느 선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추궁하였다. 이에 정태진 선생이 지목되었다. 그러나 정태진 선생은 이미 일 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에 와서 조선어학회에서 큰사전 편찬을 맡아보고 있었다.¹⁾

이렇게 하여 1942년 9월 5일 조선어학회에서 정태진 선생을 연행한 홍원경찰서는 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온갖 고문과 악형을 다하였다. 결국 강요에 못 이겨 정태진 선생은 그들의 요구대로 자술서를 썼다.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자 단체라는 조목을 포함하여 백여 가지 조목을 열거한 허위 자술서를 쓴 것이다. 이를 토대로 홍원경찰서는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수색하여 모든 서류와 서적은 물론 큰사전 원고까지 압수하였다. 이어서 1942년 10월 1일부터 사전 편찬에 직접 참여했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한 분을 검거한 것이다.

예심을 종결한 뒤, 1944년 12월 21일부터 1945년 1월 16일까지 9회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전 편찬하는 일이 어떻게 독립운동이 되느냐고 항변했으나 판사는 들은 체도 않고 예정대로 심리만 계속하였다. 1945년 1월 16일 제1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형량을 살펴보면, 이극로 징역 6년, 최현배 징역 4년, 이희승 징역 2년 6월, 정인승·정태진 징역 2년, 이인·김법린·이중화·이우식·김양수·김도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었다.

1)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 무렵까지 영생학교에 십수 년 동안 근무한 김상필 선생은 이 사건의 발단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 놓을 의무감을 느껴 1973년 11월 25일 당시 관련된 분들과 회합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 바 있다. 참여한 분은 김상필, 박병엽, 박영희, 최복녀이다. 최복녀는 박영희의 담임선생으로 문제의 일기장에 검인을 찍은 분이다(김상필 1999).

2.3. 말글 사랑 정신

정태진 선생의 말글에 대한 정신은 한글 사랑의 정신이며 이는 곧 나라 사랑의 정신이다. 그는 우리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한글을 사랑하였다. 말과 글은 한 민족의 피요, 생명이요, 혼이라고 말했다(‘말과 글을 피로써 지키자!’, 『한글』 13-2 : 36, 1948.,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10일). 그리고 말에는 겨레의 얼이 들어 있으니, 겨레의 말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겨레의 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였다(‘말을 사랑하는 마음’, 『홍대신문』 1952년 1월 15일).

선생의 삶은 유교의 선비 사상에 서양 사상이 덧입은 것이며, 유교의 선비 사상에 기독교의 희생정신이 더해진 것이라고 하였다(이응호 1999 : 34-). 유교 가정에서 자라나 경성고보를 다니며 과학적 신학문을 탐구하고, 연희전문과 미국 유학을 거치면서 기독교의 관용성을 몸에 익혔다. 그러한 정신이 곧 한글 사랑과 나라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다. 선생은 국어와 한글은 민족, 문화,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였다. 영생학교에서 교육하면서, 조선어학회에서 큰사전을 편찬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지니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그러했다. 이러한 바탕에서 이제 선생의 국어에 대한 정신, 한글에 대한 정신, 그리고 언어정책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국어에 대한 생각

먼저 국어에 대한 생각이다. 선생은 언어는 문화와 역사와 교육의 근본이라고 믿었다. 다음의 글에서 이를 분명히 하였다.

“만일 우리 인류에게 언어라는 아름다운 보배가 없었던들 오늘날 우리 인류가 가장 자랑하는 모든 문화는 움도 싹도 터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언어가 없는 곳에 국가가 어디 있으며, 언어가 없는 곳에 역사가 어디 있으며, 언어가 없는 곳에 교육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국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교육은 오직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처음으로 그 존재를 나타내고,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재건도상의 우리 국어’, 『한글』 11-2 : 23-28, 1946).

[2] 한글에 대한 생각

다음은 한글에 대한 생각이다. 한글에 대한 생각은 한자 안 쓰기 문제로 제시하였다. 선생은 『한자 안 쓰기 문제』(아문각, 1946)에서 한자 안 쓰기의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다. 선생은 우리 민족의 글자생활의 이상을 한글

만 쓰기로 보았으며, 그 방법론으로 점진적 한자 폐지를 위한 임시 한자 제한론을 제안하였다. 일정한 과도기를 설정하여 그 기간에는 한자 사용을 허용하되 범위, 글자 수, 어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한자 안 쓰기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한자 안 쓰기의 구체적인 설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 사용의 시기를 제한한다. 5~10년 동안만 한자를 사용하되, 3~4단계로 나누어 국어의 정리 보급, 고서의 번역출판, 학술어의 제정, 과학 서류의 간행 등을 추진한다. 둘째, 한자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셋째, 이중 표현 단어를 없앤다. ‘藥水물, 妻家스집, 梅花꽃’ 등이 그 예이다. 넷째, 한자 수를 제한한다. 2,000~1,500자로 제한하되, 사용 빈도가 낮은 것부터 그 수효를 점차 줄여서 나중에는 아주 없앤다. 다섯째, 자획을 제한한다. 즉 읽기와 쓰기의 능률을 위해 약자를 사용한다. 여섯째, 토박이말과 한자어가 동의 관계에 있을 때, 한자어 사용을 제한한다. ‘콩 : 大豆, 보리 : 大麥’ 등이 그 예이다. 일곱째, 일본식 한자어는 즉시 없애고 우리말 어휘로 고친다.

이와 같은 제안은 광복 직후에 한글학회가 전개한 한글만 쓰기 운동의 길잡이가 되었다. 한자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매우 합리적인 성과이다.

[3] 언어정책에 대한 생각

다음은 언어정책에 대한 생각이다. 선생은 언어정책론을 학문 분야로 확고하게 설정하였다. 언어학·국어학의 연구방법을 크게 순수 연구와 응용 연구로 나누고, 언어정책론을 응용 연구의 한 분야로 설정하였다(필사본 강의안 『언어학 개론』(『전집(하)』 299 및 『국어학 개론』(『전집(하)』 337).

언어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언어는 문화의 그릇이요, 사상의 거울이라고 어떤이는 말하였다. 그렇다! 언어가 아니면 우리의 문화를 무엇에 담으며, 언어가 아니면 우리의 사상은 무엇으로 나타내랴? 언어가 그릇일쥬대 우리는 이 그릇을 더욱더욱 아름답게 든든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며, 언어가 거울일쥬대 우리는 이 거울을 더욱더욱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선생은 당시 우리 말글 생활과 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부정적으로 진단하였다. “세상에 가장 어렵고 복잡하다는 중국 글짜를 배우느라고 비지땀을 흘리고 단잠을 자지 못하고 갖은 수고를 하여 오면서, 우리에게 고유한 아름다운 말과 글을 닦기에는 너무나 게을리하였던 까닭이다.” (‘재건도상의 우리 국어’, 『한글』 11-2 : 23-28, 1946). 그러한 현실을 발전

적으로 극복할 연구 분야로서 언어정책론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우리 말과 글을 힘있게 살리고 굳세게 복돋울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리끼리는 외국 말과 외국 글자를 절대로 쓰지 말자, 철저한 문맹 타파 운동을 일으키자, 한문으로 된 우리나라 고전을 순 한글로 번역하자, 각국의 모든 권위 있는 서적을 체계 있게 순 한글로 번역하자, 간판과 문패와 광고에 한글만을 쓰자(‘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 14-2 : 68-77, 1946).

3.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방언 연구

3.1. 정태진 선생의 학문

정태진 선생은 한글학회에서 큰사전을 편찬하면서도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다.²⁾ 선생의 학문 연구는 주시경 선생에게서 비롯된 조선어학회의 나라와 겨레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선생의 연구 성과는 저서로도 나타나 있지만, 주로 필사본 강의안에 담겨 있다. 강의안은 그 성격상 계속 고치고 내용을 더해 다듬어 가는 중이라서 완성된 성과물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다듬어 발전시켰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어 완성된 성과물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 점이 후학들에게는 무척 아쉬운 점이다.

선생의 연구 내용은 국어학 및 언어학 전반에 걸쳐 있다. 문법(소리갈, 씨갈, 월갈)은 물론, 방언과 옛말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방언과 옛말에 관심을 가진 것은 큰사전 편찬과 관련을 맺는다. 사전의 올림말, 뜻풀이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방언 연구, 옛말 연구를 중심으로 선생의 학문 업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3.2. 방언 연구

정태진 선생은 방언형을 큰사전에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방언에 많은

2) 이러한 논저들은 대부분 『전집(상)(하)』에 담겨 있다. 선생의 대표적인 저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받침 공부』(신성한글연구회, 1946), 『한자 안 쓰기 문제』(아문각, 1946), 『중등 국어 독본』(김원표 함께, 한글사, 1946), 『아름다운 강산』(신홍국어연구소, 1946), 『고어독본』(연학사, 1947), 『조선고어 방언사전』(김병제 함께, 일성당서점, 1948), 그리고 필사본 강의안 『말의 본』, 『우리말 연구』, 『우리말과 우리글』, 『옛말과 옛글』, 『언어학 개론』, 『국어학 개론』, 『국어 문법론』, 『방언학 개론』, 『방언 조사표』. 한편 기독교 책을 번역하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다. 『어떻게 살가?』(C. G. 화펠 지음, 대한기독교서회, 1951), 『성경 교안』(D. G. 반하우스 지음, 대한기독교서회, 1952).

관심을 가졌다. 선생은 1931년부터 20여 년간 방언 수집에 힘을 기울이었다. 방언형을 조사하여 『한글』지에 보고하였는데, 주로 방언의 음운 변화에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가 더 이어졌더라면 방언학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을 텐데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 그 결실을 보지 못하신 것이 아쉽다.³⁾

[1] 연구 방법과 필요성

선생은 방언이 옛말을 많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며, 우리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방언의 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며, 그 연구 방법은 철저하게 비교 연구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언어과학의 법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골말을 캐어 모으자’(『한글』 11-3 : 18, 1946)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모든 과학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한 가지의 일이나 물건을 다른 일이나 물건에 비교하여 그 다른 점을 안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비교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직각적으로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혹시 철학적 지식은 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으나, 객관적 구체적 경험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지식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언어과학에서 있어서, 만일 우리가 고대어와 현대어를 비교하여 연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말과 자매어를 비교하여 연구하지 아니하고, 표준말과 시골말을 비교하여 연구하지 아니한다면, 도저히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언어과학의 법칙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니, 이 점으로 보아 우리는 우리의 시골말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서, 우리 국어를 재건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조선고어방언사전』의 머리말에서도 현재 어떤 지방에서 쓰고 있는 사투리가 옛말 그대로임을 찾아낼 수도 있거니와, 또한 현재의 사투리에 의하여 옛말의 뜻을 바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방언과 표준말을 포함한 현대어와 고어와의 비교 연구에는 이러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말의 변천과 표준말의 보급에 따라 방언은 가속도로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조속한 방언 수집을 주장하였다.

3) 정태진 선생의 방언에 대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시골말을 캐어 모으자’, 『한글』 11-3:18-24, 1946. ‘시골말 캐기(제2회)’, 『한글』 12-1 : 53-61, 1947. ‘시골말 캐기(제3회)’, 『한글』 13-1 : 53-59, 1948. 『조선고어방언사전』(김병제 함께, 일성당서점, 1948), 필사본 강의안 『방언학 개론』, 『방언 조사표』. 그리고 『유고집(하)』 11-290에 실려 있는 ‘방언조사노트(1)(2).

당시 학문 경향인 역사언어학의 영향으로, 국어를 과학적 연구인, 내적 비교를 위하여 시골말 개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방언의 가치와 방언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속한 방언 수집을 주장한 것은 언어 변화 연구와 방언 연구를 위한 선구자적인 업적이라 하겠다.

[2] 연구 내용

방언 조사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시골말 개기를 살펴보면, 제1회 시골말 개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18개 단어를 12개 도별로 방언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병어리, 귀머거리, 대머리, 가을, 겨울, 새우, 달팽이, 무, 달걀, 흙, 팥, 오이, 고양이, 게, 가위, 턱, 아우, 냉이.

시골말 개기 제2회에서는 새롭게 20개를, 제3회에서도 새롭게 20개를 제시하였다. 필사본 강의안 『방언학 개론』에서는 방언학의 연구 대상을 다음과 같이 펼쳤다. 방언이란 무엇인가, 방언학의 발생, 방언과 표준어는 어떻게 다른가, 방언과 고어와의 관계, 방언과 자매어와의 관계, 방언과 외래어와의 관계, 방언과 인접어와의 관계, 방언에 나타난 음운변천상. 이들에 이어 모음 변화를 분류하고, 방언 어휘 형태를 통해 음운 변화를 밝히는 데에 집중하였다. 모든 어휘의 역사적인 분화 과정과 지리적 분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방언형을 역사를 추구한 것은 큰 성과이다.

『조선고어방언사전』은 고어부, 이두부, 방언부로 편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방언부’는 올림말 9400여 개를 음절 단위 자모 차례로 배열하고 표준어 대역을 달았다. 분포는 도별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가갓방(함남) : 가게(店)’, ‘가파서(경북) : 가꿔서(培)’ 등. 그러나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는 서로 말이 달라 강동과 강서로 나누었다. 방언학적으로 대단한 발견이라 하겠다.⁴⁾

『조선고어방언사전』의 ‘방언부’는 비록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선생이 방언의 가치와 방언의 조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국어 연구에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된 전국 규모의 최초 방언사전으로 그 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4) 한편 삼남지방 공동으로 쓰이는 것은 삼남(三南)이라 묶어 표시했으며 제주섬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지만 따로 분리해 표시하였다. 그리고 둘 이상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황평, 경충 등으로 제시하였다. 달팽이(삼남, 강, 함북) : 달팽이(蝸牛), 왜(제, 전남, 경충, 함강동) : 외(外).

3.3. 옛말 연구

[1] 연구방법과 필요성

정태진 선생은 『조선고어방언사전』 머리말에서 옛말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⁵⁾ “우리가 과거를 연구한다는 것은 다만 사라져 없어진 옛 자취를 본다는 것으로써 만족하는 것이 아님과 같이 옛말을 연구한다는 것도 옛말을 캐어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어와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는 것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어떤 지방에서 쓰고 있는 사투리가 옛말 그대로임을 찾아낼 수도 있거니와, 또한 현재의 사투리에 의하여 옛말의 뜻을 바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생의 옛말 연구방법은 철저하게 비교 연구로 일관한다. 그 까닭은 언어과학은 언어의 구체적, 경험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비교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생은 철저하게 옛말과 이젯말, 표준말과 시골말, 우리말과 자매어 등을 비교 연구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국어 연구에서 비교 연구방법은 선생의 연구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비록 선생의 옛말 연구는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옛말과 방언을 바탕으로 옛말의 토와 씨끝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2] 연구 내용

『조선고어방언사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어부, 이두부, 방언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 어미, 접미사(곰, 들), 어간(습) 등을 제시하였다. 2,939개 올림말을 음절 단위의 자모 차례로 배열하고 품사와 현대어 번역을 달았다.

‘우리말의 어원 (1)’(『전집(하)』 199-206)과 필사본 강의안 『우리말 연구』에서 51개 짝말에 대한 간단한 어원을 제시하였다. 형태 변화의 가설을 세우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원에 대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없다/가엽다’는 ‘가이 없다’와 같은 어원을 가진 것이고, ‘그림/글씨’도 ‘긋다’ 또는 ‘긋다’에서 어원을 찾았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방언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옛 모습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다리 가랑

5) 정태진 선생의 옛말에 대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중등 국어 독본』(김원표 함께, 한글사, 1946), 『고어독본』(연학사, 1947), 『조선고어방언사전』(김병제 함께, 일성당서점, 1948), 그리고 필사본 강의안 『우리말 연구』, 『옛말과 옛글』, 『방언학개론』, 『방언조사표』. 그리고 ‘우리말의 어원 (1)’, 교통부 교양지 『운수』의 한글강좌.

이’를 함경도에서는 ‘가다리’(함경)라 하는데, 이 말로 미루어 팔과 다리의 ‘다리’는 함경도 방언 ‘가다리’가 줄어서 된 것이 아닐까 하였다.

『중등 국어 독본』에는 고시조와 고어에 관한 자료들이 실려 있는데, 간략한 해설과 한글 중요 연대표가 실려 있다. 그리고 훈민정음 언해본과 한글 연구의 연혁도 붙여 두었다. 『고어독본』의 머리말에서는 우리의 옛말을 다시 찾아보려는 간절한 요구는 재건 과정에 있는 우리 문화선상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여 옛말 연구의 목적이 새로운 문화를 재건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필사본 강의안 『옛말과 옛글』에서는 옛말을 찾을 곳, 옛글에 나타난 옛말, 옛말과 현대말의 다른 점(소리, 낱말)을 다루었다.

4. 맺음말

석인 정태진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우리말 말살 정책에 항거하여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을 겪으면서도 우리말을 연구·교육하여 지켰으며, 광복 이후에도 계속하여 우리말의 연구와 보급에 큰 업적을 이루었다. 올해는 정태진 선생이 태어나신 지 120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뜻에서 정태진 선생의 우리 말글 사랑 정신 그리고 학문을 살펴보았다.

선생이 평생 지녔던 정신은 한글 사랑의 정신이며, 겨레 사랑의 정신이었다. 말과 글은 한민족의 피요, 생명이요, 혼이요, 말에는 겨레의 얼이 들어 있으니, 겨레의 말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겨레의 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였다. 또한 선생은 국어와 한글은 민족, 문화,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믿음을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교육하면서, 조선어학회에서 큰사전을 편찬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지니고 있었다.

선생의 연구 업적은 저서와 강의안, 논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강의안은 모두 직접 손으로 쓴 글인데, 더하고 지우고 여러 차례 고친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의안이 더 수정·보완되어 온전한 저서로 출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선생의 연구 내용은 국어학 전반에 걸쳐 있다. 말소리와 문법은 물론, 방언과 옛말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이는 큰사전 편찬의 올림말, 뜻풀이와 관련을 맺는다. 선생의 방언과 옛말 연구방법은 철저하게 비교 연구로 일관하였는데, 언어과학은 언어의 구체적, 경험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비교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믿었다.

이제 우리는 선생의 고귀한 우리말 사랑 정신과 선생의 학문 업적을 바

탕으로 오늘날 우리 말글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생의 삶과 학문을 바르게 계승하는 길이라 믿는다.

<참고 문헌>

- 권재일 1998, 정 태진 선생의 ‘국어 문법론’ 연구, 『한힌샘주시경연구』 10·11 : 93-110, 한글학회.
- 권재일 2022, 정태진 선생의 삶과 학문, 『애산학보』 49, 81-109, 애산학회
- 김상필 1999, 석인 선생과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 『나라사랑』 99 : 154-175, 외솔회.
- 김석득 1983,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 김영배 1998, 정 태진 선생의 방언 연구, 『한힌샘주시경연구』 10·11 : 111-144, 한글학회.
- 김영배 1999, 정태진 선생의 ‘시골말 캐기’와 방언 사전, 『나라사랑』 99: 133-153, 외솔회.
- 나주정씨월헌공파종회 1995/1996, 『석인 정 태진 전집(상)(하)』, 나주정씨월헌공파종회.
- 리의도 1998, 석인 정 태진의 말글 정책론에 대한 고찰, 『한힌샘주시경연구』 10·11 : 39-70, 한글학회.
- 서상규 1998, 석인 선생과 옛말 연구, 『새국어생활』 8-3 : 59-77, 국립국어연구원.
- 외솔회 1999, 흰메 정태진 선생 해적이, 『나라사랑』 99 : 18-20, 외솔회.
- 이강로 1998, 석인 선생과 사전 편찬, 『새국어생활』 8-3 : 107-124, 국립국어연구원.
- 이강로 1999, 정태진 선생과 “큰사전” 편찬, 『나라사랑』 99 : 48-63, 외솔회.
- 이광정 2003가, 석인 정태진 연구(1) - 방언과 어원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19 : 29-57, 한국어학회.
- 이광정 2003나, 석인 정태진 연구(2) - 국어학사, 국어교육, 문자정책을 중심으로, 『국어학 연구의 점과 선』 345-382, 한국문화사.
- 이광정 2003다, 석인 정태진 연구(3) - 음운, 문법, 언어일반, 우리 어문사랑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2 : 297-338, 한국어교육학회.
- 이남순 1998, 석인 선생과 문법, 『새국어생활』 8-3 : 23-42, 국립국어연구원.
- 이병근 1998, 석인 정태진과 방언 연구, 『새국어생활』 8-3 : 43-57, 국립국어연구원.
- 이준식 2016, 정태진의 한글운동론과 조선어학회 활동: 연희전문학교 학풍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73 : 75-10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이응호 1998가, 정 태진과 조선어 학회 사건, 『한힌샘주시경연구』 10·11 : 3-38, 한글학회.
- 이응호 1998나, 석인 선생과 조선어학회 사건, 『새국어생활』 8-3 : 79-105, 국립국어연구원.
- 이응호 1999, 석인 정태진 선생의 삶과 정신, 『나라사랑』 99 : 21-47, 외솔회.

- 이현복 1998, 석인 정 태진 선생의 말소리에 관한 연구, 『한힌샘주시경연구』 10·11 : 71-92, 한글학회.
- 임용기 1998, 석인 정 태진 선생의 옛말 연구, 『한힌샘주시경연구』 10·11 : 145-188, 한글학회.
- 임용기 1999, 석인 정태진 선생의 옛말 연구, 『나라사랑』 99 : 89-132, 외솔회.
- 장세경 1998, 석인 정태진의 생애와 학문, 『새국어생활』 8-3 : 5-22, 국립국어연구원.
- 장세경 1999, 정태진 선생의 학문 세계, 『나라사랑』 99 : 64-88, 외솔회.
- 정태진선생기념사업회 2007/2008, 『석인 정태진 유고집(상)(하)』, 도서출판 민지사.
- 정해동 1996, 아버님을 생각하며, 『석인 정 태진 전집(하)』 617-620, 나주정씨월헌공파종회.
- 정해동 1998, 나의 아버지 석인 정태진, 『새국어생활』 8-3 : 125-134, 국립국어연구원.
- 정해동 1999, 선친과 그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라사랑』 99 : 176-184, 외솔회.
- 한글학회 1998, 석인 정 태진 선생 해적이, 『한힌샘주시경연구』 10·11 : 7-8, 한글학회.
- 한글학회 2009,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2009년 8월 30일판].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 발표 자료집

2023년 5월 9일 박음
2023년 5월 12일 펴냄

엮고 펴낸 이: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 (0317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전화: 02)738-2236~9.
전송: 02)738-2238.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

등록한 날: 1955. 2. 14.
등록 번호: 제1-440호.

* 이 책은 팔지 않음 *
